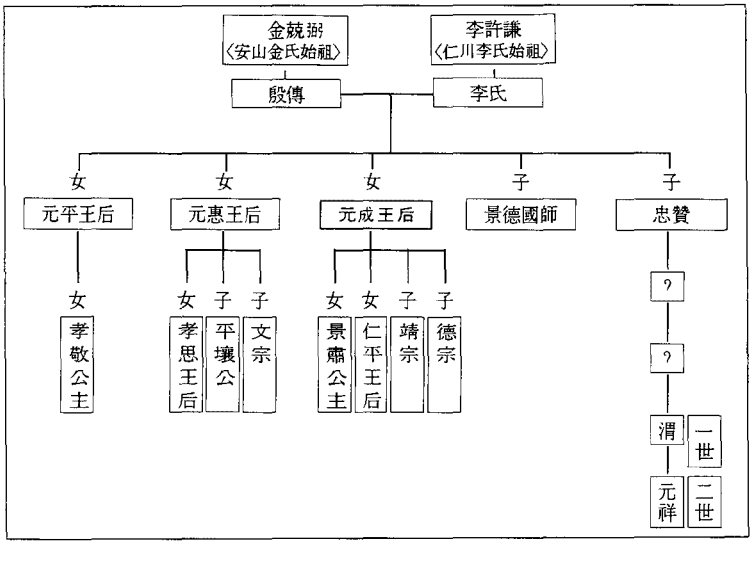
Ⅲ 人物과 行蹟

1. 光復以前의 人物

1) 王 族

(1) 원성왕후(元成王后) : ?~현종 19년(1028)



원성왕후 세계표.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의 제3비. 덕종과 정종의 어머니,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이다.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호부상서(戶部尙書) 은부(殷傅)의 딸이며, 어머니는 인천 이씨 시조인 이허겸(李許謙)의 딸이다.

현종 2년(1011)에 거란병이 내침하자 임금이 남행(南幸)하여 나주로 피난하였다가, 적병이 물러간 후에 왕궁으로 귀환하던 중 공주에 묵게 되

었다.

이때 공주 절도사인 은부가 임금을 영접하고 그 딸로 하여금 어의(御衣)를 지어드리게 하고 편안히 모시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맞아들여 연경원주(延慶院主)로 삼았다. 덕종(德宗)을 낳은 뒤 궁주(宮主)가 되고 얼마 뒤에 왕비에 봉하여졌다.

한편, 왕비의 두 자매(元惠王后, 元平王后)가 함께 한 임금의 왕비가 된 예는 이것이 최초이며, 광종 때 왕실족내혼이 이루어진 이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다. 현종과의 사이에 덕종, 정종의 두 아들과 인평왕후(仁平王后)와 경숙공주(景肅公主)를 두었다.

시호는 원성왕후이고, 명릉(明陵)에 장사하였으며 현종 묘실에 합장하였다. 뒤에 용의(容懿)·공혜(恭惠), 문종 10년(1056)에 영목(英穆), 뒤에 양덕(良德)·신절(信節)·순성(順聖), 인종 18년(1140)에 자성(慈聖), 고종 40년(1253)에 광선(廣宣)의 시호가 거듭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安養文化』 2,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高麗閥族에 關한 硏究」.

(2) 원혜왕후(元惠王后)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의 제4비.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문종의 어머니이며 원성왕후와 원평왕후는 자매간이다.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으로, 아버지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은부(殷傅)이며 어머니는 인천 이씨 시조인 이허겸(李許謙)의 딸이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하였던 현종이 왕궁으로 귀환 도중 공주에 들렀을 때 납비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왕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혼인이 귀족가문으로 확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현종과의 사이에 문종(제11대), 평양공 기(平壤公 基), 효사왕후(孝思王后)를 낳았다. 문종은 이후 그의 후손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었고, 평양공 기의 후손은 대대로 왕실 공주와 계속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집안으로 고정되었다. 처음에 안복궁주(安福宮主)라 했다가 연덕(延德)으로 개칭하였고, 사후에 원혜(元惠)의 시호가 추증되었다.

능호는 회릉(懷陵)이다. 현종 16년(1025)에 왕비로 추봉되고 현종 18년(1027)에 평경(平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문종이 즉위한 뒤에 태후(太后)로 추존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安養文化』 2,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高麗閥族에 關한 硏究」.

(3) 원평왕후(元平王后)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의 제7비.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이다. 아버지는 호부상서(戶部尙書) 김은부(金殷傅)이고, 어머니는 인천 이씨 시조인 이허겸(李許謙)의 딸이다.

그리고 현종의 제3비 원성왕후와 제4비 원혜왕후와는 자매간이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까지 피난하였던 현종이 왕궁으로 귀환하던 도중 공주지방에 들렀을 때 납비된 언니들을 따라 왕비가 되었다. 현종과의 사이에 효경공주(孝敬公主)를 낳았다.

현종 19년(1028)에 원평왕후(元平王后)로 추증되었으며, 능호는 의릉(宜陵)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安養文化』 2,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덕종(德宗) : 현종 7년(1016)~덕종 3년(1034)

고려 제9대 임금(재위 1031~1034).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으로, 이름은 흠(欽), 자는 원량(元良)이다. 현종의 1남으로 어머니는 원성왕후(元成王后) 김씨(金氏)이고 비는 현종의 딸 경성왕후(敬成王后)와 효사왕후(孝思王后), 그리고 왕가도(王可道)의 딸 경목현비(敬穆賢妃)이다.

현종 11년(1020)에 연경군(延慶君)에 봉해진 뒤 현종 13년(1022)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현종 22년(1031)에 중광전(重廣殿)에서 즉위하였다. 이해 강감찬(姜邯贊)이 죽자 현종 묘정에 배향하였으며, 처음으로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설치하고 육운십운시(六韻十韻詩)로 시험하여 합격자를 냈으며, 입춘 뒤의 벌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덕종 1년(1032)에 거란의 사신이 내원성(來遠城)에 오자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삭주(朔州), 영인진(寧仁鎭), 파천(派川)에 성을 쌓았다. 이에 앞서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압록강의 성교(城橋)를 헐고 억류된 우리 사신의 송환을 청한 바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정사(賀正使)의 파견을 중지하는 등 거란과의 관계가 미묘해졌다. 그 해 임금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하던 것을 응천절(應天節)으로 고쳤다. 또 왕가도를 감수국사(監修國史), 황주량(黃周亮)을 수국사(修國史)로 삼아 현종 때 착수한 국사편찬사업을 완성하였다. 덕종 2년(1033)에 평장사(平章事) 류소(柳韶)로

하여금 압록강 어귀에서 서북면(西北面)의 위원(威遠)·정주(靜州)·운주(雲州)·안수(安水)·청색(淸塞)·영원(寧遠)·맹주(孟州)·삭주(朔州) 등의 13성(城)과 동북면(東北面)의 요덕(耀德)·정변(靜邊)·화주(和州) 등의 3성을 연결하여 동해 도련포(都連浦)에 이르는 관성(關城)을 쌓게 하였는데, 1천여 리가 되는 석성(石城)으로 높이와 두께가 각각 25척이 되었다. 이어 덕종 3년(1034) 양반 및 군·한인(軍閑人)의 전시과(田柴科)를 개정하였다. 그 해 아우 평양군(平壤君, 제10대 정종)에게 양위하였다.

시호는 경강(敬康)이고, 능은 숙릉(肅陵)으로 경기도 개성에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安養文化』 2,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정종(靖宗) : 현종 9년(1018)~정종 12년(1046)

고려의 제10대 임금(재위 1034~1046).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으로, 이름은 형(亨), 자는 신조(申照)이다. 현종의 2남으로 덕종의 아우이며 어머니는 원성왕후(元成王后) 김씨이고, 비(妃)는 용신왕후(容信王后) 한씨, 용목왕후(容穆王后) 이씨, 용의왕후(容懿王后) 한씨이다.

현종 13년(1022)에 내사령 평양군(內史令平壤君)에 봉해졌고, 현종 18년(1027)에 개부의동삼사검교태사 겸 내사령(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兼內史令)이 되었으며, 덕종 3년(1034)에 왕위에 올랐다. 이 해 12월에 팔관회를 열어 송나라 등 외국상인들에게도 예식을 관람시키는 상례를 만들고, 정종 2년(1035)에 서북로(西北路)에 장성을 쌓아 변방의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지금의 평북 창성(昌城)에 성을 쌓아 창주(昌州)라 이름하여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듬해 제위군(諸衛軍)에게 토지를 더 지급하여 변경의 방비를 굳게 하였으며, 이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수리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주었다. 정종 4년(1037) 압록강 일원에서 거란의 침입을 받아 이듬해부터 거란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책봉을 받았다. 정종 6년(1039)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을 제정하였으며, 정종 10년(1044) 덕종의 유업인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완성시켰다. 정종 11년(1045) 서적 출판에 힘써 비서성(秘書省)의 주관으로 『예기정의(禮記正義)』, 『모시정의(毛詩正義)』 등을 간행케 했을 뿐만 아니라 악공(樂工)과 잡류(雜類)들의 자손들이 과거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어 장자상속법(長子相續法)을 제정하였다. 또 불교의식인 경행(經行)을 실시하였으며, 임진강에 부교(浮橋)를 놓게 하였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형(詗), 방(昉),

경(璥), 개(暟)이다. 병으로 위독하자 아우 휘(徽, 문종)로 하여금 국정을 맡게 하였다.

성격이 너그럽고 어질고 효우(孝友)한데다 학식과 도량이 크고 넓으며 영특하고 과감하였다. 거란과 다시 화친하여 나라가 태평하였으며 유명으로 능침을 검소하게 하였다.

시호는 용혜(容惠)이고, 능(陵)은 개성에 있는 주릉(周陵)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史綱目』, 『韓國人名大事典』, 『安養文化』 2,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문종(文宗) : 현종 10년(1019)~문종 37년(1083)

고려 제11대 임금(재위 1046~1083).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으로, 이름은 휘(徽), 자는 촉유(燭幽)이다. 현종의 3남이며, 어머니는 원혜왕후(元惠王后) 김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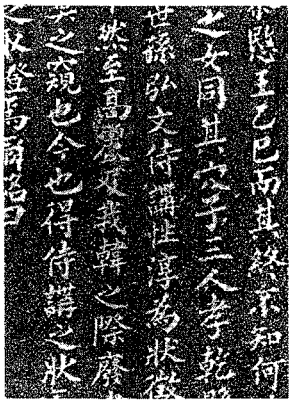
현종 13년(1022) 낙랑군(樂浪君)에 봉해졌고, 정종 3년(1037) 내사령(內史令)에 책봉되었다. 재위 37년간에 고려의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되었는데, 흔히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일컫는다. 문종 1년(1047) 시중 최충(崔冲)에 명하여 법률가들을 모아 종래의 율령(律令), 서찬(書纂)에 대하여 상세한 고정(考定)을 가하여 고려의 형법(刑法)이 크게 정비되었고, 문종 3년(1049)에는 5품 이상의 고급 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여 양반 신분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정하고, 이듬해에는 재면법(災免法)을 마련하고, 또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보충하였다. 문종 8년(1054), 해마다 경작하는 불역지지(不易之地)를 상전(上田)으로 하고, 1년 쉬고 1년 경작하는 재역지지(再易之地)를 하전(下田)으로 하는 3등급의 전품제(田品制)가 마련되었는데, 이 전품제가 산전(山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산전·평전(平田)에 고루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이 구구하다. 문종 16년(1062)에는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을 마련해서 죄수의 신문(訊問)에는 반드시 형관(刑官) 세 명 이상을 입회하게 하여 범죄의 조사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국자감 제생(諸生)의 고교법(考校法)을 제정하여 학생의 재학 연한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유생(儒生)의 재학기간은 9년, 율생(律生)의 재학기간은 6년으로 제한해서 자질이 부족하여 재학기간 중에 학업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켰다.

문종 23년(1069)에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이 규정되어 결(結)의 면적

이 확정되었다. 특히 이 해에 경기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전의 13현이 네 배로 늘어나 50여 현으로 팽창되었는데, 이러한 경기의 확대는 종래 양반 전시과의 개편을 앞두고 양반의 전시지(田柴地)를 왕경(王京)의 주변인 경기의 땅 안에서 확정 지급하기 위한 조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양반에 지급된 과전(科田)은 경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도(下道) 전역에 걸쳐 지급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유력시되어 있으므로, 경기확대의 이유와 동기는 앞으로 다른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4년, 6년, 18년, 22년, 27년에 각 변방에서 동여진(東女眞)의 침구를 보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문종은 고려 전기의 문물제도가 완비되는 문화적 융성기를 상징하는 영매한 국왕이었다. 묘는 장단군 송서면 경능리(경능)에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安山郡邑誌』, 『高麗時代史』, 『安養文化』 2,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미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王亹墓碣銘』.

(7) 왕미(王亹) : 공민왕 14년(1365)~?

고려시대의 왕족. 본관은 개성(開城)이다. 고려 태조의 아들인 동양군(東陽君) 원(垣)의 후손으로 중랑장(中郎將) 규질(圭質)의 아들이다.

교서감(校書監)을 지내고 제용감정(濟用監正)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114 구준물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김택영이 찬(撰)했고, 글씨는 윤용구가 썼다.

왕미의 묘는 조선 고종 말까지 실전되었다가, 묘하에 살던 당가(唐哥)가 석물과 봉분을 없애고 유장(偸葬)했던 것을 인척인 안동 권씨가 지석을 찾아 개성 왕씨 문중에게 알림으로써, 선인들께서 심득하여 개·봉축하고 비를 세웠으며 석의(石儀)를 갖추어 놓았다.

(8) 영응대군(永膺大君) : 세종 16년(1434)~세조 13년(1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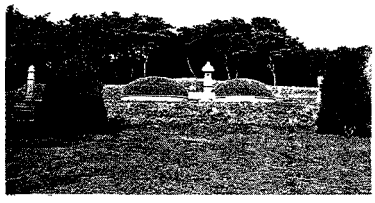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왕자. 자는 명지(明之), 호는 서곡(西谷)이다. 세종의 제8남으로 서울 견지방(堅志坊)에서 출생했다.

세종 23년(1441) 영흥대군(永興大君), 이어 세종 25년(1443) 역양대군(歷陽大君)에 봉해졌다가 세종 29년(1447) 영응대군(永膺大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얼굴이 수려하고 품성이 총영(聰穎)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종이 행행(行幸)할 때에도 반드시 데리고 다녔으며, 궐내에서도 잠시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각별히 자애하였다. 그가 5세 때 세종이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인형(人形)을 새긴 영등(影燈)을 만들어 주었는데 불꽃이 인형에 옮겨붙어 곧 타버리게 되자 놀라며 빨리 끄라고 외쳤다. 이에 세종이 그 연유를 묻자 "사람이 상할까 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세종이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마음가짐 또한 침정(沈靜)하고 예를 지킴이 공근(恭謹)하여 어른에게 경순(敬順)하고 인족(姻族)을 친애하였으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 항상 화기(和氣)가 충만하였다. 학문에 정진하여 세조 9년(1463) 『명황계감(明皇誡鑑)』의 가사를 번역하였으며, 또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조수(鳥獸)와 화초(花草)에 능했다. 더욱이 노복들이 허물이 있어도 성을 내어 꾸짖는 일이 없을 만큼 인후한 군자와 같았으나, 불행하게도 하늘이 수(壽)를 주지 않아 34세로 죽었다. 시호는 경효(敬孝)이다.

묘는 본래 양주군 군장리(楊州郡 郡場里)에 있었는데, 광무 4년(1900) 9월 17일에 시흥시 군자동 산 70으로 이장되었다. 그리고 묘와 신도비는 1988년 5월 31일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으며, 연산군 4년(1498)에 세워진 신도비의 비문은 예문관홍문관직제학(藝文館弘文館直提學) 임사홍(任士洪)이 찬(撰)하고, 기위부사정(騎衛副司正) 박경(朴耕)이 글씨를 썼다. 또 신도비의 비신은 높이가 1.45m, 폭 84cm, 두께 21cm에 이른다.

태실은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선석사(禪石寺) 앞산에 있다.



영응대군 묘.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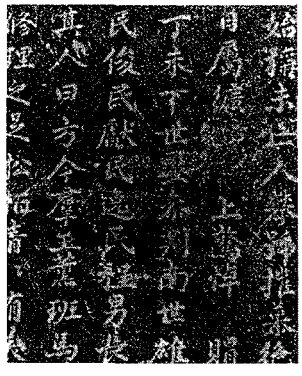
<참고문헌> 『世宗實錄』, 『世祖實錄』, 『京畿金石大觀』,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永膺大君神道碑銘」. 『始興金石總覽』.

(9) 윤섭(尹燮) : 성종 23년(1492)~중종 11년(1516)

조선시대의 부마(駙馬). 자는 화숙(和叔),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사복사정(司僕寺正) 승유(承柳)의 아들이다.

연산군 9년(1503) 성종의 딸인 정숙옹주(靜淑翁主)와 결혼하고 순의대부(順義大夫)에 올라 영평위(鈴平尉)에 봉해졌다. 중종조에 공신훈(功臣勳)에 오르고 정덕대부(靖德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윤섭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百世同覽』, 『始興郡誌』 上, 「尹燮墓碑銘」.

(10) 정숙옹주(靜淑翁主) : 성종 24년(1493)~선조 6년(1573)

조선시대의 옹주. 성종의 딸로 숙의(淑儀) 홍씨(洪氏)의 소생이다. 연산군 9년(1503) 영평위(鈴平尉) 윤섭(尹燮)에게 출가했다. 중종 11년(1516) 남편과 사별 후 윤지함(尹之諴)을 양자로 삼았으나 명종 2년(1547)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百世同覽』,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靜淑翁主墓誌銘」.

(11) 정안옹주(貞安翁主) : 선조 23년(1590)~현종 1년(1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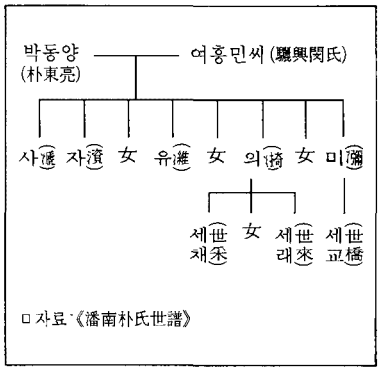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옹주. 선조의 제5녀로 인빈(仁嬪) 김씨의 소생이다.

성품이 온혜(溫惠)하고 장숙(莊肅)하였으며, 선조 36년(1603) 박미(朴瀰)와 결혼한 후에는 어른을 지극히 섬기고, 동서를 대할 때에는 늘 귀교(貴嬌)한 태도가 없었다. 지아비가 사망한 후 16년간을 가난하게 지내자 효종이 그의 외아들 세교(世橋)에게 특별히 군수(郡守)로 제수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편케 하였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金石總覽』, 『潘南朴氏世譜』, 「朴瀰神道碑銘」.

(12) 박미(朴瀰) : 선조 25년(1592)~인조 23년(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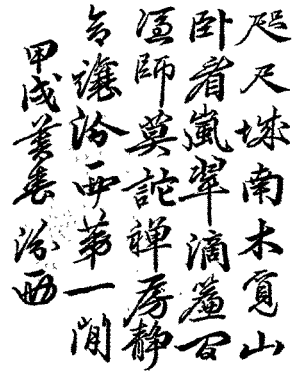
박미 가계표.

조선시대의 부마·문신. 자는 중연(仲淵), 호는 분서(汾西),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아버지는 참찬(參贊) 동량(東亮)이며, 어머니는 승지(承旨) 민선(閔善)의 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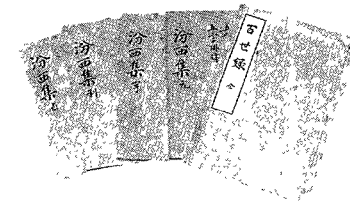
선조의 부마로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이다. 선조 36년(1603) 선조의 5녀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혼인하여 금양위(錦陽尉)에 봉해졌고, 선조 38년(1605) 친공신적장자(親功臣嫡長子)의 자격으로 2계(二階)를 초자(超資) 받아 숭덕대부(崇德大夫)에 올랐으나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그 후 광해군 5년(1613) 폐모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국구인 김제남(金悌男)과 친교가 깊다하여 화를 입었다. 김류(金瑬) 등과 함께 10사(十邪)로 불리면서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인조반정 뒤 인조 3년(1625) 회맹공신(會盟功臣) 책봉 때에 구공신적장자(舊功臣嫡長子)로 가자(加資)되었으며,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에 서용되었다. 인조 16년(1638) 동지 겸 성절사

(冬至兼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금양군(錦陽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그는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항상 뜻을 어기지 않았고, 궁중에 드나들 때는 화사한 곳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으며, 그의 가택(家宅), 의복(衣服), 거마(車馬)는 빈한한 선비와 다름이 없었다. 일찍이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오랑캐의 조정에 가서는 명결(明潔)로 자신을 지켜서 그들로부터 예경(禮敬)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문예(文藝)에 능하여 6세에 「잔 속에 꽃을 그리니, 술 또한 향기롭다」라는 시를 지었고, 11세 때에는 재능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장성해서는 진한(秦漢), 당송(唐宋)의 글들을 섭렵하였는데, 서법(書法)은 중국의 오흥(吳興)을 따랐으며, 필력이 힘차서 스스로 오문한 필체를 개척하였다. 문장이 당대 일가를 이루었으며, 기억력이 남보다 뛰어났고, 백가서(百家書)를 관통하여 의존이 해박하였다. 또 남들은 읽지 못하는 이서(異書), 벽사(僻辭)에도 능통하였다. 친구로는 장유(張維), 정홍명(鄭弘溟) 등이 있는데, 문장뿐만 아니라 지업(志業)과 행의(行誼)로써 상호간 연마하여 늘그막에 이르도록 변치 않았다. 현재 「참판박이서비(參判朴彝敍碑)」, 「영흥부사이수준갈(永興府使李壽俊碣)」 등의 유필이 있으며, 저서에 『분서집(汾西集)』이 있다.



박미 필적.



분서집(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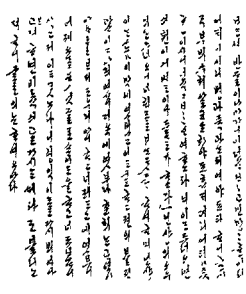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 아버지 묘 아래에 있고, 신도비는 영조 1년(1725)에 세워졌는데, 묘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아버지(박동량)의 신도비와 함께 서 있으며, 신도비의 비신은 높이 2.1m, 폭 88cm, 두께 34cm이다. 행장(行狀)은 조카 세채(世采)가 지었고, 신도비의 비문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했고, 글씨는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이의현(李宜顯)이 썼으며,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전자(篆字)했다.

1993년 10월 24일 반남 박씨 오창공파종중(도유사 박찬기)에 의해 신도비각과 사적비가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宣祖實錄』,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汾西集』, 『百世錄』,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朴彌神道碑銘」.

(13) 인선왕후(仁宣王后) : 광해군 10년(1618)~현종 15년(1674)

조선시대의 왕비. 성은 장(張), 본관은 덕수(德水)로 시흥시 장곡동 안골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우의정(右議政) 유(維)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인선왕후 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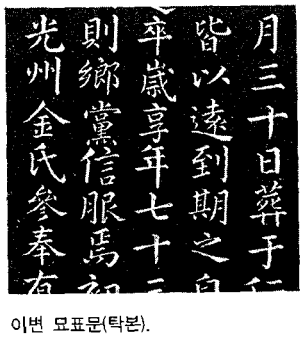
인조 8년(1630) 봉림대군(鳳林大君)의 부인으로 간택되어 다음해에 가례(嘉禮)를 올리고,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으로 봉해졌다. 병자호란 뒤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이 심양(瀋陽)에 인질로 갈 때 따라가 8년간이나 머물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하였다.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므로 세자빈이 되었으나, 책봉을 제때 받지 못하여 사저(私邸)에서 왕자를 낳게 되었다. 그 뒤 책봉되어 인조 27년(1649) 효종(孝宗)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고, 2년 뒤 정식으로 책명을 받았다.

현종 2년(1662) 효숙(孝肅)의 존호를 받아 왕대비(王大妃)로 있다가 현종 15년(1674) 질병을 얻어 오래 신고하다 희상전(會祥殿)에서 죽었다. 이때 그녀의 시어머니인 인조비(仁祖妃) 조대비(趙大妃)가 어떤 복(服)을 입느냐 하는 예송(禮訟)이 일어나, 기년복(朞年服), 대공복(大功服)을 둘러싸고 송시열(宋時烈)과 윤휴(尹鑴)의 대립이 크게 일어났다.

그녀의 70건의 한글편지가 남아 있다.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일반생활의 안부이지만, 무대가 궁중과 사대부가의 사연이므로 궁중풍속, 정치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글편지뿐만 아니라 국문학관계, 특히 중국소설 언해(諺解)를 다독한 흔적이 있어 중국소설의 언해시기, 독자상황, 부녀자와 국문소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며, 그녀의 필적을 통해서 한글 서체(書體)를 감안할 때 효빈체(效嚬體)에서 궁체(宮體)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나 궁체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 조선 중기 여인들의 언간(諺簡)과 더불어 그녀의 언간은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

소생은 1남 5녀로 현종(顯宗), 숙안(淑安), 숙명(淑明), 숙휘(淑徽), 숙정(淑靜), 숙경(淑敬) 등 공주이다. 휘호는 경렬명헌(敬烈明獻)이며, 능은 여주의 영릉(寧陵)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李朝御筆諺簡集』,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변 묘표문(탁본).

(14) 이변(李昇) : 숙종 17년(1691)~영조 39년(1763)

조선시대의 왕족. 자는 계휘(季輝), 호는 백무와(百無窩), 본관은 전주이다. 태종의 손자인 수천군(秀泉君) 정은(貞恩)의 8세손으로 진사(進士) 동형(東馨)의 아들이나 임실현감(任實縣監) 동익(東益)의 양자이다.

문한(文翰)에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오직 학문에 전념했다.

묘는 시흥시 포동 새우개 학미산 아래에 있고, 묘표(墓表)의 비문은 손(孫) 이철환(李喆煥)이 찬(撰)하고, 글씨는 증손(曾孫) 이시선(李時善)이 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全州李氏益寧君派譜』, 『蓮城姓譜』, 「李昇墓表銘」.

(15) 이설(李楔) : 숙종 37년(1711)~정조 11년(1787)

조선시대의 왕족. 자는 여묵(汝默), 호는 석암(石庵), 본관은 전주(全州)로 선조의 제8남인 인성군(仁城君)의 증손이며, 한산군(韓山君) 오(澳)의 아들이다.

영조 2년(1726)에 은계군(銀溪君)에 봉해지고 품계는 명선대부(明善大夫)에 이르렀다. 봉분은 흩무덤으로 부인 고령(高靈) 신씨와 합장하였다. 묘역에는 석물을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덤이 자리한 지세가 학이 날개를 편 형상인데, 석물을 쓰면 학의 날개에 돌을 매단 형태로 되어 운(運)이 없으리라는 염려 때문이라고 한다.

묘는 시흥시 계수동 산 136에 있다.



이설(은계군) 묘.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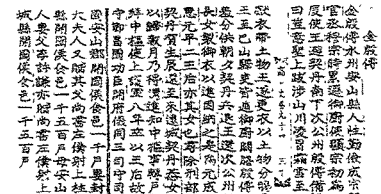
<참고문헌> 『서울 外廓循環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璿系仁城君派續譜』 下.

2) 功 臣

(1) 김은부(金殷傅) : ?~현종 8년(1017)

고려시대의 문신.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이다. 안산(安山) 김씨 시조 긍필(兢弼, 또는 肯弼)의 아들이며 부인은 인천(仁川) 이씨 시조 이허겸(李許謙)의 딸이다.

성종 때 견관승(甄官丞), 목종 때 어주사(御廚使)를 거쳐 현종 초에 공주절도사(公州節度使)가 되었다. 현종 2년(1011)에 현종이 거란의 침입으로 남행(南幸)하여 공주에 이르자 극진히 대접했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갔다가 다시 공주에 돌아오자 장녀로 하여금 어의(御衣)를 지어 바치게 하여 왕비가 되었는데, 이가 곧 원성왕후(元成王后)이다. 뒤에 다시 두 딸을 왕비로 바치니 원혜왕후(元惠王后)와 원평왕후(元平王后)이다. 이후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거란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원성(來遠城)에서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인에게 붙잡혔다가 수개월 만에 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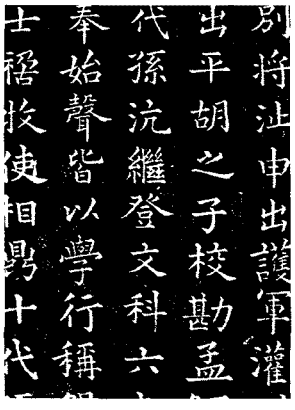
『高麗史』 김은부전.

현종 6년(1015) 지중추사(知中樞事), 이듬해 호부상서(戶部尙書)가 되었다가, 뒤이어 중추사상호군(中樞使上護軍)에 제수되었다. 즉위 뒤 왕후를 배출한 인연으로 '추충수절창국공신개부의동삼사수사공상주국안산군개국후(推忠守節昌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司空上柱國安山郡開國候)'에 추증되었고, 처(妻)도 안산군대부인(安山郡大夫人)에 피봉되었다.

묘는 실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韓國人名大事典』, 『安養文化』 2, 『安山金氏族譜』,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김정경(金定卿) : 충목왕 1년(1345)~세종 1년(1419)



김정경 신도비문(탁본).

조선시대의 공신.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시흥시 수암동 출신이다. 수암동 안산관아 뒤에서 우거했다. 진주목사(晉州牧使) 성경(星慶)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군부사총랑(軍簿司摠郞)을 역임하고 새 왕조(조선)가 들어서자 이성계(李成桂)를 지지하였다. 조선개국 후 태조 때 원종공신훈(原從功臣勳)에 올랐으며 삼군절도사를 지냈다. 이조전서(吏曹典書)에 재임 중 인사관리를 잘했으며, 태조 5년(1396)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가 되어 전라도와 충청도 각지의 성(城)을 수축하고 군비를 점검하는 한편 병선(兵船)의 허실을 조사하였다.

정종 2년(1400)에 방간(芳幹)의 난(박포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윤으로서 방원(芳遠, 태종)에 협력하여 이를 진압,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졌다. 그 뒤 공안부윤(恭安府尹)이 되었는데 병을 핑계로 명나라의 사행을 회피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태종 4년(1404)에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 태종 8년(1408)에 개성부유후(開城府留後)를 역임하고, 이어 태종 10년(1410)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용맹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병으로 눕게 되자 임금(세종)이 태의(太醫)와 내시(內侍)를 보내 진료, 위문토록 하였고, 노루의 간(肝)을 내려 주었으나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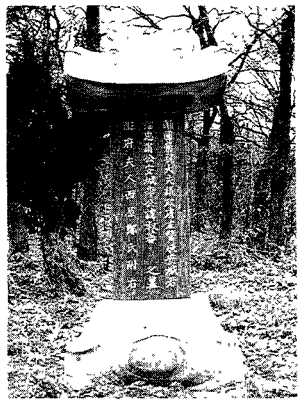
시호는 위정(威靖)이고, 묘와 재실(위정사)은 하남시 감북동에 있고, 묘표(墓表)는 이재(李縡)가 찬(撰)했으며, 철종 14년(1863)에 세운 신도비는 예조판서(禮曹判書) 신석우(申錫愚)가 찬하고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홍현주(洪顯周)가 서(書)와 전(篆)했는데,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8m, 폭 58cm, 두께 31cm이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安山世碣』, 『國朝人物考』,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始興金石總覽』, 「金定卿神道碑銘」, 「金定卿墓表銘」.

(3) 이숙번(李叔蕃) : 공민왕 22년(1373)~세종 22년(1440)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백응(伯應), 호는 예정(藝亭), 본관은 안성(安城)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 경(坰)의 아들이다.

태조 2년(1393) 춘장시(春場試)에 병과(丙科) 7등으로 급제하여 태조 7년(1398)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있으면서 방원(芳遠, 태종)을 도와 사병을 출동시켜 세자 방석(芳碩)과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으며,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다.


이숙번 묘비. 1994.

그 뒤 방원의 측근이 되어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방원에게 "공(公, 방원)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을 뿐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정종 1년(1399)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고, 이듬해 초에 박포(朴苞)가 방원과 반목 중이던 방간(芳幹)을 충동하여 거병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제거하였다. 이어 좌군총제(左軍摠制)가 되고,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 되었다.

태종 2년(1402)에 새로 설치한 내갑사(內甲士)의 좌번(左番)책임자가 되고 지승추부사(知承樞府事)가 되었다. 이 해 말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가 반란을 일으키자 도진무가 되어 좌도도통사와 함께 출정하여 진압하였다. 이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고, 태종 5년(1405) 지공거(知貢擧)에 선임되었다. 이듬해에 겸중군총제(兼中軍摠制), 겸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가 되고, 태종 7년(1407) 겸충좌시위사상호군(兼忠佐侍衛司上護軍), 겸의흥시위사상호군(兼義興侍衛司上護軍) 등을 역임하였다.

태종 8년(1408) 십사상호군(十司上護軍)이 폐지되자 겸중군도총제(兼中軍都摠制)가 되었고, 이듬해에 동북면절제사가 되었다. 이어 참찬의정부사, 겸지의흥부사를 거쳐 태종 12년(1412) 말에는 종1품에 승진되었다. 태종 13년(1413)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고, 이듬해 의정부찬성사가 되었다. 그 후 의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 좌참찬, 찬성이 되었다.

태종 14년(1414) 지춘추관사로서 영춘추관사 하륜(河崙) 등과 함께 『고려사』 중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고쳐서 바로잡도록 명을 받았고, 이듬해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원래 성품이 과격한데다가 자신

의 공과 태종의 총애를 믿고 거만방자하여 임금에게 불충하고 동료들에게 무례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간의 탄핵을 받아 나중에는 관작을 삭탈당하고 태종 17년(1417) 경상도 함양에 유배되었다. 그 후 세종 때 『용비어천가』를 짓게 되자 선왕 때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하여 서울에 불려 와서 편찬을 도왔으나 편찬이 끝난 뒤 다시 유배지에 보내져 그곳에서 사망했다.

<참고문헌> 『太宗·世宗實錄』, 『海東雜錄』,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安城李氏世譜』, 「李叔蕃墓碑銘」.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며,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산 71 골월에 있다.

(4) 이중번(李仲蕃) : 우왕 2년(1376)~세종 4년(1432)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미중(美仲), 호는 우정(芋亭)이다.

태조 7년(1398)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이 해 형 숙번(叔蕃)과 더불어 정도전(鄭道傳) 등을 축출하여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오르고, 이어 정종 2년(1400)에도 형과 함께 방원(芳遠, 태종)이 방간(芳幹)을 축출할 때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다.

이어 삼조(三曹)의 좌랑(佐郎)을 거쳐 순흥(順興)의 수령으로 있을 때 선치(善治)를 하여 통정에 올라 병조(兵曹)·형조(刑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하고, 그 뒤 부승지(副承旨), 중추원판부사(中樞院判府事) 등을 지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며, 묘는 고양시 행주내동 산 32에 있다가 1987년 시흥시 산현동 산 71 골월에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安城李氏世譜』, 「李仲蕃家狀」.

(5) 구종직(丘從直) : 태종 4년(1404)~성종 8년(1477)

조선 초기의 공신·문신. 자는 정보(正甫), 호는 백결재(百潔齋), 본관은 평해(平海)로 증의정부우찬성 양선(揚善)의 아들이다.

세종 17년(1435)에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세종 26년(1444)에 식년시(式年試)에 정과로 급제하고 성균관학유(成均館學儒)에 제수되었다. 세종 29년(1447)에 영동현감, 단종 3년(1455)에 좌헌납, 세조 2년(1456) 1월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좌헌납, 다음해 8월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된 후 곧 낙안군수(樂安郡守)로 파견, 성균관 사성으로 입조하였다가, 세조 8년

(1462)에 고성군수(高城郡守)로 나갔다.

세조 11년(1465)에 성균관직강으로 있을 때 세조와의 역리강론(易理講論)으로 인정을 받고 첨지중추부사 겸 사성에 발탁되었다. 이후 친강(親講) 때마다 역리를 논하는 영광을 입었다.

세조 12년(1466) 2월에 공조참판, 6월에 수공조판서가 되었으며, 8월에 등준시(登俊試)에 급제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세조 13년(1467) 행호군(行護軍)으로서 새로이 제정한 형전(刑典)을 교정하고, 이어서 행첨지중추부사, 세조 14년(1468)에 행지중추부사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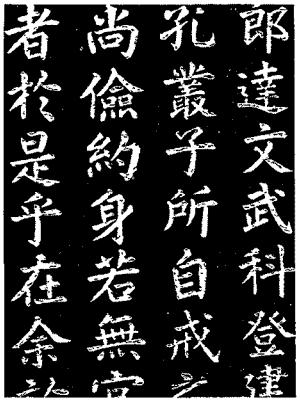
세조 15년(1469)에 성종이 즉위하자 행첨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 성종 2년(1471) 경연 때의 언사로 대간의 탄핵을 받고 경연직을 박탈당하면서 행상호군, 이듬해(1472) 나이 70을 이유로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으며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올랐다. 문종이 뛰어나고 역학과 경학에 밝았다.

일화로서, 문과에 오른 뒤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로 있을 때 하루는 숙직을 하다가 경회루의 경치가 매우 좋다는 말을 듣고 평상복으로 경회루 연못가를 산책하였을 때 마침 세종이 내시 몇 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나타나자 황급히 임금 앞에 엎드렸다. 이에 세종이 그의 신분과 밤중에 경회루에 나와 있는 까닭을 묻고는 "경전을 외울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가 『춘추』 한 권을 줄줄 암송하자 세종이 크게 감탄하고 이튿날 그를 교서관부교리에 임명, 9품직인 정자에서 하루아침에 종5품직인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시호는 안장(安長)이며, 묘는 시흥시 무지동 부흥산(富興山) 아래에 있다. 신도비 또한 묘 아래에 있는데 김상덕(金商德)이 찬(撰)하고, 전자(篆字)는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는 민병승(閔丙承)이 썼다. 1936년에 세운 이 신도비의 비신은 높이 1.83m, 폭 63cm, 두께 37cm에 이른다. 1994년 11월 3일 사당(安長祠)과 사적비가 준공되었다.



구종직 초상(평해 구씨 문중 제공).



구종직 신도비문(탁본).

<참고문헌> 『世宗·端宗·世祖·成宗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文科榜目』, 『大東奇聞』, 『韓國平海丘氏史觀』, 『國史大事典』,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丘從直神道碑銘」.

(6) 김개(金漑) : 태종 5년(1405)~성종 15년(1484)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선택(宣澤),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연성군(蓮城君) 정경(定卿)의 아들이다.

세종 4년(1422) 음보(蔭補)로 남부록사(南部錄事)에 제수된 후 세자우

시직(世子右侍直), 전농시 주부(典農寺主簿), 대호군 겸 판통례문사(大護軍兼判通禮門事), 상서원소윤(尙瑞院少尹)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원년(1455) 첨지중추부사로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면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세조 3년(1457) 중추부사가 되었고, 이듬해 사은사 김세민(金世敏)의 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 5년(1459) 열무(閱武) 때에 보인 무재(武才)로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올랐다. 그 후 세조 7년(1461)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어 행첨지중추부사, 지중추원사 등을 지냈다.

세조 11년(1465)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그 후 세조 13년(1467)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에 제수되었으나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의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 이듬해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으나 남이(南怡)의 옥사(獄事)에 연루된 사위 조경치(曺敬治)로 인하여 파직되었다가 성종 1년(1470) 다시 서용된 후 행상호군, 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역임했다. 이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산릉도감(山陵都監)과 선공감(繕工監)의 제조(提調)를 겸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訥齋集』, 『安山世碣』,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성품이 민첩하고 해서(楷書)에 능하였으며, 영선(營繕)에 공이 있었다. 시호는 평호(平胡)이며, 묘는 장단군 장단면에 있다.

(7) 박거겸(朴居謙) : 태종 13년(1413)~성종 12년(1481)



박거겸 묘비. 1994.

조선시대의 공신·무신(武臣). 자는 중공(仲恭)·공익(公益), 호는 지산(地山),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증호조판서(增戶曹判書) 경빈(景斌)의 1남이다.

세종 14년(1432) 음보로 별시위(別侍衛)에 속하였고, 내금위(內禁衛)로 옮겨 호군(護軍)으로 있다가 세종 24년(1442)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호군(大護軍)으로 세자우익위(世子右翊衛)를 겸하였다. 그 뒤 지훈련관사(知訓鍊觀事)를 거쳐 세종 25년(1443) 북청도호부사(北靑都護府使)를 지냈고, 세종 31년(1449) 경흥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가 되어 새로 설치된 육진(六鎭)을 수비하여 야인(野人) 정벌에 공을 세웠다. 문종·단종 때 대호군, 경상도처치사(慶尙道處置使) 등을 역임하고, 세조 1년(1455)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세조 3년(1457)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승진되었고, 같은 해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어 주민의 청에 따라 임기 만료 뒤에도 계속 유임되어 4년간 재임되었으며, 세조 6년(1460)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그 뒤 예종 원년(1469)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이 되었으며, 이어 성종 2년(1471)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밀산군(密山君)에 봉해졌다. 그 뒤 경상도 및 충청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였다. 무예에 뛰어났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며, 묘는 시흥시 화정동 산 107에 위치해 있다.

<참고문헌> 『世宗·文宗·端宗·世祖·成宗實錄』, 『韓國人大事典』, 『朝鮮功臣一覽表』, 『諡號一覽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密陽朴氏忠憲公派族譜』, 「朴居謙墓碑銘」.

(8) 안경손(安慶孫) : 태종 16년(1416)~성종 10년(1479)

조선시대의 공신·무신. 본관은 안산(安山). 습(習)의 아들로 일찍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세종 19년(1437) 내금위(內禁衛)에 소속되었다. 단종 1년(1453) 수양대군(首陽大君)의 계유정난(癸酉靖難)을 도운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내자시윤(內資寺尹), 삼군진무(三軍鎭撫), 대호군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승진되었다.

그 후 세조 9년(1463)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가 되고 공산군(公山君)에 봉해졌다. 이 해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서 진헌사(進獻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 11년(1465) 가정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거쳐 성종 3년(1472)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되었다. 글도 알지 못하고 기능도 없었으며 다만 술마시기를 좋아하였으나, 홍윤성(洪允成)을 잘 섬겨서 관직을 유지하였다.

시호는 양이(襄夷)이고, 묘는 충남 공주군에 있다.

<참고문헌>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韓國人名大事典』, 『安山安氏族譜』,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강희맹(姜希孟) : 세종 6년(1424)~성종 14년(1483)

조선시대의 공신·학자·문신.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운송거사(雲松居士)·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무위자(無爲子),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석덕(碩德)의 아들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이었던 3절(三絶) 희안(希顔)의 아우이며, 세종의 이질(姨姪)이다.

세종 29년(1447) 별시(別試)에 을과(乙科)로 장원급제한 뒤 종부시 주



강희맹 「신도비각」. 1993.

부(宗簿寺主簿)가 되었다. 세종 30년(1450) 예조좌랑과 돈령판관을 지내고, 단종 1년(1453)에 예조정랑이 되었다. 세조가 즉위(1455)하자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그 뒤 예조참의, 이조참의를 거쳐 세조 9년(1463)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경(南京)에 있는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蓮子)를 가지고 귀국하여 하중동 208에 소재한 관곡지(官谷池)에 식재하여 널리 퍼져 이후부터 우리지방의 읍호(邑號, 별호)가 '연성(蓮城)'으로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부윤으로서 어제구현재시(御製求賢才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이어 세조 12년(1466) 발영시(拔英試)에 갑과(甲科)로 3등, 등준시(等俊試)에 갑과로 2등에 각각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빈객이 되었고, 곧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1467) 형조판서(刑曹判書)로 특배되었다.

예종이 즉위하던 해(1468)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어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2년(1471)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그 해에 지춘추관사로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세조실록』,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성종 4년(1473)에 병조판서가 되었고 계속해서 판중추부사, 이조판서, 판돈령부사, 우찬성을 지낸 뒤 성종 13년(1482)에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인품이 겸손하고 치밀하여 맡은 일을 잘 처리하였으며, 또 경사(經史)와 전고(典故)에 통달한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다. 사대부로서의 관인적 취향과 섬세한 감각을 가진 문인이면서도 농촌사회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와 설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관인문학(官人文學)의 고답적인 자세를 스스로 파괴해 버렸다. 그의 「농구십사장(農謳十四章)」은 생활주변에서 채집한 농요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농민들의 애환과 당시 농정(農政)의 실상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시 중에서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강희맹 작 「독조도」.

그는 할아버지 강회백(姜淮伯)과 아버지 강석덕(姜碩德), 형 강희안(姜希顔)의 시집인 『진산세고(晉山世稿)』를 편찬했으며, 세조 때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과 사서삼경의 언해, 성종 때는 『동문선(東文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편찬에 참여했고, 또한 소나무와 대

나무 및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현재 일본 오쿠라문화재단(小倉文化財團)에 소장되어 있는 「독조도(獨釣圖)」가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의 전액(篆額)과 아버지의 묘표(墓表) 액서(額書), 합천홍류동비필암각(陜川紅流洞泚筆岩刻) 등을 썼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私撰) 농서(農書)인 『금양잡록(衿陽雜錄)』을 비롯하여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사숙재집(私淑齋集)』 17권과 『촌담해이(村談解頤)』 등이 있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묘와 신도비는 시흥시 하상동 산 2번지에 소재해 있는데 1985년 9월 20일에 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연꽃씨를 처음 심은 관곡지는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성종 19년(1488)에 세운 신도비는 비신의 규모가 높이 1.95m, 폭 80cm, 두께 20cm로 비문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서거정이 찬(撰)했고,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박증영(朴增榮)이 서(書)와 전(篆)했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海東雜錄』, 『秋江集』,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國朝人物考』, 『韓國人名事典』, 『安養文化』 2, 『朝鮮時代前期農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성완(成玩) : 세종 18년(1436)~연산군 6년(1500)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집현전 대제학을 지낸 사달(士達)의 증손자이며 직장(直長) 효연(孝淵)의 아들이다.

세조 2년(1456)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한 후,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 사옹원사평(司饔院司評), 호조좌랑(戶曹佐郎) 등을 거쳐 보은(報恩)과 아산(牙山)의 현감(縣監)을 역임했다.

그 후 성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봉해지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지문(佐郎公墓誌文)은 그의 사후 417년째인 1917년에 개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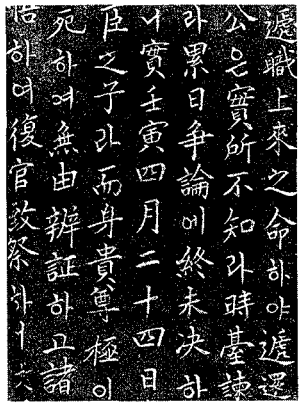
성완 묘비문(탁본).

(11) 신정(申瀞) : 세종 24년(1442)~성종 13년(1482)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언유(彦游),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아버지는 영의정(領議政) 숙주(叔舟), 어머니는 사재부정(司宰副正) 윤경연(尹景淵)의 딸이다.

태종의 아들 후령군(厚寧君) 간(衎)은 그의 장인이다. 세조 12년(1466)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에 재임 중 춘시(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始興郡誌』 上, 『昌寧成氏文孝公派譜』, 「成玩墓誌銘」, 「成玩墓碑銘」.



신정 묘비문(탁본).

<참고문헌> 『成宗實錄』, 『燃藜室記述』,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듬해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에 제수되었고, 예종이 즉위(1468)하자 호군에서 병조참지·병조참의를 거쳐 1469년에 성종이 즉위한 직후 동부승지가 되었다. 성종 2년(1471)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고 이어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었으며, 계속해서 좌승지를 역임하고 성종 5년(1471)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성종 8년(1477)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청간(淸簡)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받고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체직되었으며, 그간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쟁송(爭訟)에 자주 거론되어 인품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세평을 들었다.

그 후 성종 10년(1479) 고천군(高川君)에 봉해졌고, 이어 성종 12년(1481)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4월 왕의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사사(賜死)되었다.

묘는 시흥시 논곡동 지암터에 있고, 1983년에 세운 묘비의 비문은 신철우가 찬(撰)하고 글씨는 신관호가 썼다.

(12) 정숭조(鄭崇祖) : 세종 24년(1442)~연산군 9년(1503)



정숭조 묘. 1995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효숙(孝叔), 호는 삼성재(三省齋),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영의정(領議政) 인지(麟趾)의 아들로 어머니는 판한성부사 이휴(李携)의 딸이다.

세조 4년(1458) 음보(蔭補)로 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郞)이 된 뒤 사섬시 주부, 종친부 부전첨(宗親府副典籤), 공조좌랑(工曹佐郞), 종부시 소윤, 한성부 소윤을 거쳐 세조 11년(1465) 지사간원사에 올랐다.

그 후 첨지중추부사에서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내고, 예종 원년(1469) 공조참판(工曹參判),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하남군(河南君)에 봉해졌다. 성종 5년(1474) 형조참판(刑曹參判), 성종 8년(1477)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으로 도총관(都摠管)을 겸하였고, 이어 지의금 부사를 거쳐 성종 20년(1489) 하남부원군(河南府院君)에 진봉되었다. 이듬해 다시 한성부 판윤이 되었고, 그 뒤 경상도관찰사, 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성종 23년(1492)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으나 이듬해 호조관리들의 뇌물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연산군 1년(1495)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사섬시 제조(司贍寺提調)가 되어

다시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연산군 6년(1500)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었고, 경사(經史)에 밝았다.

시호는 장정(莊靖)이며,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다. 연산군 9년(1503) 대제학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한 묘지명(墓誌銘)을 후손 순목(淳穆)·봉채(鳳采)·갑채(甲采)가 번역하고, 후손 숙현(淑鉉, 전 수암면장)의 글씨로 후손 재설(在卨)·중현(仲鉉, 전 종로경찰서장)·형묵(亨默). 현채(玄采)가 1985년 비(신도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이극정(李克正)

조선 중기의 공신. 자는 정보(正甫),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성중(誠中)의 5세손으로 부(父)는 문성군(蚊城君) 석정(碩貞)이다.

25세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후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 등을 거쳐 1506년에 고수겸(高守謙), 심형(沈亨) 등과 함께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오르고 문천군(蚊川君)에 봉해졌다.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매화동에 있다.



이극정 묘. 1995.

<참고문헌> 『慶州李氏先世遺蹟誌』, 『始興郡誌』 上, 「李克正墓碑銘」.

(14) 성희문(成希文) : 성종 8년(1477)~중종 24년(1529)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계엄(季淹), 본관은 창녕(昌寧). 호조좌랑(戶曹佐郞) 완(玩)의 아들로 희건(希騫)의 아우이고, 희주(希周)의 형이다.

연산군 4년(1498)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한 후 중종 원년(1506) 종형(從兄)인 영의정(領議政) 희안(希顔)과 함께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그 후 직장(直長)을 거쳐 주부(主簿), 감찰(監察), 이성(利城) 및 영산현감(靈山縣監) 등을 역임하고, 이어 중종 22년(1527)에 세자익위사좌위(世子翊衛司左衛)를 거쳐 현풍현감(玄風縣監)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표의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했다.



성희문 묘. 1995.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成希文墓表銘」.

(15) 성희주(成希周) : 성종 10년(1479)~중종 33년(1538)



성희주 묘표문(탁본).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충원(忠元), 본관은 창녕(昌寧)로 호조좌랑(戶曹佐郎) 완(玩)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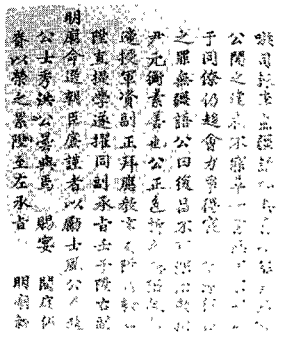
어린 나이에 한성시(漢城試)에 올라 이름을 날리고 1506년에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원종공신훈(靖國原從功臣勳)에 책록되었다. 이어 사마시(司馬試)에 오르고, 중종 2년(1507)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8등으로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를 거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예조좌랑(禮曹佐郎), 예조정랑(禮曹正郎) 등을 거쳐 춘추관(春秋館)을 지냈다.

중종 16년(1521)에 첨정(僉正)을 거쳐 함양군수(咸陽郡守), 사옹원 첨정(司饔院 僉正)·성균관의 사예(司藝)·사성(司成) 등을 역임하고 예빈시 정(禮賓寺 正)에 올랐다. 이어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 승문원판관(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承文院判官)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표의 비문은 채세영(蔡世英)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成希周墓表銘」.

(16) 성세장(成世章) : 중종 1년(1506)~선조 16년(1583)



성세장 지석(1584).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중회(仲晦)·경회(景晦), 호는 사암(思菴),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감찰(監察) 희문(希文)의 아들이나 희적(希亦)에게 입양되었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중종 23년(1528) 사마시(司馬試)에 오르고, 중종 35년(1540)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풍저창직장(豊儲倉直長), 시강원 설서(侍講院 說書)를 거쳐 이듬해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 중종 38년(1543) 춘추관 기주관(春秋館 記注官) 등을 지냈다.

인종 원년(1545) 명종을 시위(侍衛)한 공로로 원종훈(原從勳)에 오르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최보한(崔輔漢)을 탄핵하는 등 기강확립에 힘썼다. 이듬해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를 거쳐 명종 3년(1548) 사재감정(司宰監 正)으로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官)을 겸대하여 『중종실록(中宗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이후 사인(舍人), 집의(執義), 경기도암행어사(京畿道暗行御使), 직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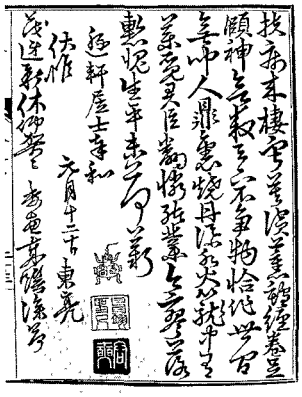
(直提學), 도승지(都承旨), 경기감사(京畿監司) 등을 역임하고, 명종 13년(1558)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원형(尹元衡), 이양(李樑) 등 외척을 견제하였다. 이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 예조참판(禮曹參判), 한성좌윤(漢城左尹) 등을 역임하고 명종 18년(1563) 함경감사를 지냈다. 이 무렵, 『자양문집(紫陽文集)』, 『속몽구(續夢求)』 편찬에 공이 컸다. 형조참판 등에 오래 머무른 후 명종 21년(1566)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이듬해 한성부 판윤(漢成府判尹),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역임하고 선조 6년(1573) 등극부사(登極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예조판서와 호조판서에 이어 선조 8년(1575) 좌참찬(左參贊)을 거쳐 예조판서, 우참찬(右參贊) 등을 역임하고, 선조 12년(1579)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성품이 간정(簡靜)하고 풍모가 맑고 단정하였으며, 술을 가까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튼 담소도 없었으며, 언어는 항상 충심, 신의가 있어 비속한 언사는 입에 담질 않았다. 재용에 항상 무관심하고 검소했으며, 여색(女色)과 오락 같은 번화한 일에 마음을 둔 적이 없었다. 내 분의 임금을 섬겨 모두에게 우대를 받아 때로는 낙루한 옷깃을 적시기도 해 누차 상소한 일이 있었지만, 혹 좋은 옷이 생기면 곧 태워버렸다. 또 관직에 재임 중에는 공사가 분명하여 이기(李芑)가 구수담(具壽聃)에게 죄를 주려는 데 대한 잘못을 통렬히 논박하기까지 했으며, 언론이 강개하여 조정의 모든 요속들의 기운을 움직였고, 실없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칭송함이 없고, 변란을 당할 때나 역경에 임해서는 근본의지에 굽힘이 없이 충성으로 일관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다. 행장(行狀)은 사복시 정(司僕寺正) 지제교(知製敎) 성락(成洛)이 지었으며, 묘지명(墓誌銘)은 좌의정(左議政) 김귀영(金貴榮)이 찬(撰)했다. 이 묘지는 1990년 4월 15일 묘역을 정비하던 중 발굴되어 그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19.1×24cm의 크기로 네 모지게 반죽해서 제작하였다. 모두 열네개인 이 지석은 부인 안동 김씨 지석도 여덟 개나 발굴되어 조선 전기 묘제를 연구하는 데 더없는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청화지석이어서 그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제작 연대는 선조 17년(1584)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仁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國史大事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成世章行狀」, 「成世章墓誌銘」, 『始興市報』 14호.

(17) 박동량(朴東亮) : 선조 2년(1569)~인조 13년(1635)



박동량 필적.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자룡(子龍), 호는 오창(梧窓)·기재(奇齋)·봉주(鳳洲),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아버지는 대사헌(大司憲) 응복(應福)이다.

선조 22년(1589)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로 13등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로 등용되어 검열(檢閱), 대교(待敎), 봉교(奉敎) 등을 지내고, 선조 25년(1592)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어 왕을 의주(義州)로 호종하였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의주에 주재하는 동안 왕이 중국의 관원이나 장수들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곁에 있게 하여 대중외교(對中外交)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다. 이듬해 동부승지, 좌승지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다. 선조 29년(1596)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정유재란 때는 왕비와 후궁 일행을 호위하여 황해도 수안에 진주, 민폐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살폈다. 그 후 연안부사, 경기도관찰사,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도 전란 이후 민생회복에 힘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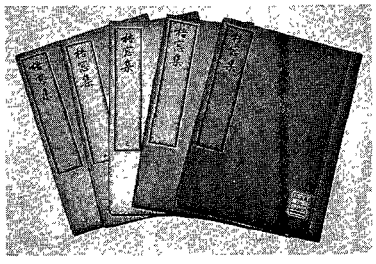
선조 37년(1604)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금계군(錦溪君)에 책봉되고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선조 41년(1608) 선조가 죽자 수릉관(守陵官)으로 3년간 수묘(守墓)하고, 광해군 3년(1611)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일찍이 그는 선조 때부터 한응인(韓應寅), 류영경(柳永慶), 서성(徐渻), 신흠(申欽), 허성(許筬), 한준겸(韓浚謙)과 함께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잘 보호하라는 부탁을 받은 이른바 유교칠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으로 대북파(大北派)의 질시 대상이 되었다. 광해군 4년(1612) 김직재(金直哉)의 무옥사건(誣獄事件)이 일어나자 추관(推官)으로 있던 그가 무고임을 알고 연루자들을 용서하려 하다가 더욱 미움을 받아, 그 뒤로 자주 탄핵을 당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당하였다. 그 후 곧 풀려나와 복관이 되었으나 이듬해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모반혐의로 심문을 받다가 혐의가 희박하여 극형은 받지 않았는데, 이때 반역관계는 극구 부인하면서 선조가 붕어할 당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사주로 궁녀들이 유릉(裕陵 : 懿仁王后의

능)에 저주한 사실은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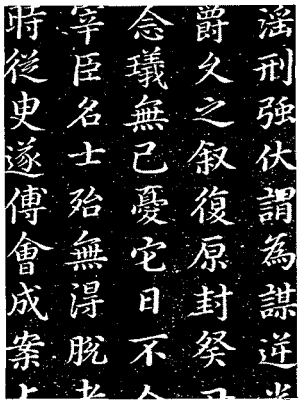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계축옥사 때 유릉저주사건이 무고임을 알면서도 시인해서 인목대비로 하여금 유폐생활의 곤욕을 치르게 한 죄로 부안에 유배되었다가 4년 뒤 충원(忠原)으로 옮겨지고, 인조 10년(1632)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로 감형되었다. 그 뒤 아들 미(瀰)와 의(漪)의 상언(上言)으로 복관되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그는 보통키에 얼굴색이 검고 수염이 얼굴을 덮었으며, 성품이 솔직하여 때로는 유가의 예속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환훈귀(仕宦勳貴)를 누렸으나 가산(家産)을 늘리지 않았으며, 고향사람들이나 친지들은 그를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는 믿음성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또 궁한 사람을 동정하고 곤란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귀천을 두지 않았으며, 관직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사정(私情)에 흔들리는 일이 없었고, 일을 당하여 강개할 때에는 곧장 밀고 나가 피하지 않았다. 일생을 사는 동안 특별히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없었으며, 오직 술만을 즐겨 마셨으나 크게 취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용만(龍灣)에 있을 때에는 미녀들이 즐비했으나 문 닫고 들어앉아 마치 처자(處子)처럼 자수(自守)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지조와 행실에 탄복하였다. 한가할 때는 서적을 가까이하였고, 흥이 나면 글씨쓰기를 좋아하였으며, 그 외에도 산수(算數), 녹명(祿名), 사어(射御) 등 모든 기예에도 능하였다.



오창집(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친교가 두터웠던 인물로는 김상헌(金尙憲)·상용(尙容) 형제가 있다. 저서로는 『기재사초(寄齋史草)』, 『기재잡기(寄齋雜記)』, 『방일유고(放逸遺稿)』, 『오창집(梧窓集)』 등이 있고, 그림으로 「계산초정도(溪山草亭圖)」가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박동량 신도비문(탁본).

묘와 신도비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있으며, 1988년 5월 31일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신도비는 영조 1년(1725)에 세운 것이다. 비문은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상헌(金尙憲)이 찬(撰)했고 글씨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썼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 민유중(閔維重)이 전액(篆額)했다. 신도비의 비신 규모는 높이 2.45m, 폭 1.13m, 두께 36cm이다. 1993년 10월 24일 반남 박씨오창공파종중(도유사 박찬기)에 의해 신도비각과 사적비가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海東名臣錄』,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朴東亮神道碑銘」.

(18) 이응순(李應順) : 선조 3년(1570)~효종 3년(1653)

조선시대의 공신. 자는 자화(子和), 본관은 전주(全州)로 부정(副正) 윤(倫)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 은거한 후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임금을 강화(江華)로 호종했고, 그 후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임금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호종하여 1등 공신훈(功臣勳)에 올랐다. 파흥군(坡興君)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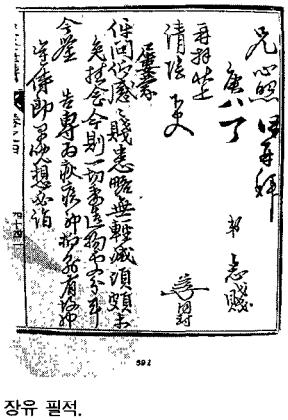
(19) 장유(張維) : 선조 20년(1587)~인조 16년(1638)



장유 초상. ★

조선시대의 공신·학자·문신.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이다. 아버지는 판서(判書) 운익(雲翼)이며, 어머니는 판윤(判尹) 박승원(朴崇元)의 딸이다. 또 우의정(右議政) 김상용(金尙容)의 사위이며,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이다. 어머니 박부인(朴夫人)이 아침해가 몸을 비추다가 이윽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후 선천부(宣川府) 내아(內衙)에서 출생하였다.

5세에 형으로부터 글을 배워 10세에는 경서(經書)를 외웠으며, 15세에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그 후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 되었다. 19세에 향시(鄕試)에 장원하였으며, 20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 후 광해군 1년(1609)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갔고, 이듬해 겸설서를 거쳐 검열, 주서(注書)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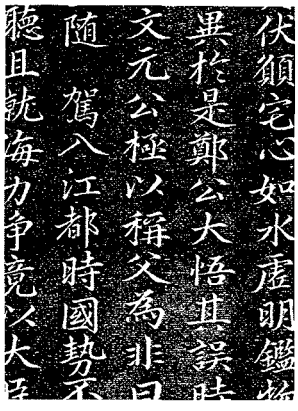
장유 필적.

광해군 4년(1612)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자 시흥시 장곡동 안골로 내려가 12년간을 살았는데, 이때(1618) 이곳에서 효종비 인선왕후를 낳았다. 그 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오른 후 봉교를 거쳐 전적과 예조(禮曹)·이조(吏曹)의 낭관을 지내고 그 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공주로 호종한 공으로 이듬해 신풍군(新豊君)에 봉해졌고, 이어 이조참판(吏曹參判), 부제학(副提學), 대사헌 등을 지내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강화로 호종하였다.



장유 묘. 1995.



장유 신도비문(탁본).

그 뒤 대제학(大提學)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역임하였고, 인조 7년(1629) 나만갑(羅萬甲)을 신구(伸救)하다가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대사헌, 좌부빈객(左副賓客),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인조 9년(1631) 원종추숭론(元宗追崇論)이 대두되자 불가함을 주장하고 전례문답(典禮問答) 8조를 지어 임금에게 바쳤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론(講和論)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었으나, 어머니의 부음(訃音)으로 열여덟 차례나 사직소를 올려 끝내 사퇴하였고, 장례 후 과로로 병사하였다.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진봉되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는 천품이 도(道)에 가까웠고 영예(英睿)가 어려서부터 성취되었으며, 절제가 지나치지 않고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일찍부터 현유(賢儒)를 따라 학문하는 방향을 듣고 나서 글 읽는 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요체를 삼았는데, 그 글 읽는 방법은 억지로 탐구하여 관통하려 하거나 공연히 천착하여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고, 먼저 정당한 문의(文義)부터 탐구해서 적절한 이취(理趣)를 체득하여 고인(古人)의 본의를 마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으므로, 문자(文字)가 자연스러워서 각기 제구실을 다하고 자신의 식견이 소명통철(昭明洞澈)하여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일찍이 양명학(陽明學)에 접해 당시 주자학(朱子學)의 편협한 학문풍토에 대하여 학문에 실심(實心)이 없이 명분에만 빠지게 되면 허학(虛學)이 되고 만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 마음을 바로 알고 행동을 통하여 진실을 인식하려고 하였던 양명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식(李植)은 그의 학설이 주자(朱子)와 반대된 것이 많다고 하여 육왕학파(陸王學派)로 지적하였으나, 송시열(宋時烈)은 "장유는 문장이 뛰어나고 의리가 정자(程子)와 주자를 주로 하였으므로 장유와 더불어 비교할 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다.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술(醫術), 병서(兵書) 등 각종 학문에 두루 능통하였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李廷龜), 신흠(申欽), 이식과 더불어 조선문학의 사대가(四大家)라는 칭호를 받았다.

많은 저서가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계곡만필(谿谷漫

筆)』, 『계곡집(谿谷集)』, 『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 등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5에 있고, 신도비와 함께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숙종 2년(1676)에 세운 신도비의 비문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했고, 글씨는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이 썼으며,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전자(篆字)했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2.65m, 폭 1.3m, 두께 32cm이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燃藜室記述』, 『海東名臣錄』, 『淸選考』, 『韓國人物五千年』, 『始興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張維神道碑銘」.

(20) 한기유(韓起愈) : 인조 21년(1643)~숙종 17년(1691)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계장(季章), 본관은 청주(淸州)로 훈련대장(訓鍊大將)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외숙부이다.

생원시(生員試)에 오른 후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공을 세워 부사용(副司勇)으로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에 봉해졌다. 이어 숙종 7년(1681)에 과천현감(果川縣監)을 거쳐 진위현감(振威縣監)에 제수되어 재임 중 선정을 베풀어 다시 과천현감에 임명되고, 숙종 8년(1682) 5품으로 승계(陞階)되었다. 그 후 숙종 13년(1687) 형조좌랑(刑曹佐郞)을 거쳐 순창군수(淳昌郡守)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현 과천시 막계동)에 있었는데, 서울대공원이 건설되자 1977년에 시흥시 과림동 숯두루지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始興郡誌』 上, 「保社原從公功臣改修錄券」.

(21) 이민호(李敏好) : 현종 9년(1668)~?

조선시대의 공신·문신. 자는 여(汝), 본관은 전주(全州)로 효자(孝子) 상기(相夔)의 아들이다.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군수(郡守)를 역임하였다. 영조 4년(1728)에 공신훈(功臣勳)에 올랐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3) 文 臣

(1) 김충찬(金忠贊) : ?~정종 2년(1036)

고려시대의 문신. 본관은 안산(安山), 안산현(安山縣, 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으로, 아버지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은부(殷傅)이고, 어머니는 인천(仁川) 이씨 시조인 이허겸(李許謙)의 딸이다.

현종 16년(1025)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고, 덕종 2년(1033) 예빈경지중추원사(禮賓卿知中樞院事)를 거쳐 이듬해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가 되었다. 그 후 정종 1년(1035)에 병부상서(兵部尙書)가 되었다가 이듬해 지중추원사 병부상서로 사망했다. 시호는 공정(恭靖)이다.

묘의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景德國師墓誌銘』,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京畿人物誌』.

(2) 안자유(安子由)

고려시대의 문신. 안산(安山) 안씨의 시조이다. 충혜왕 3년(1342) 조적(趙頔)의 난 뒤 임금이 원나라에 불려 가 조사를 받을 때 시종한 공으로 군부판서(軍簿判書)로서 2등공신이 되어 부모와 처는 3등을 뛰어 봉작되고, 아들 한 명에게는 8품이 주어졌으며, 전(田) 70결, 노비 5구를 받았다.

뒤에 폐신(嬖臣) 강윤충(康允忠)과 가까이하여 정치도감관(整治都監官)이 되었으며, 이어 충목왕 3년(1347)에 첨의참리(僉議參理)로서 태묘(太廟)에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희생(犧牲)에 쓸 소를 자신이 다니는 절의 중에게 주고 태묘에 바치지 않았다.

백원석(白元石) 등 감찰(監察)들이 죄를 줄 것을 청하였으나 사위 이읍(李浥)을 시켜 강윤충에게 뇌물을 주어 면하고, 오히려 찬성사로 승진하자 간관 송천봉(宋天鳳), 이방실(李方實), 안원룡(安元龍)이 사첩(謝牒)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해 6월 참리(參理)로서 사신이 되어 저포(苧布)를 바치러 원나라에 다녀왔다.

묘는 충남 공주군 서촌면 성두리에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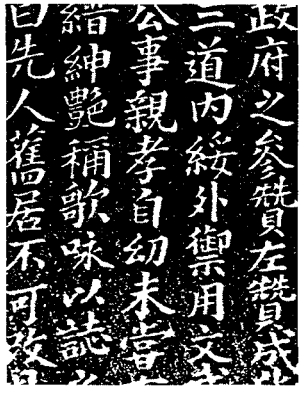
(3) 하연(河演) : 우왕 2년(1376)~단종 1년(1453)



하연 초상. △



하연 부인 초상. △



하연 신도비문(탁본).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부윤(府尹) 자종(自宗)의 아들이고,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태조 5년(1396)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봉상시녹사(奉常寺錄事)를 거쳐 직예문춘추관수찬관(直藝文春秋館修撰官)이 되었고, 이어 집의(執義), 동부대언(同副代言) 등을 역임했다. 이때 태종이 그가 간관(諫官)으로서 의연한 자세로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손수 손을 잡고 치하하였다 한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하자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조심스럽게 처사하여 신임을 받아 예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였으며, 세종 5년(1423)에는 대사헌으로서 조계종(曹溪宗) 등 불교 7종파를 선(禪)·교(敎) 양종(兩宗) 36본산으로 통합하고, 혁파된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국가로 환수하고자 하여 채택받았다. 세종 7년(1425)에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예조참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으나, 한때 천안에 유배된 후 곧 유배에서 풀려나와 형조참판, 병조참판을 거쳐 세종 13년(1431)에 대제학(大提學)이 되었고, 그 뒤 대사헌,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지냈다. 의정부에 들어가서는 관이 조사로서 이조의 일을 맡아보았으며, 세종 27년(1445)에 좌찬성(左贊成)이 되어 70세로서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이어 우의정(右議政), 좌의정(左議政)이 되었고, 세종 31년(1449)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며, 문종 1년(1451)에 문종이 대자암(大慈庵)을 중수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고 치사(致仕)하였다. 의정부에 들어간 지 20여 년간 문안에 사알(私謁)을 들이지 않았고, 법을 잘 지켜 승평수문(昇平守文)의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단종 2년(1454)에 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합천의 신천서원(新川書院)에 제향되었다. 편서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진양연고(晉陽聯藁)』가 있으며, 저서에 『경재집(敬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는 시흥시 신천동 산 12 소래산 중턱에 있고, 신도비는 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여 m 떨어져 있는데, 비명(碑銘)은 남지(南智)가 찬(撰)하고 김교직(金敎直)이 서(書)와 전(篆)했으나, 최근 후손들에 의해 지문(誌

文)임이 확인되어 1994년 이가원(李家源)이 찬(撰)한 신도비를 새로 세웠다. 그의 묘와 신도비는 1986년 3월 3일에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國朝文科榜目』, 『私淑齋集』, 『海東名臣錄』, 『始興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晉陽河氏大同譜』, 『嶺南人物考』,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始興金石總覽』, 「河演神道碑銘」.

(4) 강순덕(姜順德) : 태조 7년(1398)~세조 5년(145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윤(子允),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회백(淮伯)의 아들이며,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 이숙번(李叔蕃)의 사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산 2에 있다.

<참고문헌> 『晉州姜氏世譜』, 『始興郡誌』 上.

(5) 김팽수(金彭壽) : 세종 4년(1422)~연산군 4년(149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원(仲源), 호는 용암(龍岩), 본관은 원주(原州)로 참의(參議) 연종(連宗)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가 전적(典籍), 교리(校理), 응교(應敎) 등을 거쳐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를 지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묘재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金彭壽墓碑銘」.

(6) 안근(安根)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중보(重寶)의 아들이다.

세조 6년(1460)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판관(判官)을 역임했다.

묘의 위치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7) 송윤종(宋胤宗)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진천(鎭川)으로 송화현감(松禾縣監) 선(宣)의 아들이고, 용인군 맹리에서 출생하였다. 인수부윤(仁壽府尹) 강희안(姜希顔)의 사위이다. 성종 8년(1477) 친시(親試) 병과(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예조좌랑(禮曹佐郞) 등을 거쳐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역임하였다.

묘는 경기도 장단군 조곡리에 있다가 1987년 시흥시 물왕동 산 35-1



송윤종 묘비. 1994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鎭川宋氏世譜』.

안말 긴등으로 이장되었다.

(8) 강구손(姜龜孫) : 세종 32년(1450)~연산군 11년(1505)



강구손 신도비. 199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용휴(用休), 본관은 진주(晉州)로 좌찬성(左贊成) 희맹(希孟)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가 된 뒤 돈령부 첨정을 거쳐 성종 10년(1479)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6등으로 급제하여 사재감 정(司宰監正), 좌통례(左通禮),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영안도경차관(永安道敬差官)을 지내고, 성종 17년(1486) 중시(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상주목사(尙州牧使)로 나갔다.

성종 23년(1492) 장례원판결사가 된 뒤 부제학(副提學),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이듬해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 계속해서 좌승지,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연산군 3년(1497)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戊午史禍) 때는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추국(推鞫)에 참여하여 김일손(金馹孫) 등 사림파(士林派)의 처벌을 가벼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해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내고, 이듬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며, 연산군 8년(1502) 진원군(晉原君)에 봉해지고, 1503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재임 중 세자책봉주문사(世子冊封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 연산군 11년(1505)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하등극사(賀登極使)로 다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안도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모든 학문에 두루 능통하고 직무에 엄밀하여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오랫동안 이조판서에 재직하였는데, 이를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전주(銓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연산군이 날로 음탕하고 흉포해지자 폐립(廢立)의 뜻을 품고 있었다.

시호는 숙헌(肅憲)이며, 묘는 시흥시 하상동 산 2에 있다. 1980년 세운 신도비의 비문은 송조빈(宋朝彬)이 찬(撰)하고, 성균관전학(成均館典學) 강정희(姜正熙)가 서(書)와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姜龜孫神道碑銘」.

(9) 김성동(金誠童) : 문종 2년(1452)~연산군 1년(149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명보(明甫), 호는 제계(蹄溪),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좌의정(左議政) 질(礩)이고, 어머니는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의 딸이며, 장인은 좌찬성(左贊成) 강희맹(姜希孟)이다.

성종 23년(1492) 적성현령을 지내던 중 그 해 식년시(式年試)에 갑과(甲科)로 3등에 급제하여 당상관으로 승진되었다. 이어 부평부사(富平府使)에 제수되어 직무를 잘 처리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 부평부사로 취임한 지 2년이 되기도 전에 선정(善政)이 조정에 보고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공무에 성실하고 인품이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모두 재상감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44세로 사망했다. 박처륜(朴處綸)과 함께 성종 시기에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관리로 일컬어졌다.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에 있으며, 묘갈명의 비문은 정사룡(鄭士龍)이 찬(撰)했고, 후대에 세운 신도비, 「大司憲蹄溪金先生神道碑銘」의 비문은 유진찬(兪鎭贊)이 찬(撰)하고, 글씨는 12세손 참봉(參奉) 김정원(金正源)이 썼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慵齋叢話』,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蓮城姓譜』, 『安東金氏翼元公派譜』.

(10) 성희중(成希仲)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관(子寬), 본관은 창녕(昌寧). 호조좌랑(戶曹佐郞) 완(玩)의 아들이다.

중종 4년(1509)에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12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교리(承文院 校理)를 거쳐 공조정랑(工曹正郞),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한성판관(漢城判官) 등을 역임했다. 중종 때 호연일인재(瑚璉一人材)로 칭송된 명신(名臣)으로 혁신정치를 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병을 피하여 경기에서 떠나 무주를 거쳐 옥천 남양(현 영동군 학산면)으로 옮겨 살았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송재욱(宋在郁)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始興郡誌』 上, 『昌寧成氏文孝公派譜』, 「成希仲墓碣銘」.



신종옥 묘.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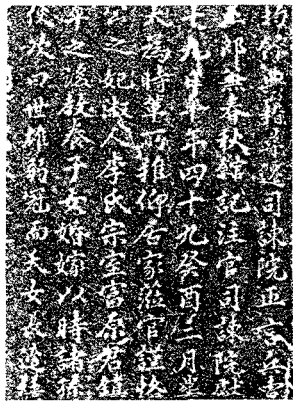
<참고문헌> 高靈申氏世譜』.

(11) 신종옥(申從沃) : 세조 1년(145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옥지(沃之),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고령군(高靈君) 수(澍)의 2남이다. 성종 15년(1484)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역임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새미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신용개(申用漑)가 찬(撰)하였다.

(12) 성희철(成希哲) : 세조 10년(1464)~중종 8년(1512)



성희철 묘갈문(탁본).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명(子明),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호조좌랑(戶曹佐郎) 완(玩)의 아들이며 희건(希騫)·희중(希仲)의 아우이고, 희적(希亦)·희문(希文)의 형(兄)이다. 성종 20년(1489)에 생원시(生員試)에 이어 연산군 2년(1496)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0등으로 급제한 후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봉교(奉敎)에 오르고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병조좌랑(兵曹佐郎) 등을 지냈다.

그 후 연산군 10년(1504)에 갑자사화로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었으나 1506년에 중종반정으로 다시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에 임명되었다. 이어 예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禮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병조정랑(兵曹正郎) 등을 거쳐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에 이르렀다.

그는 천성이 명민(明敏), 강직하고 과감했다. 경학에 일찍이 몰두하여 심오한 뜻을 분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집에 머무를 때나 관직에 있을 때나 항상 정도를 지켰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민기(閔箕)가 찬(撰)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成希哲墓碣銘」.

(13) 김곤(金琨)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월석(越石),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맹수(孟錘)의 아들이다. 연산군 2년(1496) 별시(別試)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부정(副正)을 역임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14) 정승효(鄭承孝) : 성종 1년(1469)~중종 23년(152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희참(希參),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호조판서(戶曹判書) 숭조(崇祖)의 1남이다.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한 후, 장원서 별제(掌苑書別提)를 역임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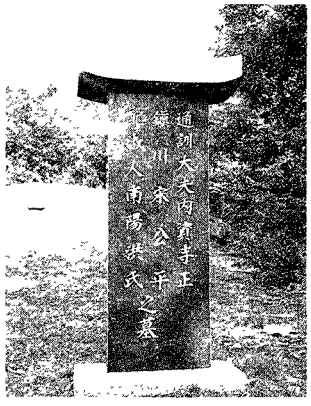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다.

<참고문헌> 『河東鄭氏族譜』.

(15) 송평(宋平)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진천(鎭川), 시흥시 물왕동 안말에서 출생했다. 이조정랑(吏曹正郎) 윤종(胤宗)의 아들로, 연산군 9년(1503) 첨정(僉正)을 거쳐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을 지내고, 중종 36년(1541) 내자시정(內資寺正)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산 35-1 안말 긴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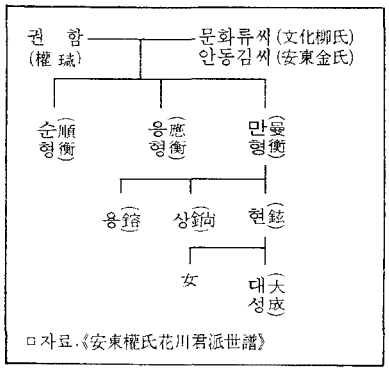
송평 묘비. 1994.

<참고문헌> 『蓮城姓譜』, 『鎭川宋氏世譜』, 『始興郡誌』 上.

(16) 권만형(權曼衡)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공준(公準),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좌참찬(左參贊) 함(瑊)의 1남으로 장인은 좌찬성(左贊成) 강희맹(姜希孟)이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했으며 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되었다. 시흥시 하중동 208에 소재한 관곡지(官谷池)는 강희맹이 처음으로 연(蓮)을 심은 후 사위인 그에게 주어, 그 후 안동 권씨 가문에서 계속 관리되어 오고 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하지골에 있다.



권만형 가계표.

<참고문헌>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7) 성희적(成希亦)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화(子華), 본관은 창녕(昌寧) 호조좌랑(戶曹佐郎) 완(玩)의 4남이며, 참교(參校) 희철(希哲)의 아우이다. 중종조에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거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고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표의 비문은 성덕중(成德重)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成希亦墓表銘」.

(18) 윤승유(尹承柳) : 성종 6년(1475)~연산군 11년(150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윤(重胤),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부정(副正) 인(磷)의 아들이다. 연산군 2년(1496) 선전관(宣傳官)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군기시(軍器寺),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한성서윤(漢城庶尹)을 거쳐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이르렀고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영의정(領議政) 홍섬(洪暹)이 찬(撰)했다.



윤승유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尹承柳墓碣銘」.

(19) 정승근(鄭承謹) : 성종 7년(1476)~?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호조판서(戶曹判書) 숭조(崇祖)의 아들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축실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20) 강태수(姜台壽) : 성종 10년(1479)~중종 21년(152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삼(子三),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할아버지는 좌찬성(左贊成) 희맹(希孟)이고 아버지는 장례원 사평 학손(鶴孫), 어머니는 평산(平山) 신씨로 면지(沔之)의 딸이다. 큰아버지 구손(龜孫)에게 양자했다.

연산군 7년(1501) 사마시(司馬試)에 올라 중종 6년(1511) 별시(別試)에 갑과(甲科)로 장원급제하여 전적(典籍), 예조정랑(禮曹正郎), 교리(校理),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등을 역임하고, 중종 16년(1521) 순천부사(順天府使)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산 2에 있고, 묘비의 비문은 좌찬성(左贊成)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했다.



강태수 묘비문(탁본).

<참고문헌>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姜台壽墓碑銘」.

(21) 안순(安珣) : 성종 10년(1479)~중종 20년(1525)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개규(介圭),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생원(生員)이 되어 아들인 정평도호부사(定平都護府使) 인손(仁孫)의 현달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고,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추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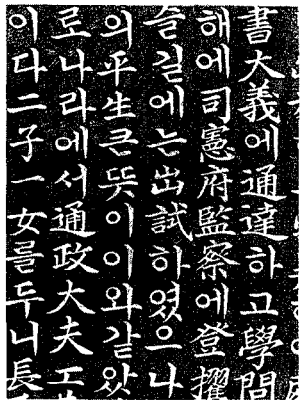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7 고잔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順興安氏族譜』, 『始興郡誌』 上.

(22) 김안조(金安祚) : 성종 21년(1490)~명종 1년(154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서(仲緖), 본관은 원주(原州)로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말손(末孫)의 아들이다. 중종 9년(1514) 사마시(司馬試)에 올랐으며, 이듬해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다.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묘재에 있고, 묘갈은 1981년에 세웠다.



김안조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金安祚墓碑銘」.

(23) 정홍필(鄭弘弼) : 성종 24년(1493)~?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별제(別提) 승효(承孝)의 아들로 배천군수(白川郡守)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다.

<참고문헌> 『河東鄭氏族譜』.

(24) 송복견(宋福堅)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수(子綏), 본관은 진천(鎭川)으로 내자시 정(內資寺正) 평(平)의 아들이다.

중종 19년(1524)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18등으로 급제하여 사옹원 부정(司饔院副正), 만포진첨절제사(萬浦鎭僉節制使)를 거쳐 좌승지(左承旨)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기주관(記注官)·편수관(編修官)을 겸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산 35-1 안말 긴등에 있다.



송복견 묘비. 1994.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蓮城姓譜』, 『鎭川宋氏世譜』.



이숙 묘갈. 1995.

<참고문헌>『始興郡誌』上,「李琡墓碑銘」.

(25) 이숙(李琡) : 연산군 4년(1498)~명종 4년(154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옥(伯玉), 본관은 전주(全州)로 효손(孝孫)의 아들이다. 처음 사직서(社稷署)의 남부참봉(南部參奉)을 거쳐 연원역(連原驛)과 도원역(桃源驛)의 찰방(察訪)을 역임하고, 이어 직장(直長), 사옹원 주부(司饔院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등을 지냈다.

묘는 인천에 있다가 시흥시 금이동 솔개고개로 이장되었다.

(26) 정식(鄭式) : 연산군 5년(149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중(敬仲),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감찰(監察) 승근(承謹)의 아들이다.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를 역임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참고문헌>『河東鄭氏族譜』.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다.



신함 묘. 1995.

<참고문헌>『高靈申氏世譜』.

(27) 신함(申涵) : 연산군 7년(150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원(景源),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파주목사(坡州牧使) 종옥(從沃)의 아들이다.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역임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새미에 있다.

(28) 윤희천(尹希天)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오(省吾),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구(耉)의 아들이다.

중종 35년(1540) 별시(別試) 갑과(甲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하였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참고문헌>『國朝文科榜目』,『坡平尹氏世譜』,『始興郡誌』上.

묘는 시흥시 은행동 찬우물에 있다.

(29) 류잠(柳潛) : 중종 4년(1509)~선조 9년(157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소(士昭),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돈령부 정(敦寧府正) 수천(壽千)의 아들이며, 광해군의 장인인 자신(自新)의 아버지이다.

생원(生員)을 거쳐 중종 35년(1540)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0등으로 급제하여 삼사(三司)의 관직을 거쳐 충청·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역임하고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다. 보조공신(補祚功臣), 문령부원군(文寧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능곡동 산 32 능골 성인봉(聖人峯, 또는 관무봉) 아래에 있다.



류잠 묘(위).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韓國地理總覽』,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文化柳氏派譜』.

(30) 이희문(李希文) : 중종 7년(151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언장(彦章),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주부(主簿) 양(亮)의 아들이다. 제용감정(濟用監正)을 거쳐 외직(外職)으로 과천(果川), 산음(山陰), 죽산(竹山), 정선(旌善), 원주(原州), 양양(襄陽), 강화(江華), 안산(安山), 광주(廣州) 등의 수령(守令)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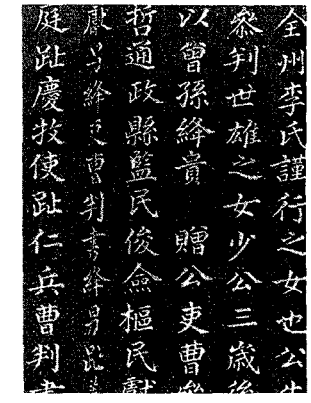
묘는 인천 초곡(草谷)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으로 이장되었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찬(撰)한 묘표(墓表)가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蓮城姓譜』, 『平昌李氏世譜』.

(31) 윤지함(尹之諴) : 중종 13년(1518)~명종 2년(1547)

조선시대의 유생(儒生). 자는 언성(彦誠),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엽(燁)의 아들이나 영평위(鈴平尉) 섭(燮)에게 양자했다. 명종 1년(1546) 사마시(司馬試)에 올라 현감(縣監) 등을 역임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윤지함 묘비문(탁본).

<참고문헌> 『百世同覽』, 『始興郡誌』 上, 「尹之諴墓碑銘」.

(32) 강극성(姜克誠) : 중종 21년(1526)~선조 9년(157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실(伯實), 호는 취죽(醉竹)·보만당(保晩堂),

본관은 진주(晉州)로 좌찬성(左贊成) 희맹(希孟)의 4세손이다. 아버지는 사용(司勇) 복(復)이며, 어머니는 김안국(金安國)의 딸이다.

명종 1년(1546)에 진사(進士)가 되고, 명종 8년(1553)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다시 3년 후(1556) 중시에 급제하여 문명(文名)을 떨쳤다. 처음에 예문관(藝文館)에 뽑혔다가 곧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字)로 옮겼고, 명종 10년(1555) 김귀영(金貴榮), 이량(李樑) 등과 함께 사가독서한 후 이듬해 부수찬(副修撰)에 올랐다.

이어 문학(文學), 지평(持平), 부교리(副校理), 교리, 부응교, 장령, 사간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명종 18년(1563) 검상, 사인을 거쳐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관직생활은 당시 권세를 잡고 전횡하던 이량을 추종한 결과였으며, 사신(史臣)들은 그를 이량의 무리였기 때문에 청현직(淸顯職)을 지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후 명종 19년(1564) 이량이 축출당하자 계속적인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으나, 선조 7년(1574) 조정에서 파직된 그의 재서용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간의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과거급제자인 점이 고려되어 다시 관직에 나가 제용감 정(濟用監正)을 거쳐 장단도호부사(長湍都護府使)에 이르렀다.

행신(幸臣) 이량과의 친분으로 많은 비난과 역경을 겪었다. 사가독서 때 사온(賜醞)에 취해 있다 해질녘에 깨어나 겨우 지어 바친 시로 명종으로부터 찬탄과 함께 말 한 필을 하사받는 영광을 누렸으며, 사람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렸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산 2 하지골에 있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宣祖實錄』, 『燃藜室記述』, 『眉叟記言』, 國朝人物考』,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거 묘비. 1994.

(33) 송거(宋鎔) : 중종 24년(152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해(汝諧), 본관은 진천(鎭川)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복견(福堅)의 아들이다.

명종 8년(1553)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8등으로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에 있다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산 35-1 안말 긴등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鎭川宋氏世譜』, 『始興郡誌』 上.

(34) 변홍(邊洪) : 중종 25년(153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홍지(洪之), 호는 죽경(竹逕), 본관은 원주(原州)로 종사랑(從仕郞) 인복(仁復)의 아들이다. 음사(蔭仕)로 흡곡현령(歙谷縣令)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 산 75에 있다.

<참고문헌> 『原州邊氏別坐公派鞍峴里系蘇峰公後家乘譜』.

(35) 이옥(李沃) : 중종 28년(1533)~선조 22년(158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계중(啓仲),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광주목사(廣州牧使) 희문(希文)의 아들이다. 돈령부 주부(敦寧府主簿)를 거쳐 중추도사(中樞都事)를 지냈다.

묘는 인천 만수동(萬壽洞)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平昌李氏世譜』.

(36) 윤정(尹淨) : 중종 34년(153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지숙(止叔),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희성(稀聖)의 아들이다. 선조 3년(1570) 감시(監試) 갑과(甲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은행동 찬우물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37) 강선경(姜先慶) : 중종 35년(154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맹업(孟業), 본관은 진주(晉州)로 장단부사(長湍府使) 극성(克誠)의 아들이다.

선조 6년(1573)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7등으로 급제하여 강원도사(江原都事)를 지내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산 2 하지골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晉州姜氏世譜』, 『始興郡誌』 上.

(38) 김옹(金壅) : 중종 35년(154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화(士和),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세무(世武)의 아들이다. 선조 9년(1576)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6등으로 급제하여 현감(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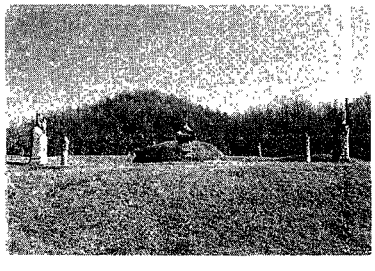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39) 류자신(柳自新) : 중종 36년(1541)~광해군 4년(1612)



류자신 신도비문(탁본).



류자신 묘. 199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지언(止彦),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아버지는 공조판서 잠(潛)이며, 어머니는 증 호조참판(增戶曹參判) 정승렴(鄭承簾)의 딸이다.

광해군의 장인이며, 이담(李湛)의 문인이다. 명종 19년(1564)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태릉참봉을 거쳐 돈령부 직장(敦寧府直長)에 임명되었고, 선조 2년(1569)에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를 지내고, 그 뒤 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 평강현감(平康縣監), 사과(司果) 등을 역임하고, 선조 5년(1572) 호조좌랑(戶曹佐郞)에 승진된 후 형조좌랑(刑曹佐郞)에 전임되었고, 선조 8년(1575) 김포현령(金浦縣令)에 제수되었다가 이듬해 겨울 부친상을 당해 3년간 시묘하였다.

선조 12년(1579) 형조정랑(刑曹正郞)에 제수되고, 이어 외직으로 김제군수(金堤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이 70세를 넘어 사임하자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으로 나아갔고, 그 후 제용감 첨정(濟用監僉正), 양근군수(楊根郡守)를 역임하고, 선조 15년(1582) 상의원 판관(尙衣院判官), 이듬해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 선조 18년(1585) 장락원 첨정(掌樂院僉正) 등을 역임했다. 그 후 선조 20년(1587) 3월 그의 3녀가 왕자 혼(琿)의 부인이 되었는데, 이가 후일 광해군의 비(妃)였다.

선조 22년(1589) 가을에 다시 한성부 판관에 제수되고, 그 해 겨울에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일어나자 임금의 특명으로 안악현감(安岳縣監)에 임명되어 역도들을 잡아 처리하고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제수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가(大駕)를 호종하고 평양에서 묘사주(廟社主)를 모시고 광해군을 따라 강원도 방면으로 나갔다가 그 해 겨울 성천으로 나왔는데, 특명으로 종2품계(從二品階)의 동지돈령부사

선조 30년(1597) 겨울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겸 도총관(都摠管)을 거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지내고, 선조 34년(1601) 지돈령부사, 선조 41년(1608) 2월에 광해군이 즉위하자 세자빈이 왕비에 책봉되고, 그는 관례대로 보국숭록대부 영돈령부사 문양부원군(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文陽府院君)에 진봉되었다. 광해군 2년(1610)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관작과 봉호가 추탈되었으며, 아들 희분(希奮)·희발(希發)·희량(希亮) 등은 처형, 유배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단정·신중하였고, 자라서는 더욱 자신을 단속함에 엄격하고 남을 대할 때는 항상 온화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고요하여 오직 도서로써 벗을 삼아 특히 경사(經史)에 유념하여 늙도록 책을 가까이하였는데, 책에서 고인의 가언선행(嘉言善行)을 보면 반드시 자손들에게 기록해서 본받게 하였다. 더욱이 딸이 왕비가 된 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겸공(謙恭)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근신하고 권문세가로 행세하는 일이 없었다.

만년에는 남쪽 연못 한귀퉁이에 「영은정(詠恩亭)」을 짓고 '감군은사칠결(感君恩詞七闋)'을 지어, 술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시종(侍從)으로 하여금 이를 읊게 하였다.

묘는 시흥시 능곡동 산 32 능골 성인봉(聖人峯, 또는 관무봉) 아래에 있고, 영조 30년(1755)에 세운 신도비는 비신의 높이가 2.07m, 폭이 1.14m, 두께 35cm이며, 비문은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류근(柳根)이 찬(撰)하고, 글씨는 병조참의(兵曹參議) 오정(吳靖)이 썼으며,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상용(金尙容)이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韓國人名大事典』, 『姶興人物考』, 『姶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姶興金石總覽』, 『文化柳氏派譜』, 「柳自神道碑銘」.

(40) 성락(成洛) : 중종 37년(1542)~선조 21년(158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중(士中), 호는 남애(南崖),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감사(監司) 세평(世平)의 아들이며, 청백리에 녹선된 영(泳)의 형이다.

퇴계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어릴 때 이미 자력으로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경서, 주자서를 탐독할 정도의 높은 자질을 가졌다 한다. 명종 16년(1561)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명종 21년(1566) 이후 류성룡(柳成龍), 홍가신(洪可臣) 등을 사우(師友)로 삼아 성리학(性

理學) 연구에 몰두하였다.

선조 1년(1568)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를 거쳐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고, 선조 3년(1570) 저작(著作)에 오른 후 이듬해에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선조 5년(1572) 대교(待敎), 봉교(奉敎)를 거쳐 선조 6년(1573)에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선조 7년(1574)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대하고 순무어사(巡撫御使)로 관북(關北)을 무휼(撫恤)하였다. 이듬해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郞)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고 선조 10년(1577)~12년(1578)에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경연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을 받았다. 선조 13년(1580) 홍문관의 부응교(副應敎)로 전한(典翰) 이발(李潑)이 정여립(鄭汝立)을 천거하는 데 반대하였다. 선조 14년(1581) 의정부의 검상(檢詳), 사인(舍人) 등을 거쳤으나 이발의 배척을 받아 곧 파직되고, 이어 군기시(軍器寺), 사복시(司僕寺), 군자감(軍資監), 장락원(掌樂院) 등의 한직을 전전하였다.

선조 16년(1583) 조정의 공론에 따라 다시 의정부 사인으로 중용되고 직제학(直提學),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올랐으나, 다시 이원익(李元翼) 등과 함께 파직된 후 은거생활을 하다가 선조 20년(1587) 수서(收敍)의 왕명이 내려졌다. 사환(仕宦) 20년에도 전택(田宅)이 없어서 친우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有懷堂集』, 『國朝文科榜目』,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京畿人物誌』.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사적기(事蹟記)는 성사기(成士基)가 지었다.

(41) 김취의(金就義) : 명종 3년(154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의중(宜仲),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엽(曄)의 아들이다. 선조 18년(1585)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3등으로 급제하여 형조정랑(刑曹正郞)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42) 류덕신(柳德新) : 명종 3년(1548)~광해군 9년(161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언(敬彦),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공조판서(工曹判書) 잠(潛)의 2남이며,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의 아우이다. 음보(蔭補)로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역임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능곡동 산 32에 아버지와 형 묘 사이에 있다.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43) 신순일(申純一) : 명종 5년(155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순보(純甫),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예조판서(禮曹判書) 점(點)의 아들이다. 선조 15년(1582) 생원시(生員試)에 오른 후 문화현령(文化縣令)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죽율동 댐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44) 김영남(金穎男) : 명종 10년(1555)~광해군 9년(161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오(中悟), 호는 소설옹(掃雪翁),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기(記)의 아들이다.

7, 8세에 이미 글짓기에 능하고 독서를 좋아했으며, 어머니가 계시는 실당(室堂) 앞의 눈은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쓸게 하지 않고 자신이 새벽에 쓸어 집안사람들이 소설옹이라 했다.

선조 5년(1572)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주서(注書), 옥당(玉堂)을 거쳐 이강중(李剛中)과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선조 25년(1592) 진양(晉陽)의 주쉬(主倅)가 되어 군사를 독려, 동강(東江)의 적을 막고 사천(泗川)의 풍진을 소탕, 수천 석의 군량을 경사(京師)로 운반한 공으로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임명되었고, 그 뒤 선조 30년(1597) 판결사(判決事), 선조 31년(1598) 여주목사(驪州牧使), 선조 34년(1602) 배천군수(白川郡守), 선조 37년(1604) 죽산부사(竹山府使), 선조 38년(1605)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거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역임했다. 저서에 『소설집(掃雪集)』(시문집)이 있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에 있다.

<참고문헌> 光山金氏忠定公派宗親會, 『金光洞世世錄』, 1978, 213~230쪽.

(45) 윤민철(尹民哲) : 명종 10년(1555)~광해군 10년(161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수세(守世),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장수현감(長水縣監) 엄(儼)의 아들이다.

선조 33년(1600) 음보(蔭補)로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이 되었다가 곧 파직된 후 선조 41년(1608)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광해군 2년(1610) 선공감 봉사(繕工監奉事)를 거쳐 광해군 4년(1612)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에서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이직되었으나 무고(誣告)로 파직되었다. 광해군 6년(1614) 창녕현감(昌寧縣監)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고, 묘갈의 비문은 이조판서(吏曹判書) 채유후(蔡有後)가 찬(撰)하고, 글씨는 김우형(金宇亨)이 썼다.

<참고문헌>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46) 이정직(李廷直) : 명종 11년(1556)~선조 27년(159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급(景伋),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중추도사(中樞都事) 옥(沃)의 1남이다. 사축서 별제(司畜署別提)를 역임하였다.

묘는 인천 만수동(萬壽洞)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 『平昌李氏世譜』.

(47) 한준겸(韓浚謙) : 명종 12년(1557)~인조 5년(1627)



한준겸 필적(후손 한봉현 제공).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川), 본관은 청주(淸州)로 서울 출신이다. 아버지는 판관 효윤(孝胤)이고, 어머니는 예빈시 정(禮賓寺正) 신건(申健)의 딸이다. 인조의 장인이다.

선조 12년(1579)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 양시(兩試)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선조 18년(1585) 태릉참봉(泰陵參奉)에 제수되고, 이듬해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이 해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고, 이어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올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뒤 주서, 봉교, 전적을 거쳐 선조 22년(1589) 금천현감(衿川縣監)이 되었는데, 선조가 그에게 노모가 있음을 알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하였다. 이 해 겨울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발각되자, 정여립의 사위

이진길(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연좌되어 옥에 갇혔다가 수개월 만에 풀려나와 원주로 이사하였다.

선조 25년(1592) 다시 서용되어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郎), 강원도사(江原都事),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를 역임하고, 그 해 겨울에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어 유망민(流亡民)을 초집(招集), 진휼하는 데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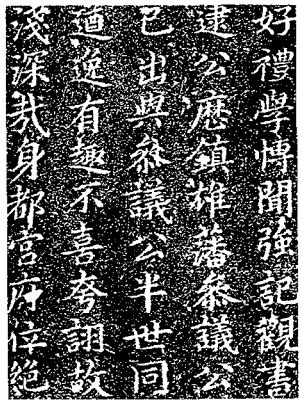
선조 28년(1595) 내직으로 지평(持平), 필선(弼善), 정언(正言), 교리(校理) 겸필선(兼弼善)을 역임하고, 도체찰사(都體察使) 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이어 부수찬(副修撰)·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교리(校理) 겸보덕(兼補德), 검상(檢詳), 사인(舍人), 부응교(副應敎), 사간(司諫), 보덕(輔德), 집의(執義) 등을 지냈다.

선조 30년(1597) 8월 전한(典翰)에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배되었다가 곧이어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올라 명나라 제독(提督) 마귀(麻貴)를 도와 마초(馬草)와 병량(兵糧)의 보급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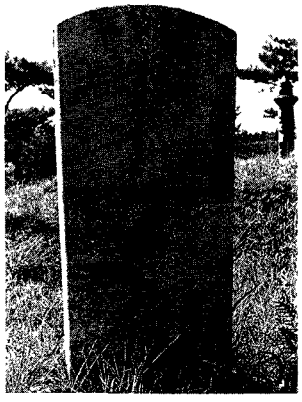
임진왜란이 끝나자 우승지(右承旨), 경기감사(京畿監司)를 지내고, 선조 31년(1598) 관직에서 물러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있다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의 압력으로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내외의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선조 36년(1603)에 예조참판(禮曹參判), 부제학(副提學)를 지내고, 이듬해 호조판서(戶曹判書)에 특진된 뒤 대사헌(大司憲),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및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찰사를 역임했다.

특히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는 『소학』, 『가례』 등의 책을 간행, 보급하여 학문을 진흥시켰다.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7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으로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전리방귀(田里放歸)되고, 광해군 9년(1617) 충주에 부처되었다. 그 후 광해군 13년(1621) 여주에 양이(量移)되었다. 이 해 오랑캐 침입의 위험이 있자 이에 대비할 적임자로 뽑히어 유배지에서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고, 5도도원수(五道都元帥)가 되어 국경수비에 힘썼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그의 딸이 인렬왕후(仁烈王后)로 책봉되자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로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에 호종, 돌아와 겸지춘추관사(兼知春



한준겸 신도비문(탁본).



한준겸 묘비. 1988.

秋館事)로 『광해군일기』 편찬에 참여하였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자를 전주에 호종하였다. 이 해 7월 17일 병을 얻어 서울 회현동에서 죽어 원주 음지촌(陰枝村)에 장사했으나, 그 후 지관이 말하기를 "이곳은 지세가 불리하여 후손이 영락(零落)하겠으니 옮기라"고 말하자, 그의 1남 회일(會一)이 인조 14년(1636) 5월 17일 안산 대월리(太月里, 현 시흥시 거모동 산 62)에 장사했다.

그는 풍모가 준수(俊秀)하고 기백이 완연하였으며, 사물에 접하면 혼연(渾然)히 온화한 기색이 가득 찼다. 또 선비를 좋아하고 학문에 힘썼는데,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국가의 고사(故事)나 문헌전장(文獻典章) 등에 밝았다. 저서에 『유천유고(柳川遺稿)』가 있으며, 함흥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묘와 신도비는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고, 효종 3년(1652) 6월에 세운 신도비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1994년 묘역 오른쪽으로 이전과 동시에 비각이 건립되었는데, 비문은 우의정(右議政) 이정구(李廷龜)가 찬(撰)하고, 글씨는 연안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오준(吳竣)이 썼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상용(金尙容)이 전자(篆字)했다. 신도비의 규모는 비신의 높이가 2.55m, 폭 1.13m, 두께 37cm이다. 그리고 행장(行狀)은 대제학(大提學) 정경세(鄭經世)가 찬했고, 묘지문(墓誌文)은 부제학(副提學) 이민구(李敏求)가 찬하고, 글씨는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썼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典故大方』, 『始興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柳川遺稿』(역본), 「韓浚謙神道碑銘」.

(48) 강담(姜紞) : 명종 14년(1559)~인조 15년(1837)



강담 묘표문(탁본).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문경(文卿), 호는 난곡(蘭谷), 본관은 진주(晉州)로 우의정(右議政) 사상(士尙)의 아들이다.

선조 21년(1588) 첫 벼슬로 사산감역(四山監役)이 되었고, 이어 사축서별제(司畜署別提)를 거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그 뒤 이듬해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를 잘 처리하여 평난원종공신(平難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였으며, 이어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 의금부 도사,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을 지냈다.

선조 30년(1597) 사도시 주부(司導寺主簿)로 있을 때 왜군이 서울에

육박하려 하자 선조 비(妃, 懿仁王后)를 수안(遂安)으로 피난할 때 호종하여 호조정랑(戶曹正郞)으로 승진되었다. 선조 33년(1600) 익위사(翊衛司)에 재임된 후, 이듬해 풍덕군수(豊德郡守)로 있을 때 선정을 하여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선조 38년(1605) 다시 익위사가 되었고, 이듬해 삭령군수(朔寧郡守), 광해군 1년(1609) 함흥판관(咸興判官)이 되었으나 대관(臺官)을 거슬러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개성도사(開城都事), 광해군 3년(1611) 통천군수(通川郡守), 1623년 단양군수(丹陽郡守), 여산군수(礪山郡守)를 지냈다. 인조 4년(1626)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고, 이어 인조 8년(1630)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된 후 다시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이장되었다. 묘표의 비문은 영의정(領議政) 이의현(李宜顯)이 찬(撰)하고, 글씨는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윤득화(尹得和)가 썼으며,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晉州姜氏世譜』,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姜紘墓表銘」.

(49) 이충성(李忠聖)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보(元輔), 본관은 덕수(德水)로 부(敷)의 아들이다.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계수동 산 77-1 구미 뒷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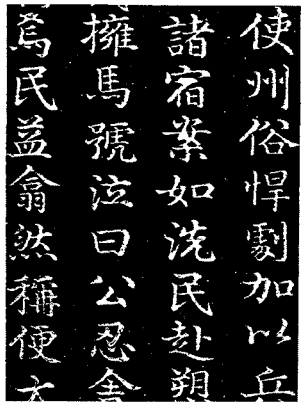
이충성 묘. 1995.

<참고문헌> 『德水李氏世譜』.

(50) 장운익(張雲翼) : 명종 16년(1561)~선조 32년(159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만리(萬里), 호는 서촌(西村)이다. 목천현감(木川縣監) 일(逸)의 아들이며, 우의정 유(維)의 아버지이다. 그의 어머니가 태몽(胎夢) 때 용(龍)의 상서(祥瑞)를 보았다 하여 유명(幼名)을 응용(應龍)이라 하였다.

선조 12년(1579) 사마시(司馬試)에 4등으로 급제하였고, 이어 선조 15년(1582)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을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병조좌랑(兵曹佐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지내고, 고산찰방(高山察訪)에 재임 중 병으로 사



장운익 신도비문(탁본).

직했다가 다시 선천군수(宣川郡守)로 나가 1등을 하여 임금으로부터 포상하는 글을 하사받았다. 이어 지평(持平)에 탁배되고 곧 장령(掌令)에 올라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선조 24년(1591) 양양부사(襄陽府使) 때 정철(鄭澈), 윤두수(尹斗壽) 등의 동조자라는 이유로 홍성민(洪聖民), 이해수(李海壽) 등과 함께 온성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나 망혜령(芒鞋嶺)을 넘어 임금을 호종하였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하여 왕을 항상 시종(侍從)한 공으로 사복시 정(司僕寺 正)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집의(執義)로서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도승지(都承旨)에서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있을 때 치적을 쌓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탁용되자 해주의 주민(州民)들이 그가 탄 말고삐를 잡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렵니까"라고 말하면서 임금께 글을 올려 다시 보내 줄 것을 청하자, 해주목사(海州牧使)로 나가 수양산성(首陽山城)을 수리하는 등 치적을 쌓았으나 모함으로 사직했다.

그 뒤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내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이조판서(吏曹判書)로서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울산싸움에 참전(參戰)하였다. 이후 다시 형조판서를 지내고 이어 도총관(都摠管), 지의금 부사(知義禁府使),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제수하였으나 사면을 청하곤 하였다.

그는 천성이 활달하여 기개가 있고 위풍이 있었다. 또 얼굴은 도톰했으며 살결은 희고 수염은 적었으나 신채(神采)는 빛났다. 집에 있어서는 어린이나 노비들에게까지 큰소리로 꾸짖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관직에 임해서는 동헌(東軒) 중앙에 좌정하고 있으면 교활한 아전들은 숨을 죽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으며, 첩소(牒訴)가 앞에 가득 쌓여도 선 자리에서 결판하였다. 큰 고을을 수차 다스리면서도 궁벽한 시골 백성들까지도 한번 보면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였다. 해주목사로 있을 때 부당한 일로 소장(訴狀)을 낸 사람이 있어 쫓아버렸더니 오랜 뒤에 다시 와 분요한 틈을 타서 제출하자, "이것은 지난번 아무 때에 보내버린 것인데 어찌 감히 다시 귀찮게 하느냐"고 말하자 이속(吏屬)과 백성들이 모두 탄복하여 신명 같다고 칭찬하였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며, 묘는 과천현 북쪽 간향(艮向) 언덕(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신도비는 후손들에 의해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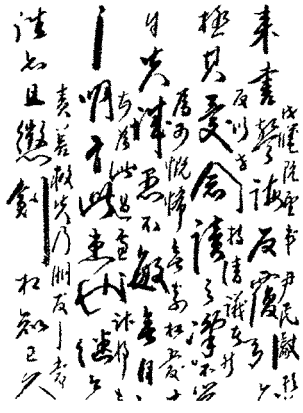
년대에 이르러 아들 장유(張維)의 묘가 있는 시흥시 조남동 산 1-5 응단말로 옮겨졌다. 비신은 높이 1.95m, 폭 98cm, 두께 29cm이며, 비문은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상헌(金尙憲)이 찬(撰)하고 글씨는 대사헌(大司憲) 신익상(申翼相)이 썼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 최석정(崔錫鼎)이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國朝文科榜目』, 『海東名臣錄』, 『月沙集』,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張雲翼神道碑銘」.

(51) 윤민헌(尹民獻) : 명종 17년(1562)~인조 6년(162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익세(翼世), 호는 태비(苔扉),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호조좌랑(戶曹佐郞) 엄(儼)의 아들이며 이이(李珥),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21년(158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가, 광해군 1년(1609)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13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다. 이듬해 전적(典籍)이 된 후 형조좌랑(刑曹佐郞)을 거쳐 광해군 4년(1612)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로 진임되었다. 광해군 5년(1613) 형조정랑(刑曹正郞)으로 춘추관기주관을 겸임하였고, 광해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외직을 자청하여 괴산군수(槐山郡守)로 나갔다가 곧 파직되었다.



윤민헌 필적. □

광해군 9년(1617) 장락원 첨정(掌樂院 僉正)으로 재기용되어 그 해 가을 사성(司成)에 올랐으나, 부당한 인사라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이듬해 대동찰방(大同察訪)으로 나아갔다가 얼마 뒤 파직당하였는데, 이때부터 시흥시 산현동 선묘(先墓)하에 퇴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군자감 정(軍資監 正)에 제수되고, 이어 장령(掌令)·내섬시 정(內贍寺 正)을 거쳐 평안도절도사에 임명된 후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임금을 공주로 호종한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러 병으로 사직한 후 산현동으로 돌아와 사망하였다.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윤민헌 묘갈. 1992

그는 자성(資性)이 순정(純正)하고 일을 당하여 스스로 지킬 줄 알았으며 경사(經史)에 밝고 시문(詩文)에 능하였다. 특히 조맹부(趙孟頫)를 사숙(私淑)하여 해서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깨꼴에 있고, 숙종 35년(1709)에 세운 묘갈은 비신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典故大方』, 『韓國人名大事典』,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尹民獻墓碣銘」.

의 높이가 2.34m, 폭 97cm, 두께 32cm인데, 비문은 손자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이 찬(撰)하고, 글씨는 손자인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윤지인(尹趾仁)이 썼으며,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윤덕준(尹德駿)이 전자(篆字)했다.



류희담 묘비. 1986.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52) 류희담(柳希聃) : 명종 18년(1563)~광해군 6년(161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백(景伯), 본관은 문화(文化)로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의 2남이다. 선조 23년(1590) 판결사(判決事)가 되었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문원군(文原君)에 봉해졌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뒤에 있다.

(53) 윤민일(尹民逸) : 명종 19년(1564)~인조 13년(1635)

조선시대의 문인. 자는 현세(顯世), 호는 지산(芝山),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이조좌랑(吏曹佐郎) 엄(儼)의 아들이고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21년(1588) 생원(生員)·진사(進士) 양시(兩試)에 합격하고, 선조 28년(1595)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거쳐 선조 34년(1601)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내고, 이어 예조좌랑(禮曹佐郎), 다음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세자시강원문학을 겸직하였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이미 죽은 성혼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음모하자 스승의 신구(伸救)를 상소하다가 수원판관(水原判官)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선조 36년(1603)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지내고, 다음해 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을 역임한 뒤 합천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광해군 원년(1609) 성균관 전적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면서 『선조실록(宣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광해군 10년(1618) 동래부사(東萊府使), 인조 5년(1627) 관직을 사임한 뒤 고향에서 수년 동안 한거하다가 사망하였다.

묘는 시흥시 장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4) 류희성(柳希成)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도선(道仙),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면천군수(沔川郡守)를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에 있다.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55) 류희발(柳希發) : 선조 1년(156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인초(軔初), 본관은 문화(文化)로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의 4남이다. 광해군 1년(1609)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4등으로 급제하여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둔터골(屯垈谷 또는 屯墟洞)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文化柳氏派譜』.

(56) 류희로(柳希老) : 선조 1년(156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기숙(耆叔), 본관은 문화(文化)로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 덕신(德新)의 아들이다. 선조 36년(1603) 생원시(生員試)에 오르고, 이어 이천(利川) 및 부평(富平)의 부사(府使)를 역임하고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에 있다.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57) 류계(柳契)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관숙(寬叔),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 덕신(德新)의 아들이며 부평부사 희로(希老)의 아우이다. 현감(縣監)을 역임하고 참의(參議)에 증직되었다.

묘는 시흥시 논곡동 오자산(五子山)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58) 이숙(李琡) : 선조 7년(1574)~인조 6년(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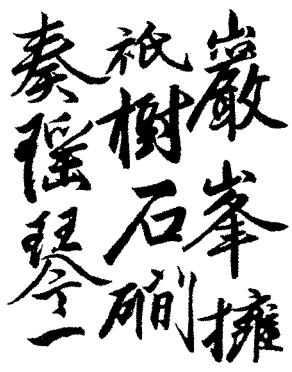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치규(穉圭), 호는 만취(晩翠), 본관은 평창(平昌)

으로 별제(別提) 정직(廷直)의 1남이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묘는 인천 만수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되었다. 권대재(權大載)가 찬(撰)한 묘표(墓表)가 있다.

<참고문헌> 『平昌李氏世譜』.

(59) 류희량(柳希亮) : 선조 8년(1575)~인조 6년(1628)



류희량 필적. □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용경(龍卿), 호는 제교(霽嶠)·봉음(峯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아버지는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이며, 어머니는 좌의정(左議政) 정유길(鄭惟吉)의 딸이다.

선조 36년(160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광해군 즉위년(1608)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역임했고, 이어 설서, 정언(正言), 진한 등을 지냈다. 그 뒤 이조정랑(吏曹正郎), 교리, 수찬(修撰), 지평(持平), 사인(舍人),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광해군 2년(1610) 분승지(分承旨), 사복시 정(司僕寺正),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집안이 주살 또는 유배될 때 그도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인조 6년(1628) 귀양가 있던 아들 두립(斗立)과 조카 효립(孝立)의 묘역사건에 연좌되어 유배지에서 교살되었다. 글씨를 잘 썼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도일에 있다가 1980년대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海東號譜』, 『國朝文科榜目』, 『朝野輯要』,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文化柳氏派譜』.

(60) 김영정(金永鼎)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 도(鍍)의 아들이다. 하양현감(河陽縣監)을 거쳐 단천부사(端川府使)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본향산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安東金氏世譜』, 『始興郡誌』 上.

(61) 류효립(柳孝立) : 선조 12년(1579)~인조 6년(162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행원(行源),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의 손자이며, 진사(進士) 희갱(希鏗)의 1남이다.

현감(縣監)으로 있다가 광해군 1년(1609)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으나, 인조 6년(1628) 숙부(叔父) 희량(希亮) 등과 함께 역모사건으로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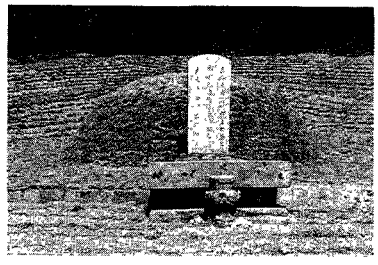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生谷)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文化柳氏派譜』.

(62) 한회일(韓會一) : 선조 13년(1580)~인조 20년(164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형보(亨甫), 호는 유주(柳洲),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아버지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준겸(浚謙)이며, 어머니는 예조좌랑(禮曹佐郞) 황성(黃城)의 딸이다. 음보(蔭補)로 남양부사(南陽府使)를 거쳐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산 62-4에 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1992년 4월 28일 본래 위치에서 북으로 약 20m 떨어진 한준겸 묘 옆(동)으로 천장되었다.



한회일 묘. 1993.

<참고문헌> 『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始興金石總覽』, 「韓會一墓碑銘」.

(63) 류희안(柳希安) : 선조 14년(1581)~인조 16년(163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기(汝起), 본관은 문화(文化)로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자신(自新)의 아들이며, 예조참판(禮曹參判) 희량(希亮)의 아우이다. 사복첨정(司僕僉正)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사미 옥녀봉 아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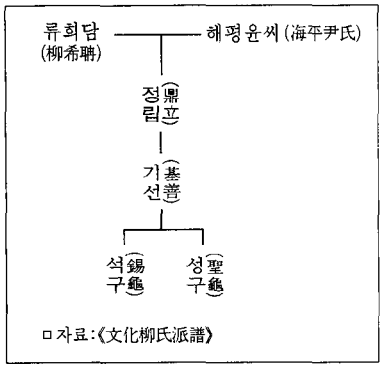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64) 류충립(柳忠立) : 선조 5년(1582)~광해군 2년(162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가이(可移), 호는 쌍백(雙栢), 본관은 문화(文化)로 진사(進士) 희갱(希鏗)의 아들이며 도승지(都承旨) 효립(孝立)의 형이다. 선조 39년(1606)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광해군 2년(1610)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교리(校理)를 지낸 뒤 사인(舍人), 부윤(府尹)을 역임하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문계군(文繼君)에 봉해졌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生谷)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文化柳氏派譜』.



류정립 가계표.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蓮城姓譜』, 『文化柳氏派譜』.

(65) 류정립(柳鼎立) : 선조 16년(1583)~?

조선시대의 문신. 초명은 신립(信立), 자는 실보(實甫), 호는 산북산인(山北散人), 본관은 문화(文化)로 문원군 희담(希聃)의 아들이다. 선조 39년(1606) 생원(生員)을 거쳐 광해군 10년(1618)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 후 인조 6년(1628) 종형(從兄) 모역사건에 연좌되어 홍주(洪州)에 부처되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에 있다.

(66) 장륜(張綸) : 선조 19년(1586)~인조 4년(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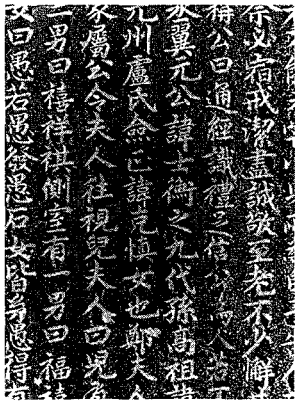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정국(正國),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운익(雲翼)의 1남이며, 우의정(右議政) 유(維)의 형이다.

광해군 8년(1616)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을 지냈다. 덕수 장씨 중 장곡동 안골·매꼴에 입향(入鄕)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德水張氏族譜』.

묘는 시흥시 장곡동 안골과 장곡국민학교 사이에 있다.

(67) 김이경(金以鏡) : 선조 27년(1594)~숙종 4년(1678)



김이경 묘갈문(탁본).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군회(君晦),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개국공신(開國功臣) 사형(士衡)의 9대손으로 첨정(僉正) 요(璙)의 아들이다.

인조 8년(1630) 생원(生員)·진사(進士) 양시(兩試)에 오른 후 이듬해 음보로 금정찰방(金井察訪)에 임명되었고, 인조 14년(1636)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태인현감(泰仁縣監)을 거쳐 인조 16년(1638) 형조·병조 좌랑을 지냈다. 그 뒤 인조 27년(1649)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에 올라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예조정랑(禮曹正郞), 통례원좌우통례(通禮院左右通禮) 등을 거쳐 현종 4년(1663) 봉상시 정(奉常寺正)을 역임했다. 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현종 14년(1673)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외관(外官)으로 재임 중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金以鏡墓碣銘」.

(68) 이군미(李君美) : 선조 29년(1596)~현종 4년(166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국보(國輔), 본관은 성주(星州)로 봉사(奉事) 성(珹)의 아들이다. 종사랑(從仕郞)을 지냈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안말에 있다.



이군미 묘. 1994.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李君美墓碑銘」.

(69) 윤겸(尹謙) : 선조 34년(1601)~현종 6년(166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옥(汝玉), 호는 오옹(梧翁),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판관(判官) 경승(慶承)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6세에 시·서(詩書)를 읽어 기동(奇童)이라 칭했다.

인조 5년(1627)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뒤 이듬해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5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으로 선발되었다가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승진되었고, 이어 사복시 정(司僕寺 正), 봉상시 정(奉常寺 正), 장락원 정(掌樂院 正), 종부시 정(宗簿寺正),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헌납(獻納), 지평(持平),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 문학(文學), 필선(弼善)을 지냈다. 그 후 성균관에 있어서는 직강(直講)과 사예(司藝)를 지내면서 춘추관의 겸 춘추(春秋)를 관장하였다. 외직으로는 무장(茂長), 옹진(甕津), 배천(白川), 남양(南陽), 이천(利川), 평산(平山) 등지의 수령과 양재찰방(良才察訪) 및 강원도사(江原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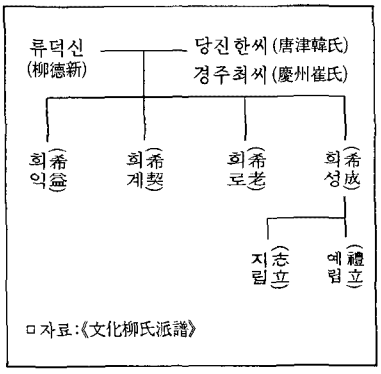


윤겸 묘갈문(탁본).

그는 성품이 관대하고 온유(溫柔)하였으며, 평소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외직으로 있을 때는 자신을 단속하는 데 엄격하고 주민들에게는 항상 관대하였으며 송사(訟事)를 맑게 다스렸으므로,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善政)을 베풀어 주민들이 거사비(去思碑, 공덕비)를 세웠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고, 영조 5년(1729)에 세운 묘갈의 비신은 높이 1.49m, 폭 71cm, 두께 31cm로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찬(撰)했고 글씨는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조명교(曺命敎)가 썼다.

<참고문헌> 『孝宗實錄』, 『顯宗實錄』, 『明谷集』,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尹謙墓碣銘」.



류지립 가계표.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文化柳氏派譜』.

(70) 류지립(柳志立) : 선조 34년(1601)~현종 10년(166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치원(致遠), 본관은 문화(文化)로 면천군수(沔川郡守) 희성(希成)의 2남이다. 인조 13년(1635)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인조 20년(1642)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울산부사(蔚山府使)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에 있다.

(71) 류두립(柳斗立) : 선조 34년(1601)~인조 6년(1628)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군수(君壽), 호는 탁영정(濯纓亭),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예조참판(禮曹參判) 희량(希亮)의 아들이다.

광해군 6년(1614)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광해군 13년(1621) 별시(別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인조 6년(1628) 아버지와 종형(從兄)인 효립(孝立)과 함께 역모사건 때 처형되었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도일에 있다가 1980년대 도시화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文化柳氏派譜』.

(72) 이석(李晳) : 선조 36년(1603)~숙종 11년(168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이(白而), 호는 옥산(玉山)·서은(鋤隱),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파흥군 응순(應順)의 아들로 성문준(成文濬), 이안눌(李安訥)의 문인(門人)이다.

인조 12년(1634)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제수되었고, 인조 15년(1637)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을 거쳐 예조(禮曹)와 병조(兵曹)의 좌랑을 지내고, 이듬해 은산현감(殷山縣監), 선조 19년(1641)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청나라의 심양(瀋陽)을 다녀왔다. 이듬해 경차관(敬差官)으로 영남의 재해를 조사했다. 인조 22년(1644) 평안도 도사, 이듬해 세자시강원 필선, 인조 24년(1646) 사간원 헌납, 선조 27년(1649) 성균관 직장(成均館直長)을 지내고, 이 해 효종이 즉위하자 집의(執義) 김홍욱(金弘郁)과 함께 김자점(金自點)의 죄를 가장 먼저 논하였다.

효종 1년(1650) 사헌부 집의로 김여수(金汝水)의 탐장(貪贓)을 논하였

고, 효종 7년(1656) 동부승지, 공조참의를 지내고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연행(燕行)하였다. 이듬해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나가 요무(妖巫)가 함부로 부중(府中)을 출입하면서 음사(淫祀)를 행하므로 그를 장살하여 그 폐단을 없앴다. 그 후 낭천(狼川)으로 은퇴했다가 현종 8년(1667) 홍천목사, 이듬해 양양부사, 이후 첨지중추, 공조참의, 동지중추 등을 지냈다.

숙종 6년(1680) 호조참판(戶曹參判), 숙종 8년(1682) 지돈령 부사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장정(莊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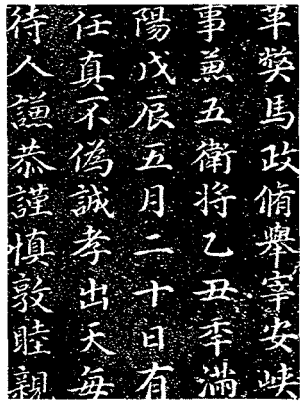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3) 성운한(成雲翰) : 선조 39년(1606)~숙종 14년(168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붕거(鵬擧),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증 대사헌(贈大司憲) 여용(汝容)의 아들이다.

인조 13년(1635) 사마시(司馬試)에 올랐으나, 이듬해의 병자호란(丙子胡亂) 이후로는 산촌에 은거, 몇 번 왕명이 있었지만 벼슬에 뜻이 없어 나가지 않았다. 효종 1년(1650) 사재감 참봉(司宰監參奉)에 제수되고 이어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 종부시(宗簿寺) 및 의영고(義盈庫)의 직장(直長),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 등을 역임했으며, 기린도 찰방(麒麟道察訪)과 안협현감(安峽縣監)에 재직시에는 마정(馬政)의 폐단을 개혁하고 빈민구제에 힘썼다.



성운한 묘표문(탁본).

숙종 4년(1678) 1남 호징(虎徵)의 공로로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 되었고, 숙종 11년(1685) 80세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고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에 올랐다.

그는 품성이 중후하고 진실무위한 군자였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자 어머니 봉양하기를 지극히 했고, 상사 때에는 몸이 쇠퇴하였지만 집상 예절이 공근(恭勤)하여 기일이 당도하면 목욕재계로 정결히 하고 제례를 갖추었다. 자손의 교훈은 엄정하였으며 대인교제는 항상 겸손, 신중했으며 친척간은 귀천을 막론하고 늘 돈독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다. 숙종 14년(1688)에 세운 묘표의 규모는 비신의 높이 1.48m, 폭 63cm, 두께 25cm이며, 비문은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남용익(南龍翼)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明谷集』,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成雲翰墓表銘」.

(74) 이창현(李昌炫) : 광해군 1년(1609)~현종 12년(167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회경(晦卿), 호는 용은(龍隱),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감찰(監察) 숙(璹)의 2남이다. 인조 11년(1633) 진사에 오른 후, 효종 2년(1651) 정시(庭試)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했다.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에 시집 두 권이 있다.

묘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萬壽洞)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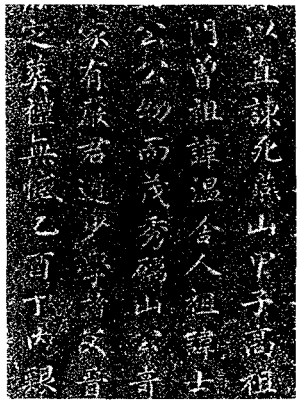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平昌李氏世譜』.

(75) 이증(李曾) : 광해군 2년(161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오(省吾), 본관은 전주(全州)로 파흥군(坡興君) 응순(應順)의 아들이다. 효종 2년(1651)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장원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에 있다가 필선(弼善), 검열(檢閱),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강홍익 묘갈문(탁본).

(76) 강홍익(姜弘益) : 광해군 3년(1611)~현종 2년(166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수(汝受), 본관은 진주(晉州)로 단양군수(丹陽郡守) 담(紞)의 아들이다. 인조 26년(1648) 음보(蔭補)로 선공감역(繕工監役)이 되었고, 효종 2년(1651)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이듬해 전의현감(全義縣監)으로 목천(木川)을 전의현(全義縣)에 귀속시켰다. 그 후 별제(別提)를 역임하고, 이어 효종 9년(1658) 신계현령(新溪縣令)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되었으나, 시흥공단 토취장의 편입으로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묘갈의 비문은 강석빈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姜弘益墓碣銘」.

(77) 권대운(權大運) : 광해군 4년(1612)~숙종 25년(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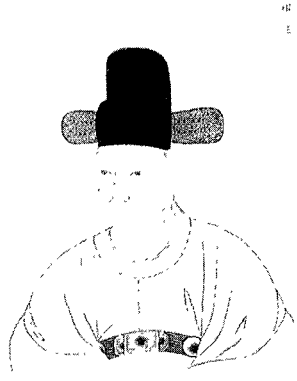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시회(時會), 호는 석담(石潭),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예조판서 협(悏)의 손자이며, 사어(司禦) 근중(謹中)의 아들이다.

인조 20년(1642)에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인조 27년(1649)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효종 10년(1659)에 정언(正言)으로 복상문제에 남인(南人) 윤휴(尹鑴)의 3년설을 지지하여 서인(西人) 송시열(宋時烈) 등의 기년설(朞年說)을 반대하였다. 이후 지평(持平), 헌납(獻納), 이조정랑(吏曹正郎), 응교(應敎), 사간(司諫) 등을 거쳤다. 그 후 형조(刑曹)·병조(兵曹)·예조(禮曹) 참의(參議)와 좌승지(左承旨),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형조참판(刑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 등을 역임하고, 현종 7년(1666)에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고 이어 대사간,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현종 11년(1670)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이어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이 되었고 판의금부사를 겸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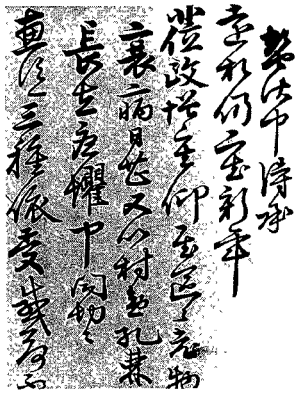
현종 15년(1674)에 숙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 해 다시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허적(許積) 등과 함께 대공설(大功說)을 반대하고 기년설을 주장하여 서인을 몰락시키고 우의정(右議政),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득세하게 되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밀려났다가 파직당한 뒤 영일(迎日)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그 후 숙종 15년(1689)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다시 등용되어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이때 유배 중인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사사(賜死)하도록 한 후 치사하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러나 숙종 20년(1694)에 남인이 숙종의 폐비인 민씨(閔氏)의 복위운동을 일으킨 소론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폐비 사건을 후회하고 있던 숙종의 미움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절도(絶島)에 방귀(放歸)되었다. 이듬해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하여 풀려나 귀향하게 되었다. 과격파 남인으로 당쟁에 휘말렸으나 생활이 검소하고 청렴하여 명망이 높았는데, 죽고 난 뒤 임금의 특명으로 직첩이 환급되었다.

묘는 시흥시 도창동 도두머리 마을(道頭里)에 있다.



권대운 초상. □



권대운 필적.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樊巖集』,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8) 류성립(柳誠立) : 광해군 6년(161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천(汝天),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효종 1년(1650)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했고,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文化柳氏派譜』.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사티골(生谷)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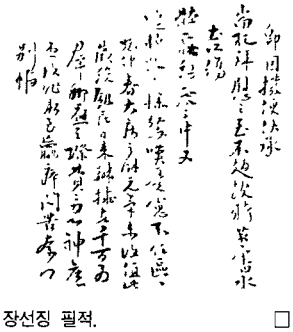
(79) 장선징(張善澂) : 광해군 6년(1614)~숙종 4년(1678)



장선징 묘. 199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정지(淨之, 족보에는 靜之로 기록됨), 호는 두곡(杜谷), 본관은 덕수(德水), 시흥시 장곡동 안골에서 출생했다. 우의정(右議政) 유(維)의 1남이며,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오빠이다.

인조 시기에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음보로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에 보직되었으며, 세자익위사위수를 거쳐 인조 26년(1648)에 김화현감을 지냈다. 효종 때 공조정랑, 배천군수를 역임했으며, 현종 시기에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를 지냈다. 이어 현종 3년(1662)에 철원부사로 있을 때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장, 사헌부 지평, 장령, 부교리, 헌납, 교리, 수찬, 사간, 우부승지,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병조참판으로 아버지의 작위를 승습하여 풍양군(豊陽君)에 봉하여진 뒤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공조판서, 예조판서, 우참찬 등을 지냈다. 현종 15년(1674)에 숙종이 즉위한 뒤 좌참찬,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등을 지냈다.



장선징 필적. □

숙종 3년(1677) 한성부 판윤으로 있을 때 외척 김우명(金佑明)의 무소(誣訴)로 송시열(宋時烈)이 거제부에 안치되자 이에 대한 철회를 간청하였으나 숙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사헌부 집의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신원(伸寃)하여 줄 것을 청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자, 이상의 관직 삭탈명령을 환수해 줄 것을 주청하다가 척신으로서 사(私)를 앞세우고 공(公)을 뒤로 한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송시열의 신원을 간청하는 상소를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자 고향에 돌아가 두문불출하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옹막리)의 월파정(月波亭)은 그의 정자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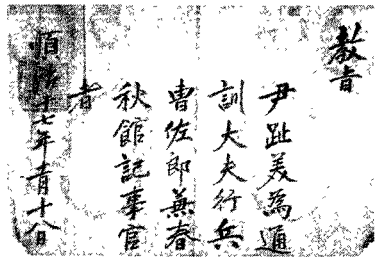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江漢集』, 『國朝文科榜目』, 『果川邑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德水張氏族譜』.

시호는 정장(正莊)이며,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5에 있다.

(80) 윤지미(尹趾美) : 광해군 8년(1616)~현종 4년(166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린(伯麟),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강(絳)의 아들이다. 인조 20년(1642)에 생원(生員)에 오르고, 효종 2년(1651) 세마(洗馬)에 임명되었다. 그 후 효종 8년(1657)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역임하였고 이어 현종 1년(1660) 7월 18일 지평(持平) 겸 춘추관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 이해 11월 18일 병조좌랑(兵曹佐郎) 겸 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을 거쳐 경기도사(京畿都事)에 이르렀다. 영조 15년(1739) 부제학(副提學) 겸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윤지미 교지(1660. 후손 윤왕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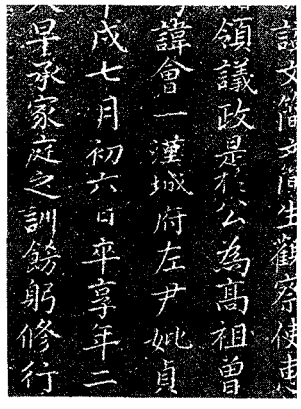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81) 한두상(韓斗相) : 인조 5년(1627)~숙종 13년(1687)

조선시대의 문인으로 자는 이망(而望),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세마군수(洗馬郡守) 익명(翼明)의 아들이나 생원(生員) 이성(以成)에게 양자했다.

참봉(參奉)을 거쳐 금정찰방(金井察訪), 직장(直長),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 도사(都事), 좌수운 판관(左水運判官), 사평(司平),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등을 역임했다.

묘는 첫 부인(숙부인 양주 조씨)과 합장으로 시흥시 거모동 산 62-4 증조인 한준겸 묘 아래(남)에 있고, 둘째부인 남양 홍씨의 묘는 거모동 군자교회 뒤에 있다가 1992년 4월 28일 한두상·양주 조씨와 합장키 위해 봉분 제거시 지석(誌石)이 출토되었으나 함께 봉안되었다. 숙종 27년(1701)에 세운 한두상의 묘갈 비문은 이봉징(李鳳徵)이 찬(撰)하고, 글씨는 아들 종노(宗老)가 썼다.



한두상 묘갈문(탁본).



한두상 묘. 1994

<참고문헌> 『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韓斗相墓碣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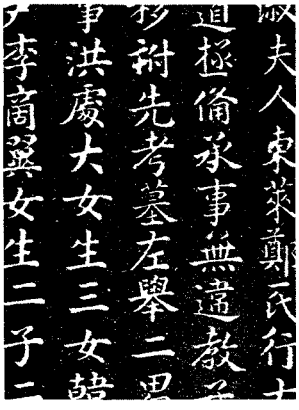
(82) 강진(姜璡) : 인조 6년(1628)~숙종 8년(168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옥(伯玉), 본관은 진주(晉州)로 신계현령(新溪縣令) 홍익(弘益)의 아들이다. 현종 9년(1668) 음보(蔭補)로 사산감역(四

<참고문헌> 『晉州姜氏通溪公派譜』, 『始興郡誌』 上.



윤징하 묘갈. 1990.



윤징하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坡平尹氏族譜』, 「尹徵夏墓碑銘」.

山監役)이 되었고, 이듬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현종 12년(1671) 감찰(監察)에서 은율현감(殷栗縣監)으로 옮겼다. 그 후 숙종 4년(1678)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내고, 이듬해 진보현감(眞寶縣監)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된 후, 다시 시흥공단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83) 윤징하(尹徵夏) : 인조 7년(1629)~숙종 25년(169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문경(文卿),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평산부사(平山府使) 겸(謙)의 아들이다.

현종 1년(1660)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음공(蔭功)으로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제수된 후, 현종 10년(1669) 기린찰방(麒麟察訪)에 임명되어 재임 중 현종 12년(1671) 큰 흉년이 들자 구제(救濟)정책을 훌륭하게 베푼 공로로 회덕현감(懷德縣監)이 되었다. 이어 주부(主簿), 사평(司評), 도사(都事) 등에 이르렀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자혜(慈惠)롭고 마음이 성실하여 꾸밈이 없었으며, 벼슬에 나가서나 집에서 있을 때나 항상 덕을 베풀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하였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다. 영조 5년(1729)에 세운 묘갈의 비문은 윤회(尹會)가 찬(撰)하고 아울러 글씨를 썼다.

(84) 이동식(李東植) : 인조 7년(1629)~숙종 31년(170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춘보(春甫), 호는 설호(雪湖),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부제학(副提學) 홍경신(洪慶臣)의 외손으로 참봉(參奉) 관(灌)의 1남이다. 족보 『신평이씨세보(新平李氏世譜)』에는 1630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숙종 1년(1675)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문장필한(文章筆翰)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허목(許穆)에게 거슬려 제주교수(濟州敎授)로 나갔다가 돌아온 뒤 전적(典籍)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이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吏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을 역임했다.

장하동 원뒤(院後)에 입향(入鄕)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묘는 시흥시 장하동 산 11-1 송장산에 있다가 1967년 4월 13일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가장곡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新平李氏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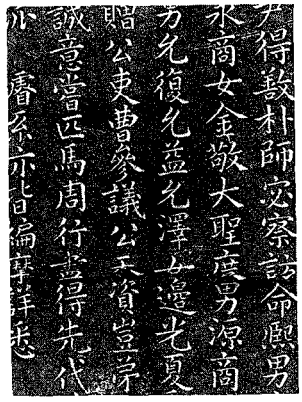
(85) 한덕량(韓德亮) : 인조 8년(163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명중(明仲),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아버지는 부사과(副司果) 해(澥)이며, 어머니는 증 참판(參判) 이우렴(李友濂)의 딸이다.

7세 때 아버지가 죽어 어머니에게 예의를 배우고, 밤에는 복부(腹部)에 글자를 그려 가며 교육을 받았다. 음보(蔭補)로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에 임명된 후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을 역임하고, 현종의 비(妃) 명성왕후(明聖王后)가 죽자 산릉관(山陵官)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가, 숙종 14년(1688)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에 이르렀다.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단아하였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탓에 어머니를 섬김에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고, 필마(匹馬)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대(先代)의 유실된 분묘(墳墓)들을 찾아내어 빠짐없이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써서 표시하였다.

묘는 시흥시 정왕동 산 48(삼한)에 있다가 1988년 시화지구 토취장에 편입되어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산 92(현 안산시 사사동 92)로 이장되었다. 영조 45년(1769)에 세운 묘갈은 비신의 높이가 1.42m, 폭 59cm, 두께 29cm이며, 비문의 글씨는 교리(校理) 김문순(金文淳)이 썼다.



한덕량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韓德亮墓碣銘」.

(86) 성호열(成虎烈) : 인조 8년(1630)~숙종 25년(169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풍후(風后),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운한(雲翰)의 아들이다.

현종 15년(1674) 영릉참봉(寧陵參奉)에 임명된 후 별제(別提), 주부(主簿), 사평(司評),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등을 거쳐 숙종 6년(1680)에 양구현감(楊口縣監)을 역임하였다. 숙종 8년(1682)에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를 거쳐 금천현감(衿川縣監)이 되었고, 숙종 11년(1685)에 포천현감

(抱川縣監)이 되었으나 당시에 거듭된 사화(士禍)로 은거하였다. 이어 숙종 20년(1694) 과천현감(果川縣監)으로 어사 민진후(閔鎭厚)가 최고의 성적으로 평가할 만큼 농민구제의 공적이 컸다. 숙종 22년(1696)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되어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다. 숙종 44년(1718)에 세운 묘표의 비문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권상하(權尙夏)가 찬(撰)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李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成虎烈墓表銘」.

(87) 강린(姜璘) : 인조 9년(1631)~숙종 38년(171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옥(仲玉), 본관은 진주(晉州)로 신계현령(新溪縣令) 홍익(弘益)의 아들이다.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를 거쳐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 연기현감(燕岐縣監) 등을 역임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참판(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되었으나,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88) 강침(姜琛) : 인조 12년(1634)~숙종 19년(169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계헌(季獻),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신계현령(新溪縣令) 홍익(弘益)의 아들이며, 연기현감(燕岐縣監) 린(璘)의 아우이다.

이경석(李景奭)의 문인으로 효종 8년(165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되고, 현종 12년(1671)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현종 14년(1673)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를 거쳐 감찰(監察), 연산현감(連山縣監), 사평(司評), 영동현감(永同縣監), 공조정랑(工曹正郞)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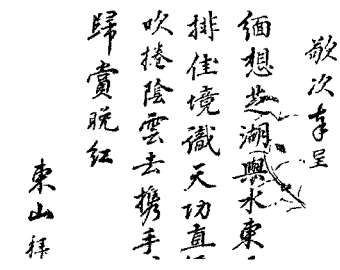
영남관찰사 윤지완(尹趾完)의 추천으로 대구부사(大丘府使)를 지낸 뒤, 평양서윤(平壤庶尹), 선혜청 낭관(宣惠廳郞官), 선산부사(善山府使) 등을 역임하고, 숙종 17년(1691) 원주목사(原州牧使)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된 후, 다시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姜琛行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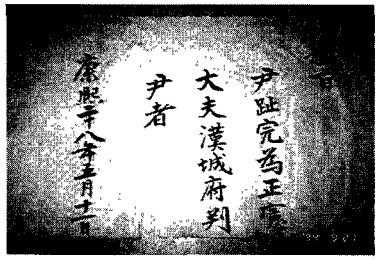
(89) 윤지완(尹趾完) : 인조 13년(1635)~숙종 44년(171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강(絳)의 아들이며 좌의정(左議政) 지선(趾善)의 아우이다. 효종 8년(1657)에 생원(生員)·진사(進士)에 합격하고, 현종 3년(1662)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에 4등으로 급제하여 현종 14년(1673) 설서(說書)를 거쳐 헌납(獻納) 부수찬(副修撰) 등을 지냈다.



윤지완 필적. □

숙종 1년(1675) 지평(持平)으로 시독관(侍讀官)을 겸하여 경연(經筵)에 나가 당쟁의 폐단을 통박하고, 덕원으로 유배된 송시열(宋時烈)의 신구(伸救)를 건의하였다가 당시 집권당인 남인(南人)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숙종 6년(1680)에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西人)이 집권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부교리에 등용되고, 이어 부응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2년 후 통신사가 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일행은 부사 이언강(李彦綱) 등 475인이었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는 우리나라를 상국(上國)이나 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식하여 우리 사절을 맞이함으로써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정권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일본에 다녀온 이듬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어영대장(御營大將), 예조판서(禮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숙종 10년(1684) 경상도관찰사에 재임되었다. 그 뒤 숙종 14년(1688)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거쳐 이듬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숙종 15년(1689) 이어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는데, 이 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송시열 등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파직되어 유배되었다.



윤지완 교지(1689. 후손 윤왕렬 제공).

숙종 20년(1694) 폐비 민씨 복위운동과 관련된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자 민씨의 복위를 지지한 소론이 등용됨에 따라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을 얻어 좌참찬(左參贊),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나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인 안산 동산(東山, 지금의 안산시 원곡동 동산골로 알려짐)으로 내려갔다가 숙종 30년(1704)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숙종 43년(1717)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는데, 이 해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숙종과 독대(獨對)가 있었고, 세자(世子, 경종)에게 청정(聽政)의 어명이 있자 80세의 노구로 관(棺)을 가지고 서울에 돌아와 이이명의 옥대를 통박하고 세자 청정이 아직 시기가 이름을 극언하였다.

이때 그는 또 이이명을 가리켜 "대신은 국왕의 사신(私臣)이 아니다"라고 통박하였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숙종묘정(肅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경종 2년(1772)에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위패는 숭모각(崇慕閣, 산현동 소재)에 모셔졌다.

<참고문헌>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杜浦東山公史錄選』.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묘는 본래 시흥시 산현동 안장바위에 있었으나 안산 어부들의 상소로 개성시 영통동 오관산(五冠山)으로 천묘되었다.

(90) 장선(張愃) : 인조 13년(1635)~숙종 12년(1686)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인경(麟卿),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우의정(右議政) 유(維)의 손자이며 예조판서(禮曹判書) 징(澄)의 1남이다. 천안군수(天安郡守)를 역임했다.

<참고문헌> 『德水張氏族譜』.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5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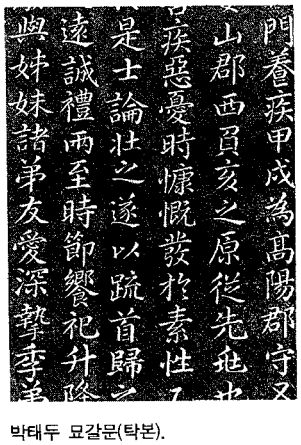
(91) 김석(金晳) : 인조 15년(163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회경(晦卿), 본관은 언양(彦陽)으로 경주(慶胄)의 아들이다.

안산(安山)에 생거(生居) 중 숙종 5년(1679) 정시(庭試)에 갑과(甲科)로 장원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연임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박태두 묘갈문(탁본).

(92) 박태두(朴泰斗) : 인조 15년(1637)~숙종 22년(169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희문(希文)·백첨(伯瞻),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금양위(錦陽尉) 미(瀰)의 손자이며, 첨정(僉正) 세교(世橋)의 아들이다. 종숙부 박세채(朴世采)와 민업(閔業)의 문하생이다.

숙종 1년(1675) 예송(禮訟) 문제로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되자 유생(儒生)들과 함께 상소하다가 과거응시자격을 박탈당하였다. 그 후 숙종 6년(1680) 음보(蔭補)로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역임하고, 숙종 8년(1682) 태인현감(泰仁縣監), 숙종 10년(1684) 군자판관(軍資判官)·문화현령(文化

縣令), 이듬해 온양군수(溫陽郡守)를 지내고, 숙종 20년(1694) 고양군수(高陽郡守)에 이르렀다. 이조참판(吏曹參判) 금은군(錦恩君)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있으며, 묘갈의 비문은 권상하(權尙夏)가 찬(撰)하고, 글씨는 참판(參判) 김상옥(金相玉)이 썼으며, 우의정(右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潘南朴氏世譜』, 『始興郡誌』 上, 「朴泰斗墓碣銘」.

(93) 김석명(金錫命) : 인조 20년(1642)~숙종 43년(171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산(汝山),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사복시 정(司僕寺正) 찬(讚)의 손자이며, 성대(聲大)의 아들이다.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현종 15년(1674)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로 강동현감(江東縣監)이 되었으나 무(武)를 겸비하여 다시 선전관으로 임명되었다. 숙종 6년(1680)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을 거쳐 창성부사(昌城府使), 창주진첨절제사(昌州鎭僉節制使), 오위장(五衛將), 갑산부사(甲山府使) 등을 지내고 숙종 30년(1704)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서 충청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에 올랐으며, 그 뒤 부총관(副摠管), 강계방어사(江界防禦使) 등을 역임했다.

묘는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世碣』, 『安山金氏世譜』,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94) 장진환(張震煥) : 인조 24년(1646)~경종 2년(172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문중(文仲), 호는 노주(鷺州), 본관은 덕수(德水)로 예산현감(禮山縣監) 설(楔)의 아들이나 천안군수(天安郡守) 선(楦)에게 양자했다.

고성군수(高城郡守)를 역임했으며,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5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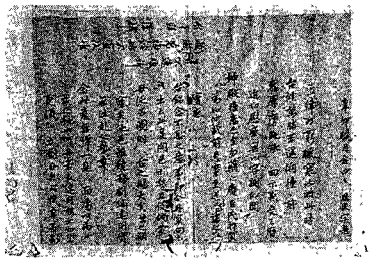
<참고문헌> 『德水張氏族譜』.

(95) 김항(金抗) : 인조 24년(164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태초(太初),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광적(光績)의 아들이다. 숙종 5년(1679)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에 7등으로 급제하여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한종노 필적(후손 한봉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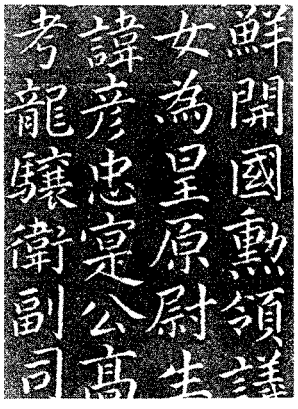
<참고문헌>『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96) 한종노(韓宗老) : 효종 1년(1650)~숙종 40년(171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태수(太叟), 호는 유당(柳塘), 본관은 청주(淸州)로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두상(斗相)의 1남이다. 숙종 7년(1681) 진사시(進士試)에 오른 후 고성군수(高城郡守)에 이르렀다. 글씨에 능통하며 『유당유고(柳塘遺稿)』가 전해진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산 62-4에 있다. 행장(行狀)은 종자(從子) 덕사(德師)가 찬(撰)했으며, 묘갈의 비문은 대제학(大提學) 조관빈(趙觀彬)이 찬했다.

(97) 이하보(李夏輔) : 효종 3년(1652)~숙종 42년(1716)



이하보 묘갈문(탁본)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우경(禹卿), 본관은 성주(星州)로 아버지는 부사과(副司果) 광원(光遠)이며, 어머니는 연안(延安) 김씨로 해(垓)의 딸이다.

숙종 23년(1697)에 처음 벼슬에 나가 참봉(參奉), 제용감(濟用監), 상서원(尙瑞院), 태복시(太僕寺), 의금부(義禁府)를 두루 역임하고, 이어 평택현감(平澤縣監)에 이르렀는데, 경기도관찰사가 그의 업적을 조정에 아뢰어 숙종이 특별히 안팎 옷감 한 벌을 하사하였다.

그는 성품이 성실하고 기량(器量)이 중후(重厚)하였고, 선세(先世)를 받드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안말에 있고, 묘갈의 비신 규모는 높이 1.08m, 폭 50cm, 두께 22cm이다. 영조 3년(1727)에 세운 이 묘갈의 비문은 손자 홍진(弘鎭)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星州李氏大同譜』,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98) 강석후(姜碩厚) : 효종 5년(1654)~영조 11년(173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덕보(德甫), 본관은 진주(晉州)로 첨정(僉正) 린(璘)의 아들이다. 숙종 3년(1677) 진사(進士)가 되고,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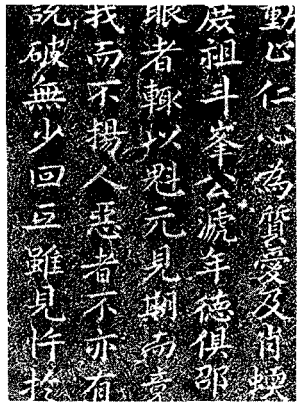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에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되었으나,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99) 박필하(朴弼夏) : 효종 7년(1656)~숙종 45년(171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진명(進明), 호는 지비재(知非齋),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고양군수(高陽郡守) 태두(泰斗)의 아들이다. 경릉참봉(敬陵參奉)을 거쳐 현감등을 역임하였고 좌찬성(左贊成)·금령군(錦寧君)에 추증되었다.

묘는 본래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현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다가 반월지역의 개발로 1970년대 초에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이장하였고, 묘갈의 글씨는 아들 형조판서(刑曹判書) 사익(師益)이 썼다.



박필하 묘갈문(탁본).

<참고문헌> 『潘南朴氏世譜』, 『始興郡誌』 上, 「朴弼夏墓碣銘」.

(100) 강석제(姜碩齊) : 효종 10년(1659)~영조 18년(174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숙(師叔), 호는 난계(蘭溪), 본관은 진주(晉州)로 진보현감(眞寶縣監) 진(璡)의 아들이다. 숙종 17년(1691)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되었으나,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101) 강석태(姜碩泰) : 효종 10년(1659)~영조 20년(174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형보(亨甫), 본관은 진주(晉州)로 원주목사(原州牧使) 침(琛)의 아들이다. 숙종 19년(1633)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영릉참봉(寧陵參奉)을 거쳐 목천(木川)·진산(珍山) 군수를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된 후,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晉州姜氏通溪公派譜』.

(102) 이지상(李之相) : 현종 1년(1660)~영조 4년(1728)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공보(公輔), 본관은 덕수(德水)로 조(莜)의 아

들이나 우(僪)에게 양자했다. 음보(蔭補)로 금천군수(金川郡守)를 역임했다.

<참고문헌>『德水李氏世譜』.

묘는 시흥시 계수동 산 77-1 구미 뒷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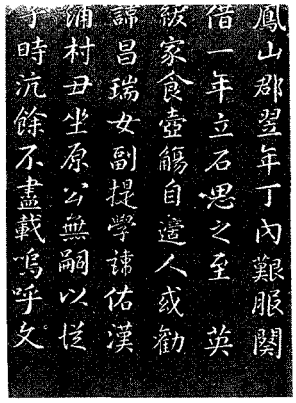
(103) 박필주(朴弼周) : 현종 6년(1665)~영조 24년(174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상보(尙甫), 호는 여호(黎湖)·요계(蓼溪),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독학으로 학문을 대성하여 숙종 43년(1717) 이조판서 송상기(宋相琦)의 천거로 시강원 자의(侍講院諮議)에 등용되었다. 그 뒤 진선(進善), 집의(執義), 세자찬선(世子贊善) 등을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우찬성(右贊成)에 이르렀다. 저서에 『여호집(黎湖集)』, 『독서수차(讀書隨箚)』, 『주자왕복휘편(朱子往復彙編)』, 『춘추유례(春秋類例)』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군자동에 우거.

<참고문헌>『肅宗·英祖實錄』, 『梅山集』, 『安山郡邑誌』,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묘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있다.



이동익 묘표문(탁본).

(104) 이동익(李東益) : 현종 9년(1668)~영조 6년(173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수겸(守謙), 본관은 전주(全州)로 통덕랑(通德郎) 창명(昌明)의 아들이다. 숙종 23년(1697)에 정시(庭試)에 뽑히어 숙종 25년(1699)에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고, 숙종 27년(1701)에 외직으로 나가 평남진장(平南鎭將)을 역임했으며, 이어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수군우후(水軍虞候)를 거쳐 장기현감(長鬐縣監)에 재임 중 청렴하고 간편한 행정을 실시하자 주민들이 동(銅)으로 비(碑)를 세워 선정을 칭송했다.



이동익 묘표. 1995.

숙종 38년(1712) 봉산군수(鳳山郡守)를 지내고 이듬해 어머니상(喪)을 당하자 상기(喪期)를 마치고 숙종 42년(1716)에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냈으나, 2년 만에 아버지상을 당해 상기를 마치자 경종 3년(1723) 임실현감(任實縣監)에 임용되어 고슴도치의 피해가 극심하자 진력을 다해 폐단을 시정을 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자 주민들이 1년을 더 재임하기를 진정하였다.

그는 가정에 있어서는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지들간에 화목하였으

며,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고 근엄한 태도를 잃지 않고 지조와 몸가짐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묘는 시흥시 포동 새우개 당집 동북쪽에 있고, 묘표는 헌종 11년(1845)에 세웠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2m, 폭 55cm, 두께 24cm이고, 비문은 병조참판(兵曹參判) 정홍경(鄭鴻慶)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蓮城姓譜』, 「李東益墓表銘」.

(105) 권흡(權熻) : 현종 11년(1670)~영조 11년(173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회중(晦仲),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화릉군(花陵君) 상우(尙友)의 2남이다. 병조좌랑(兵曹佐郞)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거멀 수인산업도로 옆에 있다.

<참고문헌>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

(106) 박사익(朴師益) : 숙종 1년(1675)~영조 12년(173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겸지(謙之), 호는 노주(鷺洲),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고양군수(高陽郡守) 태두(泰斗)의 손자이며, 금령군(錦寧君) 필하(弼夏)의 1남이다.

숙종 36년(1710) 생원(生員)이 되고 숙종 38년(1712)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11등으로 급제하여 사국(史局)에 들었다가 설서(說書)를 거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때 대료(臺僚) 조상건(趙尙健)이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한 윤증(尹拯)을 논란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문제가 되자 결연히 조상건을 변호하였다. 그 뒤 도당록(都堂錄)에 선발되었으며, 교리(校理)를 거쳐 숙종 43년(1717) 70세에 가까운 노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강서현령(江西縣令)으로 나갔다. 이어 부교리를 거쳐 당시 대리청정하던 왕세자 경종을 위하여 시무(時務)에 가장 절실한 상소를 올려 채택하게 하였으며, 그 뒤 이조좌랑(吏曹佐郞)에 임명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류봉휘(柳鳳輝)와 조태구(趙泰耉)의 죄를 강경하게 논박하였고, 이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내고, 경종 3년(1723) 신임(辛任) 연간의 공신회맹(功臣會盟)에 불참한 죄로 태인(泰仁)으로 귀양갔다가 청하(淸河)로 이배되었다.

영조가 등극하자 귀양에서 풀려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이조참의(吏曹參



박사익 초상(후손 박찬기 제공)

議)를 거쳐 강화유수(江華留守)에 임명되어 강화의 성곽을 보수하였다. 영조 3년(1727) 특지로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고, 이어 금원군(錦原君)에 봉해졌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 형조(刑曹)·공조(工曹)·예조(禮曹) 판서(判書)를 역임하고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그가 벼슬하던 시기는 격변기였고, 그런 와중에서 평탄한 관직생활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지의금 부사(知義禁府事)와 형조판서에 재직시 국청에 불참하여 파직되었고, 임금이 지내는 황단제(皇壇祭)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다시 파직되었으며, 함경도의 시관이 되어 숙배하지 않았다는 죄로 추고(推考)되는 등 험난한 관직생활을 하였다. 『숙종실록(肅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우의정민진원비명(右議政閔鎭遠碑銘)」, 「예조참판안적갈(禮曹參判安績碣)」, 「여호박필주모신씨표(黎湖朴弼周母辛氏表)」 등을 썼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文科榜目』, 『雷淵集』, 『知守齋集』, 『韓國人名大事典』,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京畿道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호는 장익(章翼)이며,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있고, 신도비의 비문은 판중추(判中樞) 조관빈(趙觀彬)이 찬(撰)했으나 비는 현존치 않는다. 그리고 묘지문(墓誌文)은 대제학(大提學) 남유용(南有容)이 찬하고, 시장(諡狀)은 유척기(兪拓基)가 찬했다.

(107) 윤상형(尹尙衡) : 숙종 6년(168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낙도(樂道), 호는 경지재(敬止齋),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재(宰)의 양자이다. 경종 2년(1722) 감역(監役), 교관(敎官)을 거쳐 제천(提川)·문화(文化) 현령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묘는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에 있다.

(108) 성도형(成道亨) : 숙종 12년(1686)~영조 31년(175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통(仲通),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석성현감(石城縣監) 필복(必復)의 아들이나 효자(孝子) 필승(必升)에게 양자했다. 숙종 39년(1713)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23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로 김홍석(金弘錫)의 참소를 받아 이인찰방(利仁察訪)으로 전보되었으나 곧 춘방(春坊)으로 소환되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행장은 동지돈령 부사(同知敦寧府

事) 류병철(柳秉喆)이 지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109) 이사윤(李思胤) : 숙종 12년(1686)~영조 23년(174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술보(述甫),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유도대장(留都大將) 기하(基夏)의 아들이다. 효종 5년(1654)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역임하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

묘는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에 있다가 도시화로 1991년 이천군 마장면 회억리 산 20-1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韓山李氏良景公派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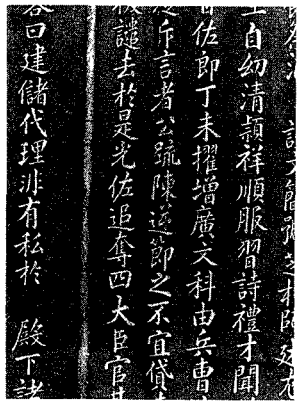
(110) 이양신(李亮臣) : 숙종 15년(1689)~영조 15년(1739)

조선시대의 문신·학자. 초명은 종신(宗臣), 자는 원량(元亮),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정구(廷龜)의 현손으로 사성(司成) 희조(喜朝)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의정(領議政) 김수흥(金壽興)의 딸이다.

어유봉(魚有鳳)의 문인으로 숙종 41년(1715) 진사(進士)가 되었고, 경종 원년(1721) 음보(蔭補)로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보직을 받았으며, 영조 2년(1726) 한성부 주부(漢城府主簿)에 승진되어 사복시 주부와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 영조 5년(1729) 부수찬으로 있을 때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집권한 이광좌(李光佐) 등을 12항의 죄목을 열거하여 탄핵하였는데, 이 일로 곽산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경원부로 옮긴 뒤 즉시 방면되었다. 이듬해 북평사(北評事)로 임명되고, 영조 14년(1738) 사복시 정(司僕寺 正) 겸 한학교수(漢學敎授)로서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온 공로를 인정받아 통정대부가 되었고,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낸 뒤 삼화부사(三和府使)에 재직 중 사망하였다. 저서에 『대간공유고(大諫公遺稿)』가 있다.

묘는 시흥시 죽율동 댐에 있고, 묘비의 비문은 순조 2년(1802)에 세운 것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23m, 폭 51cm, 두께 27cm에 이른다. 조관빈(趙觀彬)이 찬(撰)하고, 글씨는 이시원(李如源)이 썼다.



이양신 묘비문(탁본).

<참고문헌> 『英祖實錄』, 『江漢集』,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李亮臣墓碑銘」.

(111) 이광식(李光湜) : 숙종 16년(1690)~영조 30년(175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백(源伯),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옥구현감(沃溝縣監) 태석(泰錫)의 1남이다.

세자시강원 필선 겸 춘추관 편수관(世子侍講院弼善兼春秋館編修官)을 역임하고, 숙종 43년(1717)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랑(正郎), 찰방(察訪), 지평(持平), 장령(掌令), 정언(正言), 헌납(獻納), 종부시 정(宗簿寺 正), 장락원 필선(掌樂院 弼善), 집의(執義) 등을 거쳐 외직으로 온양(溫陽), 울산(蔚山), 순천(順天), 파주(坡州), 진주(晉州), 광주(廣州), 적성(積城) 등의 수령을 지냈다.

묘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萬壽洞)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平昌李氏世譜』.

(112) 조관빈(趙觀彬) : 숙종 17년(1691)~영조 33년(1757)



조관빈 초상.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晦軒), 본관은 양주(楊州)로 우의정(右議政) 태채(泰采)의 아들이다.

숙종 40년(1714)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6등으로 급제하여 이듬해 검열이 되었고, 숙종 42년(1716) 도당록(都堂錄)에 선입되고, 이어 수찬(修撰), 정언(正言), 부교리, 교리, 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 45년(1719) 승지(承旨)로 특채되고, 이듬해 대사간, 대사성, 승지를 거쳐 경종 원년(1721)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올랐다.

경종 3년(1723) 신임사화(辛壬士禍)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가 영조 1년(1725) 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와 호조참의(戶曹參議), 이조참의, 강화유수(江華留守), 대사성, 동지의금부사,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으로 신임사화를 논핵하였다.

영조 3년(1727) 동지돈령부사로 임명되자 노론 4대신인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리상 취임할 수 없다고 그 삭제를 상소하였다. 그 해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그 후 영조 7년(1731) 대사헌에 재임 중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하였다는 죄로 대정현(大靜縣)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

났으나 등용되지 못했다.

영조 12년(1736)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고, 영조 16년(1740) 호조참판(戶曹參判),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영조 18년(1742)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지낸 뒤, 영조 20년(1744)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으면서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그 해 우참찬, 홍문관 제학에 다시 기용되고,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다녀왔고, 이후 판의금 부사, 판돈령 부사, 공조(工曹)·형조(刑曹) 판서, 강화유수(江華留守) 등을 거쳐 다시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에 군량을 저장할 것을 청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 뒤 영조 29년(1753) 대제학(大提學)으로 죽책문(竹冊文)의 제진(製進)을 거부하여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삼수부(三水府)에 유배되었고, 이어 단천(端川)으로 이배되었다. 그 해 풀려나와 좌빈객(左賓客),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철저한 노론계열의 아버지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으나 문형(文衡)으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비(死六臣墓碑)의 비문이 유명하다. 저서에 『회헌집(晦軒集)』 스무 권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방화마을)에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安山郡邑誌』, 『始興人物考』,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3) 한덕룡(韓德龍) : 숙종 17년(1691)~영조 25년(1749)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사운(士雲),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고성군수(高城郡守) 종로(宗老)의 5남이다. 종부시 직장(宗簿寺直長)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 뒷고개(後峴, 거모교회 뒷산)에 있다가 1983년에 도시화로 화광(火壙)해서 유골을 수습, 거모동 산 73 삼봉산(三峯山, 한준겸 묘 서북쪽에 있는 산)에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114) 이광직(李光溭) : 숙종 18년(169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중(源仲),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옥구현감(沃溝縣監) 태석(泰錫)의 2남이다. 영조 9년(1733)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내고, 이어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헌납(獻納) 등을 거쳐 영조 39년(1763), 병조(兵曹)·호조(戶曹)의 참의(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본래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萬壽洞)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에 시흥시 군자동 116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平昌李氏世譜』.

(115) 이광보(李光溥) : 숙종 20년(1694)~영조 49년(177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연(子淵),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판서 계남(季南)의 후손이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명석(命錫)의 2남이다.

숙종 41년(1715)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이듬해 승문원 정자에 임명된 뒤 장령, 헌납, 집의를 거쳐 승지에 이르렀다. 이어 용안(龍安)·벽동(碧潼)·순천(順天)·종성(鍾城)·울산(蔚山)·풍천(豊川)·강계(江界)·진주(晉州)·홍주(洪州)의 수령을 거쳐 영조 32년(1756) 경성부사(鏡城府使)에 재임 중 힘을 다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한 결과 돌아올 때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해어진 침구뿐이었다 한다. 목민관으로 백성들에게 진력하여 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정도로 청백하였다. 당시 정승인 김재로(金在魯)는 "그를 등용하지 않으면 어찌 다른 인물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하였으며, 여러 중신들도 한결같이 그의 인물됨을 칭찬하였다. 그 뒤 보국숭록대부 행동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輔國崇祿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이 되어 영조 42년(1766) 치사하였다.

묘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되었다. 묘갈의 비문은 채제공(蔡濟恭)이 찬(撰)했고, 글씨는 조윤형(曺允亨)이 썼다.

<참고문헌> 『平昌李氏世譜』, 『國朝文科榜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6) 이태화(李泰和) : 숙종 20년(1694)~영조 43년(176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동장(東章), 호는 단암(丹庵), 본관은 경주(慶州)로 몽엽(夢曄)의 아들이나 생원(生員) 몽려(夢呂)에게 양자했다.

숙종 37년(1711) 통덕랑(通德郞)으로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으로서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으며, 영조 1년(1725) 옥구현감(沃溝縣監)으로 재직하면서 이술(李述)의 부인

을 노예로 삼고 횡포한 짓을 저지르다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귀양갔다. 그 후 영조 3년(1727)에 풀려나 30여 년간을 고향에서 지내면서 글을 벗하고 살았는데, 영조 34년(1758)에 다시 사헌부 장령에 기용되었으며, 영조 36년(1760) 승지(承旨),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으면서 67세의 나이로 가자(加資)되었다. 영조 41년(1765) 영수각(靈壽閣)에서 기신(耆臣)의 위치로 크게 예우를 받았다.

죽은 뒤 영조 47년(1771), 영조는 18세라는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그의 자질을 크게 칭찬한 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18세 때 문과에 급제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녹용(錄用)하도록 지시하였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영민(榮敏)이며, 묘는 시흥시 계수동에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樊巖集』,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7) 박대원(朴大源) : 숙종 20년(1694)~영조 52년(177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유도(有道),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형조판서(刑曹判書) 사익(師益)의 아들이다. 돈령부 도정(敦寧府 都正)을 역임했다.

묘는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현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다가 1970년대 초에 시흥시 군자동 산 22-2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潘南朴氏世譜』.

(118) 엄경응(嚴慶膺) : 숙종 22년(1696)~정조 8년(1784)

조선시대의 문신·문장가. 자는 원례(元禮), 호는 학산(鶴山),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조정의 노인대우로 영조 51년(1775) 통정(通政)에 오르고, 정조 4년(1780)에 첨지중추(僉知中樞)가 되었다. 문장에 능해 강세황(姜世晃) 등과 함께 시흥지방의 8대 문장가에 속했다.

묘는 시흥시 포동 새우개 학미산 아래에 있다.



엄경응 묘. 1995.

<참고문헌> 『傲軒集』, 『始興郡誌』 上, 『寧越嚴氏世譜』.

(119) 홍만원(洪萬源) : 숙종 27년(170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종백(宗伯),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이제(以濟)의 아들이다.

영조 2년(1726)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8등으로 급제하여 교서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정자(校書正字)를 역임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20) 박형원(朴馨遠)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백(盛伯),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문표(文豹)의 아들이다. 영조 17년(1741)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21등으로 급제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21) 류응상(柳應祥) : 숙종 32년(1706)~영조 45년(176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석(汝錫), 본관은 진주(晉州)로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정휘(正徽)의 아들이다. 영조 23년(1747)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영조 33년(1757) 명릉참봉(明陵參奉)을 역임했고, 이어 적성현감(積城縣監)을 거쳐 종묘서령(宗廟署令)을 지냈다. 계수동 안골에 있는 향나무를 식재했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晉州柳氏世譜』.

묘는 시흥시 계수동 산 22-5 안골에 있다.

(122) 조영석(趙榮晳) : 숙종 33년(1707)~영조 29년(175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여(子與), 호는 건재(健齋), 본관은 양주(楊州)로 대제학 관빈(觀彬)의 1남이다. 김포군수 겸 수원진관병마동첨절제사(金浦郡守兼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지냈다.

<참고문헌> 『楊州趙氏族譜』.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 방화마을 뒷산에 있다.

(123) 강필리(姜必履) : 숙종 39년(1713)~영조 43년(176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석여(石汝), 호는 경독자(耕讀子)·독립정(獨立亭)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전라남도 강진 출생이다. 진사(進士) 전(橏)의 아들이다.

영조 17년(1741) 생원(生員)이 되어 영조 23년(1747) 정시(庭試) 병과

(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옹호하다가 삭직되었으나 곧 복직되어 도당록(都堂錄)에 뽑히고, 이어 홍문관 교리로 남양어사(南陽御史), 강화순심어사(江華巡審御史)로 나가는 등 영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그 뒤 동부승지(同副承旨), 호조참의(戶曹參議)를 거쳐 순천부사 때에는 「연궐사(戀闕詞)」와 「강남요(江南謠)」를 지었다고 한다.

영조 39년(1763) 조엄(趙曮)이 대마도(對馬島)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동래(東萊), 제주(濟州)에 심게 하였는데, 이듬해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되어 고구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심고 가꾸는 법을 연구, 지도하여 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숙종 17년(1691)에 세워진 온정(溫井)건물을 수리하고, 영조 42년(1766)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를 세웠는데, 이 비는 현재 부산직할시 기념물 제 14호로 지정되었다. 이듬해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에 『감저보(甘藷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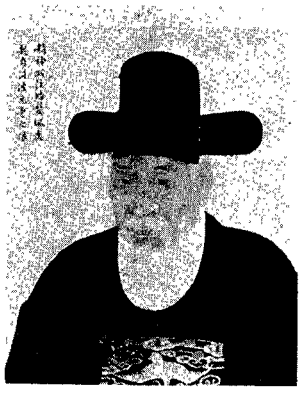
묘는 시흥군 동면 신림리 난곡(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된 후, 시흥공단 토취장에 편입되어 1989년 3월 16일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로 옮겼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海行摠載』,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晉州姜氏通溪公派譜』, 「溫井改建碑銘」.

(124) 김치인(金致仁) : 숙종 42년(1716)~정조 14년(179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 본관은 청풍(靑風)이다. 우의정(右議政) 구(構)의 손자이고 영의정(領議政) 재로(在魯)의 아들이다. 그는 잉태할 때부터 이미 빛난 정기를 받았고, 태어나서는 수려하고 명석하였다고 한다.

영조 14년(1738)에 사마시(司馬試)에 오르고 영조 24년(1748) 춘당대시(春塘臺試)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지내고 문경어사(聞慶御使)로 문경현감(聞慶縣監)의 탐욕을 복명하였다. 이어 지평(持平)과 문학(文學)을 거쳐 영조 26년(1750)에 호남어사로 활약하였다.



김치인 초상. ★

영조 28년(1752)에 승지(承旨)가 되고 이어 대사간(大司諫),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 대사성(大司成), 부제학(副提學), 이조참판(吏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 등을 역임했다. 영조 38년(1762) 이후 이조(吏曹)·호조(戶曹)·형조(刑曹)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영조 41년(1765) 우의정(右



김치인 묘.

議政)에 올라 내의원도제조(內醫院都提調)를 겸하였다. 그 후 좌의정(左議政)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그 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거쳐 다시 영의정을 지냈다.

영조 48년(1772) 당파를 조성했다는 죄로 유배되었다가 반년 만에 풀려나 다시 영중추부사에 서용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판중추부사로 기용되어 고부 겸 승습주청사(告訃兼承襲奏請使)의 정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다시 영부사를 거쳐 봉조하가 되어 『명의록(明義錄)』 편찬을 주관하고 정조 9년(1785)에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을 주관했다. 이듬해 다시 영의정이 되어 정조의 명으로 당쟁의 조정에 힘썼다.

그의 성품은 준엄하고 결백하였으며, 마음가짐은 곧고 진실하여 평상시에도 해이한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일에 직면하였을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그 요체(要諦)를 통찰한 연후에야 처리하였으며, 또 법도를 잘 준수하였다. 불가한 일이 있어도 얼굴빛이나 말로써 나타내지를 않았고, 임금 앞에서 국사를 논할 때에도 구차하게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의 요체로써 응답하였다. 시호는 헌숙(憲肅)이고, 편서에 『명의록』,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가 있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360-6에 있는데,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묘갈은 정조 14년(1790)에 세운 것으로 비신의 규모는 높이 1.61m, 폭 68cm, 두께 37cm이다. 이 묘갈의 비문은 이조판서(吏曹判書) 조돈(趙暾)이 찬(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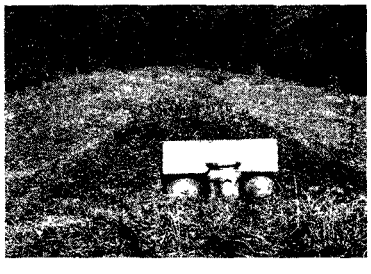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京畿金石大觀』, 『始興人物考』,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125) 변득일(邊得一) : 숙종 46년(1720)~정조 14년(179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영보(寧甫), 호는 눌곡(訥谷), 본관은 원주(原州)로 진설(震卨)의 1남이다. 영조 35년(1759) 진사에 오른 후 전의현감(全義縣監)을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다가 1982년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原州邊氏別坐公派鞍峴里系穌峰公後家乘譜』.



서명전 묘. 1995.

(126) 서명전(徐命全) : 경종 4년(1724)~순조 1년(180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요부(堯夫), 본관은 대구(大丘)로 형조정랑(刑曹

正郞) 재수(在修)의 아버지이다. 동지돈령 부사(同知敦寧府事),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등을 역임하였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 있다.

<참고문헌> 『大丘徐氏族譜』, 『始興郡誌』 上.

(127) 김양심(金養心) : 영조 1년(1725)~정조 1년(177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이(敬以), 호는 과욕재(寡慾齋),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상성(相星)의 아들이다. 영조 24년(1748)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영조 26년(1750) 전적(典籍), 낙안군수(樂安郡守)를 지내고, 영조 38년(1762) 장령(掌令) 등을 지냈다. 그 뒤 영해부사(寧海府使), 전라도사(全羅都事), 헌납(獻納) 등을 역임하고, 영조 51년(1775)에 대사헌(大司憲),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이르렀다.

묘는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安山世碣』,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28) 이원채(李元采) : 영조 2년(1726)~순조 8년(180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선오(善吾),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파주목사(坡州牧使) 사윤(思胤)의 아들이다. 영조 30년(1754)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했고, 이어 한은군(韓恩君)에 봉해졌다.

묘는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에 있다가 도시화로 1991년 이천군 마장면 회억리 산 20-1로 옮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韓山李氏良景公派譜』.

(129) 강인(姜俔) : 영조 5년(172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천(自天), 본관은 진주(晉州)로 서화가(書畵家) 세황(世晃)의 아들이다. 시흥시 조남동에 우거 중 영조 48년(1772)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묘는 충남 천안군 풍세면 용두리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130) 이태형(李泰亨) : 영조 5년(1729)~정조 15년(179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광언(光彦), 본관은 전주(全州)로 처사(處士) 덕홍(德弘)의 아들이다. 무재(武才)로 천거되어 곡성현감(谷城縣監), 청풍부사(淸風府使), 인천부사(仁川府使), 강화유수(江華留守) 등을 역임했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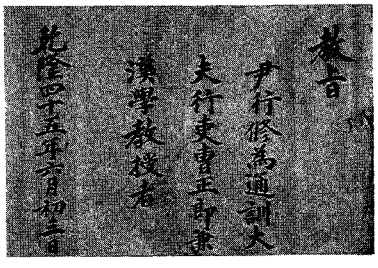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31) 권성응(權聖應) : 영조 5년(1729)~순조 3년(180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인지(麟之),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옥과현령(玉果縣令) 병성(秉性)의 1남이다.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거멀 수인산업 옆에 있다.

<참고문헌>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



윤행수 교지(1780. 후손 윤왕렬 제공).

(132) 윤행수(尹行修) : 영조 6년(1730)~정조 4년(178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립(誠立),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경(暻)의 아들이다. 영조 47년(1771)에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8등으로 급제하여 정조 1년(1777) 교리(校理) 겸 춘추관 기주관 실록춘추관 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實錄春秋官記注官)을 거쳐 정조 4년(1780) 이조정랑(吏曹正郎) 겸 한학교수(漢學敎授)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133) 윤행원(尹行元) : 영조 8년(1732)~순조 1년(180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춘(伯春), 호는 졸암(拙庵),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철(暸)의 아들이다.

일찍이 진사(進士)에 올라 참봉(參奉)을 지내고, 영조 51년(1775) 정시(庭試) 을과(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대사성(大司成), 이조참의(吏曹參議), 한성좌윤(漢城左尹)들을 지내고, 외직(外職)으로 부안현감(扶安縣監), 안주(安州)·양주(楊州)·수원(水原)의 부사(府使)를 거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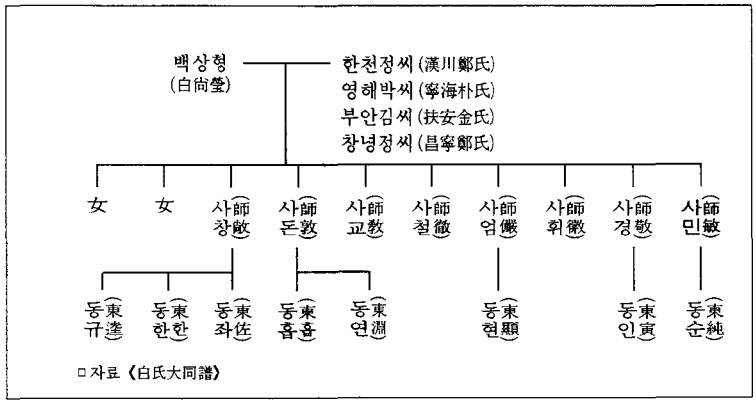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134) 백사민(白師敏) : 영조 9년(1733)~정조 23년(179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행(士行), 호는 서포정(西圃亭),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학자(學者) 상형(尙瑩)의 1남이다.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시흥시 하중동 샌말(間村)에 우거 중 영조 45년(1769)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8등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다가 1980년대 말엽에 군부대설치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白氏大同譜』.



백사민 가계표.

(135) 이해주(李海柱) : 영조 14년(1738)~순조 3년(1803)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홍(士洪),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주부(主簿) 경집(敬集)의 아들이다. 무과(武科)에 오른 후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방산동 밤뒤에 있다.

<참고문헌> 『韓山李氏良景公派譜』.

(136) 강완(姜侹) : 영조 15년(173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전중(全仲), 본관은 진주(晉州)로 서화가(書畵家) 세황(世晃)의 아들이다. 시흥시 조남동 방화마을에서 우거 중 영조 39년(1763)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4등으로 급제하여 승지(承

旨)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는 충남 천안군 풍세면 용두리에 있다.

(137) 강문환(姜文煥) : 영조 15년(1739)~?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으로 주립(柱立)의 아들이다. 안산(安山)에 우거 중 영조 50년(1774)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8등으로 급제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38) 서재수(徐在修) : 영조 17년(1741)~순조 11년(181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간여(簡汝), 본관은 대구(大丘)로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명전(命全)의 아들이다. 정조 14년(1790)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형조정랑(刑曹正郎)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大丘徐氏族譜』, 『始興郡誌』 上.

묘는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 있다.

(139) 김화종(金和鍾) : 영조 17년(174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원(聖元),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처항(處恒)의 아들이다. 정조 11년(1787) 춘당대시(春塘臺試) 을과(乙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安山世碣』, 『始興郡誌』 上.

묘는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에 있다.

(140) 최홍진(崔鴻晉) : 영조 20년(174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석장(碩章), 본관은 전주(全州)로 광욱(光昱)의 아들이다. 안산(安山)에 우거 중 순조 1년(1801)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41) 이학연(李學淵) : 영조 21년(174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이도(而道),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재권(載權)의 아들이다. 정조 19년(1795)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24등으로 급제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42) 서정수(徐鼎修) : 영조 25년(1749)~?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로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명전(命全)의 아들이며, 형조정랑(刑曹正郎) 재수(在修)의 아우이다. 영조 51년(1775)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6등으로 급제하여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吏曹判書兼判議禁府使),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仁川府邑誌』, 『大丘徐氏族譜』, 『始興郡誌』 上.

(143) 이현수(李顯綏) : 영조 35년(1759)~순조 25년(182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리(元履), 본관은 전주(全州)로 강화유수(江華留守) 태형(泰亨)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아가 한산(韓山)·서산(瑞山)군수, 청풍현감(淸風縣監), 전주판관(全州判官), 부총관(副摠管) 등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44) 변대유(邊大有) : 영조 27년(1751)~순조 1년(180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덕후(德厚), 본관은 원주(原州)로 첨추(僉樞) 득일(得一)의 아들이다.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었다가 1982년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原州邊氏別坐公派鞍峴里系蘇峰公後家乘譜』.

(145) 조명철(趙命喆) : 영조 30년(1754)~헌종 3년(183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유성(惟性), 호는 모헌(慕軒), 본관은 양주(楊州)로 김포(金浦)군수 영석(榮晳)의 1남이다.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하고,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방화마을) 뒷산에 있다.

<참고문헌> 『楊州趙氏族譜』.

(146) 김진성(金鎭聲) : 영조 31년(1755)~?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선산(善山)로 적기(迪基)의 아들이다. 안산에 우거 중 순조 25년(1825)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47) 김처암(金處巖) : 영조 31년(175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려(仲礪),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진사(進士) 양직(養直)의 아들이다.

정조 19년(1795) 응제시(應製試)에서 선발된 생원(生員)으로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에 2등으로 급제하여 순조 6년(1806) 지평으로 있을 때 시파를 공격하는 김달순(金達淳)을 엄하게 탄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천(順天)에 유배된 후, 순조 9년(1809)에 풀려나 집의(執義)가 되었다. 편서에 김은부(金殷傅) 이하 안산 김씨들의 묘문(墓文), 행장(行狀) 및 사적을 모아 엮은 『안산세갈(安山世碣)』(규장각 소장)과 『안산세만(安山世輓)』(규장각 소장) 등이 있다.

묘는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에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8) 윤칭(尹秤) : 영조 34년(175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평(士平),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행유(行儒)의 아들이다. 순조 3년(1803) 생원시(生員試)에 올라 장릉참봉(長陵參奉)을 거쳐 옥과(玉果)·용담(龍潭)현령을 지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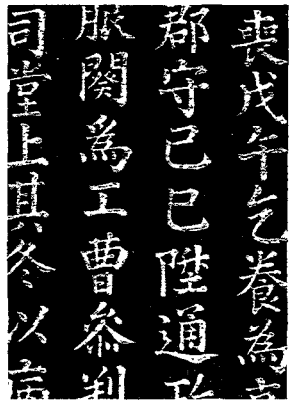
<참고문헌> 『蓮城姓譜』,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149) 윤행직(尹行直) : 영조 36년(1760)~헌종 4년(183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온수(溫叟),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임천군수(林川郡守) 창(昌)의 아들이다.

정조 14년(1790)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33등으로 급제하여 정조 18년(1794) 교수(敎授)를 거쳐 정조 22년(1798) 고양군수(高陽郡守), 순조 3년(1803) 응교(應敎)를 역임했다. 이듬해 영광군수(靈光郡守), 순조 13년(1813)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역임하고, 순조 15년(1815)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올라 영원군(鈴原君)에 봉해졌다. 이어 순조 20년(1820)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순조 26년(1826) 춘천부사(春川府使)가 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고, 철종 8년(1857)에 세운 묘비의 비문은 윤찬이 찬(撰)했고, 글씨는 임준상이 썼다.



윤행직 묘비문(탁본).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尹行直墓碑銘」.

(150) 이유채(李惟采) : 영조 42년(1766)~순조 14년(181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량(仲亮), 본관은 전주(全州)로 시(蓍)의 아들이다. 정조 22년(1798)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21등으로 급제하여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월미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51) 박제상(朴齊尙) : 영조 46년(1770)~헌종 8년(1842)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노옥(老玉),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형조판서(刑曹判書) 사익(師益)의 고손으로 종수(宗壽)의 아들이다. 일찍이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22-2에 있다.

<참고문헌> 『潘南朴氏世譜』.

(152) 변시철(邊時喆) : 영조 49년(1773)~순조 15년(181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명(原明), 본관은 원주(原州)로 좌승지(左承旨) 대유(大有)의 1남이다.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原州邊氏別坐公派鞍峴里系麟峰公後家乘譜』.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었다가 1982년에 화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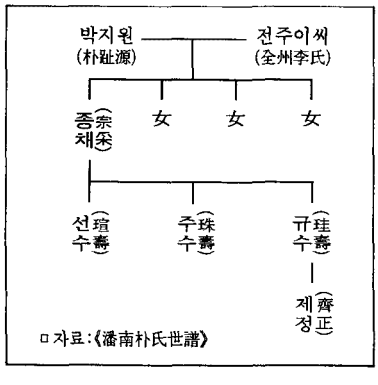
(153) 김수종(金秀鍾) : 영조 50년(177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민(聖民),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처순(處純)의 아들이다. 정조 24년(1800)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15등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54) 박종채(朴宗采) : 정조 4년(1780)~헌종 1년(1835)



박종채 가계표.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사행(士行), 호는 혜전(蕙田), 초명(初名)은 종간(宗侃),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의 2남으로 연암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훈도를 받아 '연암실학'을 한층 충실히 이어받았다.

오랫동안 포의(布衣)로 지내다가 순조 29년(1829) 음보(蔭補)로 선공감역(繕工監役)이 되었고, 이어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를 거쳐 경산현령(慶山縣令)을 역임하였다. 통덕랑(通德郎) 유영(柳詠)의 딸과 결혼하여 슬하에 규수(珪壽)·주수(珠壽)·선수(琁壽)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2남 주수는 형 종의(宗儀)에게 입양하였다. 연암의 생전 언행록인 『과정록(過庭錄)』을 순조 22년(1822)에 착수, 순조 26년(1826)에 완성하였다. 천성이 경신독실(敬愼篤實)하고 장고다문(掌故多聞)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過庭錄』, 『潘南朴氏世譜』 권 4, 『潘南朴氏大宗中』 권 1, 「家乘」.

묘는 시흥시 금이동 도리재에 있다.

(155) 이극우(李克愚) : 정조 12년(178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원복(元復),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득수(得秀)

의 아들이다. 시종관(侍從官)에 있다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논곡동 원수동에 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56) 윤찬(尹穳) : 정조 18년(1794)~철종 8년(185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심원(深遠), 호는 하서(河西),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호조참의(戶曹參議) 행직(行直)의 아들이다. 순조 22년(1822)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순조 28년(1828) 효릉참봉(孝陵參奉)에 임명된 후 순조 34년(1834)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13등으로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거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올라 영풍군(鈴豊君)에 봉해졌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百世同覽』, 『坡平尹氏世譜』.

(157) 조유순(趙有淳) : 순조 3년(1803)~철종 6년(185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대지(大之), 본관은 양주(楊州)로 진사(進士) 진영(鎭永)의 1남이다. 홍천현감 겸 원주진관병마절제도위(洪川縣監兼原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역임하고 영상(領相)에 증직되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방화마을) 뒷산에 있다.



조유순 묘. 1995.

<참고문헌> 『楊州趙氏族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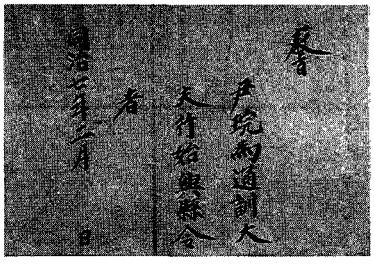
(158) 서상윤(徐相允) : 순조 16년(1816)~고종 41년(1900)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중언(仲言), 본관은 대구(大丘)로 형조참판(刑曹參判) 주순(胄淳)의 아들이다. 순조 31년(1831)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후 고종 29년(1892)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5등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수찬지제교 겸 경연검토관(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중학교수(中學敎授)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 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大丘徐氏族譜』, 『始興郡誌』 上.

(159) 윤완(尹琓) : 순조 17년(1817)~?



윤완 교지(1868. 후손 윤왕렬(제공).

<참고문헌> 『蓮城姓譜』, 『坡平尹氏世譜』, 『始興郡誌』 上.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미헌(美獻),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영식(榮植)의 아들이나 현령(縣令) 영원(榮遠)에게 양자했다. 고종 7년(1868) 시흥현령(始興縣令)을 거쳐 고양 군수(高陽 郡守) 고종 10년(1873)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를 지냈고 이어 경성(鏡城)·은율(殷栗) 군수 등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산 53에 있다. 시흥현령 재임 때 선정을 하여 백성들이 세운 선정비가 시흥현 군내면 관아 앞(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었는데 1960년대 후손들이 묘역 내로 이전하였다.

(160) 한철우(韓喆愚) : 순조 17년(1817)~고종 30년(1893)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宗實錄』, 『國朝文科榜目』, 『淸州韓氏旌善公派世譜』.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경보(景寶), 본관은 청주(淸州)로 시흥시 거모동 거무개 출신이다. 한산군수(韓山郡守) 익동(益東)의 2남이다.

고종 1년(1864)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를 지내고, 이어 사헌부 장령, 부호군을 거쳐 고종 16년(1879)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명되었다. 그 뒤 다시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대사헌(大司憲)을 두 차례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80년대에 화장되었다.

(161) 김재우(金在雨) : 순조 20년(1820)~광무 4년(1900)

<참고문헌> 『金寧金氏家乘譜』.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희전(希田), 호는 광거(廣居), 본관은 금령(金寧)으로 처락(處樂)의 1남이다.

철종 12년(1861) 진사(進士)로 중국에 다녀왔고, 고종 7년(1870) 오정각(五旌閣)을 건립했다. 이어 고종 30년(1893) 돈령부 도정(敦寧府 都正)을 지냈다. 특히 학행과 문장이 뛰어났고 유고가 전해진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 고송정 뒤에 있다.

(162) 이선영(李善永) : 순조 31년(1831)~?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양성(陽城)으로 병진(炳軫)의 아들이다.

안산(安山)에 우거 중 고종 28년(1891)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56등으로 급제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63) 윤영신(尹榮信) : 순조 31년(1831)~고종 33년(189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공실(公實), 호는 기산(綺山),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자경(滋慶)의 아들이나 이조참의(吏曹參議) 찬(穳)에게 양자했고, 어머니는 정구용(鄭龜容)의 딸이다.

고종 1년(1864)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고종 6년(1869) 광양현감, 고종 16년(1879)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 성균관 대사성, 예방승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형조판서(刑曹判書), 공조판서(工曹判書),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강원도관찰사,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등을 역임하고 영춘군(鈴春君)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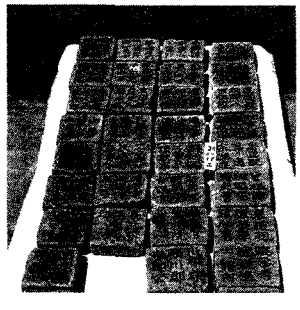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國朝文科榜目』,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4) 윤종영(尹鍾永) : 헌종 5년(1839)~광무 9년(1905)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치세(穉世), 호는 정석(貞石),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완(琓)의 2남이다. 화정동에서 우거. 고종 11년(1874) 진사(進士)에 오르고, 고종 28년(1891) 정시(庭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광무 5년(1901) 장례소경(掌禮小卿)을 역임하고, 이어 승지(承旨)를 거쳐 홍천(洪川)·순천(順天)의 수령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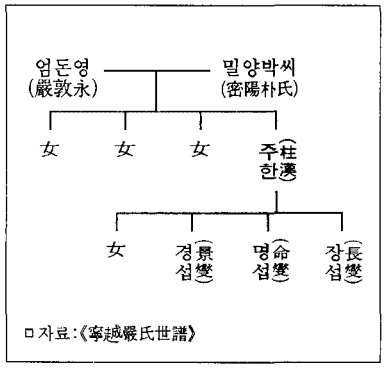
묘는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현 안산시 초지동)에 있다가 안산신도시 개발로 1970년대 말 화장되었고, 묘지는 후손이 소장, 관리하고 있다.



윤종영 묘지(후손 윤평렬 제공). 1987.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安山邑誌』, 『坡平尹氏世譜』.

(165) 엄주한(嚴柱漢) : 철종 2년(1851)~1911



□ 자료:《寧越嚴氏世譜》

엄주한 가계표.

<참고문헌> 『高宗實錄』, 『國朝文科榜目』, 『安山郡邑誌』, 『寧越嚴氏世譜』,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응여(應如), 본관은 영월(寧越)로 헌영(獻永)의 아들로 승지(承旨) 돈영(敦永)에게 양자했다.

고종 11년(1874)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11등으로 급제하여 고종 14년(1877) 정언(正言)을 거쳐 고종 19년(1882)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그 뒤 고종 22년(1885) 증광별시(增廣別試)의 이소시관(二所試官)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종 28년(1891)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간을 지냈다. 이듬해 북청부사 재임시에 회령부(會寧府)에서 관아사옥(官衙舍屋)을 파괴하는 등 민란이 일어남에 따라 안핵사로 임명되어 사후처리를 하였다. 그 후 고종 31년(1894)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광무 6년(1902) 궁내부 특진관(宮內部特進官)을 거쳐 이듬해 비서원승을 역임했다.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시흥시 수암동에서 우거했다.

묘는 여주군 금사면 장곡(獐谷)에 있다.

(166) 엄주흥(嚴柱興) : 철종 9년(1858)~?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寧越嚴氏世譜』, 『始興郡誌』 上.

조선시대의 문신. 초명은 주신(柱臣), 자는 석여(錫汝), 본관은 영월(寧越)로 윤영(胤永)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시흥시 수암동에서 우거했으며, 묘는 화성군 비봉면 남전리에 있다.

(167) 박제순(朴齊純) : 철종 9년(1858)~1916



박제순. □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헌평(憲平), 호는 평재(平齋), 본관은 반남(潘南). 경기도 용인(龍仁) 출신으로 증 참정(贈參政) 홍수(洪壽)의 2남이다.

고종 20년(1883) 별시(別試)에 급제한 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겸 기연해방군사마(畿沿海防軍司馬), 주차천진종사관(駐箚天津從事官), 홍문관부교리, 사헌부 장령,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이어 고종 23년(1886)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駐箚天進督理通商事務)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한 뒤 이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호조참의, 형조참판, 예조참판, 인천부사, 한성부윤 등을 지냈다. 고종 30년(1893) 호조참판 재직 중 동학도들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워

보은집회를 개최하자 청나라 군사에 파병문제를 원세개(袁世凱)와 협의하였다. 이듬해 이조참판에서 장흥부사로 전임된 뒤 전라도·충청도 관찰사를 지냈다. 충청도관찰사 재직 중 일본군 및 경군(京軍)과 연합하여 공주에서의 동학농민군 토벌작전에 참여하였다. 고종 32년(1895) 이후 외부협판, 중추원의관, 외부대신, 육군참장, 의정부찬정 등을 지냈다.

외부대신 재직 중에는 간도행정관리권 교섭, 그리고 경흥 및 의주의 개방 등 외교문제를 다루는 한편, 광무 3년(1899) 조청통상조약(朝淸通商修約), 광무 5년(1901) 조비수호통상조약(朝比修好通商修約) 등을 체결하였다. 이듬해 조백수호통상조약(朝白修好通商修約) 등을 체결하였고, 이 해 주청전권공사(駐淸全權公使)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광무 8년(1904)에 귀국하여 이듬해 외부대신으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으로 규탄받았다. 그 뒤 의정대신이 되어 1907년 이른바 '이완용내각(李完用內閣)'이 성립될 때까지 내각을 이끌어갔다.

이완용내각하에서도 내부대신을 역임하였으며, 1909년 이완용이 저격당한 뒤에는 일시 임시내각총리대신서리를 지냈다. 1910년 8월에는 내부대신으로서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하였으며, 그 뒤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관직 외에 1908년경에는 윤덕영(尹德榮), 민영기(閔泳騎) 등과 함께 교육진흥과 위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관진방회(觀進坊會)를 조직하여 그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유림의 태두로 대우받기도 하였으며, 서예에도 능하였다. 1남 1녀를 두었고, 손자 승유(勝裕, 1922~?)는 광복군독립유공자로 강원대 음악교수를 지냈다.

묘는 시흥시 대야동 방아다리에 있다가 1980년대 말엽에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韓國史』, 『東學亂日記』, 『韓國人名大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潘南朴氏世譜』.

(168) 윤승필(尹承弼) : 철종 8년(1857)~1928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정여(正汝), 호는 동계(東溪),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초명(初名)은 승수(承洙)이며 종응(鍾應)의 1남이다. 화정동에서 우거하다가 고종 19년(1882)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고종 29년(1892)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현 안산시 초지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0년대 말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安山邑誌』, 『坡平尹氏世譜』.

(169) 이하영(李夏榮) : 철종 9년(1858)~1919



이하영 묘. 1994.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琴山),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고종 23년(1886) 외아문주사(外衙門主事), 이듬해 사헌부 감찰, 전환국위원(典圜局委員)이 되었다. 이 해 9월 박정양(朴定陽) 공사의 일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겸임주차미국공사관 서기관이 되었고, 다시 주차미국 서리전권대신으로 미국에 주재하였다.

고종 26년(1889) 귀국할 때는 우리나라 철도건설에 관심을 보인 미국 정부로부터 철도의 모형을 얻어 오기도 하였다. 이어 기기국사사(機器局司事), 웅천·흥덕의 현감, 외아문참의 등을 거쳐 고종 32년(1895) 궁내부 회계원장(會計院長)이 되었다. 이듬해 한성부관찰사가 되었다가 주차일본국 특명전권공사, 광무 원년(1897) 주차일본국특명전권대사로 일본에 주재 중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그 뒤 중추원부의장, 귀족원경(貴族院卿), 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고, 광무 3년(1899) 의정부찬정, 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 겸 의정부찬정이 되었다.

이듬해 훈2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을 받았다. 광무 8년(1904) 외부대신이 되었는데, 재임기간 동안 일본에 충청·황해·평안도의 어로권부여, 일본의 황무지개척권요구, 제1차 한일협약, 메가다(目賀田種太郎)의 재정고문 취임, 일본 헌병대의 경성치안권 장악, 마루야마(丸山重俊)의 경무고문 취임, 일본에 통신원 이양, 연해하천의 항해 무역권 부여 등 각종 이권을 일본에 넘겨 주었다. 이듬해에는 훈 1등 8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고 법부대신, 형법교정 총재가 되어 을사조약에는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계속 친일의 입장에 섰다. 융희 원년(1907) 중추원 고문이 되었고, 일제강점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묘는 시흥시 장상동 장상저수지 위에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日省錄』, 『官報』, 『大韓帝國官人履歷書』, 『大韓季年史』, 『梅泉野錄』,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0) 남규희(南奎熙) : 철종 10년(1859)~?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판서(判書) 정익(廷益)의 아들이다.

수암동에서 우거. 고종 14년(1877)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고종 17년(1880)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다음해 홍문관 교리·수찬이 되었다. 그 뒤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 사헌부 장령 등의 문한(文翰)·감찰직을 거쳐 고종 23년(1886)에 동부승지가 되었다. 또 광무 5년(1901) 궁내부 특진관으로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임명되어 윤발(綸綍)과 『일성록(日省錄)』의 보충작업을 주관하여 감독하였다. 그 후 전선사장(典膳司長), 태복사장(太僕司長),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중추원 의관(中樞院醫官)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910년 국권상실 이후에도 계속 관계에 남아 조선총독부에서 그 산하기구로 설치한 중추원의 찬의(贊議)가 되어 일제의 이른바 신사명부(紳士名簿)에도 올랐다. 또 『고종실록』, 『순종실록』의 편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高宗實錄』, 『純宗實錄』, 『國朝文科榜目』, 『安山邑誌』, 『朝鮮紳士名鑑』.

(171) 박희양(朴羲陽) : 고종 5년(1868)~1927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여일(如一),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우의정(右議政) 규수(珪壽)의 손자이며 제정(齊正)의 아들이다. 고종 19년(1882)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영평군수(永平郡守)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도리재에 있다.

<참고문헌> 『潘南朴氏世譜』.

(172) 조중목(趙重穆) : 고종 6년(186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성집(聖緝), 본관은 양주(楊州)로 좌의정 조병세(趙秉世)의 손자로, 용희(用熙)의 아들이나 진사(進士) 태희(台熙)에게 양자했다.

고종 30년(1893)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시독관(侍督官)을 역임했고, 이어 광무 2년(1898) 비서승(秘書丞)이 되었다. 광무 4년(1900) 부첨사(副詹事),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을 거쳐 이듬해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비서경(秘書卿)을 지낸 뒤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광무 6년(1902) 탁지부협판으로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진연시검거제조(進宴時檢擧提調), 진연의궤청당상(進宴儀軌廳堂上)을 겸임하였고, 광무 7년(1905) 궁내

부특진관,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를 지냈다. 내무·외교·국방 등의 요직보다 오히려 궁내부관계의 관직에 종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楊州趙氏族譜』.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방화마을) 뒷산에 있다.

4) 武 臣

(1) 이계동(李季仝) : 세종 32년(1450)~중종 1년(1506)



이계동 묘비. 1993.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자준(子俊), 호는 동호(東湖),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 영서(永瑞)의 2남이다.

성종 1년(1470) 무과(武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을 제수받았다. 성종 7년(1476) 무과 중시에 급제하여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이 되었다가 창성부사로 나갔다. 이 해 10월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부사로 대마도에 갔다가 정사인 이형원(李亨元)이 병으로 죽자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돌아왔다. 같은 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나가게 되었으나 경력이 없다 하여 동부승지로 임명되었다. 도원수 윤필상(尹弼商)의 종사관으로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고 돌아와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승진하였다. 성종 10년(1479) 선전관이 되었고, 이듬해 주문부사(奏聞副使)로 중국으로 떠나기 전의 사연(賜宴)에서 불경한 행동으로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에 유배되었으나, 성종 12년(1481)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쓴 성종의 뜻에 의하여 동지중추부사로 임명되었다.

성종 13년(1482) 여진어에 능통하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함경도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여진을 성심으로 대하여 재임 중 그 지역이 안정되었으며, 뒷날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에는 모련위(毛憐衛)의 여진인들이 늘어서서 인사를 할 정도로 신망을 받았다.

성종 17년(1486) 좌윤이 되어 정조사(正朝使)의 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그 뒤 중국의 교사법(敎射法)을 그림으로 그려 임금에게 바쳤다. 이듬해 형조참판을 거쳐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나갔다. 성종 20년(1489) 황해도에 김경의(金京儀), 김막동(金莫同)의 도적이 일어났을 때 금제사(擒制使)로 파견되어 구질포지산(仇叱浦只山)을 공격하여 우두머리를 체포하는 등 적을 소탕하고 돌아와 포백(布帛)과 무기를 하사받았다.

성종 21년(1490) 무과출신이라 자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양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야인(野人) 이마거(尼麻車)가 조산(造山)에 침입하였을 때 윤필상의 추천을 받아 부원수가 되어 도원수 허종(許琮)을 보좌하면서 토벌에 나섰다. 이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돌아와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성종 23년(1492)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나갔을 때 계속된 흉년으로 도둑이 들끓자 연로수직법(沿路守直法)을 만들어 검색을 강화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성종 25년(1494)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성종이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중국의 무기통제나 조선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연산군 4년(1498)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에 왕명에 의하여 이극균(李克均)과 함께 『서북제번기(西北諸藩記)』와 『서북지도(西北地圖)』를 찬진하였다. 연산군 6년(1500) 병으로 병조판서에서 물러났다. 병조판서에 재임 중에는 특히 북방에 관한 여러 시책에 관심을 기울였고 용의주도한 대비를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가 이듬해 좌찬성(左贊成)과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무신으로 크게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에도 힘써서, 당시 문무를 겸하였다는 칭찬을 들었다. 슬하에 5남을 두었다.

시호는 헌무(憲武)이며, 묘는 시흥시 대야동 상곡(上谷)에 있다. 대한민국 30년(1977)에 세운 묘비의 비문은 15세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근주(李根周)가 찬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燃藜室記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平昌李氏世譜』.

(2) 성희건(成希騫) : 단종 1년(1453)~중종 9년(1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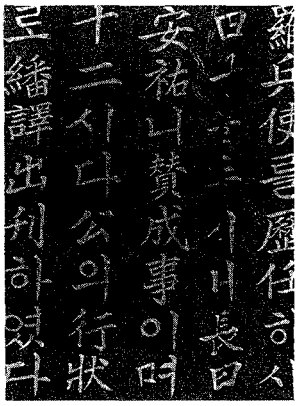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자현(子賢),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호조좌랑(戶曹佐郞) 완(玩)의 아들이며 희적(希亦)의 아우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한 후 사맹(司猛)을 거쳐 용양위부장(龍驤衛部將)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표의 비문은 성덕중(成德重)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成希騫墓表銘」.

(3) 김말손(金末孫) : 성종 1년(1469)~중종 35년(1540)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백윤(伯胤), 호는 경운(耕雲), 본관은 원주(原州)



김말손 묘비문(탁본).

이다. 성종 22년(1491)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된 후, 재령군수(載寧郡守)를 지내고 이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른 후 충청·경상도 병마절도사(慶尙道 兵馬節度使), 병조참의(兵曹參議), 전라 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등을 지냈다. 병서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묘재에 있고, 묘비는 1983년에 세웠다.

(4) 정승염(鄭承簾) : 성종 6년(1475)~?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호경(護卿),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 숭조(崇祖)의 3남이며 별제(別提) 승효(承孝)의 아우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어모장군(御侮將軍)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고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고, 묘비의 비문은 정유길(鄭惟吉)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原州金氏世譜』, 『始興郡誌』 上, 「金末孫墓碑銘」.

<참고문헌> 『河東鄭氏族譜』, 『蓮城姓譜』.

(5) 정인국(鄭仁國) : 연산군 3년(1497)~명종 12년(1557)

덕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지(德志),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부호군(副護軍) 승염(承簾)의 아들이다. 호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부군(副護軍)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산 4 축실(鷲谷)에 있다.

<참고문헌> 『河東鄭氏族譜』.

(6) 강복(姜復) : 중종 3년(1508)~중종 24년(1529)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경초(景初), 본관은 진주(晉州)로 순천부사(順川府使) 태수(台壽)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적순부위(迪順副尉), 충좌위 부사용(忠佐衛副司勇) 등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하상동 하지골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姜復先考妣墓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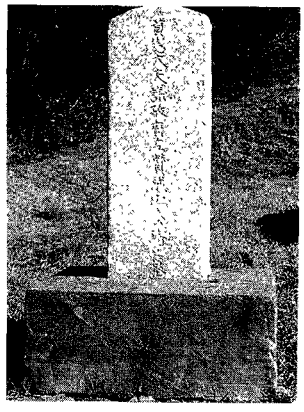
(7) 안진(安璡) : 명종 2년(1547)~?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경진(景璡),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첨지중추부

사(僉知中樞府事) 순(珣)의 손자이다. 선조 9년(157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내고, 이어 흥덕현감(興德縣監), 거제부사(巨濟府使), 영덕도호부사(盈德都護府使), 감찰(監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 여주목사(驪州牧使) 등을 역임하고, 선조 37년(1604) 선무공신훈(宣武功臣勳)에 올랐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고잔)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順興安氏族譜』, 『始興郡誌』 上.



안선 묘비. 1994.

<참고문헌> 『順興安氏族譜』.

(8) 안선(安璿) : 명종 21년(1566)~광해군 5년(1613)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는 준옥(濬玉),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정평도호부사(定平都護府使) 인손(仁孫)의 4남이다. 무과에 오른 후 영흥판관(永興判官)을 역임하고 장락원 정(掌樂院正)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고잔)에 있다.

(9) 정응정(鄭應井) : 선조 2년(1569)~?

조선시대의 무신. 본관은 하동(河東) 좌승지(左承旨) 우(瑀)의 아들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을 거쳐 훈련원 정(訓鍊院 正), 자산부사(慈山府使) 등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 축실에 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10) 안영남(安穎男) : 선조 15년(1578)~인조 14년(1636)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여오(汝悟), 호는 단천(湍川),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참의(參議) 요경(堯卿)의 현손으로 여주목사(驪州牧使) 진(璡)의 아들이다.

일찍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경기도 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를 거쳐 교동수사(喬桐水使)를 역임하고,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읍(隣邑)의 군졸을 이끌고 능한산성(凌漢山城)을 수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종제 영달(穎達)의 아들 근(根)을 양자로 하여 뒤를 이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고잔)에 있다.



안영남 묘비. 1994.

<참고문헌> 『蓮城姓譜』, 『順興安氏族譜』,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근 묘비. 1994.

(11) 안근(安根) : 인조 8년(1630)~?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회부(晦夫),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영달(穎達)의 아들이나 정주목사(定州牧使) 영남(穎男)의 양자했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창성부사(昌城府使)에 이르렀다.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고잔)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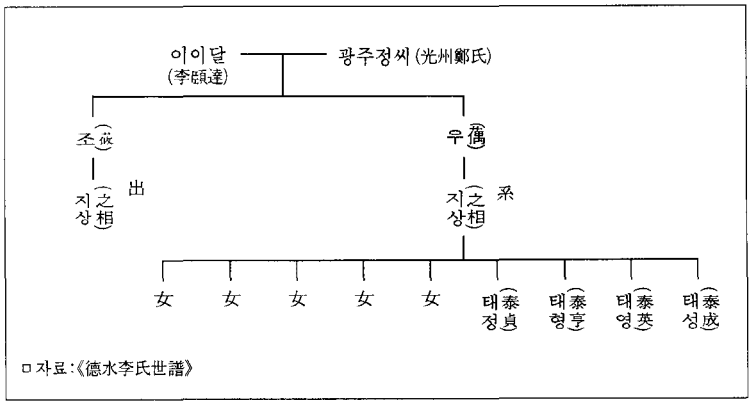
(12) 이우(李偶) : 인조 10년(1632)~현종 10년(1669)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사정(士淨), 본관은 덕수(德水)로 학생(學生) 이달(頤達)의 아들이다. 젊어서 무과(武科)에 오른 후 현종 10년(1669)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재임 중 허적(許積), 권대운(權大運) 등의 무고로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옥에 갇혀 곤장을 맞아 3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蓮城姓譜』, 『順興安氏族譜』, 『始興郡誌』 上.

묘는 시흥시 계수동 산 77-1 구미에 있다.

<참고문헌> 『德水李氏世譜』, 『德水李氏列傳』.



ㅁ자료:《德水李氏世譜》

이우 가계표.



이광원 묘비. 1992.

(13) 이광원(李光遠) : 인조 12년(1634)~숙종 18년(1692)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덕여(德餘), 본관은 성주(星州)로 종사랑(從仕郞) 군미(君美)의 아들이다. 병절교위(秉節校尉),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등을 지냈다. 그는 천성이 인애스럽고 아담했으며 아버지에게 효도

하고 특히 친족간에 우애가 남달랐다.

묘는 시흥시 물왕동 안말에 있고, 묘비는 영조 3년(1727)에 세워졌다. 묘비의 크기는 높이 1.05m, 폭 45cm, 두께 17cm이며, 비문은 그의 홍진(弘鎭)이 찬(撰)했다.

<참고문헌> 『星州李氏大同譜』, 『蓮城姓譜』, 『始興郡誌』 上, 「李光遠墓碑銘」.

(14) 안건(安楗) : 인조 13년(1635)~숙종 29년(1703)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자력(子力), 호는 청애(淸崖),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증 좌승지(贈左承旨) 영달(穎達)의 3남이다.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운산군수(雲山郡守)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에 있다.

<참고문헌> 『順興安氏族譜』.

(15) 신미(申渼) : 인조 20년(1642)~숙종 46년(1720)

조선 전기의 무신. 자는 청지(淸之),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문화현감(文化縣監) 경수(景洙)의 아들이다. 무과(武科)에 오른 후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훈련판관(訓鍊判官)를 역임하고, 이어 익산(益山)·낙안(樂安)의 수령에 재임 중 치적을 쌓아 송덕비가 세워졌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새미 뒷산에 있다.



신미 묘.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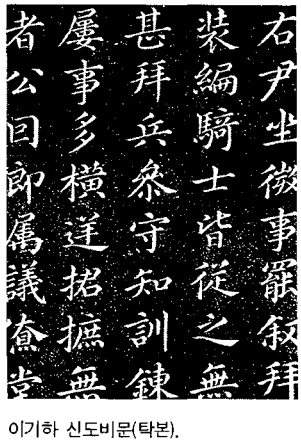
<참고문헌> 『高靈申氏世譜』.

(16) 이기하(李基夏) : 인조 24년(1646)~숙종 44년(1718)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하경(夏卿),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어영대장(御營大將) 여발(汝發)의 아들이다.

장가(將家)의 아들로서 숙종 2년(167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어영천총(御營千摠),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등을 역임하고, 숙종 20년(1694) 총융사(摠戎使)에 올랐다. 이때 김포 문수산성(文殊山城)의 축조가 완성되자 통진현(通津縣)을 이곳으로 옮기려 하였는데, 그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또 수원·남양·장단 지역의 군정수비(軍政修備)가 크게 해이해지자, 이의 개선을 위하여 무신(武臣)을 이 지역의 수령으로 파견하자고 건의하여 남양과 장단에는 문무교체(文武交替)가 되도록 하였다. 이듬해에 삼도



右尹坐微事罷叙拜
裝編騎士皆從之無
甚拜兵叅守知訓鍊無
屢事多橫逆掊摭無
者公曰卽厲議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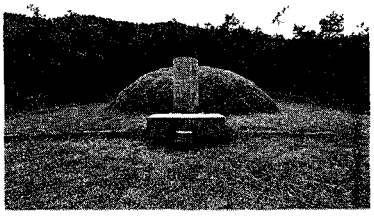
이기하 신도비문(탁본).



이기하 유골수습(1994. 3. 30).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고, 숙종 23년(1697)에 한성군(韓城君)에 봉해졌다. 이어 한성부 좌윤, 어영대장을 거쳐 숙종 27년(1701) 훈련대장에 발탁되자 대간이 그의 인망이 가볍고 물정이 어둡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임금은 누대에 걸친 장가(將家)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곧 형조참판(刑曹參判),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거쳐 다시 훈련대장이 되었는데, 숙종 29년(1703) 병조판서 이유(李濡)가 국방비의 절감을 위하여 금위영(禁衛營)의 폐지를 주장하자 이에 적극 반대하여 저지시켰다. 이어서 우포도대장을 거쳐 훈련대장이 되어 도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윤세기(尹世紀)와 병조에 관한 사무를 논하다가 대립하여 두 사람 모두 추고(推考), 파직되었다. 다시 훈련대장이 되어 도성의 보완을 재차 건의하여 7천 620보(步)에 걸친 성곽축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용(財用)을 고갈시켰다는 명목으로 사간원의 맹렬한 탄핵을 받았다.

숙종 35년(1709) 왕명을 받들어 강도(江都)를 순시하고 돌아와 포도대장, 총융사를 거쳐 숙종 42년(1716)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가 되었고, 이듬해 유도대장(留都大將)에 이르렀다. 평소 새로운 도법(刀法)의 채용과 새 전차(戰車)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사신(史臣)은 그를 평하기를 "중외(中外)에 출입하면서 큰 성적(聲積)을 내지는 못하였지만, 숙종의 총애를 받아 20여 년간이나 군대통수권을 장악하게 된 복장(福將)"이라고 하였다.



이기하 묘. 1991.

시호는 정희(貞僖)이며, 묘는 시흥시 방산동 산 95 뒷그늘에 있다. 그의 묘와 신도비는 1988년 5월 31일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었는데, 월곳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1993년 12월 13일에 향토유적에서 해제된 후, 1994년 3월 30일 이천군 마장면 회억리 산 20-1로 이장되었다. 그리고 영조 13년(1737)에 세운 신도비의 비신은 높이 2.5m, 폭 1.06m, 두께 63cm이며, 비문은 공조판서(工曹判書) 윤순(尹淳)이 찬(撰)했고, 글씨는 좌의정(左議政) 서명균(徐命均)이 썼으며, 이조참의(吏曹參議) 조명교(曺命敎)가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韓國人名大事典』, 『韓山誌狀』,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李基夏神道碑銘」.

(17) 이기한(李基漢) : 인조 26년(1648)~영조 3년(1727)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한경(漢卿),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한성좌윤(漢

城左尹) 여발(汝發)의 아들이며, 공조판서(工曹判書) 기하(基夏)의 아우이고 좌의정(左議政) 사관(思觀)의 아버지이다.

부평부사(富平府使)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묘는 시흥시 방산동 뒷그늘에 있다가 월곳진입로 공사로 1994년 3월 30일 이천군 마장면 회억리 산 20-1로 이장되었다.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가 찬(撰)한 묘지(墓誌)가 있다고 하나 그의 묘 이장 때 발굴되지 않았다.

<참고문헌>『韓山李氏良景公派譜』.

(18) 김석보(金錫保) : 현종 5년(1664)~영조 17년(1741)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여극(汝極),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사복시 정(司僕寺正) 찬(瓚)의 손자이고 성대(聲大)의 아들이며, 강계방어사(江界防禦使) 석명(錫命)의 아우이다.

숙종 19년(1693)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이듬해 선전관(宣傳官)을 지내고, 이어 감찰(監察), 흥덕현감(興德縣監),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중화부사(中和府使), 안동(安東)·순천(順天) 영장, 창원(昌原)·삼수(三水) 부사 등을 지냈다. 그 뒤 영조 2년(1726)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를 지내고, 이듬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에 올랐고, 계속해서 정주의 수령을 거쳐 영조 4년(1728)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역임했다.

묘는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에 있다.

<참고문헌>『安山世碣』,『抱川郡誌』,『始興郡誌』上,『내고장 安山』.

(19) 김상두(金相斗) : 숙종 15년(1674)~영조 27년(1751)

조선시대의 무신. 본관은 안산(安山)이다. 숙종 37년(1711)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감찰(監察), 덕흥현감(德興縣監), 서천군수(舒川郡守) 등을 지냈다. 그 뒤 영조 4년(1728) 성진첨사(城津僉使) 등을 지내고, 이어 경흥부사(慶興府使)를 거쳐 전라수군절도사에 오른 후, 영조 19년(1743) 부총관(副摠官)을 거쳐 여주목사(驪州牧使)에 이르렀다.

묘는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에 있다.

<참고문헌>『抱川郡誌』,『安山金氏族譜』,『始興郡誌』上,『내고장 安山』.

(20) 안세태(安世泰) : 숙종 2년(1676)~경종 3년(1723)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형백(亨伯),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운산군수(雲山郡守) 건(楗)의 1남이다. 삼수부사(三水府使)를 역임했다.

<참고문헌>『順興安氏族譜』.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117(고잔)에 있다.

(21) 김영(金泳) : 숙종 4년(1678)~?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평중(平仲),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위원군수(渭原郡守) 만일(萬鎰)의 아들이다. 숙종 41년(1715)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갑산부사(甲山府使)를 역임했다.

<참고문헌>『蓮城姓譜』,『安東金氏世譜』,『始興郡誌』上.

묘는 시흥시 월곶동 본향산 아래에 있다.

(22) 이사순(李思順) : 숙종 16년(1690)~영조 20년(1744)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덕보(德甫),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첨사(僉使) 기형(基亨)의 1남이다. 영조 1년(1725) 무과(武科)에 오른 후, 박천군수(博川郡守)와 영변진관병마절제사(寧邊鎭管兵馬節制使)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韓山李氏良景公派譜』.

묘는 시흥시 방산동 다지골에 있다.

(23) 전익조(全益祚) : 경종 4년(1724)~영조 52년(1776)



전익조 묘비. 1992.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겸재(謙哉)로 명달(明達)의 아들이다.

약관 20세 때 무과(武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가 되었으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직했다. 성품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흉년이 들 때마다 힘을 다해 구제하고 진휼(賑恤)하였다.

<참고문헌>『始興郡誌』上,『始興金石總覽』,「全益祚墓碑銘」.

묘는 시흥시 군자동 구준말에 있고, 묘비는 정조 원년(1777)에 세웠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51m, 폭 51cm, 두께 18cm에 이르고 비문은 조윤형(曺允亨)이 찬(撰)·서(書)했다.

(24) 이원기(李元耆) : 정조 19년(1795)~헌종 5년(1839)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덕일(悳一),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증 좌승지(贈左承旨) 해응(海應)의 1남이다. 순조 25년(1825) 충량무과(忠良武科)에 오른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고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묘는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에 있다가 도시화로 1980년대 충남 공주로 이장하였다.

(25) 신태동(申泰東) : 헌종 4년(1838)~1921

조선 말기의 무신.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증 가선대부 석주(錫周)의 아들이며, 운수업자 현순(鉉舜)의 조부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원주감영첨절제사와 인제현감(麟蹄縣監)을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정자산(程子山)에 있다.

(26) 이범규(李範珪) : 헌종 13년(1847)~?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는 덕우(德禹),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인직(仁稷, 또는 雲秀)의 1남이다. 첨사(僉使)와 완도군수(莞島郡守)를 역임했다.

묘는 시흥시 방산동 산 104-1에 있었는데, 월곶진입로 공사로 1994년 4월 26일 화장되었다. 분묘 화장 때 지석(誌石, 가로 22.4cm, 세로 32cm) 한 점이 출토되어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5) 學 者

(1) 강희안(姜希顔) : 태종 18년(1418)~세조 10년(1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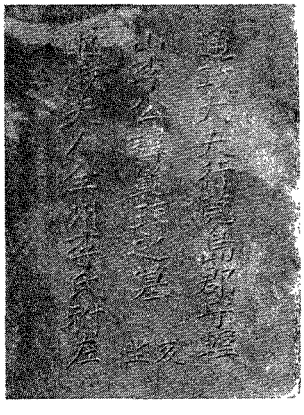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학자·문신. 자는 경우(景愚), 호는 인재(仁齋), 본관은 진주(晉州)로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석덕(碩德)의 1남이며, 좌찬성(左贊成) 희맹(希孟)의 형으로 세종의 이질이다.

<참고문헌> 『韓山李氏良景公派譜』.



신태동 묘. 1995.

<참고문헌> 『平山申氏族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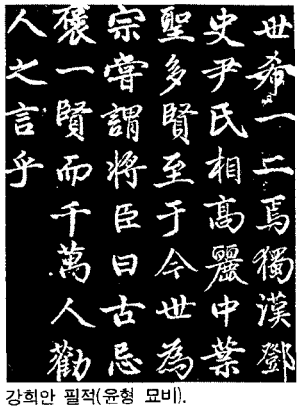


이범규 묘지. 1994.

<참고문헌> 『韓山李氏良景公派世譜』.

세종 20년(1438)에 신설된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세종 23년(1441) 식년시(式年試) 정과(丁科)에 급제한 후 한림(翰林)·사섬시 주부(司贍寺 主簿)·예조좌랑(禮曹佐郎)·돈령부 주부(敦寧府 主簿)가 되었다. 세종 25년(1443) 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세종이 지은 정음(正音) 28자에 대한 해석을 상세하게 덧붙였고, 이듬해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하였으며, 세종 27년(1445) 최항, 정인지 등과 함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주석을 붙였다.

이어 세종 29년(1447)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고, 이 해 집현전 직제학 최항,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등과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완성하였다. 세종 32년(1450) 세종이 위독하자 부지돈령(副知敦寧)에 있으면서 미타관음(彌陀觀音) 등의 경문(經文)을 썼다. 문종 1년(1451) 8월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고, 이어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역임하고, 단종 2년(1454)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올랐으며, 이듬해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강희안 필적(윤형 묘비).

세조 2년(1456) 단종복위 모의에 가담했으나 성삼문의 변호와, 특히 세조와는 이종사촌 사이였으므로 화를 면했다. 후일에 다시 대사헌 신석조(辛碩祖)와 좌사간(左司諫) 이종검(李宗儉)이 그의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임금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세조 6년(1460) 호조참의(戶曹參議) 겸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고, 세조 8년(1462) 인수부윤(仁壽府尹)으로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표·전(表箋)을 받들고 명나라에 갔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문장과 서화를 크게 칭찬하였다고 한다.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여 이듬해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가 되었다가 세조 10년(1464) 인수부윤 재임시에 병을 얻어 10월 9일 4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세조가 관곽(棺槨)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 슬하에 딸만 넷을 두어 후사가 없자, 사후 12년 만인 성종 7년(1476)에 양자문제로 조정에서 논의가 있어 희맹의 2남 학손(鶴孫)을 양자로 입적케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시(詩)와 글씨 및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불렸는데, 특히 전서(篆書), 예서(隸書)와 팔분(八分)에도 모두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시는 위응물(韋應物), 유종원(柳宗元)과 같다는 평이 있으나 자신의 글을 세상에 발표하기를 꺼려 전하는 문집이 없다. 그의 아우 희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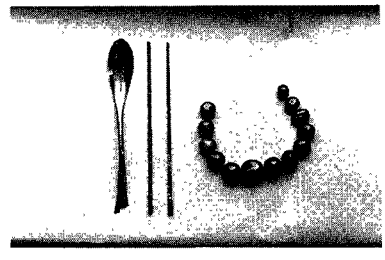
은 그의 시사(詩思)와 화취(畵趣)를 왕유(王維)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했으며, 성현(成俔, 1439~1504)은 산수와 인물을 칭찬하고, 특히 그의 여인도(麗人圖)를 걸작이라 하였다. 또 김안노(金安老, 1481~1537)는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서 다음과 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강희안은 시·서·화를 잘하여 당시 삼절이라 칭하였다. 묵화도 산수소경과 충조(蟲鳥), 초목(草木), 인물(人物) 등을 그린 것이 자못 소탈하면서도 저절로 생기가 있었다. 그 조화롭고 농욱한 때깔은 화원들의 색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옹의 여운은 화사(畵使)의 격 외에 해당된다.

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그의 시·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강희안은 시·서·화 삼절로 한 세상에 뛰어났으니 시는 위응물·유종원과 같고, 그림은 유송년(劉松年)·곽희와 같고, 글씨는 조맹부·왕희지와 같았다. 사람됨이 재주있고 덕이 있어 참으로 대인군자이다."

이와 같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서화를 천한 기예라 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 기록상에 전하는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작은 풍경화를 묵화로 즐겨 그렸으며 영모화(翎毛畵)·산수화·인물화에도 모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작품으로는 여인도가 유명하고, 청학동(靑鶴洞), 청천강(菁川江)의 두 족자와 경운도(耕雲圖)는 모두 기보(奇寶)라 할 수 있다. 단종 2년(1454)에 산천형세를 잘 아는 예조참판 정척(鄭陟), 지도에 밝은 직전(直殿) 양성지(梁誠之)와 함께 수양대군이 8도 및 서울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세종 27년(1445) 명나라에서 보내온 체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의 여덟 자 옥새를 만들었는데, 조정에서 그를 추천하여 쓰게 하였고 세종의 장례에 중국 사신이 와서 동국 명필을 보고자 했을 때도 그가 천거될 만큼 당대 서예의 제일 대가였다고 하겠다. 세조 때(1455) 임신자(壬申字)를 녹여서 새로 글자를 주조할 때 그가 글씨를 썼는데 이를 을해자(乙亥字)라고 하였다.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말이 적으며 첨렴·소박하고 물리에 통달하였고, 또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사랑하여 젊어서부터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일찍이 의정부에서 검상(檢祥)으로 추천하려 했으나 끝까지 사양하여



강희안 묘에서 출토된 유물.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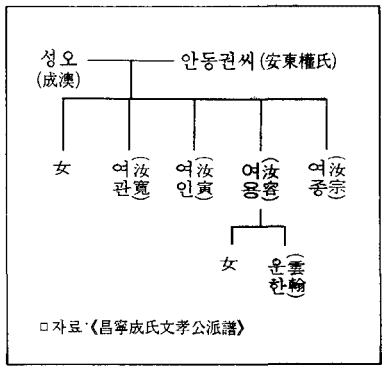
한때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노송(老松), 만년송(萬年松), 오반죽(烏斑竹) 등을 비롯하여 꽃을 분에 심는 법, 꽃을 빨리 피우는 법, 꽃이 꺼리는 것 등 17종의 화목과 돌, 그리고 8항의 꽃에 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은 '화훼각론'이고 후반은 '화훼총론'이다. 이 책의 특색은 그 자신이 개발한 기법에다 30여 종의 중국문헌을 참고하여 화목마다 선현들이 꽃에 대한 품격이나 철학을 논한 것을 소개하고 자신의 재배학적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그림은 강희맹, 서거정, 성현 등이 소견한 바를 서술한 것을 조사하면 수십 점에 이르나, 현재까지 보존되는 것은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 「산수인물도(山水人物圖)」,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강호한거도(江湖閑居圖)」 등 여덟 점 정도이며, 글씨로는 「姜知敦寧碩德墓表」와 「尹恭簡公炯墓碑」가 현존한다.

묘는 본래 장단군 낙화창(落花倉) 판원촌(板院村)에 있다가 1987년 5월 그의 아우 희맹의 묘가 있는 시흥시 하상동 산 2 하지골에 이장되었는데, 묘역에는 소양당(素養堂) 김수녕(金壽寧, 1437~1473)이 그의 행장을 엮은 묘갈이 있었다.

<참고문헌> 『世宗·端宗·世祖實錄』, 『菁川養花小錄』,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여용 가계표.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 上, 「成汝容墓表銘」.

(2) 성여용(成汝容) : 선조 14년(1581)~선조 41년(1608)

조선시대의 학자. 자는 자수(子受),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직장(直長) 오(澳)의 아들이며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운한(雲翰)의 아버지이다. 학문에 뛰어났으나 임진왜란과 거듭된 거제(居制)로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28세로 단명했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숙종 11년(1685)에 세운 묘표의 비문은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단하(李端夏)가 찬(撰)했다.

(3) 고상화(高尙華) : 숙종 30년(1704)~영조 33년(1757)

조선시대의 학자. 자는 형숙(衡叔), 본관은 제주(濟州)로 고려 때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를 지낸 순겸(淳謙)의 후예로 참의(參議)를 증직받은 유원(裕元)의 아들이다. 일생 동안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학문에 전념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인(仁)으로 가문을 빛내어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을 증직받았다.

묘는 시흥시 장현동 뒤일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高尙華墓碑銘」.

(4) 백상형(白尙瑩) : 숙종 35년(1705)~정조 13년(1789)

조선시대의 학자. 자는 순보(純甫), 호는 오헌(傲軒),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시흥시 하중동에서 우거.

경종 시기에 첨정을 지내다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정주(定州)로 유배된 아버지 시채(時采)를 따라 18세의 나이로 배행하였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신을 모시고 돌아올 정도의 효자였으며, 또한 근검하였다. 이후로 오로지 경서에만 몰두하다가 서울을 떠나 하중동 샌말(間村)시흥에 와서 면포정(面圃亭)을 짓고, 앞에 작은 연못 두 개를 파서 물고기와 연꽃을 기르며, 주위에 갖은 꽃들을 가꾸고 소요자적하며 시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명승지를 탐방하여 기행문과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이삼태(李參泰), 조중보(趙重普), 강세황(姜世晃), 임경응(嚴慶膺), 최창헌(崔昌憲), 김춘용(金春容), 권요성(權堯性) 등과 함께 자주 어울렸으며, 당시의 사림(士林)들이 이들을 팔문장(八文章)이라고 떠받들었다. 특히 정조가 호조벌(하중동과 포동 사이에 있음)에 행차할 때 전하봉영곡을 작곡했다고 전해진다. 유고로서 『오헌집(傲軒集)』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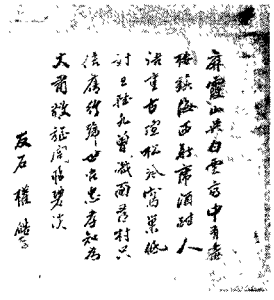
오헌집.

묘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다가 1980년대 말엽에 군부대설치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傲軒集』, 「白尙瑩行狀」.

(5) 권호(權澔) : 고종 23년(1886)~1956

조선시대의 학자·문신. 자는 백헌(伯獻), 호는 우석(又石)·경암(敬菴),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시흥시 하중동 392-1에서 출생했다. 초명은 대(㮨)이나 1913년에 '호(灝)'로 개명하고, 다시 1940년에 '호(澔)'로 개명했다. 행중추원사(行中樞院事) 극화(克和)의 16세손으로 시종(侍從) 태선(泰善)의 1남이다.



권호 필적(『연성음사시첩』)

<참고문헌> 『蓮社名帖』, 『蓮城吟社第壹回集』,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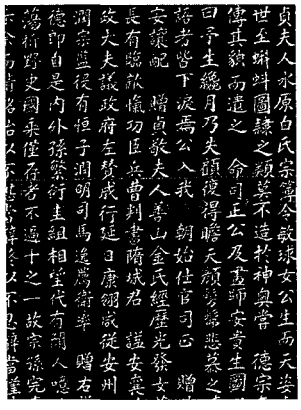
안산군 초산면장(安山郡 草山面長)을 거쳐 궁내부 주사(宮內府主事)를 역임했다. 특히 한학과 문장에 뛰어나, 1926년에는 시흥지방의 인사 마흔 다섯 명으로 '연성음사(蓮城吟社)'란 한시 동인회를 조직하였고, 이듬해에는 시흥의 옛 읍호인 '연성'의 역사적 사실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흥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를 모집, 입선작을 모아 『연성음사 제1회집(蓮城吟社第壹回集)』을 발간하는 등 암울한 시기에 시흥지방의 문화 인식의 제고 및 시흥인의 기개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묘는 시흥시 하중동 산 2, 3에 있다.

6) 藝術家

(1) 최경(崔涇) : 태종 18년(1418)~?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원화가. 자는 사청(思淸·四淸)·여청(汝淸), 호는 근재(謹齋), 본관은 수성(隋城, 일반 사서에는 耽津으로 기록됨)이다. 아버지는 청송감무(靑松監務) 책(策)으로 안산군에서 소금을 굽는 염부(鹽夫)였다.



최경 묘갈문(탁본).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으며, 도화원(圖畵院) 생도가 되어 화업(畵業)에 정진한 끝에 도화원 별좌가 되었다.

성종 3년(1472) 5월 소헌왕후(昭憲王后), 세조, 예종, 의경왕(懿敬王)의 어용을 성공적으로 그려 화원으로서는 최초로 당상관에 제수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의 반대로 취소되어 어용, 인물, 불상 등의 그림에 있어서 대신 말 한 필과 말 안장을 하사받았다.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며, 또한 허세를 부리고 과시적인 성격을 지녔었기 때문에 승진을 거듭하기도 하고 도화원에서 파직되어 매를 맞고 관노(官奴)가 되기도 하는 등 파란많은 생애를 보냈다.

관직은 사정(司正)에 이르렀고,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수성백(隋城伯)에 봉해졌다. 배위는 증 정경부인 선산 김씨로, 경력(經歷) 광발(光發)의 딸이다. 슬하에 4남을 두었다.

주로 도화서의 동료인 안귀생(安貴生), 배련(裵蓮) 등과 함께 활약하였

고, 당시 안견(安堅)은 산수화요, 최경은 인물화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안견과 쌍벽을 이루었다. 최경 역시 말년에는 산수화와 고목을 그려 심묘한 경지에 들어갔으나 안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한다. 그는 마원(馬遠)의 산수 인물을 공부하였고 북송의 이공린(李公麟)의 인물화를 연구하여 그 진수를 터득하였으며, 특히 인물화는 신묘하여 70세가 넘도록 필력이 쇠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작품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일본에 그의 이름이 적힌 「백의관음상(白衣觀音像)」이 한 점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진작(眞作)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호는 안양(安讓)이다.

묘는 송탄시 도일동(道日洞) 술좌원(戌坐原)에 있고 1934년에 세운 묘갈은 민병승(閔丙承)이 찬(撰)과 아울러 전자(篆字)했고, 글씨는 윤용구(尹用求)가 썼는데,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1m, 폭 45cm, 두께 23cm에 이른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韓國繪畵史』,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윤엄(尹儼) : 중종 31년(1536)~선조 14년(1581)

조선시대의 문신·서화가. 자는 사숙(思叔), 호는 송암(松巖·松庵),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영평위(鈴平尉) 섭(燮)의 손자이며 교위(校尉) 지함(之諴)의 아들이다.

선조 5년(1572) 진사(進士)로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저작(著作), 봉상시 직장(奉常寺直長)이 되었고, 이어 호조좌랑(戶曹佐郞)을 지냈다. 그 후 선조 14년(1581)에 장수현감(長水縣監)이 되었는데, 재임 중 혜정(惠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유임을 청했으나 질병을 얻어 사직하고 돌아와 죽었다. 교리(校理)에 추증되었다.



윤엄 묘갈문(탁본).

서화(書畵)에 능하고 필법(筆法)에 조예가 있어 고체(古體)를 능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식안이 높아 고금서화의 판단에도 뛰어났다. 그림은 영모(翎毛)를 잘 그렸으며 명대(明代)의 원체계(院體系) 화조화가인 여기(呂紀)의 정교하고 장식적인 화풍과 남송대(南宋代) 원체화의 서정성을 반영하는 두 경향을 보였다. 유작으로 「화조도(花鳥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전창작(傳創作)인 「원록도(猿鹿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노저게로도(蘆渚憩鷺圖)」(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고, 그 밖에 「영천세이도

(穎川洗耳圖)(산현동 윤성준 소장)』가 있다.

묘는 본래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무들(현 안산시 성곡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0년대 말엽에 시흥시 산현동 골월로 이장되었으며, 선조 15년(1582)에 세운 묘갈의 비문은 진주목사(晉州牧使) 황정욱(黃廷彧) 경문부(景文父)가 찬(撰)하고, 글씨는 우인(友人)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백광훈(白光勳) 창경부(彰卿父)가 썼다.

<참고문헌> 『國朝人物考』, 『國朝文科榜目』,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尹嚴墓碣銘」.

(3) 이창환(李昌煥) : 선조 30년(1597)~인조 24년(1647)

조선시대의 화가·문신. 자는 회원(晦元), 호는 해은(海隱), 본관은 평창(平昌)으로 감찰(監察) 숙(琡)의 아들이다. 인조 5년(1627) 진사(進士)에 오른 후,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에 추증되었다. 화가로 유명한데 특히 매죽(梅竹)을 잘 그렸다.

묘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다가 도시화로 1978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平昌李氏世譜』.

(4) 김명국(金明國) : 선조 33년(1600)~숙종 7년(1681)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절파풍의 화가로서 일명 명국(鳴國)이라고도 한다. 자는 천여(天汝), 호는 연담(蓮潭)·국담(菊潭)·취옹(醉翁), 본관은 안산(安山)이다.



김명국 「심산 행려도」 ◇

도화서(圖畵署)의 화원으로 교수를 지냈고, 인조 14년(1636)과 인조 21년(1643)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사행기간 동안 그곳 사람들의 그림 요청이 많아서 밤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한다.

인조 25년(1647) 창경궁 중수공사 때는 화원 여섯 명과 화승 예순여섯 명을 데리고 책임화원으로 일하였다. 효종 원년(1651) 한시각(韓時覺) 등과 함께 현종명성후(顯宗明聖后)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정내교(鄭來僑)가 지은 『완암집(浣巖集)』에 의하면, "김명국은 성격이 호방하고 해학에 능했으며, 술을 좋아하여 몹시 취해야만 그림을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대부분의 그림들이 취한 뒤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질은 힘차고도 자유분방한 필치로 처리된 그의 작품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유작들은 안견파(安堅

派)의 화풍을 따른 것도 있으나, 대부분 절파 후기의 광태파(狂態派) 화풍의 작품들이다. 굳세고도 몹시 거친 필치와 흑백대비가 심한 묵법(墨法), 분방하게 가해진 준찰(皴擦), 날카롭게 각이 진 윤곽선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화풍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산수도」와 「설중귀려도(雪中歸驢圖)」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심산행려도(深山行旅圖)」·「기려인물도(騎驢人物圖)」·「관폭도(觀瀑圖)」·「투기도(鬪碁圖)」 등의 작품들에서도 얼마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그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조선 중기를 풍미했던 절풍화풍도 그를 정점으로 하여 쇠퇴하였다. 그는 절파풍의 산수인물화 이외에도 대담하고 힘찬 감필(減筆)로 처리된 선종화를 잘 그렸다. 「달마도(達磨圖)」·「은사도(隱士圖)」·「수로예구도(壽老曳龜圖)」 등을 대표작으로 하는 그의 선종화들은 한두 번의 간결한 붓질로 대상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출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한 선종화에서 내보이는 필치는 그의 산수인물 화풍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그를 우리나라 화가 중 제일 거칠고 호방한 필법을 구사했던 인물로 손꼽히게 한다.

그의 화풍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세걸(曺世杰)이 있으나 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품으로는 그 밖에 「고사관화도(高士觀畵圖)」, 「어정산수도(漁艇山水圖)」 「도석인물화첩(道釋人物畵帖)」등이 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浣巖集』, 『雷淵集』, 『槿域書畵徵』, 『韓國繪畵史』, 『韓國人物五千年』,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심사정(沈師正) : 숙종 33년(1707)~영조 45년(1769)

조선시대의 화가. 자는 이숙(頤叔), 호는 현재(玄齋)·묵선(墨禪),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수암동 원당골에서 우거했다. 화가 정주(廷胄)의 아들이며, 영의정을 지낸 지원(之源)의 증손자이다.

사직(司直)으로 있던 원경하(元景夏)의 상소문에 의하면, 영조 24년(1748) 삼성진전(三聖眞殿)의 어진모사중수도감(御眞摸寫重修都監)에 조영석(趙榮祏), 윤덕희(尹德熙)와 함께 화사(畵事)의 감독격인 감동(監董)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생을 그림에 몰두했던 만큼 많은 양의 작품을 남겼다. 그가 다룬 화제(畵題)도 여러 방면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특히 산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8세기 화단에서 유행하였던 진경산수(眞景山水) 쪽보다 전통적인 중국화풍에 관심이 컸던 듯하



심사정 「파초와 잠자리」 ■

다. 그래서 그는 이인상(李麟祥), 강세황(姜世晃) 등과 함께 당시 화단에 남종화풍(南宗畵風)을 유행시키고 뿌리내리게 한 주역으로 등단하였다. 그의 회화는 여러 후배화가들을 자극하였고, 최북(崔北), 이방운(李昉運), 이인문(李寅文) 등은 그의 영향이 엿보이는 대표적인 화가들이다. 그가 정선(鄭敾)에게 그림을 배웠다 하나 정선의 화풍과는 달리하고 있다. 그의 회화 경향은 그의 화첩에 적은 강세황의 제발문(題跋文)대로 명나라 오파(吳派)의 비조인 심주(沈周)의 화풍을 배워 피마준법(披麻皴法)을 사용하였고, 북송(北宋)의 문인화가인 미불(米芾)의 대혼점(大混點) 등 남종화풍을 구사하였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전형적인 북종화법(北宗畵法)인 대부벽준(大斧劈皴)도 즐겨 사용하였다. 또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 화풍의 수용도 엿보이며, 특히 그의 아호를 현재(玄齋)라 한 것은 명나라 말기의 남종화가인 동기창(董其昌)의 아호인 현재(玄宰)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선배들의 화법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남·북종 화풍을 모두 수용하여 대륙적 면모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가 수암동 원당골(원당사)에서 우거한 것은 영조 37년(1761) 전후로 추정된다. 즉, 이 해 당대화가인 표암(豹菴) 강세황과 함께 이곳 원당사에서 「표현연화첩(豹玄聯畵帖)」을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현존하는 작품은 산수화가 가장 많다. 그리고 진경산수·풍속화도 남기고 있으며, 도석인물(道釋人物), 화훼초충(花卉草蟲), 영모(翎毛), 사군자(四君子) 등 모든 그림에 능숙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산수화의 대표작으로는 「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 「촉잔도(蜀棧圖)」 등이 있는데, 「강상야박도」는 북송의 미불, 원말사대가인 예찬(倪瓚), 명나라의 오파화가(吳派畵家)들을 따른 흔적이 뚜렷하고, 「촉잔도」는 그가 영향받은 남·북종 대가들의 화법을 종합한 대작으로 송나라 때 화가인 이당(李唐)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그린 것이다. 그 밖에 「금강산경도(金剛山景圖)」, 「한양근경도(韓陽近景圖)」, 「경구팔경도(京口八景圖)」가 전하는데 이들 작품은 각이 진 먹선, 부벽준 등 자신의 필법이 강하게 눈에 띄어 동국진경다운 맛은 적다. 또 그의 도석인물화는 생동감 넘치는 필치가 구사되었고, 사군자는 사의(寫意)에 치우치고 대담한 필법을 보여 주고 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豹菴姜世晃繪畵硏究』.

(6) 강세황(姜世晃) : 숙종 39년(1713)~정조 15년(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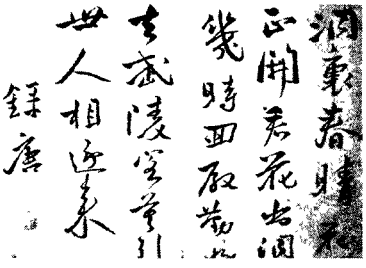
강세황 초상. ◆

조선시대의 문인서화가·평론가. 자는 광지(光之), 호는 표암(豹菴)·의산자(宜山子)·첨재(忝齋)·산향재(山饗齋)·견암(蠒菴)·박암(樸菴)·노죽(露竹)·표옹(豹翁)·해산정(海山亭)·무한경루(無限景樓)·홍엽상서(紅葉尙書)·표노(豹老) 등이며 한양 광희문 남쪽 남산 봉수대 동편에서 현(鋧)의 3남 6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어머니는 광주 이씨로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장수를 누렸으며, 할아버지 백년(柏年), 아버지 현에 이어 71세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시흥시 조남동 방화마을에서 우거.

후손으로는 부인 진주 류씨 소생인 인(僎)·완(侃)·관(儐)·빈(儐)과 나주 나씨 소생의 신(信)이 있는데, 인·완은 과거에 급제했고, 신과 그의 아들 이오(彝五), 완의 손자 진(溍)이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교육, 자형 임정(任珽)의 영향을 받았으며, 처남 류경종(柳慶種), 친구 허필(許佖)·이수봉(李壽鳳)과 절친했고, 이익(李瀷)·심사정(沈師正)·강희언(姜熙彦)과 교류했다. 또 시흥 하중동의 백상형(白尙瑩)·포동의 엄경응(嚴慶膺)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특히 그에게서 그림을 배운 제자로서 김홍도(金弘道), 신위(申緯)가 있다. 8세에 시를 짓고, 13, 14세에 쓴 글씨를 얻어다 병풍을 만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32세 때(1744) 처가가 있는 안산 부곡동(釜谷洞)에서 5리 떨어진 안산읍(安山邑, 시흥시 수암동 또는 조남동 방화마을로 추정)으로 이사, 이곳에서 학문과 서화에 전념하였다. 영조의 배려로 61세인 영조 49년(1773)에 처음 벼슬 영릉참봉(英陵參奉)길에 올라 정조 원년(1776) 기구과(耆耉科)에 수석 합격, 정조 2년(1778)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수석합격하였다. 관직은 사포별제(司圃別提), 병조참의(兵曹參議),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했다. 정조 8년(1784) 북경사행(北京使行), 정조 12년(1788) 금강산유람을 하고 기행문과 실경사생 등을 남겼다.

그의 관직생활과 예술활동 등은 영조와 정조의 배려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더욱이 영조 39년(1763) 영조가 신하들에게 그를 보호하여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절필(絶筆)했던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강세황 필적(서울 이일우 소장).

시(詩)·서(書)·화(畵)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스스로 그림제작과 화평(畵評)활동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발전과 풍속화·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화법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서화론, 서화평, 대나무 판각화, 사군자를 한 벌로 짝맞추어 그리는 부분에서도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의 서화가 개성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서화의 정통성과 올바른 방법에 관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참신하고 독자적인 서화관에 의해 실천적으로 문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일생 동안 진지하게 추구했던 서화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습기(習氣), 속기(俗氣)가 없는 글씨와 문인화의 경지였다. 그림의 소재는 산수, 화훼를 주로 다루었는데, 만년에는 묵죽(墨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작품은 전 시기를 통하여 진정한 문인화, 격조 높은 수묵화에 도달하기까지 발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공간감의 확대, 담백한 필치, 먹빛의 변화와 맑은 채색 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다. 현존하는 작품은 상당수에 달하며,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많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작품으로 영조 37년(1761) 심사정과 함께 수암동 원당사(元堂寺)에서 그린 「표현연화첩(豹玄聯畵帖)」과 「제2표현첩(第二豹玄帖)」을 비롯하여 「현정승집(玄亭勝集)」, 「첨재화보(忝齋畵譜)」, 「벽오청서도(碧梧淸署圖)」, 「표암첩(豹菴帖)」,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 「삼청도(三淸圖)」, 「피금정도(披襟亭圖)」, 「임왕서첩(臨王書帖)」, 「약즙산수(藥汁山水)」, 「제의병(祭儀屛)」, 「춘경산수도(春景山水圖)」, 「석류도(石榴圖)」, 「연화도(蓮花圖)」 외 다수가 전한다. 특히 영조 40년(1766)인 54세 때 쓴 자서전인 『표옹자지(豹翁自誌)』에 들어 있는 두 폭의 자화상을 비롯하여 7, 8폭여의 초상화를 남긴 사실이 독특하다. 1979년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그의 문집인 『표암유고(豹菴遺稿)』를 영인, 출판하였다. 문화부에 의해 1995년 1월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시호는 헌정(憲靖)이며, 묘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다.

<참고문헌> 『儆軒集』,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畵硏究』, 1988.

(7) 이의양(李義養) : 영조 44년(1768)~?

조선시대의 화가. 자는 이신(爾信), 호는 신원(信園)·운재(雲齋)·팔송관(八松觀),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역관으로 봉사를 역임한 학수(學洙)의 아들이며 화가 한철(漢喆)의 아버지이다.

순조 11년(1811) 조선조 마지막 통신사행의 수행화원으로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 그 뒤 이수민(李壽民), 김화종(金和鍾) 등 여러 화원들과 함께 「문조신정후가례반차도(文祖神貞后嘉禮班次圖)」 제작에 참여하였다. 『고화비고(古畵備考)』에 의하면, 산수를 잘 그리고 송호도(松虎圖)에 뛰어났다고 한다.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와 연경간의 명승유적과 대마도 주변을 묘시한 『사생첩(寫生帖)』(간송미술관 소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형식화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의 작품들도 대체로 남종화풍(南宗畵風)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경직되고 딱딱한 필법과 묵법(墨法)을 보여 준다.

유작으로 「송호도」(간송미술관 소장), 「유하준마도(柳下駿馬圖)」(이상무 소장), 「강남우후도(江南雨後圖)」(일본인 소장) 등이 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畵寫兩家譜錄』, 『槿域書畵徵』,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이한철(李漢喆) : 순조 8년(1808)~?

조선시대의 화가. 자는 자상(子常), 호는 희원(希園, 喜園)·송석(松石),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화가 의양(義養)의 아들이다.

헌종 12년(1846) 헌종어진도사(憲宗御眞圖寫)의 주관화사(主管畵師)로 활약하였으며, 철종 3년(1852) 철종어진도사, 철종 12년(1861) 철종어진원유관본도사(遠遊冠本圖寫)를 역임하고, 그 뒤 고종 9년(1872) 고종어진도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초상 실력 때문에 조중묵(趙重默)과 더불어 당시 초상화의 쌍벽으로 지칭되었다.



이한철 「기암 관수도」

그는 전기(田琦), 김수철(金秀哲), 허유(許維), 유숙(劉淑), 조중묵, 유재소(柳在韶) 등과 함께 김정희(金正喜)의 화평(畵評)을 통하여 그림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김정희는 그의 그림에 대하여, "비록 출진(出塵)의 상(想)이 모자라나 초초(楚楚)하여 풍치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 "묵법(墨法)이 몸에 익어 있다"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은 산수, 인물, 화조(花鳥), 절지(折枝)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대체로 전형적인 남종화법(南

宗畵法)과 김홍도(金弘道)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바위, 인물, 나무의 묘사에서 특히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부드럽고 투명한 필치의 사용, 묵법의 강약, 농담의 사용 등에서는 그의 탁월한 재능을 엿볼 수 있다.

대표작품으로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김정희영정」(1857, 金聲基 소장), 「방화수류도(訪華隨柳圖)」, 「추경독서도(秋景讀書圖)」, 「어해도(魚蟹圖)」, 「소년행마도(少年行馬圖)」, 「정포은상(鄭圃隱像)」 등이 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希園畵屛』, 『槿域書畵徵』, 『朝鮮美術史』, 『韓國繪畵大觀』, 『韓國의 肖像畵』,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宗敎人



경덕국사 묘지문(탁본).

(1) 경덕국사(景德國師) : 목종 2년(999)~문종 20년(1066)

고려시대의 왕사(王師). 속성은 김(金), 이름은 난원(爛圓), 본관은 안산(安山)이며 안산현(安山縣)(현 시흥시 장상동), 출신이다. 호부상서(戶部尙書) 은부(殷傅)의 아들로 문종의 외숙부이며 대각국사의 스승이다.

문종 12년(1058) 왕사가 되었고 도승통(道僧統)을 지냈다. 문종 19년(1065) 문종의 아들인 후(煦 : 義天)를 중이 되게 하고 화엄교관(華嚴敎觀)을 가르쳤다. 구룡산(九龍山) 복흥사(福興寺) 주지로 있었다.

죽은 후에 복흥사에 비를 세우고 시호로 경덕(景德)을 내리고 국사(國師)로 추존했다.

<참고문헌> 『高麗史』,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景德國師墓誌銘」.

(2) 김동현(金東賢) : 고종 6년(1869)~1928

시흥지방 최초의 기독교인.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1통 5호(현 시흥시 무지동 352번지)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광수(廣洙), 어머니는 최씨(崔氏)이다.

배재학당에서 얼마간 수학한 후, 광무 2년(1898) 무지동 은행동마을 자택에서 예배를 주관했는데, 이로써 시흥지방의 첫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그 뒤 광무 5년(1901) 수원지방 권사에 임명되었다. 이 해 5월 18일 무지내마을(현 시흥시 무지동 은행동마을)에 길이 세 칸, 너비 두 칸의 예

배당을 봉헌했으며, 8월 6일에는 안양 석수동 삼막골교회 봉헌식에서 기도하였고, 이어 수원에서 휴양관 부지를 구입하다가 그곳이 정조(正祖)의 영정(影幀)을 봉안하는 화령전(華寧殿)이기 때문에 이방종교가 떠들면 모독된다 하여 경기관찰사 조중목(趙重穆)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듬해 선교회에서 수원구역과 시흥구역을 분리하자 시흥구역에 책임자가 되어 이 해 6월 1일 봉헌식을 거행했는데 무지내교회의 증축으로 생각된다. 이어 충남 공주지방에 첫 전도자로 활동하였는데, 그 후 만년의 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1928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59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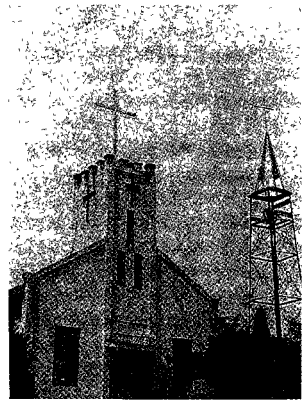
그의 계모인 신씨(申氏, 본관 평산, 1855~1946)는 1940년 경성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마리아(馬利亞)로 개명했다.

부인 정씨(鄭氏, 본관 하동, 1887~1919)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으며, 슬하에는 장남 영렬(永烈, 1899~?)이 배재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어 안산구역(1919), 제암(1923), 아현(1924), 창전리교회(1928)에서 목회를 하였고, 1942년에는 양양 물류교회 주관자(목사)로 시무하였다. 외아들 영렬 이외에 딸 셋, 손자 여덟이 있다. 그리고 홍업강습소 창업자 김동일은 그의 사촌 동생이다.

묘는 시흥시 무지동에 있다.



김동현 호적.


무지내 교회. 1990.

<참고문헌> 『대한크리스도인회보』, 『신학월보』, 『공주제일교회 팔십년사』, 『수원지방교회 자료집』. 이진호, 「김동현과 무지내교회」, 『감리교와 역사, 1989. ——, 「안양지방의 개신교 전래」, 『안양문화』 10. 이승언, 「무지내교회와 김동현」, 『양우리』 2.

(3) 김동일(金東一) : 고종 21년(1884)~1954

기독교인. 호는 지석(芝石), 일명 교원(敎源),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1통 2호(현 시흥시 무지동 428)에서 출생했다. 용수(龍洙)와 어머니 이씨(李氏) 사이에 3남을 두었고, 시흥관내 최초의 기독교인 김동현의 사촌동생이며, 민선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정렬의 아버지이다.

한학을 공부하여 성균관 주사가 되었고, 광무 6년(1902)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 후 버딕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어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졸업여부는 알 수가 없다.

1912년 안산구역을 시발로 근속하다가 1919년 목회를 그만두고, 1920년부터 농사에 전념하고, 구장을 29년간 보면서 홍업강습소를 창설, 남녀 미취학 아동교육에 진력하였다.


김동일(손자 김한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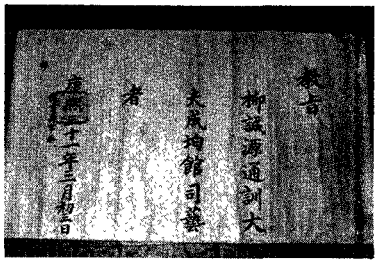
광복 후에는 휴강 중이던 흥업강습소를 다시 개강하여 소성고등공민학교(邵城高等公民學校)로 개칭, 1948년까지 명예교장을 하였다. 사재 토지 800여 평을 학교운동장 기지로 희사하였다. 만년에는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70세를 일기로 무지동 428에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이진호, 「안양지방의 개신교 전래」, 『안양문화』 10호, 1993.

묘는 시흥시 무지동 은행동마을에 있다.

8) 忠 臣

(1) 류성원(柳誠源) : ?~세조 2년(1456)



류성원 교지(1692. 후손 류지홍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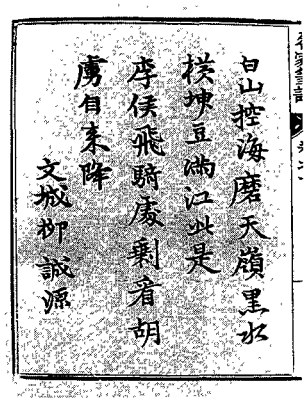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 본관은 문화(文化)로 호(澔)의 손자이며, 사인 사근(士根)의 아들이다.

세종 26년(1444)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4등으로 급제하여 이듬해 집현전저작랑으로 의학총서(醫學叢書)인 『의방유취』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종 28년(1446) 박사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춘추관 사관(史官)의 자격으로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문종 즉위년(1450)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적에 좌사경(左司經)으로 선발되어, 세자를 잘 지도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문종 2년(1452)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개찬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과별로 분담, 찬술하게 되어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열전을 찬술하였으며, 이 해 3월에는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세종실록』의 찬술에 참여하였다.

또 단종 1년(1453) 지평(持平)이 되어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수종한 사람을 가자한 일과 세종 때 『역대병요(歷代兵要)』와 병서의 찬정(撰定)에 참여한 사람을 수양대군이 가자를 계청(啓請)한 것은, 조신이 종친에게 아부하고 종친이 사은(私恩)을 파는 일이므로 모두 그 명령을 회수하기를 청하여 관철시켰다. 이 해 10월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좌하는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 등 대신을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

부사, 이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하여 정권을 잡은 뒤 백관들을 시켜 자기의 공을 옛날 주나라 주공(周公)에 비견하여 임금에게 포상하기를 청하고, 집현전에 명하여 정난녹훈(靖難錄勳)의 교서(敎書)를 기초(起草)하도록 하자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집현전 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 있다가 협박을 당하여 기초를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통곡하였다고 한다. 11월 장령이 되어 정난공신의 책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을 들어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류성원 필적.

단종 2년(1454) 경복궁내의 불당을 없앨 것을 소를 올려 주장하였으며, 이 해 4월 춘추관 기주관에 임명되었고, 『문종실록』의 찬술에 참여하였다. 이 해 2월 사헌부에서 자기들의 건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령을 사임하자 직집현전(直集賢殿)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수양대군이 단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이 해 집의도 겸하게 되었다. 세조 2년(1456) 성균관 사예 김질(金礩)의 고변에 의하여 성산문(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는데 그도 이 계획의 모의에 참여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성삼문·박팽년 등은 차례로 잡혀 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데, 이 때 그는 성균관에 있다가 여러 유생들에게서 이 일의 내용을 듣고 관대도 벗지 않고서 패도(佩刀)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그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단종복위사건의 주동인물인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유응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六臣傳)」을 지었다. 이 「육신전」이 세상에 공표된 뒤 이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 숙종 17년(1691)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과천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그리고 시흥시 산현동의 충경사(忠景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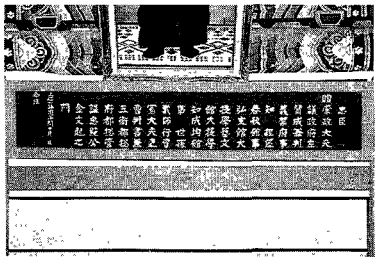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秋江集』, 『燃藜室記述』,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六臣墓碑銘」.

(2) 김문기(金文起) : 정종 1년(1399)~세조 2년(1456)

조선시대의 문신. 초명은 효기(孝起)이나 빙장의 휘(諱)가 효정(孝貞)이라 '효'자를 피하여 개명했다.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정호(亭號)는 마암(馬巖), 본관은 금녕(金寧)이며,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김문기 초상. □



충신 김문기 정려판(오정각). 1995.



김문기 교지(1778. 후손 김세권 제공).

서 출생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관(觀)의 1남이다.

세종 8년(1426)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세종 12년(1430)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임명된 후, 세종 18년(1436) 사간원 좌헌납이 되었다. 세종 27년(1445) 함길도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의 천거로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에 임명되었으나 세종 29년(1447) 이질로 군무에 장기간 복무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세종 30년(1448) 겸지형조사(兼知形曹事)가 되었다. 그 뒤 세종 32년(1450)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문종 1년(1451) 함길도도관찰사에 부임하여 안변, 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단종 1년(1453) 형조참판(形曹參判)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세조 원년(1455) 세조로부터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마치라는 유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공을 세웠다. 그 해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한 단종복위계획이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그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그 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6인의 절의(節義)를 들어 '사육신(死六臣)'이라 하였는데, 이 사육신의 사실은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실리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 숙종 17년(1691)에 국가에서 공인하여 육신을 복관시켰다. 이어 영조 7년(1731) 김문기도 복관되었으며, 영조 33년(1757) 충의(忠毅)의 시호가 내려졌다.

정조 15년(1791)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그는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과 함께 삼중신(三重臣)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하여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문적을 널리 고증하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儀典)이다. 이때 그는 앞서 계유옥사(癸酉獄事) 때 사절(死節)한 민신, 조극관과 같은 판서 급의 중신이 되는 이유로 삼중신이란 칭호가 내려진 것이다. 그의 사실을 기록한 『백촌유사(白村遺事)』 3책이 전하며, 경북 금릉군 지례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향사되었고, 시흥시 화정동 오정각(五旌閣)에 정문이 봉안되었다.

그런데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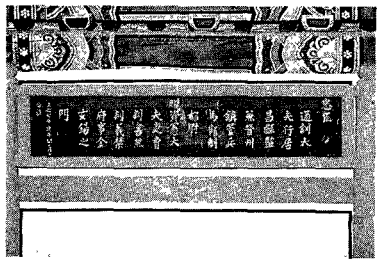
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그의 가묘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世宗·文宗·端宗·世祖·肅宗·英祖·正祖實錄』,『秋江集』,『死六臣訂正論의 虛點』,『安山郡邑誌』,『金寧金氏五世忠孝錄』,『家乘譜』,『始興郡誌』 上,『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白村 金文起 硏究』.

(3) 김현석(金玄錫) : 세종 2년(1420)~세조 2년(1456)

조선시대의 문신·충신. 자는 태초(太初), 호는 여병재(如甁齋),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문기(文起)의 1남이다.

생원시(生員試)를 거쳐 단종조에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올라 거창현감 겸 진주진관병마절도제도위(居昌縣監兼晉州鎭管兵馬節度制都尉)에 이르렀고, 이어 양지현감을 거쳐 영월군수(寧越郡守)에 재임 중 아버지와 함께 단종복위 모의에 연루되어 순절(殉節)하였다.



충신 김현석 정려관(오정각). 1995.

아버지가 죽을 때 시(詩)를 남겨 이르기를, "세 임금의 명을 받아 총애를 받고 위기에 임하여서는 애석하게 운명하매 그 미진함이 가히 애석하도다" 하였다. 이에 현석이 답하기를, "살신성인(殺身成人)은 옛 성인이 말한 바 있는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기꺼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고종 7년(1870) 정려(旌閭)에 명해졌고, 이어 고종 28년(1891)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에 추증됨과 동시에 장릉(莊陵) 충신단(忠臣檀)에 배향되었고, 현재는 덕양서원(德陽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또 외직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거창에 송덕비와 사적비가 세워졌고(1876), 영월에는 청덕비(淸德碑)가 세워졌다(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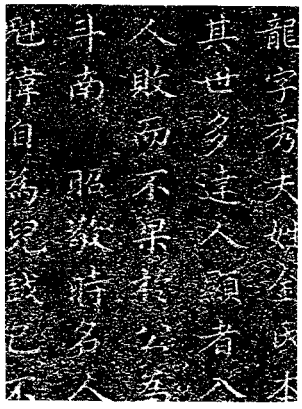
묘는 양주군에 있다고 하나 실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버지, 아들 충주(忠柱), 손자 경남(景南), 증손자 약전(約前)과 함께 화정동 29에 있는 오정각(五旌閣, 문화재자료 제7호)에 정문이 봉안되어 있다.

<참고문헌> 『安山邑誌』,『京畿誌』,『京畿邑誌』,『始興郡誌』 上,『金寧金氏五世忠孝錄』,『金寧金氏世譜』,『金寧金氏家乘譜』.

(4) 김준룡(金俊龍) : 선조 19년(1586)~인조 20년(1642)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수부(秀夫), 본관은 원주(原州)로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두남(斗南)이며, 어머니는 담양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 희필(希弼)의 딸이다.

선조 41년(1608)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오른 후, 관



김준룡 신도비문(탁본).



김준룡 묘. 1995.

무재(觀武才)에서 장원(壯元)하여 훈련원 주부(訓練院主簿)로 승진되었고, 이어 법성포수군만호(法聖浦水軍萬戶)에 임명되었으며, 광해군 5년(1613) 마량진 첨절제사(馬梁津 僉節制使)가 되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고, 광해군 9년(1617) 인동도호부사(仁同都護府使)가 되었다. 그 후 영주군수(榮州郡守),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 등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을 거쳐, 인조 6년(1628) 황해병사를 지냈고, 계속해서 북병사(北兵使)를 역임했다.

인조 14년(1636)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있을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관할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포위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면서 곳곳에서 군사를 모아 병력을 보강하였다. 직산(稷山)을 경유, 용인의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험준한 산세를 이용, 이를 거점으로 포진하였다. 공경(孔耿)의 청나라 군대 수만이 공격해 오자 필사적으로 싸워 청태조의 부마 백양고라(白羊高羅) 등 많은 적병을 사살하였으나, 우리의 병력 손실도 커서 그는 휘하의 기병 수백을 이끌고 수원에 도착, 다시 남하하여 재기를 계획하였다. 감사 이시방(李時昉)은 그의 전공을 시기하여 모함하였으나 이성구(李聖求), 최명길(崔鳴吉)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다. 뒤에 어영중군(御營中軍), 김해도호부사(金海都護府使)를 거쳐 다시 영남절도사(嶺南節度使)에 재배(再拜)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관사(館舍)에서 객사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남방에서 큰 별이 떨어지자 의정(議政) 김류(金瑬), 원두표(元斗杓)가 그 변고를 듣고 말하기를, "하늘이여! 남쪽에서 별이 떨어지더니 과연 한 훌륭한 장수를 잃었도다"라고 탄색하였다. 임금이 특명을 내려 장례를 치르게 하고 치제(致祭)케 하여 그 공적을 기리게 하였다.

시호는 충양(忠襄)이며, 묘는 양천현(陽川縣,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남산에 있는 가족묘지에 있다가 1972년 도시화로 시흥시 군자동 산 138-1로 이장하였고, 묘와 신도비는 1988년 5월 31일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숙종 11년(1685)에 세운 신도비는 비신의 규모가 높이 1.39m, 폭 65cm, 두께 22cm에 이른다. 비문은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이 찬(撰)하고, 글씨는 이조참판(吏曹參判) 오시복(吳始復)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篆字)했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始興郡誌』 上, 『始興金石總覽』, 『京畿人物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金俊龍神道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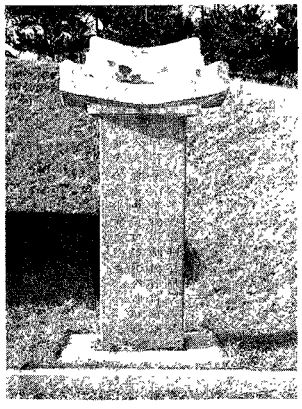
(5) 원성모(元成模) : ?~인조 14년(1636)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경범(景範), 호는 송운(松耘), 본관은 원주(原州), 초명은 경심(景諶)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 계검(繼儉)의 손자로, 아버지는 참찬(參贊) 호영(虎英)이다.

선조 37년(1603)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현령(縣令)에 이르렀는데 청렴결백하여 거사비(去思碑)까지 세워졌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사(江都檢察使) 김경징(金慶徵)이 강화도를 지키지 못하여 정세가 어려워졌다. 그는 이에 분개하여 출전하여 사현(紗峴)에서 적과 마주치자 대오(隊伍)를 정비하고 수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봉수산성(烽燧山城, 정왕산에 산성을 뜻하나 실제 산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을 점거하여 진을 쳤으며, 군율(軍律)을 엄히 하여 덕물도(德物島)에서 호병(胡兵)과 대전(大戰)을 벌였다. 이때 마침 그의 1남인 선전관(宣傳官) 승길(升吉)과 막내아들 좌랑(佐郞) 이길(頤吉)이 합세하여 3일간 혈전을 벌인 끝에 많은 적을 베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져 3부자(三父子)가 같은 날 순절하였다. 영조 때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그는 자질이 뛰어나고 지략이 범인(凡人)을 앞질렀으며, 효를 실천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지체지양(志體之養)과 거상지절(居喪之節)이 극진하였다.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워 서로 의리를 지키고 화목하게 지냈다.

묘는 시흥시 정왕동 배나루에 있었으나, 이곳 일대가 시화지구 토취장에 편입되자 1990년경 본래의 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선영으로 이장되었다.



원성모 신도비. 1995.

<참고문헌> 『原州元氏文獻錄』, 『始興郡誌』 上, 『原州元氏族譜』, 「始興市報」 16호.

(6) 원이길(元頤吉) : ?~인조 14년(1636)

조선시대의 충신. 본관은 원주(原州)로 현령(縣令) 성모(成模)의 아들이며 충신 승길(升吉)의 아우이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형과 함께 덕물도(德物島, 옥구도)에서 호병(胡兵)과 3일간 혈전을 벌였으나 힘이 쇠하여져 3부자가 모두 순절하였다(상세한 내용은 '원성모' 참조).

묘는 시흥시 정왕동 배나루에 있다가 이곳 일대가 시화지구 토취장에

편입되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原州元氏文獻錄』, 『原州元氏族譜』, 『始興郡誌』 上.

(7) 원승길(元升吉) : ?~인조 14년(1636)

조선시대의 충신. 본관은 원주(原州)로 현령(縣令) 성모(成模)의 아들이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동생과 함께 덕물도(德物島, 옥구도)에서 적군과 3일간 혈전을 벌이다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져 3부자가 함께 순절하였다(상세한 내용은 '원성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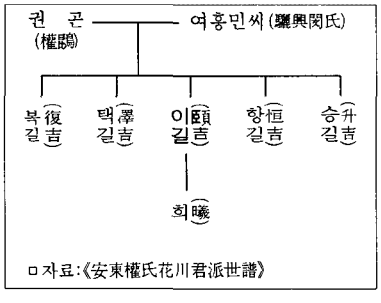
묘는 본래 시흥시 정왕동 배나루에 있다가 이곳 일대가 시화지구 토취장에 편입되자 본래의 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선영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原州元氏文獻錄』, 『始興郡誌』 上, 『原州元氏族譜』.

(8) 권이길(權頤吉) : 선조 21년(1588)~인조 5년(1627)

조선시대의 충신. 자는 자순(子順),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시흥시 산현동 출신이다. 여산부사(驪山府使) 곤(鵾)의 3남이다.

인조 5년(1627) 집권서인(執權西人)의 친명정책(親明政策)과 후금(後金) 태종의 조선 공략의 정책이 출동하여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광해군은 내정과 외교에 비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후금과 친교관계에 있었으나, 인조조에 들어와서 서인이 집권하자 향명배금(向明排金)정책을 펴 후금과 대립하게 되었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구실로 의주(義州)를 돌파하고, 남하하여 안주(安州)를 지나 평양에 이르렀다. 이때 평양 판관(判官)으로 있던 권이길이 평양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보통문(普通門)에서 장렬히 순절하였다. 후금군은 급기야 황주(黃州)를 격파하였고 결국 정묘조약(丁卯條約)을 체결하고 물러갔다.



권이길 가계표.

전쟁이 끝난 후에 조정에서는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하였고, 관리에게 명하여 치제(致祭)케 하였다. 숙종 때 정려(旌閭)를 세워 주었다. 또 순절소식을 듣고 자결한 그의 처 예천(醴川) 임씨에게도 순조 17년(1817)에 정려가 내려졌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고, 정려판(旌閭板)은 그의 12세 종손 권희창(權熙昌, 1953~ , 안양거주)이 보존,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9) 孝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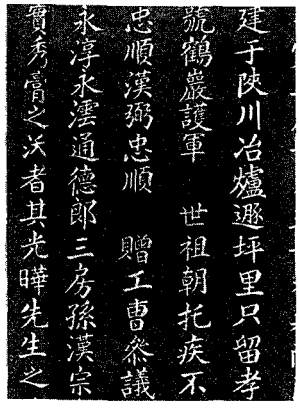
(1) 하우명(河友明) : 태종 13년(1413)~성종 24년(1493)

조선시대의 효자. 호는 연당(蓮塘), 본관은 진주(晉州)로 영의정(領議政) 연(演)의 3남이다. 아버지가 세자(문종)의 스승이었던 은고(恩顧)로 세종 26년(1444)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세종 31년(1449) 철원부사(鐵原府使), 단종 원년(1453)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나, 계유정난(癸酉靖難)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이에 세조가 도진무절제사(都鎭撫節制使)를 제수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하우명 초상. △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진지상의 반찬은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손수 조리한 것이 아니면 드리지 않았다. 어머니 또한 아들(우명)이 조리한 음식의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 조리하지 않으면 음식을 들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너무 애통하고 상심하여 매우 초췌하였다. 제사의 음식을 손수 마련하여 3년상을 치렀다.

시묘(侍墓)할 때, 묘 앞에 석등을 설치하고 밤새도록 등불을 밝혔다. 하루는 등불이 꺼지고 등잔이 넘어지자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호곡하며 탄식하였다. 이튿날 묘 주위를 살펴보니, 붉은 여우 한 마리가 등잔의 대석(臺石) 앞에 죽어 있었다.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여막(廬幕) 밖에 걸터앉아 제사를 마치고 그가 그 음식을 주면 먹고, 다시 와서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하우명 묘갈문(탁본).

일찍이 거위와 오리를 길러 장차 제수(祭需)에 사용하려 하였는데, 하루는 호랑이가 갑자기 거위를 물고 갔다. 그는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조상의 제사에 쓸 물건인데 호랑이가 비록 짐승이긴 하나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그랬더니 3일 만에 거위가 스스로 돌아왔다. 이는 모두 그의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묘를 하면서도 마치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듯 하였으며, 종복이 있어도 손수 섶을 따서 운반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로지 나의 정성을 다하여 3년 복상(服喪)을 마치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3년상을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추모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용자(容姿)

를 생각하고 초상화를 모실 영당(影堂)을 세조 13년(1468)에 소래산 아래에 세우고 계절에 따라 새로운 제수를 받들어 제사를 모셨다. 또 천성에서 우러나온 효성으로 남을 모함하는 말은 따라 하지 않았다. 부모상(父母喪)에는 예를 다하였고, "기제(忌祭)에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평소에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배가 부르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먼저 죽은 형제자매의 신위(神位)를 같이 배치하여 제사를 지냈다.

성종 14년(1483) 사재감(司宰監) 안호(安瑚)가 이러한 그의 효행을 조정에 상신(上申)하자 임금은 이를 가상히 여겨 정문(旌門)을 세우고 호세(戶稅)를 면제해 주어 풍속을 권장토록 하였다. 인조 2년(1624), 합천신천서원(新川書院)에 배향(配享)되었고, 정려비(旌閭碑)의 비문은 부사(府使) 최흔(崔昕)이 지었다. 다음의 글은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이 지은 「蘇萊河中樞旌門記」(역문)이다.

소래 하중추 정문기

성종(成宗)이 즉위하여 곧 전지(傳旨)를 내려 이르기를, "효자와 순손(順孫) 및 의부(義夫) 열부(烈婦)의 행실이 일세의 으뜸으로 의표(儀表)가 될 만한 자가 있으면 소재 고을로 하여금 사실을 기록해서 해당 관아에 보고케 하라"고 하였다. 전교를 받들어 널리 중외에 유시(諭示)하였으며, 얼마 후 각 고을에서 그런 사람의 행적을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모두 약간명이었다. 이에 예조에 명해서 고하의 차례를 정하여 논상케 하였으며, 그 중 남이 하기 어려운 일로써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자는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 : 조세와 신역을 면제함) 시키며, 그 다음은 복호만 시키고, 다음은 물품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논상하여 아뢰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하우명 효자 정문기비. 1995.

이때 인천부(仁川府)에서는 영의정을 지내고 문효(文孝)의 시호를 받은 진양 하연(河演)의 막내아들인 동지중추 우명(友明)의 효행을 갖추어 보고하였다. 이에 논상하여 정문을 세우고 복호시키는 대상이 되었으니, 아! 훌륭하고 아름다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겠다. 명이 내린 1년 후 중추공이 나, 희맹(希孟)을 찾아왔기에 내가 묻기를, "이미 문표(門表)를 세웠소?"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닐세. 가만히 실상을 살펴보면 도리어 부끄러운데 어찌 감히 관청에 독촉해서 문표를 세워 남에게 과시하겠는가? 그러나 관청에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세운다면 또한 내 어찌 감히 그만두게 하여 성은을 막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그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았다.

아! 정문을 세우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문표를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이 실로 간여될 것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국사에 실린 일인데 어찌 덕행이 없어지고 전해지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그러나 복호시킨 성은은 만대에 전해질

것인데 고을 백성들에게 이를 붉어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분은 과연 어떤 행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혹여 별다른 행적이라도 있었던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국사에 실려 있더라도 숨겨져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하여 을미년(성종 8년 1475) 여름 고을사람들이 문표를 세웠으며 중추공이 그 기문을 나에게 요청하였다.

가만히 생각컨대 나의 증조부 공목공(恭穆公) 시(蓍)는 곧 문효공의 증조이신 진천군(晉川君) 하즙(河楫)의 사위이다. 그러니 문효공은 나의 조부이신 도순문사(都巡問使) 회백(淮伯)과 숙질의 항렬이며 또한 벗의 사위였다. 이런 때문에 하씨와 강씨 두 집안은 서로 인척간이 되어 온 지 거의 100년에 가깝다. 그리고 정묘년 가을에 문효공이 과거시험의 시관(試官)이 되었으며, 내가 응시하여 장원하였다. 이후 늘 문효공의 문하에 있으면서 덕음(德音)을 흠앙하고 일상의 행동을 본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하씨 가문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문효공은 효행이 독실하였으며 영의정이 되어 서무를 도맡아 하시면서 아무리 모진 추위와 더위에도 아침저녁으로 가묘(家廟)의 참배를 폐하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집안에 있으면 불러서 함께 절하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역시 너의 조선(祖先)이니라"고 하였다. 이로써 공경하기에 예의를 다하고 대하기를 살아계신 듯이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선친께서 거처하던 초정(草亭)을 수리하여 영모정(永慕亭)이라 이름하고 평소에 쓰시던 기물이나 자리를 차마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급기야 조정에서 물러나자 자손들이 앞에 가득하였으며, 중추공이 글읽기와 해학으로 기쁘게 해드렸다. 또한 조석의 음식을 꼭 몸소 맛보고 손수 조리한 것이 아니면 드리지 않았다. 문효공께서 연로하고 노환이 있어 희노의 일정함이 없었는데, 중추공은 몸소 회초리를 맞다가도 곧 웃고 노래하여 조금도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병환이 오래가자 받들어 뫼시기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급기야 별세하니 상례를 극진히 하여 3년을 마쳤으며 한 번도 내당에 들지 않았다. 조석의 제수를 꼭 친히 갖추었고, 땔감이나 물에 있어서도 손수 마련하며 노복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상기가 끝나자 모부인을 뫼시고 소래산(蘇萊山)의 묘소 옆 별장으로 돌아가 공경을 다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세조(世祖)가 도진무(都鎭撫)의 벼슬로 불렀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모부인께서 노병으로 식음이 감소되므로 수륙의 진미를 구비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만약 잡숫고저 하는 것이 있으면 꼭 구하여 드렸다. 그물 등 어구를 손수 만들어 친히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되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모부인이 게장(蟹醬)과 치간(雉肝) 산작자(山雀炙)를 즐기시므로 중추공이 미리 가을 게를 구해다가 진흙 담은 항아리에 저장하여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게장이 궁핍하지 않았다. 친히 노복과 자손들을 거느리고 숲속에 그물을 쳐서 꿩을 몰이하여 잡았는데, 간

혹 길손들이 보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조력하였다. 모부인도 중추공이 조리한 음식맛을 알았고, 만약 사고가 있어 친히 조리하지 못하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

급기야 별세하니 슬퍼하기를 거의 멸성하기에 이르렀고, 묘 옆에 영당을 지어 늘 삭망(朔望), 절일(節日), 기제(忌祭) 때에 풍혐(豊歉)을 참작하여 도식(圖式)을 정하였으며 친히 재수를 갖추었다. 또한 몸소 영당에 절하고 구부리며 일어나는 범절 중 애모하는 모습은 뚜렷하게 얼굴에 드러났다.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꼭 제사를 드려 살아계신 듯이 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새 음식을 대하면 감히 먹지 못하였다. 기재사 등 별제(別祭)에는 꼭 먼저 죽은 형제의 위패를 앞에 배설하고 함께 제사하며 말하기를, "부모의 평생에 자손들이 함께 슬하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유명(幽明)이 어찌 다르겠는가?" 하였다.

늘 오리를 길터 제사에 올렸는데 하루는 갑자기 범이 잡아가버렸다. 이에 중추공이 한탄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선인을 제사할 물건인데 범이 비록 짐승이나 어찌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다. 이튿날 잡혀 갔던 오리가 저절로 돌아왔는데 조금도 손상된 곳이 없었으므로 고을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겼으며, 기타 세세한 행적은 다 기술하기 어렵다.

아! 효(孝)란 100가지 행실의 근본으로 요순(堯舜)이나 길거리의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원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효로써 세상에 이름난 자는 1천 100명 중에 한둘뿐이며, 또한 한결같이 한미한 집안에서 이름이 두드러졌고, 공명과 부귀를 누린 집안에선 잘 행한 자가 적었으니 이것은 어째서인가? 아마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늘 부모에게 미치지 못하고 공명과 부귀를 누린 나머지 효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맹자(孟子)가 순(舜)임금의 효를 논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란 좋은 색(色)과 부귀에 기뻐하지만 근심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오직 부모에게 순응하여야만 근심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순임금의 마음을 잘 추측한 것이며, 후세의 자식된 자들이 이익에 빠져 부모를 잊고 권세를 즐겨 근심할 것을 잊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 진실로 봉양할 줄 안다면 숙수(菽水)를 받들어도 효자라고 할 것이며, 봉양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화려한 음식도 모두 구차스러울 뿐이다. 순임금이 천하의 욕망을 다하여도 근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던 말을 깊이 연구한 뒤라야 자식으로서 어버이 섬기는 당위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효도라고 할 만한 한두 가지 일을 하고서 그 마음속으로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나의 효성이 족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순임금에게 득죄할 뿐이겠는가? 역시 이 중추공에게 부끄러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중추공은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자손이며, 일찍이 추밀(樞密)에 들었으니 부귀한 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어 효도를 생각한 것과 효행의 독실함이 온 고을을 감복시켰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다. 또한 임금의 성은을 받아 꽃다움이 만대에 전할 것이니 부귀에 탐음하지 않고 자식의 직분을 다한

것에 대해 어떻다고 하겠는가? 문효공께서 음덕을 쌓은 이래로 지금에 이르러 그 상서로움이 크게 발한 것이다. 또한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덕을 닮아 소래의 온 마을에 정문이 연달아 서서 여기서 그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겠다. 손수 소래 정문도(蘇萊旌門圖)를 만들어 영묘정에 붙였는데, 그 그림 끝에 들은 바를 대략 기록하여 보내며, 또한 이를 벽에 걸어서 후세에 보일 것을 청하노라.

을미년(1475) 7월 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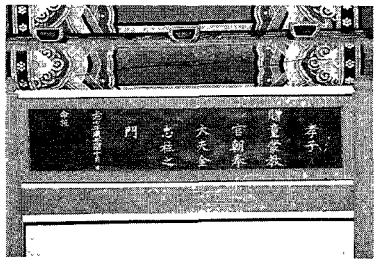
진산(晉山) 강희맹(姜希孟)은 씀.

그의 효자정각은 1988년 5월 31일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었고 효자 정문기비는 1995년에 세워졌으며, 묘는 시흥시 신천동 소래산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 『仁川府邑誌』, 『私淑齋集』, 『始興郡誌』 上, 『晉陽河氏大同譜』.

(2) 김충주(金忠柱) : 세종 26년(1444)~?

조선시대의 효자. 자는 광보(狂甫), 호는 탄옹(炭翁),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거창현감(居昌縣監) 현석(玄錫)이며, 어머니는 동복(同福) 오씨이다.



효자 김충주 정려판(오정각). 1995.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순절하자, 그 화가 그에게도 미치게 되자 형 충립(忠立)과 함께 영읍(嶺邑)의 노비가 되었다. 그는 형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가 모두 노비가 되었으나 앞으로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후손에게 어찌 의롭지 않음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도망하여 부조(父祖)의 뒤를 잇는 것이 낫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형이 이르기를, "죽음을 택하면 영원히 노비로 낙인찍힐 것이니 도망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이에 그는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이름을 철주(哲柱)·원희(元希)로 고치고 잠적하였다.

그는 형과 헤어져 태백산 아래 신두곡(新杜谷, 三水店)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 그의 행적을 사람들이 의심하므로 다시 안산 광곡리(廣谷里, 현 시흥시 화정동 너빌마을)에 이르러 은거하였다. 풀을 엮어 집을 짓고 숯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호를 '탄옹(炭翁)'이라 하였다.

평생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마의(麻衣)에 평립(平笠)을 쓰고 다녔다. 집 뒤에 한 개의 바위와 그 아래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그는 평상시에 소나무와 더불어 마음을 달래었고,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변할 때마다 바위에 올라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寧越)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였다. 또 부조가 비명에 숨진 것을 몹시 슬퍼하여 아침저녁으로 소나무 곁에서 눈물을 흘리자 이에 소나무도 말라 죽었는데, 그 뒤 순조 27년(1827) 그의 9세손 처일(處一, 1779~1853, 자는 士極, 호는 松岩)이 그 자리에 '고송정(枯松亭)'이란 정자를 지었고, 그 바위를 '망월암(望越岩)'이라 하였다.

그의 부인은 안정(安定) 나씨로 생원(生員) 효일(孝一)의 딸인데 3남을 두었다. 자녀가 성장하자 나씨부인은 1남 경남(景南)에게 그의 계보(系譜)와 「채미시(採薇詩)」란 유시(遺詩)를 주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려워라 남은 여생 갈 곳이 없어
날이 저무는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려네.

스무내의 모진서리 귀두에 떨어지고
삼수의 찬바람에 할미새가 날으네.

애끊는 나의 심정 피를 말로 토하고
떠돌이 나의 신세 해어진 배옷을 입었구나.
은근히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충효로 서로 하여 어김없으리.

炭翁採薇詩

金忠柱

畏約殘生無所歸　西山日暮採殷薇
甘川霜剝龜頭落　三水風寒鶺翅飛
慷慨心腸弸斗血　諷零身世弊麻衣
慇懃寄語雲仍輩　忠孝相傳愼莫違

철종 2년(1851)에는 처일의 아우 처락(處樂, 1796~1872, 자는 士能, 호는 澗松)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힘을 모아 너빌에 세덕사(世德祠)를 세워 그의 효행을 추모하였고, 이듬해에는 증직으로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다. 고종 7년(1870) 정려(旌閭)에 명해져 오정각(五旌閣, 문화재자료 제7호)에 봉안되었으며, 화정동 산 58에 위치한 고송정(枯松亭)을 1992년에 사업비 5천 130만 원을 투입, 전면 중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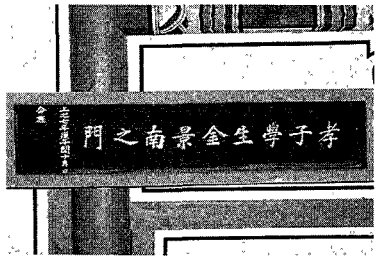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家乘譜』.

(3) 김경남(金景南) : 성종 13년(1482)~선조 28년(1595)

조선시대의 효자. 자는 박여(搏汝), 호는 한천(寒泉),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너빌 출신이다. 효자 충주(忠柱)의 1남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과묵하여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충효의 극진함은 부조(父祖)의 가풍(家風)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 7세에 외란(外亂)을 만나 곡읍지애(哭泣之哀), 벽용지절(辟踊之節)의 의연한 모양이 성인(成人)과 같았다.



효자 김경남 정려판(오정각). 1995.

어머니인 나부인(羅夫人) 역시 엄하게 길렀으므로 어려서부터 언어가 부드럽고 용모가 단정하였다. 그는 어머니를 엄부(嚴父)와 같이 섬겼다.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으며, 얼굴빛을 보고 그 원하는 바를 알아낼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여 향리(鄕里)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였다.

나부인은 버섯국을 좋아하여 그는 하절(夏節)이 되면 지성으로 산간을 헤매면서 버섯을 채집하여 모친의 기호를 맞추어 드렸다. 한번은 집 뒷전에 있는 언덕의 비탈에 버섯이 군생(群生)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채취하여 국을 끓여 드렸다. 그 후 매일 이곳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여 노모를 봉양하였는데, 하루는 아침에 가보니 버섯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탄식하였다. 그날 밤 모친이 돌아가시매 이후에는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곳을 '버섯들'이라고 불렀으며, 그 버섯을 '효자버섯'이라 하였다. 또 버섯이 났던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여막(廬幕)을 짓고 3년을 한결같이 시묘(侍墓)하였는데, 밤마다 호랑이가 찾아와 지키다가 낮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우물 위쪽에 초막을 짓고 스스로 '한천(寒泉)'이라 이름하고 생도들을 가르쳤다.

그는 일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의 나이 100세가 지나도록 후사(後嗣)를 세우지 못하여 사람들이 빨리 세우라 하자 그는 이르기를, "내 아들은 곧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얼마 후에 성지당(姓支堂, 金約前의 아호)을 아들로 삼고 "내 자손은 8, 9세가(世家)가 필시 크게 창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1592)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의 나이 111세였다. 왜병이 이르자 그는 글을 지어 이르기를, "개

인과 백성이 나라를 위해 죽어서 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내 아들이 죽지 못하는 것은 이 노부(老父) 때문이다. 내 나이 111세인데 얼마나 더 살겠는가. 살신성인(殺身成人)은 전성(前聖)이 이른바, 무명(無名)으로 사느니보다 성인(成仁)하여 죽는 것이 낫다" 하니 이에 적병이 감동하여 물러갔다.

그는 3년 후 선조 29년(1595)에 114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고종 7년(1870)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한편 철종 2년(1851) 세덕사(世德祠)가 건립된 후 아버지 충주(忠柱), 조부 현석(玄錫), 증조부 문기(文起), 아들 약전(約前) 등 5세를 기리는 오정각(五旌閣, 문화재자료 제7호)이 세워져 정문이 봉안되었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 오정각 우측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金寧金氏五世忠孝錄』,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金寧金氏世譜』, 『家乘譜』.

(4) 김여우(金汝遇)

조선시대의 효자. 호는 계술당(繼述堂)이다.

어려서부터 동생 여규(汝逵)와 함께 심지(心志)와 기개가 비범하여 항상 남송시대의 문인인 종각(宗慤)의 풍도(風度)를 흠모하여 본받은 바가 있었다.

일상의 효우(孝友)에 돈독하고 강상(綱常)을 존중하여 부모를 모시는 일과 제사 받드는 일에 성의와 예제(禮祭)를 다하였다.

부모님이 혹 병환이 나면 잠도 자지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으며, 시탕(侍湯)하는 것에 감히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의 병환이 더욱 깊어지자 자신을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늘에 호소하며 기도하였다. 부친이 병중에 가채(茄菜, 가지나물)를 먹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철이 초여름이라 겨우 싹이 돋는 때였으므로 동생 여규와 함께 지성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더니 신기하게도 이튿날 아침에 가지열매가 열려, 이를 따서 아버님께 드렸다. 이를 보는 사람마다 그 신기함에 놀랐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눈속에 죽순이 돋고 얼음판 속에서 잉어를 낚는 미담이 옛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잇달아 부모상을 당한 형제의 모습과 기색이 너무나 초췌하고 처참하여 친지와 좌우 사람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외삼촌인 참판(參判) 역시 이를 우려하여 몸을 보존함이 효도의 본의임을 타일렀으나,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상주(喪主)가 지킬 예율(禮律)인데, 예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느니보다 차라리 정도(正道)를 지켜 죽는 것이 옳다"고 하며 듣지 않으니 다시는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5) 김여규(金汝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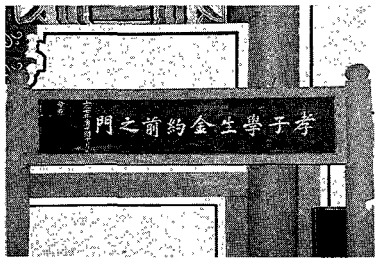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효자. 형인 효자 여우(汝遇)와 함께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자 주위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고 한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6) 김약전(金約前) : 중종 18년(1523)~광해군 1년(1609)

조선시대의 효자로 자는 장노(章老), 호는 성지당(姓支堂), 본관은 금녕(金寧)이다. 효자 경남(景南)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효를 몸소 실천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한천공(寒泉公)이 병이 나자 매일 종기를 빨아내고 하늘에 기원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그는 변의 맛을 보아 병세를 살피는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이에 아버지는 병의 차도가 있어 회복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지극한 효성이 감응한 바라 하였다.



효자 김약전 정려관(오징각). 1995.

70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마을사람들이 모두 피난하려 하자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안심시켰다.

"사람들이 다 도망하면 모두 굶어죽게 될 것이요, 만의 하나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역(異域)의 사람이 되어 어찌 선영(先塋)에 묻힐 수 있겠는가. 또 나와 여러분은 다 한나라의 백성인데, 어려움에 처하여 이롭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찌 도망가서 살고자 하는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돌렸다. 그 후 며칠 만에 왜병이 마을에 이르자 마을사람들은 울면서 발을 굴렀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100세의 노친을 모시고 있었는데, 왜병이 이르러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그 모습의 슬프고 혹독함을 보고 감동하였다. 그가 왜병을 꾸짖자 왜병은 그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물러갔다. 왜병은 사죄하고 물러가면서

그 마을 입구에 방(榜)을 붙여 이르기를, "효자동(孝子洞)은 추호도 범하지 못한다. 백성들은 모두 경건하다"고 하였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공(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름이 빛냈다"라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마을의 이름을 '성지골(姓支谷)'이라 칭하고 자신의 호도 '성지당(姓支堂)'으로 명명하였다. 후에 병자호란 당시에도 호병(胡兵)은 효자마을의 성지당이라는 말을 듣고 이 마을에서만은 노략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정문이 오정각에 봉안되었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 있다.

<참고문헌> 『金寧金氏五世忠孝錄』, 『始興郡誌』 上, 『京畿人物誌』, 『家乘譜』, 『安山郡邑誌』.

(7) 성필승(成必升) : 현종 7년(1666)~숙종 31년(1705)

조선시대의 효자. 자는 윤보(允甫),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보은현감(報恩縣監) 호열(虎烈)의 아들이다.

그는 서울 남산 아래에 살았는데 행위가 돈독했다. 아버지의 상사(喪事)시에는 슬픔이 극해 병이 되어 신명이 빈사지경에 이르러 발인(發靷)시에 비로써 성복했으나 애통해하는 마음은 끝이 없었다. 3년상(三年喪)을 끝낸 후에는 원려부(怨厲賦)를 지어 자신의 사무치는 마음을 달랬다. 그 후로는 좋은 음식을 입에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자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붉은 피를 약에 넣어 복용케 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자 먹는 것은 간 없는 맨죽뿐이었으며, 절제 없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는데, 나중에는 곡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기동조차 못하여 몸이 날로 초췌해졌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제에 이르기를 "『좌씨춘추(左氏春秋)』"는 내가 아끼는 책이니 관속에 넣어 가고 싶은데 예법에 맞는지의 여부를 학덕 있는 분에게 문의하고, 벼슬 못 한 선비의 죽음이니 상례(喪禮)와 염습(殮襲)제구에 호화함을 제거하라"고 말한 후 춘추 40세에 죽으니 조정에서 정려(旌閭)에 명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고, 묘표의 비문은 권상하(權尙夏)가 찬(撰)했다.

<참고문헌> 『昌山遺香錄』, 『昌寧成氏文孝公派譜』, 「成必升墓表銘」.

(8) 김처곤(金處坤)

조선시대의 효자. 초휘(初諱)는 처관(處觀), 초자(初字)는 중빈(仲賓),

자는 후이(厚而), 본관은 안산(安山)이다.

그는 조선 중기 때 사람으로 벼슬은 첨지중추(僉知中樞)에까지 이르렀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효성이 지극하여 효를 다하기 위하여 일찍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몸소 밭을 갈고 물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뜻이 이에 있지 않음을 알고 투필(投筆)하고 호방(虎榜)하였다.

그의 풍채는 가히 천군을 호령하기에 합당하였고, 활을 잘 쏘아 매년 봄가을에 전정(殿廷)에서 기사(騎射)함에 장원하여 동호(彤弧, 붉은 칠을 한 화살로 활을 잘 쏘는 자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관직에 나아가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며, 항상 계절에 따라 부모님의 입에 맞는 음식을 봉양하였다. 그의 효행에 대하여는 완산(完山) 최육(崔堉)이 쓴 효자행(孝子行)에 상세히 상술되어 있다.

묘는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金氏族譜』,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9) 이상기(李相夔)

조선시대의 효자.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산현동 출신이다.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변의 맛을 보아 병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내고, 지극한 효성으로 간호해 드리는가 하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매일 기도하였다.

그 효성의 지극함이 아버지가 운명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숙종 9년(1683) 정려(旌閭)를 세우고, 뒤에 이조참의행남대지평(吏曹參議行南臺持平)에 추증되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에 있다가 1992년 산현동 묘재로 이장되었고, 정려판은 시흥시 산현동 묘재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10) 김계창(金啓昌)

조선시대의 효자. 언양인(彦陽人)이다.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지극한 효성으로 간병하였다. 즉, 변의 맛을 보아 병의 차도를 알아내었고, 병환이 낫지 않자 피눈물을 흘려 호곡하였으며, 밤낮으로 병환이 낫기를 하늘에 기원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정성과 예를 다하여 배알(拜謁)하였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순조 22년(1822)에 정려(旌閭)에 명해졌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1) 김동은(金東殷)

조선시대의 효자. 효자 동려(東礪)의 아우로 형과 함께 천성적으로 효자로 칭송을 들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정성(定省 : 昏定晨省, 밤에는 잠자리를 보아 평안히 쉬게 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다는 뜻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강조한 말)하였고, 모친이 종기로 고생을 하자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었고, 안질이 나면 혀로 핥았다. 모친이 돌아가시매 몸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눈을 감도록 하였고, 상례를 치름에 있어서도 형이 하던 것과 똑같이 하였다. 이것은 천성적으로 그의 효성이 지극한 소치이니, 이것으로 볼 때 형제 중 누가 더 효성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들자 형제가 함께 곡식을 내어 족척(族戚)과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역시 효의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들 광의(光儀) 역시 부모로부터 효행을 이어받아 몸소 실천하는 데 그 뜻을 두어, 부모의 병을 당하여서는 대변의 맛으로 그 상태로 가늠하였고, 위중함에 있어서는 부친의 효행과 같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부모에게 바쳤으며, 하늘에 기도하여 완쾌를 빌었다. 또 상을 당하여는 여막을 지어 시묘하여 부모에게 욕됨이 없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이 "한 가문에서 세 효자를 배출한 것이 어찌 숙세(叔世 : 末世)에 쉬운 일이라 하겠는가"라고 칭송하였다.

한편 수원에 사는 이등(李等)이 직접 쓴 글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정효(旌孝)의 제도가 있는 것은 단지 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효자를 권면하기 위함이다. 비록 효라는 것이 대순(大舜)과 증자(曾子)의 행실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자식의 직분을 다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효에 능한 자보다도 그렇지 못한 자가 많기 때문에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가 없으면 풍속이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풍속이 약간 쇠퇴해졌을 때 이를 용납하지 말고 마땅히 권면하는 것이 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2) 김동려(金東礪)

조선시대의 효자.

안산(安山) 서쪽에 효자 김동려·동은(東殷) 형제가 있었는데, 두메산골의 사람이라 더욱 존경할 만하다. 그는 7, 8세 어릴 때부터 이미 비범한 행실이 있었다. 성장하면서 농사에 힘쓰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지극하였다. 부모의 입에 맞는 음식으로 봉양해 드렸으나 부모가 병환이 나자 하늘에 기도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드려 목숨을 수십 일 연장시킬 수 있었다. 상(喪)을 당하여서는 목욕을 시킬 때 시수(屍水)를 핥아 먹었다. 염하고 장사지낼 때는 온 집안의 힘을 다하여 동생 동은과 함께 상례(喪禮)를 지킴이 매우 엄숙하여 음주를 하지 않고 육류를 먹지 않았다.

묘 앞에 여막(廬幕)을 지어 우설(雨雪)에도 불구하고 새벽녘과 저녁녘에 호곡하였다. 너무 통곡하여 몸이 수축해져 모친의 상이 채 끝나기 전에 죽으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살았을 때 유생(儒生)들이 장첩(狀牒)을 올려 정문(旌門)을 세우게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나라에 알릴 길이 없었다. 이에 여막으로 그 마을에 정표(旌表)를 세워 이 여막을 지나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 형제의 효행을 기렸다.

"동려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 탁행으로 사람들을 감명시키는가. 장차 그 명성이 이 여막과 함께할 것이니, 우리 또한 사람인지라 어찌 서로 다투어 사모하고 스스로 권면하여 사람들은 모두 순(舜)과 증자(曾子)가 되도록 할 것이니 이 여막이 풍화에 도움이 되는 바가 어찌 적다고 할 것인가?"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京畿人物誌』.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3) 김정훈(金鼎勳)

조선시대의 효자. 연성인(蓮城人, 시흥인)이다.

아버지가 병을 얻어 생선을 들고자 하자 그는 엄동설한임에도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 봉진(奉進)하였으며, 변의 맛을 보아 병환의 차도를 알아냈다. 이러한 그의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의 병환은 쾌차하였으며,

이후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섬김에 하루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다. 또 성심을 다하여 약이(藥餌,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를 봉진하였다. 국가에서 조세 50부(負)를 면제해 주었는데 언제 효행인지는 미상이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14) 김귀만(金貴萬)

조선시대의 효자. 자는 군엽(君燁),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중추부사(中樞府事) 락(輅)의 아들이다.

천성적으로 순효(純孝)하여 지성으로 부모를 모시자 만인이 우러러 칭송을 하였다. 어릴 때 부친을 모시고 있었으나 집안이 빈곤하여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항시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였다. 그는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모려(茅廬)를 짓고 몸소 화전(火田)을 일구고 돗자리를 팔아 맛있는 음식으로 부친께 봉양하니 그 효행의 첫째이다. 도롱이와 돗자리를 팔아서 연명하였는데, 시장에 가서는 항상 항아리를 차고 다니며 미주(美酒)를 구했고, 진귀한 음식을 얻어 와 아버지께 진상(進上)하니 그 효행의 둘째이다. 또 여름에 모를 낼 때 몸소 품팔이를 해서 백반과 맛있는 반찬으로 봉양하니 그 효행의 셋째이다. 한겨울에는 아버지의 침처가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나무를 해와서 불을 지펴 한기를 가시게 하여 따뜻하게 해드렸으니 이것이 그 네번째 효행이다. 또, 출입할 때 반드시 언제 돌아올지를 말하고 때를 어기지 않아 기다리시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다섯째 효행이다. 항상 아버지의 뜻에 어김이 없고 편케 해드렸으니 그 효행의 여섯째이다. 그리고 죽은 형의 아들을 잘 보살폈는데, 아버지께 음식을 드릴 때 반드시 조카의 몫을 떼어 놓고 아버지가 드신 음식이 남을 때는 항상 조카에게 같이 먹기를 청하였으니 그 효행의 일곱째라 하겠다. 아버지께서 염병이 나시자 빈 쌀가마니에 아버지를 싸서 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 바르고 깨끗한 곳으로 모셔가니 마침내 병환이 나았다. 이것이 그 여덟째 효행이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그 효성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현감(縣監) 윤공(尹公)이 이 소식을 듣고 조정에 천거하여 정려(旌閭)를 세웠고, 조세 50부(負)를 면제해 주었다. 그 사적이 『해남여지승

람(海南輿地勝覽)』과 『삼강록(三綱錄)』에 보인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安山金氏族譜』,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5) 최우성(崔宇成)

조선 후기의 효자.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는데, 그의 효성이 나라에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세우고, 지평(持平)에 추증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安山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6) 김달명(金達命) : 영조 7년(1731)~?

조서시대의 효자.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1485~1541, 문장가로 전라감사 역임)의 9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어머니 강씨가 병환이 나자 변의 맛을 보아 그 병의 상태를 알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 안에 흘려넣어 드렸다. 어머니가 산 생선을 먹기를 원하자 엄동설한에 그의 처 양주 조씨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다. 이에 개와 고양이가 있어 생선을 물어다 주었으니, 이는 그의 효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라고 모두를 말하였다 한다.

어머니가 운명하자 상복을 벗지 않은 채로 3년을 지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미음만 먹고 다른 것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또 날마다 성묘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니, 그곳의 잔디가 다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정조(正祖)가 돌아가실 때 그의 나이 70세였는데, 그때 처와 함께 3년간 소복(素服)을 입었다. 철종 3년(1852)에 선비들이 그 행실(行實)을 논상하기를 청하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하였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17) 서채량(徐采亮) : 정조 3년(1779)~철종 8년(1857)

조선 후기의 효자. 본관은 이천(利川)이며, 부평군 소정면 항동리(富平郡 所井面 航洞里, 현 인천시 북구 일신동)에서 출생하였다.



서채량 묘비. 1994.

일찍 아버지를 여읜 후 어머니(김씨)가 병이 들자 병을 고쳐 드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위중해졌다.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이 병에는 호랑이의 간이 적효약"이라고 말하자, 효성이 지극한 채량은 효랑이를 잡으려고 했으나 용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꿈에 어느 신령이 나타나 꾸짖기를, "너는 무슨 잠만 자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며 "바로 지금 원동이 고개에 가면 호랑이가 있으니 즉시 가거라"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곧 하인을 데리고 신령이 일러준 대로 찾아갔다. 과연 병든 호랑이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몽둥이로 호랑이를 때려 잡았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간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니 곧 어머니의 병이 쾌유되었다. 그리고 호랑이 가죽은 벗겨서 어머니의 방석으로 만들어 깔아드렸다. 그 후 어머니는 3년을 더 살다가 순조 23년(1823)에 죽었다.

그 후 국가에서 그의 효행을 알고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監察)을 제수하고 효자 정려(旌閭)를 내렸다. 이 정려각은 마을에 길이 보존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가 군용지로 편입되자 훼철되었다.

묘는 부인 경주 편씨(慶州片氏)와의 합장으로, 시흥시 목감동 가재골에 있다. 1992년 11월 2일 이천서씨절효공파문중(利川徐氏節孝公派門中)에서 묘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徐采亮墓碑銘」.

10) 烈 女

(1) 성삼문(成三問)의 매(妹)

조선시대의 열녀. 성삼문(1418~56)의 누이이다. 성씨는 지아비가 육신(六臣)의 화로 인하여 죽자 곡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 이듬해 지아비의 뒤를 이어 죽었는데, 그때 안산군수가 그의 절의를 높이 샀으나 성삼문의 누이라 감히 아뢰지 못하자, 후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수총호(守塚戶)를 설치하고 초목(樵牧)을 일절 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아비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그의 묘는 안산관아(수암동 256)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있다고 하나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安山邑誌』, 『始興郡誌』 上.

(2) 변효우(邊孝友)의 처(妻) 전주 이씨(全州李氏) : 선조 27년(1594)~인조 15년(1637)

조선시대의 열녀. 사과(司果) 득양(得兩)의 딸이다.

인조 14년(1636) 1월 13일 정묘호란으로 적(오랑캐)를 피하기 위하여 오이도(烏耳島, 정왕동)행 배에 오르며 탄식하길, "이 한몸 바치오니 무사하게 하소서"라고 빌며 바다에 투신, 자결하자 아들 이형(以亨)이 울며, "어머님 구하지 못한 몸 홀로 살아 무엇하랴"라고 말한 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자결했다. 이어 며느리 박씨도, "시어머님 잃고 남편 잃고 홀로 삶은 절개가 아니다"라며 투신했으며, 시아버지 취정((就正)의 소실과 여종도 따라 죽었다. 후에 정려(旌閭)에 명해졌다.

묘는 시흥시 안현동 양지편에 있다.

<참고문헌> 『原州邊氏別坐公派敎峴里系蘇峰公後家乘譜』.

(3) 박종부(朴宗阜)의 이소사(李召史)

조선시대의 열녀. 교리(校理) 박종부의 첩이다. 종부가 죽은 것을 애훼(哀毁)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장례를 치르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정려(旌閭)를 세워 주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安山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4) 권이길(權頤吉)의 처(妻) 예천 임씨(醴川林氏)

조선시대의 열녀. 숙부인(淑夫人) 임씨는 증 통정대부 병조참의(贈通政大夫兵曹參議) 권이길의 처이다.

병자호란 때 지아비가 부임하여 전쟁에 나아가므로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말총으로 상투를 틀고, 망포를 쓰게 하여 표식을 만들어 보내었다. 그 후 지아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몸소 남장을 하여 노비 두 명을 거느리고 평양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시체들을 뒤집어 보고 하종(緞鬃)의 표식으로 지아비의 시체를 찾아와 선영(先塋)에 장사지냈다. 이에 순조 17년(1817)에 정려(旌閭)에 명해졌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安山邑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5) 이원발(李元發)의 처(妻) 전주 최씨(全州崔氏)

조선시대의 열녀. 학생 이원발(李元發)의 처이다. 영조(英祖) 때 최씨를 열녀로 기려 정문(旌門)을 세웠다. 최씨는 시부모를 봉양하는 데 효성스러움이 하늘에 닿았으며, 남편을 대함에도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安山邑誌』,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6) 조제로(趙濟老)의 처(妻) 전주 이씨(全州李氏)

조선시대의 열녀. 학생 조제로의 처이다. 지아비의 상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철침 세 개와 독약을 먹고 순절하였다. 이에 순조 17년(1807)에 정려(旌閭)에 명해졌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7) 김병집(金秉集)의 처(妻) 남양 홍씨(南陽洪氏)

조선시대의 열녀로 양인(良人) 김병집의 처이다. 홍씨는 지아비의 상을 마치는 날에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헌종 7년(1841) 정려(旌閭)에 명해졌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8) 김달명(金達命)의 처(妻) 양주 조씨(楊州趙氏)

조선시대의 효부. 효자 김달명의 처이다. 『여훈(女訓)』·『소학(小學)』 등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로써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자 지아비와 함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한편으로는 산 고기를 얻어 봉양하였다. 그 후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소식(素食)하고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에도 소복(素服)을 입었는데, 이후 그의 효부로서의 드문 행동과 지아비 김달명의 효행을 일시에 진청(陣請)하자 왕이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1) 獨立運動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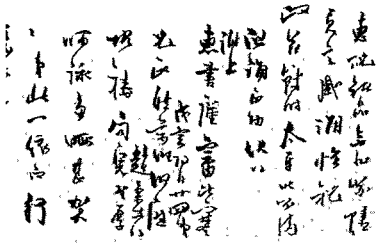
(1) 조병세(趙秉世) : 순조 27년(1827)~광무 9년(1905)

조선 말기의 문신·독립운동가.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齋), 본관은 양주(楊州)로 홍천현감(洪川縣監) 유순(有淳)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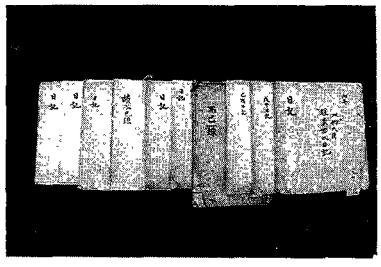
노론파의 명문에서 태어나 음관(蔭官)으로 참봉(參奉)에 임명되고, 철종 10년(1859) 중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3등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으며, 고종 원년(1864) 실록청도청낭관(實錄廳都廳郎官)으로서 『철종실록(哲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그 뒤 고종 15년(1874) 함경도 암행어사를 거쳐 고종 18년(1877) 대사헌에 승진되었고, 이어 의주부윤에 임명된 후 다시 대사헌이 되었고, 고종 24년(1887) 공조판서(工曹判書), 이듬해 예조·이조 판서, 고종 26년(1889) 한성부 판윤을 지내고, 이 해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가 고종 30년(1893)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청일전쟁(淸日戰爭), 갑오개혁(甲午改革) 등 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일제의 침략이 가중되어 세상이 어수선하게 되자 정계를 떠나 가평(加平)에 은퇴하였다. 뒤에 다시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을 역임하고 국왕의 고문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가평에 은퇴하였고, 건양 원년(1896) 폐정개혁(弊政改革)을 건의한 시무(時務) 19조를 올렸으며, 광무 2년(1898) 재상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그 후 광무 4년(1900) 다시 입궐하여 국정개혁을 건하였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위하여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을사5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주창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방해로 고종과의 면담이 거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써서 민족의 울분을 터뜨리고, 13도의 유생들이 5적의 처형과 조약폐기를 상소하는 중에 11월 19일에는 특진한 이근명(李根命),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상설(李相卨)을 비롯한 조관(朝官) 30여 명이 개별 상소하여 5적의 처형과 조약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임금의 확고한 대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26일 참정(參政) 심상훈(沈相薰), 시종무관장(侍從



조병세 필적(허섭 소장).



『조병세 일기』(규장각 소장).

武官長) 민영환(閔泳煥), 이근명 등과 함께 백관을 인솔, 입궐하여 정청(庭請)의 소두(疏頭)로서 을사조약의 무효, 5적신(五賊臣)의 처형, 새로 충로 충량한 인재를 뽑아서 외부대신에 임명하고, 각국 공사와 협의하여 5조약을 파기할 것 등을 연소(聯疏)하다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 해산당하고 표훈원(表勳院)에 연금되었다. 곧 방면되어 다시 대한문(大漢門)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을사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다 또다시 일본헌병에 강제연행되었다. 그가 연행되자 민영환이 다시 소두가 되었으나, 그도 평리원(平理院)에 연금되었다가 특명으로 풀려난 뒤 비분을 참지 못하여 11월 29일 자결하였다.

한편 강제연행된 뒤 그는 곧 가평 향제로 추방되었으나, 30일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표훈원에 되돌아와 '유소(遺疏)'와 '국민에게 고하는 글' 및 '각국공사에게 보내는 유서(遺書)'를 남기고 상소하였는데, 또다시 일본군이 가마에 태워서 강제추방하자 가마 안에서 음독, 조카 민희(民熙)의 집에 당도하여 죽었다.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고, 국가보훈처에 의해 1995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121-7(방화마을)에 있고,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5호에 지정되었다. 그 후 1990년 12월 1일 순국(殉國) 85주년을 맞아 충정공조병세선생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 金忠顯)에 의해 사적비(事蹟碑)와 와비(臥碑)가 각각 건립되었다. 묘소 왼쪽(앞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적비의 비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백아(白牙) 김창현(金彰顯)이 짓고, 글씨는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이 썼으며, 묘 오른쪽에 있는 와비는 그가 지은 유소(遺疏)·국민에게 고하는 유촉(告國民遺囑)·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글(致各國公使)인데, 글씨는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이 썼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高宗紀事』, 『趙秉世日記』, 『騎驢隨筆』, 『海鶴遺事』, 『韓國人物五千年』, 『韓國의 名家』, 『韓國人名大事典』,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김경념(金敬念) : 고종 19년(1882)~1950

독립운동가·교육가. 호는 신암(愼菴),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평북 용천(龍川) 출신이다. 광무 9년(1905)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옥성(玉城), 흥명(興明), 오봉(五鳳), 선화(善化), 남제(南齊) 등 여러 학교를 세워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서북학회(西北學會)에 가담, 애국운동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뒤에 만주 안동(安東)의 동지들과 연락하며 『독립신보』를 발간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10여 차례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그 후 임시정부 연통제(聯通制)의 용천군 참사(參事)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피처, 평양옥에서 복역했다. 1923년 선교사 매큔의 요청으로 선천(宣川)의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 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의 교원이 되어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였다.

광복 후에는 반탁(反託)운동에 참가했으며, 『대한독립사(大韓獨立史)』를 편찬하였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솔개고개에 있다.



김경념 묘. 1995.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金敬念墓碑銘」.

(3) 구연준(具然濬) : 고종 23년(1886)~1945

독립운동가·교육자. 본관은 능성(綾城)으로 강화군 길상명 길직리 473에서 출생하였다. 전 도의원 경회(慶會)와 전 소래농협장 진회(振會)의 조부로 아버지 항조(恒祖)와 어머니 함평 이씨 사이의 2남이다.

서울 배재학당을 수료한 후, 배재학당 동문인 구자옥(具滋玉, 초대 경기도지사) 등과 대한기독청년회(YMCA)에서 활동하다가 귀향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 해 조봉암, 김한성, 김영희, 주창일 등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자유민보」외 10여 종의 독립운동문서를 작성하여 강화읍내에 배포하였으며, 이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기 위하여 두루마기 속에 등사기를 감춰 온수리 소재 전등사(傳燈寺)에 은신하며 독립선언문을 다량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밀고로 강화경찰서에 체포, 갖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당시 강화군수의 주선으로 1920년 소래공립보통학교(현 소래국교) 초대 훈도로 6년간 근무하다가 교육칙어 은닉사건에 연루되어 공직을 사임한 후, 방산동 김근환댁에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1945년 1월 6일 자택(신천동 313)에서 향년 5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손자로 구경회(작고. 도의원 역임), 구진회(작고. 소래농협장 역임), 구용회(호창건설 대표) 등이 있다.

부인 청주 한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묘는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산 149에 있다.



구연준(손자 구용회 제공).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2, 『독립운동자공훈록』 2, 「具然濬家狀」.

(4) 이재항(李載伉) : 고종 24년(1887)~1965



이재항(후손 이혜동 제공).

독립운동가. 자는 원장(元璋), 본관은 전주(全州)로, 수암면 논곡리 270번지(현 시흥시 논곡동 270)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응(智應), 어머니는 윤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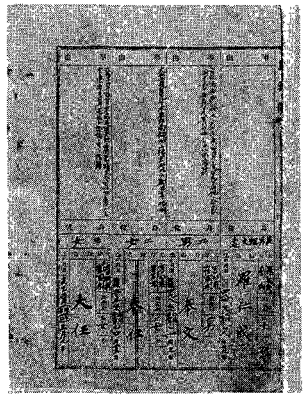
33세 때인 1919년 처가인 화성군 서신면에 머물고 있다가, 이 해 3월 28일 사강장날에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이원행, 홍성휴 등과 3·1만세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그 후 일본 헌병대장 노구치(野口)를 죽이자 이에 앙심을 품은 왜경이 집에 불을 사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차별 학살시키며 갖은 만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주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에 그는 스님으로 변장하고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등으로 피신하면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광복 후 각계로부터 정계에 투신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후진교육에 정진하다가 1965년 2월 26일 서울 자택에서 향년 79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그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화성군 서신면 전곡리에 「3·1독립만세기념비」가 세워졌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며, 묘는 광명시 가학동 가골 학온동사무소 앞산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全州李氏慶昌君派譜』, 『光明市誌』, 「3·1독립만세기념비」.

(5) 이봉문(李奉文) : 고종 26년(1889)~1942



이봉문 호적

독립운동가. 본관은 전주(全州). 시흥시 수암동 350 출신이다. 명보(明甫)의 2남이다. 옛 시흥군 수암면 일대에서 1919년 3월 30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 해 3월 30일 윤병소(尹秉昭), 홍순칠(洪淳七), 류익수(柳益秀), 윤동욱(尹東旭), 김병권(金秉權) 등과 함께 수암동 비석거리(碑立洞)에 가서 그곳에 모인 2천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수암면 읍내에 있는 수암면사무소,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민학교), 공자묘 앞으로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는 왜경의 제2회 신문조서에서, "나는 3월 30일 수암면민이 수암리에서 만세를 부를 때 군중에 솔선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날 해산 후 수암리의 음식점에서 두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수암리 구장이 이날 시위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마땅치 못하게 생각되

어 그들과 함께 오후 10시경 구장집에 몰려갔더니 구장이 없어서 돌아온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선이 독립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며, 독립을 희망한 결과 시위운동에 참가하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 후 왜경에게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였다. 후사가 없어 그의 형의 손자 이광민(李光敏, 1945~)이 제사를 받들어 오고 있다.

묘는 시흥시 장하동 안산상고 아래 장하로 야산에 있다가 1970년대 도시화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獨立運動史』.

(6) 윤동욱(尹東旭) : 고종 28년(1891)~1968



윤동욱(손자 윤성준 제공).

독립운동가. 자는 경재(敬載), 호는 학은(鶴隱),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369(현 시흥시 산현동 369)에서 출생했다.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지완(趾完)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승덕(承德), 어머니는 이병로(李秉魯)의 3녀 덕필(德匹)이다. 그는 29세 때인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윤병소(尹秉昭, 능곡동 출신), 홍순칠(洪淳七, 안산 와동 출신), 류익수(柳益秀, 안산 부곡동 출신), 김병권(金秉權, 화정동 출신), 이봉문(李奉文, 수암동 출신) 등과 함께 수암리(현 수암동) 비석거리(碑立洞, 옛 안산군수의 역대 선정비가 있던 곳으로 수암농협 동쪽 200여 m 지점임)에서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읍내에 있는 수암면사무소, 안산국민학교, 공자묘(옛 안산향교) 앞으로 행진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군중들이 "수암수재소, 수암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고 외치자 그는, "여러분! 우리가 독립되면 관공서는 국유재산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상하게 말라"고 하여 흥분한 군중을 무마시켰다.

그는 제2회 신문조서에서 "금년 3월 30일 볼일이 있어서 수암면 화정리(현 시흥시 화정동)에 갔다가 능곡리(현 시흥시 능곡동) 주민으로부터 "비립동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 갔더니 약 1천 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때 순사가 '해산하라!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모인 군중 속에서도 해산하자는 자도 있었고 말자는 자도 있었으나, 결국 모두가 읍내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은 선두에 서서 군중의 기세를 돋우면서 읍내의 주재소, 보통

학교, 면사무소 등의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민학교) 앞에서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는 관리가 만세를 부름을 시위운동을 승인케 하고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사에게 "만세를 부르자"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또 그 자신이 만세를 부른 목적은 조선독립을 꾀하기 위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예심으로 있던 중 그 부형의 주선으로 인해 태형 아흔 대를 받았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자료집』, 『3·1운동실록』, 『始興郡誌』 上.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묘는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7) 윤병소(尹秉昭) : 고종 30년(1893)~?

독립운동가, 시흥시 능곡동 출신이다. 1919년 3월 30일 수암면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 10시경 수암동 비서거리에서 류익수(柳益秀), 윤동욱(尹東旭) 등과 함께 수암관내 18개 동리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대대적인 시위군중의 선두에 있었다. 그때 마침 와리(瓦里, 현 안산시 와동) 주민들이 제작한 태극기가 있어 그것을 들고 읍내(현 수암동)로 시위행진을 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서, "3월 29일 화정리(현 화정동)에서 오는 30일 수암리의 비립동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니 그곳에 모이라"는 것을 이봉구에게 들었다고 밝혔으며, 그날 밤 "능곡리(현 능곡동)의 친아버지 집에도 같은 취지의 통문이 왔다는 것을 친동생에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충심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자로서 독립을 획득하기 위하여 만세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일제의 주동자 일제검거 때 체포되어, 이 해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68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참고문헌> 『3·1運動實錄』, 『獨立運動資料集』, 『始興郡誌』.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8) 한흥이(韓興履·恒吉) : 광무 1년(1897)~1979

독립운동가·교육가. 호는 몽당(夢堂), 본관은 청주(淸州)으로 안양시 동

안구 호계동 293 출신이다. 용익(用翼)의 아들이다. 아명은 정봉(丁鳳), 8세 때(1904) 홍이(興履)로 개명하였다.

어려서 조부 진유(稹裕)로부터 천자문, 소학 등을 배웠고, 13세 때(1909)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낙영학교(樂英學校) 2학년에 편입했다가 이듬해 폐교되자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장화의숙(長華義塾)에 편입, 수학하였다. 이어 1915년 시흥공립보통학교(현 서울 시흥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경성고보(京城高普, 현 경기고교)에 입학하였다. 2학년 때(1919) 소위 3·5학생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어서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독립선언서를 분배받아 시흥·안양·군포장역(현 군포역) 일대에서 한국의 자주독립의 당연성을 역설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한흥이.

이 해 3월 5일 학생들로만 구성된 항일독립운동이 경성역(현 서울역) 광장을 기점으로 계획되어 이날 오전 9시경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라고 쓴 깃발을 들고 시위를 전개하며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왜경과 충돌하여 서대문감옥에 구금되었다.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자 국권의 회복과 구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경성보인학교(京城輔仁學校, 현 보인상고)에 부임하였다. 1927년 일본학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경성법정학교(京城法政學校) 야간부에 입학, 1928년 수료하였다. 이 해 경성매일신문사(京城每日新聞社)에 기자로 입사하였으나 타의에 의해 사직하고, 신문사에서 알게 된 한 상사의 추천으로 경기도 포천의 연초판매소의 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안양에 정착, 이 해 11월 안양시 안양동 603에 안양직물공장(安養織物工場)을 설립하였다. 그 뒤 시흥군민보단장(始興郡民保團長)을 거쳐 1948년에는 경기도로부터 효자상(孝子賞)을 수상했다.



소사공고 개교식(1958).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장문을 닫고, 이 해 12월 부산으로 피난했다. 이듬해 부산에 소재한 국제신문사(國際新聞社)에 기자로 일시 근무하다가, 공장이 완파되자 지금의 부천 소사공고(素砂工高) 자리에 있던 금정공업(金井工業)을 인수, '안양직물주식회사'로 등기하여 1953년 5월 취체역 사장에 취임하였다. 1958년 공장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소사공과기술학교(素砂工科技術學校)를 설립,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61년에는

소사고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설되었다. 1978년 학교법인 한길학원을 설립,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해 12월 부천공업전문대학(富川工業專門大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3월 부천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 해 5월 8일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묘는 시흥시 매화동 산 26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夢堂韓恒吉先生遺稿集』, 『獨立運動家』, 『現代史資料』, 『京畿道人物誌』, 『安養市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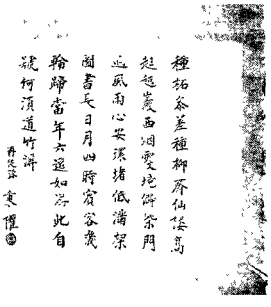
(9) 김천복(金千福)

독립운동가. 시흥시 죽율동 출신이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 해 4월 4일 옛 시흥군 군자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손병희(孫秉熙) 등의 조선독립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이날 죽율리(동)민에 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검리(동)에 있는 군자면사무소(현 거모동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고 이들을 선동하였다. 동민 약 수십 명을 모아서 거모리로 향하여 전진하던 중, 군중은 총소리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그는 두세 명과 함께 그 동리에 이르러 면사무소 및 주재소 부근에 집합한 수백 명의 군중에 가담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하여 왜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문헌> 『三·一運動實錄』, 『始興郡誌』 上.

(10) 김병권(金秉權) : 고종 15년(1878)~1951



김병권 필적(『연성음사시첩』에서).

독립운동가. 자는 경협(敬協), 호는 금남(錦南),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서 출생했다. 용달(溶達)의 1남이다.

참위(參尉)를 역임하고 1919년 3월 30일 옛 시흥군 수암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윤병소(尹秉昭, 능곡동 출신), 홍순칠(洪淳七, 안산시 와동 출신), 류익수(柳益秀, 안산시 부곡동 출신), 윤동욱(尹東旭, 산현동 출신), 이봉문(李奉文, 수암동 출신) 등과 함께 19개 동·리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군중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면사무소, 안산보통학교(현 안산국교), 공자묘 앞으로 행진하였다. 그는 제2회 신문조서에서, "금년(1919) 3월 30일 화정리에서 주민 30명 가량이 모여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만세를 부르기 위해 비립동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왜 구장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경솔한 행동을 하느

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격문 속에 '집합하지 않으면 방화한다'고 되어 있었고, '후한을 피하려면 부디 오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뜻으로 비립동에 갔더니, 군중 속에서 순사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자가 있어 자기도 뒤에서 따라 읍내(현 수암동)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부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태형 예순 대에 처해졌다. 한학에도 조예가 깊어 1926년에는 시흥지방의 인사 마흔다섯 명과 함께 한시동인회인 '연성음사(蓮城吟社)'를 조직하였으며 전주 이씨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 뒷산에 있다.

<참고문헌> 『三·一運動實錄』, 『始興郡誌』 上.

(11) 장순한(張淳翰) : 광무 4년(1900)~1981

독립운동가·한학자. 초명은 수산(壽山), 자는 중옥(重玉), 호는 매암(梅巖),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인조반정 때 2등공신인 덕창군(德昌君) 신(紳)의 11대손으로 아버지는 주진(周鎭)이며, 어머니는 김주찬(金周燦)이다.



장순한(아들 장철수 제공).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614-2(현 시흥시 장곡동) 출신으로 군자공립보통학교(현 군자국민학교)를 졸업했다. 20세 때인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의 뜻을 외친 것에 찬동하여, 이 해 4월 7일 장현동 출신 권희(權憘)와 함께 군자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같은 동리의 구장인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비밀통고(秘密通告)를 놓아 두고 많은 리민에게 회람시키려다가 왜경에게 발각되어 치안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1927년 시흥지방 인사들이 조직한 한시 동인회인 '연성음사(蓮城吟社)'가 주최한 전국 한시모집에 4등으로 입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당홍(錢塘紅)

매암(梅巖) 장순한(張淳翰)

어느 해에 사신 따라 전당을 떠났는가, 何年隨使出錢塘
흰 바탕에 붉은 꽃잎은 뭇꽃과 사뭇 달라. 瓣白尖紅異衆芳

半島秋光藏瓣扇
大明風氣葆尖房
香蓮太液縣題美
色近東林結社良
久植花川逢愛護
蓮城可作幷州鄕

반도의 가을빛은 꽃잎 속에 숨어드는데,
명나라 바람이 붉은 꽃잎에 살랑이네.
그 향기 연못에 뻗쳐 글제에 걸렸으니,
그 옆 숲속에서 갖는 시모임이 아름답고나.
오래도록 꽃내[花川]에 심어 괴임을 받으니,
연성의 꽃, 이웃고을까지 번지리라.

그 후 1952년 거모동 566에 있던 군자국민학교 오이도간이학교(금호간이학교)를 장곡동 514로 이전, 장곡국민학교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1남 철수(哲秀)는 민속학자로 안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있으며, 1녀 수복(壽福)은 1919년 시흥군 서면(현 광명시)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의병(尹宜炳, 1900~1960)의 장남 형중(炯重)과 결혼하였다.

그는 1981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경북 안동시 금곡동 177 성소병원에서 향년 81세로 운명했다.

1990년 8월 15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애족장이 추서되었으며, 묘는 시흥시 장곡동 매꼴 선영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 上, 1983. 『始興郡誌』 上, 『德水張氏族譜』, 『蓮城吟社壹回集』.

(12) 한영석(韓英錫) : 광무 5년(1901)~1925



한영석(손자 한상철 제공).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주(淸州)로 시흥시 과림동 620 중림마을에서 문교(文敎)와 어머니 백안순(白安順) 사이에서 1남으로 출생했다.

19세 때인 1919년 8월 3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하자, 이에 찬동하여 서울 종로통의 가로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일제는 불온한 행동과 안녕질서를 방해한 죄로 마흔두 명을 체포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다.

본명은 영록(永祿)이었으나 1918년 영석(英錫)으로 개명했다. 이 해 안양 석수동 태생의 하아기(河娥寄, 1901~?)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재연(載淵, 1925~?)을 두었다.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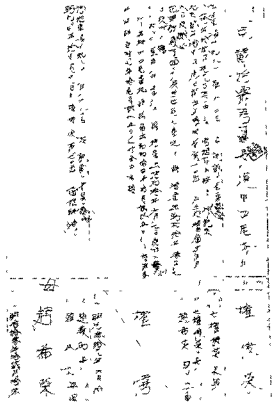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독립운동사자료집』 5, 「韓英錫戶籍」.

(13) 권희(權憘) : 광무 6년(1906)~1955(?)

독립운동가.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시흥시 장현동 417 출신이다. 준영(俊榮)의 1남이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의 뜻을 외친 것에 찬동하여, 이 해 4월 7일 옛 시흥군 군자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4월 6일 장현리(현 장현동) 그의 자택에서 그의 발의, 집필로 「비밀통조(秘密通造)」라는 제목 아래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담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이 일본에 강점된 아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오는 7일이면 구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리민은 구 한국기 1개씩 휴대하고 와서 모이라"는 문구를 작성한 후 리민들에게 회람시켜 선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왜경에게 체포, 구금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 건국공로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시흥시 장현동 산 89에 있다가 시화지구 외곽도로 토취장에 편입되어 1993년에 장현동 산 72로 이장되었다.



권희 호적.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獨立運動史』.

12) 慈善家

(1) 주석범(朱錫範) : 순조 15년(1815)~고종 17년(1880)

자선가. 자는 장옥(章玉), 본관은 신안(新安).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서 출생했다. 주희(朱熹)의 29세손이며 증 가선대부 의동(宜東)의 1남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했으며 아들 순원(順天), 손자 인식(寅植)·영식(永植) 등 3대에 걸쳐 과림동의 중림·부라위 및 계수동 안골의 절량빈민(絶糧貧民)에게 양곡으로 구휼하고, 세밑에는 세찬(歲饌)으로 북어·쇠고기·김 등을 나누어 주는가 하면, 영농비도 무상 혹은 무이자로 주는 등 해당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썼다. 이에 한긍렬(韓兢烈), 민재철(閔載喆) 등이 1917년 과림동 중림에 「新安朱氏三世積善碑」를 세웠고, 이어 1922년에는 비각(碑閣)을 건립하여

<참고문헌> 『新安朱氏大同譜』, 「新安朱氏三世積善碑創立發起文 및 碑閣建築發起文」.

이를 기리고 있다.

묘는 시흥시 과림동 중림 조소현에 있다.

(2) 주순원(朱順元) : 헌종 2년(1836)~고종 21년(1895)

자선가. 본관은 신안(新安)으로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서 출생했다. 주희(朱憙)의 30세손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석범(錫範)의 1남이다.

나주수군절제사(羅州水軍節制使)를 역임했다. 아버지 석범(錫範), 아들 인식(寅植), 조카 영식(永植) 등 3대에 걸쳐 과림동의 중림·부라위 및 계수동 안골의 절량빈민(絶糧貧民)에게 양곡으로 구휼하고, 세밑에는 세찬(歲饌)을 나누어 주었으며, 영농비도 지원해 주는 등 해당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에 한긍렬(韓兢烈), 민재철(閔載喆) 등 이 1917년 과림동 중림 금오로변에 「新安朱氏三世積善碑」를 세우고, 이어 1922년 비각(碑閣)을 건립하여 이를 기리고 있다.

<참고문헌> 『新安朱氏大同譜』, 「新安朱氏三世積善碑創立發起文 및 碑閣建築發起文」.

묘는 시흥시 과림동 부라위 성주산 아래에 있다.

(3) 주인식(朱寅植) : 철종 13년(1862)~1945



주인식(조카 주봉환 제공).

자선가. 자는 영필(永必), 호는 운포(雲浦)이며, 시흥시 과림동 중림에서 출생하였다. 주희(朱憙)의 31세손이며 순영(順英)의 1남이나 나주수군절제사(羅州水軍節制使) 순천(順天)에게 양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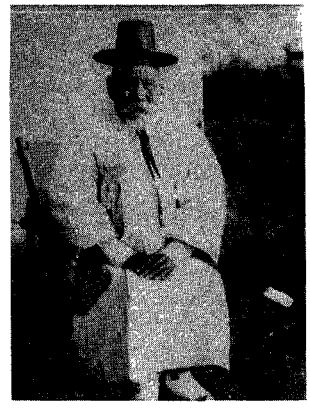
승훈랑 궁내부주사(承勳郞宮內府主事)를 하였다. 서울 봉래동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 가며 재산을 이루자 할아버지 석범(錫範), 아버지 순원(順元), 아우 영식(永植) 등 3대에 걸쳐 과림동의 중림·부라위 및 계수동 안골의 절량빈민(絶糧貧民)에게 양곡으로 구휼하고 세밑에는 세찬(歲饌)으로 북어, 쇠고기, 김 등을 나누어 주는가 하면 영농비도 지원하는 등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新安朱氏大同譜』, 「新安朱氏三世積善碑創立發起文 및 碑閣建築發起文」.

이에 한긍렬(韓兢烈) 등이 1917년 과림동 중림 금오로변에 「新安朱氏三世積善碑」를 세우고, 이어 1922년에는 비각(碑閣)도 건립하여 이를 기리고 있다.

묘는 시흥시 과림동 부라위 성주산 아래에 있다.

(4) 주영식(朱永植) : 고종 4년(1867)~1952



주영식(아들 주봉환 제공).

자선가. 호는 송당(松堂), 본관은 신안(新安)이다. 주희(朱熹)의 31세손이며 순영(順英)의 2남이나 순거(順巨)에게 양자했다.

할아버지 석범(錫範), 큰아버지 순원(順元), 형 인식(寅植)과 함께 3대에 걸쳐 과림동 중림·부라위 및 계수동 안골의 절량 빈민에게 춘궁기에는 양곡으로 구휼하고 영농비도 지원해 주는 등 일제하의 암울한 시기에 빈민구제에 힘썼다. 이에 해당주민들이 1924년 과림동 중림 금오로변에 위치한 「新安朱氏三世積善碑」 옆에 「新安朱公永植慈善紀念碑」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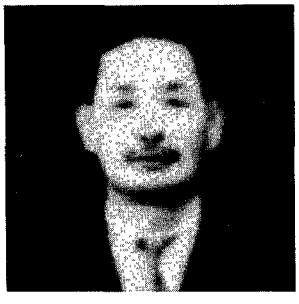
묘는 시흥시 과림동 부라위 성주산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 『新安朱氏大同譜』, 「新安朱公永植慈善紀念碑」.

2. 光復以後의 人物

1) 敎育者

(1) 최긍렬(崔兢烈) : 광무 5년(1901)~1963



최긍렬(제자 이형수 제공).

교육자. 아버지 병문(秉文)과 어머니 염(廉)씨와의 사이에 1남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63에서 출생했다. 1911년 서울 제일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1916년 제일고등보통학교에 각각 입학했다. 3학년 때(1919) 3·1독립운동에 참가하여 경찰에 체포되자 곧 퇴학을 당했다. 이해 서광잡지사에 입사했다가 2년 후에 사직하고, 군자면에서 군자학원(君子學院)을 설립, 교육계에 투신했다.

1925년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1927년에 졸업하고, 이 해 대조잡지사에 입사한 후 야간에는 대성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잡지사를 그만두고 전전하다가 1938년 안양시에 안양일동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40년부터 시흥시 논곡동에 논곡학원(論谷學院, 논곡강습소)을 설립했다. 1947년 논곡학원이 폐쇄되자, 이 해 안산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시흥시 무지동 소재 소성고등공민학교 교감으로 취임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흥시 월곶동에 군자고등공민학교를 개설한 후 이듬해 교사(校舍)를 시흥시 장현동으로 이전했다. 1952년 시흥시 거모동 산 58에 4개 교실을 건립, 2년 후(1954)에 군자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는 일제하 암울한 시기에 소래(소성고공 교감), 수암(논곡학원 설립·안산국교 교사), 군자(군자고공 설립) 등 시흥지방의 참 교육을 발아시킨 선각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위대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

최긍렬 선생공적비 설립위원회'에 의해 1989년 4월 27일에 군자중학교 교정에 공적비가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1901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63번지에서 태어나시어 1919년 제일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3·1독립만세에 참가하여 구국일념으로 농촌계몽과 국민후세 교육에 뜻을 세우시고 1921년 우리고장에 최초의 교육기관인 군자학원을 설립하셨으며, 군자국민학교가 개설되어 다시 상경하여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시고, 안양일동학원과 논곡학원을 개설하셨고, 조국 광복을 맞으신 후 1950년 2월 군자중학교의 모태인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시어 중등교육의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손수 학교의 터전을 일구시고 언제나 사랑과 긍지로 제자 앞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스승으로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고달프고 외로운 그 길을 기도처럼 간절하게 종교처럼 골똘하게 걸어오셨으며, 청빈한 생활과 소박하고 고결하신 선생님의 인품은 가르침 이상의 산 교육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학처럼 고고하게 평생을 교육자로 애국 애민하시면서 지내신 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열매맺어 더 깊고 넓게 이 고장에 퍼지고, 온누리의 밝은 횃불로 우리들의 거울이 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빛난 업적과 학덕은 우리 자손만대에 영원히 남아 흠모의 정을 이룰 것이기에, 오늘 그 제자들과 이 고장 분들이 선생님의 거룩하신 애국·애민·애교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이 공적비를 세우고 후세교육에 길이길이 남겨드리고저 합니다."

묘는 시흥시 월곶동 산 520에 있다.

<참고문헌> 「崔兢烈家狀」, 「崔兢烈功績碑銘」.

(2) 이선근(李瑄根) : 광무 9년(1905)~1983

사학자. 자는 선옥(宣玉), 호는 하성(霞城), 본관은 전주(全州)로 시흥시 포동 36 출신이다. 익녕군(益寧君) 치(移)의 15세손으로 임실군수(任實郡守) 동익(東益)의 7세손이며, 아버지는 쌍빈의숙장(雙斌義塾長) 연교(淵敎),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다.



이선근. □

1917년 아버지가 설립한 쌍빈의숙(雙斌義塾)을 나와 1922년에 희문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미성년으로 기소만은 면하였다. 1923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사학과에 입학하여 전진한(錢鎭漢), 이하윤(異河潤) 등과

함께 비밀결사 '한빛회'를 결성, 외국문화연구회·협동조합체·신간회 동경지회의 간부직을 맡았다. 1929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경신고등보통학교와 1931년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그 뒤 1932년 고려시보사(高麗時報社) 주간,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 상무 취체역, 1937년 만주 만몽산업주식회사(滿蒙産業株式會社) 상무·전무 취체역, 안가농장개척사무소장(安家農場開拓事務所長), 1942년 만주 오상현(吾常縣) 대동농사학교장(大東農士學校長)을 거쳐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이 되었다. 그 해 9월 귀국하여 조선청년동맹 위원장, 조선청년당 최고위원을 거쳐, 1946년 반탁학생총연맹 고문, 한성일보사 주필, 1947년 대동청년당준비위 부위원장·부단장 겸 훈련원장, 기관지 대동시보사(大同時報社)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주임교수로 부임하여 학생처장을 역임하고, 이어 1949년에는 법과대학 학장서리를 역임하였다.

1950년 2월 국방부 정훈국장이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 정훈감, 대학학도의용대 총지휘관을 거치면서 정훈에 크게 공헌하였다. 1952년 준장으로 예편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로 복직하였다.

1954년 문교부장관이 되어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겸하면서 조선왕조실록 영인작업을 개척하여 학계와 문화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어 1956년 동아대학교 교수, 1957년 성균관대학교 총장, 1957년 이후 한국사립대학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미국 및 서구 각국, 동남아시아 및 대만의 교육제도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1962년 경희대학교 교수·대학원장, 1969년 대한민국 문화재위원장, 1969년 영남대학교 총장, 1972년 문화재보호협회 회장, 1974년 동국대학교 총장,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1968년 대만 중화학술원에서 명예법학박사, 1970년 경희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1971년 미국 인디애나주 볼 스테이트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52년 을지무공훈장 상이기장(傷痍記章), 1959년 중국금질장장(中國金質獎章), 197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4년 5·16민족상 학예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일생 동안 한국근대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20여 권의 저서

와 50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저서로는 『조선최근대사』(1931)·『화랑도 연구』(1949)·『한국독립운동사』(1956)·『한국사 최근세편』(1961)·『한국사 현대판』(1963)·『민족의 섬광』(1968)·『대한국사』(1973)·『국난극복사』(1976) 등이 있고, 수필은 「학생시대의 여름」(1929)·「결혼문제 좌담회」(1930)·「현실에 직면하며」(1936)·「푸시킨과 나」(1937)·「비장감격(悲壯感激)의 일순간」(1937)·「사료수집의 고심」(1937)·「선인의 족적 정다산」(1950) 등이 있고, 문학평론은 「노서아문학의 창시자 푸우슈킨의 생애와 그의 예술」(1927)·「여명기 노서아문단회고」(1927)·「집필가의 양심문제」(1929)·「연포 이하윤론」(1949)·「결전문화인에게 격함-이념의 승리」(1950) 등이 있다.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고, 묘는 국립묘지 장군묘역에 있다.

<참고문헌> 『韓國學論叢』(霞城 李瑄根博士 古稀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全州李氏益寧君派譜』, 『한국현대문인대사전』.

(3) 한긍교(韓兢敎) : 광무 9년(1905)~1979

교육자.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시흥군 남면 산본리 791(현 군포시 산본동)에서 출생하였다.

1921년 군포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와 경성사범학교를 나와 1927년 모교인 군포국민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그 후 과천국민학교를 거쳐 1930년에는 시흥국민학교 교감으로 승진되었고, 이어 1943년에 용인 수지국민학교장, 용인군 장학사, 용인군 수지면장, 용인 구성국민학교장, 안산국민학교장, 평택 성동국민학교장, 인천 송월국민학교장 등을 역임하고, 1972년 2월에 교육공로로 국민훈장(國民勳章)을 받았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에 있다.



한긍교(사위 이해동 제공).

<참고문헌>『始興郡誌』 上.

(4) 김용호(金溶浩) : 융희 1년(1907)~1987

교육자. 호는 향운(香雲).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창성(彰聲)이다.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교)를 거쳐 경기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도 이천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시작으로 이천국민학교장·여주국민학교장·동두천국민학교장, 포천국민학교장, 의정부 가능국민학교장 등을 역임하여 경기도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으며, 묘는 경기도 이천군에 있다.

<참고문헌> 「金溶浩家狀」.

(5) 김영기(金瑛基) : 1912~1972



김영기(아들 김종건 제공).

교육자로 본관은 금녕(金寧)이며 화정동 593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창환(昌煥)과 어머니 안창순(安昌順) 사이의 3남이다.

안산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서울 중동중학교, 휘문고보, 보성전문 법학부, 전주사범을 졸업한 후, 1937년 황해도 평산 신암공립보통학교의 교원을 시작으로 연백 백평공립보통학교, 곡산공립보통학교 등을 거쳐 광복 후 1948년 화정국민학교, 화성 동탄국민학교, 의왕 덕장국민학교, 1967년 안성 금광국민학교의 교장으로 30여 년간 교육계에 봉직하였다.

1938년 숙명여고 출신 이정숙(李貞淑, 1921~)과 혼인,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金瑛基家狀」.

묘는 시흥시 화정동 시상골에 있다.

(6) 김옥길(金玉吉) : 1921~1990



김옥길(이화역사자료실 제공).

교육자. 본관은 풍천(豊川)이며, 평남 맹산군 원남면 향평리 110-1에서 출생했다. 면장(面長) 병두(炳斗)와 어머니 방신근(方信根) 사이의 1녀이다. 사학자이자 국회의원인 동길(東吉)의 누나이며, 이화여대 음대 도서실 주임 옥영(玉暎)의 언니이다.

8세 되던 해 봄 보통학교에 입학하자 너무 기뻐서 새벽이면 몰래 학교에 갔다 문이 잠겨 다시 돌아오곤 하였다. 보통학교를 마칠 무렵 아버지가 경영하던 광산이 기우는 바람에 온 식구가 평양으로 이사 나왔을 때 가정형편이 어렵게 되어 진학을 포기하고 삯바느질하는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보살폈다. 그래서 남보다 2년이나 늦게야 숭의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어머니는 딸이 입학식에 입고 갈 검정 무명 두루마기를 짓다 말고 갓난아기인 옥영에게 젖을 물린 채 그만 깊은 잠에 빠졌다. 한참 후 깜짝 놀라 깨어 보니 날은 훤히 밝아오는데 딸이 밤새 바느질을 해 마지막으로 동정을 달고 있었다.

그 후 서문고등여학교를 마치고 1940년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하여 기숙사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보탰고, 1943년 졸업하던 해 사감에 발탁되어 6년간 근무했다. 사감시절 그는 무척 엄격하고 무서운 인상을 주었다. 신입생이 오면 미리 원서의 사진, 이름, 가족사항 등을 따로 외워 두었다가 부모님과 짐을 들고 들어오는 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개 너는 몇 호실로 가' 하는 바람에 학생이나 부모 모두 놀라곤 하였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3년간 김활란(金活蘭)의 모교이기도 한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기독교문학을 전공하고, 부산 전시캠퍼스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그 뒤 1957년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이듬해 귀국하여 기독교학과 과장, 학무과장, 학무처 차장 등 이화여대의 중요보직을 두루 맡으며 학사행정의 실무를 익혔다. 당시만 해도 '김옥길 선생' 하면 검정 두루마기에 두 손을 푹 찌르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비며 학생을 감독하는 무서운 선생,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하는 유난히 검은 눈망울의 주인공, 대강당 채플 때 "2층 다 5열 ○○과 아무개 조용히 해" 하며 야단치는 교수, 혹 마이크가 꺼져도 쩌렁쩌렁한 육성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분 정도로 학생들은 기억할 뿐이었다.

1961년 김활란 총장의 강권으로 학위를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군사정부의 임시특례법에 의해 김활란 총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되어, 이해 10월 1일 한국인으로는 두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 제8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총장직을 맡게 되자 유학계획은 취소되고 총장으로 취임하는 날 이화여대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40세의 젊은 총장은 패기와 열정으로 학교일을 해나갔다. 총장임기 6년을 세 번, 18년이란 세월 동안 이화여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취임당시인 1961년 이화여대의 학생은 8천 명, 대학원 하나, 단과대학 일곱 개, 학과 서른한 개가 있었으나, 1979년 퇴임할 때에는 대학원 두 개, 단과대학 열 개, 학과 쉰 개, 학생수 1만 명이었다.

그는 외적인 팽창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더 힘썼다. 학문하는 대학을 지향하여 각종 연구소 열네 개가 개설되었고, 1971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하기대학을 설립하여 외국인 학생, 해외동포 자녀들을 교육케 하였다.

1979년 세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총장직을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누가 이화에 대해 말하면 내가 더 잘 아는 것같이 생각되니 오만해지고



망중한(김동길 제공). 1979.

한계를 느낀다"는 말을 남기고 총장직을 후배에게 물려주었다.

그 후 7년간 단 한 번도 교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새 총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해 12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20일까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 내각의 문교부장관을 역임했다. '국보위(國保委)'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짧은 재임기간 동안 학원자율화, 학생과 교수의 복학 및 복직, 학도호국단개선 등 한때나마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자율장관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문교부장관직을 물러난 뒤 소란스러운 서울을 떠나 문경새재 신선봉(神仙峰)기슭(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고사리마을)의 금란서원에서 옥수수와 조를 가꾸며 살 때에도 그의 식탁에는 늘 수많은 제자와 친지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다정한 문경새재의 장관 할머니, 총장 할머니로 바람과 산과 나무와 바위의 친구로 살기 시작한 이후 그를 찾는 이들에게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즐겨 들려주었다. "나뭇가지가 새로 돋으면 묵은 가지는 어느사이에 사라져버리더라." 자연에 관련된 그의 어록(語錄)은 항상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의미를 함축했다. 10년간을 이곳에서 산 그는 동생 동길이 자신의 인세(印稅)로 마련해 준 고사리마을 8만여 평의 땅을 '이화학당에 무상기증한다'는 증여서를 남겼다.

1986년 가을 김영의 이사장이 타계하자, 이 해 12월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화발전후원회 회장에 취임하였고, 이어 1987년에는 재단법인 우월 김활란장학회 이사장에 피선되었다.

1986년 직장암이 발병되어 그 후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암과 투병했다. 1990년 4월 5일(음력 3월 10일) 이대 교정에서 있은 고희연(古稀宴)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생일상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숱하게 권한 생일잔치를 한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가 여러 번 사경을 헤맨 끝에 맞은 이날 생일은 '영이별'을 걱정하던 제자와 친지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오래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거북모양의 금반지를 선물로 받자 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해도 그것은 의술이나 정성의 부족함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동생 동길은 누님의 칠순생일 선물로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축기금 1억원을 내놓았다. 남매의 우애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만년까지 동생은 커피를 끓이고 빵을 굽고 과일을 깎아 누님이 들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세상얘기를 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정(情)과 신뢰를 나누어 와 자신의 일생은 결코 외롭거나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년에 측근들에게 전했다. 번역서인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란 단 한 권의 저서를 남긴 그는 회고록쓰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잘못한 것은 빼고 잘한 것만 생각나 가치 있는 회고록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사양했다. 그가 제자들에게 평생 역설해 온 좌우명은 "책임과 질서와 약속을 지켜라. 한번 약속한 것은 불리하더라도 지켜라. 사실에 근거한 말은 용기를 갖고 해라"였다.

1940년부터 50년간 '이화'와 깊은 인연을 맺은 그는 그 밖에도 많은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1948년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이사를 시작으로, 국제연합한국위원회 위원장(1963),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1965~1979), 가정법률상담소 이사(1966~1979),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1969~197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이사(1969~1979), 홍한재단 이사(1970~1988), 다락방 전도협회 회장(1970~1980), 기독교방송 이사(1970~1980), 백인협의회 회장(1970~1979), 한국어린이재단 이사(1972~1983), 군복음화후원회 부회장(1972~1975), 한미협회 부회장(1973~1983), 운정장학재단 이사(1974~1979), 산학협동재단 이사(1974~1982), 대한여학사협회 회장(1975~1979),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1976~1979), 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 이사(1977~1979), 민족문화추진회 이사(1978~1979), 연강학술재단 이사(1979~1980), 이대명예총장(1979~1990),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 이사(1979~1990),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1988~1990) 등을 역임하였다.

상훈으로 국민훈장 모란장(1970), 마리아 클라타상(비율빈, 1976), 인촌문화상(1982), 유니온 신학대학원 공로상(미국 뉴욕, 1983), 국민훈장 무궁화장(1990), 적십자 인도상 금장(1990) 등을 받았다.

1990년 8월 25일 오전 2시 55분, 동길·옥영·수옥(秀玉, 주부) 등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그는 "나의 죽음으로 주위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70세를 일기로 서울 자택에서 타계했다.

장례는 정의숙(鄭義淑) 전 이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옥길선생 이화여대 학교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해 8월 27일 그의 부모 유택이 있는 시흥시 광석동 산 311-4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김세영, 「김옥길 선생 약력」, 「한국일보」 1990. 4. 29; 『동아일보』, 1990. 8. 25; 『국민일보』, 1990. 8. 25; 『한국일보』, 1990. 8. 26; 『조선일보』, 1990. 8. 26; 『민주일보』, 1990. 8. 26; 『세계일보』, 1990. 8. 26; 『스포츠서울』, 1990. 8. 26; 『서울신문』, 1990. 8. 26.

2) 藝術家

(1) 한정동(韓晶東) : 고종 31년(1894)~1976



한정동.

시인·아동문학가. 호는 백민(白民)·서학산인(棲鶴山人)·성수(星壽), 본관은 청주(淸州)로 평남 강서군 출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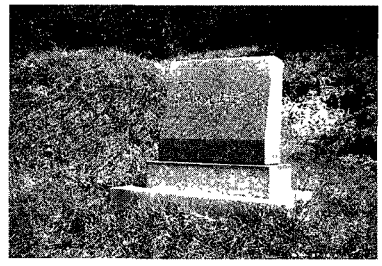
농부의 3남으로 태어나 11세까지 한문을 공부하다가 12세 때부터 신학문을 배웠다. 1918년 평양고등보통학교(平壤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였는데, 졸업 전후에 평양시청에서 잠시 서기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따오기」와 「소금쟁이」가 당선되어 『어린이』 3월호에 발표되었다. 특히 따오기는 작곡가 윤극영(尹克榮)의 작곡으로 광복 전부터 널리 애창된 동요이다. 한때 삼숭국교 교사로 있다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남포지국장 겸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이어 1939년 이후 진남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8·15광복을 맞았다. 그 뒤 진남포 영정국민학교를 설립, 교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월남한 이후 부산 국제신문사의 기자(1951~1952)를 지내고, 서울 덕성여고 교사(1954~1961)를 역임하면서 한때 한국아동문학회 회장의 중책을 맡았다. 그 후 1968년 제46회 어린이날 행사인 노래동산회에서 시상하는 '고마우신 선생님상'을 수상하여 이 상금과 그 동안 모아 둔 원고료로 1969년 '한정동아동문학상'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문예 출신 아동문학가로, 초기 작품은 주로 민족적인 슬픔을 향토적인 애상으로 표현하였고, 후기의 작품은 천진스러운 동심의 세계를 찬미, 표현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그의 동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색은, 첫째 관용적인 문어체, 재롱 등을 구사하거나 영향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둘째 선행·친애·동정 등 도덕심 함양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으며, 셋째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한 점이다.

작품으로는 시에 「따오기」(1925)·「소금쟁이」(1925)·「어머니 생각」(1925)·「수양」(1925)·「두룸이」(1925)·「고향생각」(1925)·「갈잎피리」(1926)·「바람」(1926)·「할미꽃」(1926)「제비」(1926)·「구름」(1927)·「일편단심」(1929)·「진달래」(1929)·「모종」(1929)·「굴레벗은 말」(1930)·「봄나비」(1930)·「장탄곡」(1930)·「기다려 반사십」(1930)·「잠자리」(1930)·「여름밤」(1930)·「바다와 바위」(1930)·「이상한 달나라」(1930)·「거두는

심사」(1930)·「햇살 지겠네」(1930)·「가을이 되면」(1930)·「세색 삼태」(1930)·「기다림」(1931)·「제비야」(1931)·「흐르는 마음」(1931)·「꼬아리」(1931)·「의좋은 동무」(1931)·「고향생각」(1934)·「기나라 조」(1938)·「행화원」(1938)·「여원 달」(1938)·「떨어진 또아리」(1940)·「시달려 반사십」(1940)·「노기원」(1940)·「반딧불」(1952)·「수양버들」(1953)·「가을」(1966)·「훈장의 변」(1966)·「새해」(1967)·「별」(1968)·「그날과 오늘」(1968)·「어린이 날에」(1970)·「길」(1970) 등이 있고, 동요집에는 『갈닙피리』(1958), 동화로는 「제비와 복남」(1931)·「촛불」(1952)·「새동무」(1960)·「눈보라 속의 우정」(1961)·「신 신은 꼬끼리」(1967)·「거룩한 선물」(1969) 등과 유치원의 어린이를 위한 동화집 『꿈으로 가는 길』(1968)이 있다. 수필로는 「메나리야 메나리야」(1936)·「책상세계」(1954)·「계절의 마술」(1959) 등이 있고, 평론으로는 「소금쟁이는 번역인가?」(1926)·「4월의 소년지 동요를 읽고」(1930)·「어쩌나 아요를, 나의 문학적 회고」(1966) 등이 있다.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산 5-1, 2로 남대문교회 묘지에 있고, 1977년 남광회가 세운 추모비(동요비)는 높이 51cm, 폭 87cm인데, 그의 대표작 「따오기」를 박경종(朴京鍾)이 글씨를 썼다.



한정동 동요비. 1986.

<참고문헌> 『落葉文學』 26, 『始興郡誌』 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현대문인대사전』, 「한정동동요비문」.

(2) 이서구(李瑞求) : 광무 3년(1899)~1981

극작가·연출가·언론인. 호는 고범(孤帆),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서울 출생이나 본적은 안양시이다. 공조판서(工曹判書) 기하(基夏)의 7대손으로 아버지는 후릉참봉(厚陵參奉) 관규(冠珪)이고, 어머니는 조성녀(趙姓女)이다. 사립훈도학교를 거쳐 교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일고등보통학교 2학년을 중퇴하여 사립 오성학교(五星學校)에 편입하였고, 이어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을 거쳐 1922년 동경 니혼대학(日本大學)을 중퇴하였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과 함께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을 맡았다. 1923년 박승희(朴勝喜), 김기진(金基鎭) 등 유학생들과 함께 동경에서 극단 토월회(土月會)를 창립하여 전무가 됨으로써 연극운동에 뛰어들었다. 1932년 동양영화사 지배인을 거쳐 1935년 시에론레코드회사 문예부장, 1938년 경성방송국(JODK) 연예주임 등



이서구(아들 이승복 제공).

의 일을 하면서 극작에 전념하였는데, 이때가 전성기였다.



기자시절의 이서구(앞줄 왼쪽부터 梁白華 · 李瑞求 · 柳光烈 · 金東煥, 뒷줄 왼쪽부터 鄭秀日? · 尹白南 · 金東仁 · 李晶燮. 아들 이승복 제공).

일제 말엽인 1943년 동양극장 전무 취체역을 지냈고, 그 뒤 조선연극문화협회(朝鮮演劇文化協會)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광복 이듬해(1946)에 한국극작가 동우회장과 『문예신보』 주간을 지냈고, 1947년에 서울시 공보처장, 1949년 한국무대예술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전쟁중인 1950년에 공보처 전시선전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국방부 정훈국 문화선전요원으로 7사단 평양탈환작전에 종군했다. 이어 1951년에 국방부 정훈국 종군극작가 단장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중앙집행위원에 피선되었다. 이후 1952년 국방부 『승리일보』 주간, 1959년 한국 방송극작가 협회장과 한국무대예술원 최고위원이 되었고, 1961년 한국 방송문화협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전쟁 후에는 방송극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햇빛 쏟아지는 벌판」 등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를 썼고, 텔레비전 방송국이 등장한 뒤에는 주로 텔레비전 연속극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주로 대중의 비극적 정서에 호소한 신파 희곡이 많으며, 특히 사극(史劇)에 능하였다. 방송극의 경우에도 조선왕조의 야사를 극화한 「강화도령」 같은 작품, 즉 역사애정물에 장기를 보였다.

주요 희곡작품으로는 「동백꽃」(1925), 역사극 3부작 「폐허에 우는 충혼」, 「배소(配所)의 월색(月色)」, 「서광 3천리」(1925), 「어머니의 힘」(1930)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어머니의 힘」은 식민지의 사회사상과 전통윤리라는 2대 테마 중 인습문제를 다룬 가정비극형으로 역시 멜로드라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작품은 기생출신의 며느리가 명문집안으로 들어오면서 겪는 고통의 이야기로, 새로운 모럴을 찾는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음모와 무고라는 신파극 전개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백꽃은 가난 때문에 아무 저항 없이 도회로 팔려 가는 소녀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서는 당시 전국적으로 번진 소작쟁의의 모습이라든가 농민의 가난, 전통윤리의 폐해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멜로드라마적인 구성을 띠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결과적 비극을 감상적으로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동양극장 시절 임선규(林仙圭) 등과 함께 이 땅에 신파극을 대중극으로 토착화하는 데 기여한 대중극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작품으로는 시로 「산나물 가자」(1933)·「아버지」(1934)·「가을 거뒤」(1941)·「푸른 하늘」(1941) 등이 있고, 소설로 「누흔」(1923)·「회한」(1927)·「눈물에 젖는 사람들」(1927)·「사랑의 디옥」(1928)·「박연행」(1928)·「롬펜대장 출세담」(1934)·「거인구락부」(1935)·「유선형부부도」(1935)·「구쓰와 영애와 여급」(1935)·「결혼태평기」(1936)·「공포광시대」(1936)·「행복의 운하」(1936)·「마음의 달」(1936)이 있다. 소설집으로는 『참패자』(1924)가 있고, 희곡은 「동백꽃」(1931)·「청빈」(1938)·「만월」(1944)·「곡선영감」(1944)이 있다. 수필로는 「빈촌야화」(1926)·「병든 청춘」(1927)·「신문기자를 내놓으면 무엇을 할까?」(1927)·「홍수 중의 보도기자의 고심」(1927)·「스틱」(1928)·「다섯가지 승락을 받고야」(1928)·「괴상한 남학생과 좋은 동요」(1929)·「국립 국민제조장을 설치」(1929), 「경성의 째즈」(1929), 「대경성 암흑가 종군기」(1932), 「여배우의 정조와 사랑」(1932)·「가면신사와 가면숙녀」(1932)·「찌그러진 남비」(1934)·「이십팔만풍」(1934)·「우리집의 봄빛」(1934)·「종로야화」(1934)·「아낙의 비밀」(1934)·「차디찬 심경」(1936)·「백의춘희애가」(1936)·「애인 데리고 갈 사랑의 하이킹코스」(1936)·「대경성 식구경」(1936)·「미희와 백골」(1936)·「무모생활」(1940)·「기자시절」(1958)·「염문·기행·만화」(1958)·「무용담-나의 기자시절」(1958)·「사상기생 이야기」(1958)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조선극단의 금석」(1931)·「조선의 유행가」(1932)가 있고,

저서에 『풍류의 뒷골목』·『세시기』 등이 있다. 상훈으로는 서울시 문화상을 비롯하여 공보부 방송문화상, 화랑무공훈장, 국민훈장동백장, 3등문화훈장을 받았다. 1981년 5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산 25-6에서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묘는 시흥시 방산동 산 20 사탯말에 있으며 1995년 5월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의해 「고범이서구선생추모비」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山李氏良景公派世譜』, 『한국현대문인대사전』, 「동아일보」(1972. 12. 6~1973. 2. 5).

(3) 양석천(梁錫天) : 1921~1990

연예인.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시흥시 대야동에서 우거하였다.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빅타가극단에 입단하여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어 유락좌 단장을 역임했고, 광복 후에는 반도가극단에서 활동하다가 무궁화악극단 부단장, 청춘무대 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양훈(뚱뚱이)과 콤비를 이루며 KBS라디오의 '홀쭉이와 뚱뚱이'란 코미디프로에 고정출연하였으며, 「오부자」, 「홀쭉이와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 「사람팔자 알 수 없다」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다. 1970년 이후에는 새마을쇼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병인 해소로 서울대학병원에서 6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고, 고양 벽제에서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梁錫天家狀」.

(4) 오상원(吳尙源) : 1929~1985



오상원. □

소설가·언론인. 평북 선천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서울대학교 불어불문과를 졸업했다. 이 해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후, 극협(劇協)의 작품공모에 응모한 장막 희곡 「녹스는 파편(破片)」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유예(猶豫)」가 당선되었는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쟁문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5년 「균열(龜裂)」이 『문학예술(文學藝術)』 8월호에 발표되었다. 이어 단편 「난영(亂影)」이 『문학예술』 1959년 9월호에 발표되었고, 1958년에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된 「모반(謀反)」이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을 수상했다. 장편으로 「백지의 기록」(『사상계』 1957. 5~12)이 있고, 중편으로

「황선지대」(『사상계』 1960. 4)가 있으며, 희곡으로 「리상(裏傷)」(1956)·「잔상(殘像)」(1956)을 남겼다. 그리고 평론으로 「앙드레 말로와 행동주의 문학」(『문예』, 1960. 6)이 있다. 그 밖에 발표한 소설은 다음과 같다.

『죽음에의 훈련』(1955), 『죽어살이』(1956), 『증인』(1956), 『탄흔』(1956), 『사상』(1957), 『잊어버린 에피소우드』(1957), 『모반』(1958), 『사이비』(1958), 『내일쯤은』(1958), 『위치』(1958), 『부동기』(1958), 『피리어드』(1958), 『암시』(1958), 『실기』(1958), 『보수』(1959), 『표정』(1959), 『현실』(1959), 『태위』(1959), 『황선지대』(1960), 『무명기』(1961), 『야반』(1961), 『훈장』(1964), 『봉변』(1964), 『암류』(1964), 『담배』(1965), 『그 어느 주변』(1965), 『실기』(1966), 『지루한 이야기』(1966), 『모멸』(1974), 『어떤 죽음』(1976), 『하오』(1977), 『잃어버렸던 이야기』(1977), 『산』(1981), 『겹친과거』(1985).

그의 문학적 특징은 한국전쟁 전후 세대의 사회적·도덕적 문제를 다루어 전후세대의 정신적 좌절을 행동주의적 안목으로 주제화한 데 있다. 특히 「모반」은 광복 직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서, 정당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당원들 사이에 자행된 테러를 주요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민이 "위대(?)한 하나의 일의 성공보다는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더 소중스러워졌단 말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주인공의 인간주의적 각성이 주제화됨을 보게 된다. 그는 프랑스 행동주의문학과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한국의 전후세대의 풍토 속에서 독자적인 작품을 이루어 1950년대의 대표적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3년 이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묘는 시흥시 수암동 원당골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별장 위에 있고, 추모비는 1986년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상원 추모비. 1986.

"作家 言論人 吳尙源追慕碑
나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코 무위(無爲)한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강력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껏 나는 상실당한 나를 찾으러 헤매였던 것이다.
청년은 가슴 속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열이 확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사회의 저주와 증오속에서 그들에게 강력한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

※단편 「證人」에서
<참고문헌> 『落葉文學』 26, 『始興郡誌』 上, 『한국현대문인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상원추모비」.

하는 것이다."※

(5) 전혜린(田惠麟) : 1934~1965


전혜린.

독문학자·수필가. 평남 순천(順川)에서 법학자 봉덕(鳳德)의 8남매 중 1녀로 출생하였다.

국민학교 시절을 서울과 신의주에서 보냈고, 1946년 경기여중에 입학하여 1953년 경기여고를 졸업했다.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 독일로 유학, 뮌헨대학 독문학과에 입학하여 1959년 졸업한 후, 뮌헨대학 에카르트 교수 조교를 지냈다. 유학 중 1955년 가톨릭에 귀의하여 '막달레나'라는 영세명으로 영세를 받았으며, 1956년 법학도인 김철수(金哲洙, 현 서울 법대 교수, 헌법학)와 혼인하여 이듬해 3월 딸 정화(貞和)를 출산하였다. 귀국 후 경기여고 교사를 역임했다. 이때 독일 체재 중에 주옥 같은 번역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영매상(英梅賞)을 받았다. 이어 196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대를 비롯하여 이화여대에서 강사를 지냈고, 1964년 성균관대 조교수가 되었다. 5년간의 교수생활 중 불과 같은 언어와 필치로 많은 번역과 저술을 남겼다. 1965년 1월 10일 일요일 아침, 일요일에 출생하여 일요일에 사망했다.

단지 생전에 좋아하던 흰 장미 한 송이만큼의 사랑을 안고 갔다. 그의 일생은 자기의 지식·정열·사랑 등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쏟아부은 일생이며, 꿈과 기쁨과 괴로움이 터질 듯이 팽팽하게 찬 매순간을 산 일생이었다.

번역작품으로는 사강의 『어떤 미소』(1956)를 비롯하여 슈나벨의 『한 소녀의 걸어온 길』(1958),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1959), 케스터너의 『화비안』(1960), 구드리치·하케트 공저의 『안네 프랑크의 일기』(1960),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1961), 게스턴의 『에밀리에』(1963), 막스 모후의 『그래도 인간은 산다』(1964), 뵐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1964), 노바크의 『태양병』(1965)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는 에세이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1966)와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1966), 유작집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1976)가 있다. 또 평론에 「현대 독일 여성문학의 경향」(1960)과 「체험과 사색의 형식」(1960) 및 「데미안에 대하여-H. 헤세」(1965) 등이 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황제아파트 뒤에 있다가 1984년 4월 용인군 천주

교회 묘지로 이장되었다. 1966년 9월에 세운 시비(詩碑)는 성균관대독문과 동창회에서 세운 것으로, 시인 김남조가 글을 짓고 박준근이 글씨를 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아! 전혜린』,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전혜린 시비명」.

(6) 안옥희(安玉姬) : 1954~1993

문인·연기자.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본명은 안영채 또는 설희이다. 죽율동 큰말에서 홍재(興載)의 1녀로 출생, 어려서 시흥군 동면 시흥리 224(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로 전적했다.

중앙대 국문과를 중퇴한 후, 1971년 TBC의 「어머니」로 데뷔하였다. 그 뒤 「꽃신」·「결혼행진곡」·「수초의 노래」·「왕릉일가」·「가시나무꽃」 등 TV드라마와 「러브스토리」(1974)·「검은 고양이 네로」(1980) 등 연극에 출연하여 주로 차분하면서도 우수 어린 역을 맡았다. TBC 소속 때에는 TBC 연기대상 인기상을 수상했다.



안옥희.

또한 잔잔한 직관력과 수려한 문장으로 일찍이 왕성한 필력을 보여 1973년 처녀 희곡 「여우와 소」를 발표함으로써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작품으로 희곡에는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극단 꽃사슴에서 공연)·「저산 너머에 행복이」(『월간문학』 신인상 수상, 1977)·「마지막 일기」(1978)·「골짜기의 비가」(1979)·「초원의 종말Ⅰ」·「초원의 종말Ⅱ」·「초원의 종말Ⅲ」·「요정에게 기도를」(1981)·「더많은 빛을」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귀뚜라미의 외출』(1975)·『춤추는 무리들』(1976)·『아아 저 눈빛이』(1988)·『혼자 사는 여자』(1993, 합동 수필집) 등이 있다. 또 여행기 『걸음마로 돌아본 동남아』(1978)와 장편소설 「우리들의 한나는 왜 서울을 떠났나」가 있고, 시집으로는 『해 그림자』 등이 있다.

한국연극영화예술상을 수상했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 펜클럽 회원, 한국연기자협회 회원, 한국작가협회 감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원,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 회원을 역임했다.

1988년 결혼했다. 여동생 안순혜도 1989년 『문학과 의식』지에 수필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보다 원숙된 작품이 기대되는 시기에 위암으로 생을 마감한 후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安玉姬創作歌曲集, 『더 많은 빛을』, 『펜』, 1993 8.

3) 人間文化財

(1) 이석훈(李碩薰) : 1919~1980

인간문화재. 황해도 장단에서 태어나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시흥시 대야동 99에서 정착·거주하였다. 그는 14세 때 숙부 이근상(李根相)으로부터 화살촉의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47년간 종사하였으며, 화살촉의 재료는 충남 서산과 안면도 지방에서 신의주산 대나무를 구입하여 3, 4개월간 건조한 후 화살을 제조하였다.

1971년 9월 13일 국궁의 화살제조로 인간문화재 제47호로 지정받았다. 1980년 12월 11일 6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始興의 傳統文化』, 『始興郡誌』 上.

묘의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4) 言論人

(1) 팽원순(彭元順) : 1929~1993

언론인. 호는 평인(平人), 본관은 금릉(金陵)으로, 평양에서 출생했다.

1954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5년 동양통신(東洋通信) 외신부원을 거쳐 1959년부터 1970년까지 합동통신(合同通信) 외신부차장·외신부장·해외부장·국제국 부국장을 역임하고, 1970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되었다. 이어 1979년 일본 릿쿄(立敎) 대학 객원교수, 1984년 신문학회 회장, 1988년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장, 1989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총장을 지냈다.

저서에 『비교신문학(比較新聞學)』,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 『현대보도론』, 『언론법제신론』 등이 있다.

<참고문헌> 『韓國人名辭典』(1993).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산 5-1, 2 남대문교회 묘역에 있다.

(2) 이성표(李成杓) : 1933~1990

언론인·기업가. 본관은 전주(全州)로, 시흥시 도창동 366에서 출생했다.

소래국민학교를 거쳐 1959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 해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로 입사했다. 1971년 지방부 차장으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경제부 차장으로 전보되었다. 1978년 경제부장으로 승진된 후 1982년 2월 편집국 부국장대우 경제부장을 거쳐, 이 해 8월 편집국 차장이 되었다. 1982년 3월에 일간스포츠 편집국장을 역임한 데 이어 1985년 4월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보임되었다. 이듬해 1월 논설위원이 되었다가, 8월 일간스포츠 담당 상무이사를 거쳐 1987년 11월 한국일보 업무이사를 지냈다. 1988년 12월 언론계를 떠나 한국화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재직 중 1990년 5월 17일 향년 5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묘는 천안공원 묘지에 있다.



이성표.

<참고문헌> 「李成杓家狀」.

(3) 서철원(徐澈源) : 1933~1985

언론인. 본관은 대구(大丘)로 시흥시 논곡동 271에서 출생하였다. 영석(永錫)의 2남이다. 안산국민학교, 서울중앙 중·고교를 거쳐 1961년 홍익대학교(弘益大學校) 신문학과(新聞學科)를 졸업한 후, 이듬해 대한일보(大韓日報)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장을 지낸 뒤 1973년 사직하였다. 1974년 육영재단에 들어가 총무부장과 운영부장을 역임하고, 1980년 사직한 후 식품회사를 설립,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1969년에 한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신문상(韓國新聞賞)을 수상하였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묘는 시흥시 금이동 거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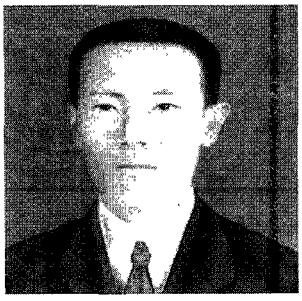
서철원.

<참고문헌> 「徐澈源家狀」.

5) 醫師·醫學者

(1) 김용채(金溶埰) : 고종 28년(1891)~1931

내과의사. 자는 성수(性壽), 호는 운암(雲巖),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



김용채(아들 김준권 제공).

흥시 화정동 72에서 출생했다. 준성(駿聲)의 아들이나 안산문묘(安山文廟) 직원 교성(敎聲)에게 양자했다.

한학자인 양부(養父)로부터 한학을 깨우쳐 시전까지 익혔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양부의 권유로 14세에 상경하여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퇴학하고 의학교에 입학, 1911년 스물일곱 명의 동기생들과 함께 졸업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한데다 졸업성적이 우수하고 인간성이 원만하여 누구에게나 좋은 인간상을 주어 내과교수인 미아 렌키치(森安連吉)에게 채택되어 조선총독부 의원 겸 통역생이 되었다.

1917년 일인들과 공학(共學)으로 의학전문학교로서의 졸업생이 나왔고,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임상을 거친 그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 1년간 유학하고 귀국, 24세 되던 1919년 서울 관수동 청계천변에 진료소를 내고 '김용채내과의원'으로 개업했다. 병원문을 열자마자 의외로 환자가 폭주해 개업한 지 1년여 만에 채무가 전부 은행에서 변제되었다. 당시 병원의 약방일은 유태익(劉泰翊), 회계는 김태권(金泰權)이었다. 왕진은 북촌(北村)거리에서 인력거를 타고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병은 대개 장티푸스로서, 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었다. 환자의 병실에 들어서서 냄새만 맡아도 장티푸스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서울시내에 만연되어 있다.

진료의 틈을 타서 한성의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한국의사들의 단합을 꾀함으로써 일본인 의사회인 경성의사회와 대립하였다. 1915년 안상호(安商浩)가 초대회장을 역임한 후, 제11대(1925)·12대(1926) 회장에 재임중 1925년경에 이른바 '홍원(洪原) 에메틴 사건'이 발생했다. 즉, 폐 디스토마 환자에게 집단 검진 후 집단치료를 하면서 강압적인 약물남용을 해 집단중독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치료한 의사가 모두 일본인 의사였으므로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고, 한성의사회에 진상보고서를 요구해 와 한성의사회에서 의사를 파견 현장을 조사한 후 에메틴 중독으로 단정, 보고했다. 이것이 의사회에서 공적 사건을 취급한 최초의 일이었으며, 20년간 개업을 하면서 새로운 의학을 신임케 한 그의 공로가 또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다.

개업하던 해, 과로로 늑막염을 앓던 국사학계의 태두였던 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가 그의 극진한 처방과 치료로 완쾌되었다. 그 후 이병도의 주치의가 되어 이병도는 그의 건강법을 잘 지켜 장수해 국사학자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운암은 1931년 위암으로 1년여 동안 투병하다가 이 해 12월 40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슬하에 일궐(馹權)·준권(濬權) 2남을 두었으나 일권은 일찍 타계했고, 준권의 5남 형민(炯珉, 1949~)이 카톨릭 의대를 나와 부천 성가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조업(祖業)을 계승하고 있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 성지골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醫學의 開拓者』, 『鄭求忠全書』, 『家乘譜』.

(2) 이용설(李容卨) : 고종 32년(1895)~1993

의학자·독립운동가. 호는 여천(與天), 본관은 전주(全州)로, 평북 희천(希川)에서 출생했다. 장로(長老) 재후(載厚)와 최재신(崔載信) 사이의 1남이다.



이용설.

숭실학교를 거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재학 중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지도자로 활약하다가 중국으로 망명, 베이징 협화의대(北京協和醫大)에서 2년간 수학한 후, 귀국하여 1922년 모교인 세브란스의전에서 조교수를 역임하다가 1925년에 도미하여 이듬해까지 뉴욕에 있는 병원(Hospital for Ruptured and Crippled)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끝내고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 의대에 편입, 졸업하였다.

1926년 귀국하여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취임한 후, 1937년까지 외과의(外科醫)를 많이 배출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형외과를 전공한 그는 이즈음 모교에 최초로 정형외과 전문과목을 창설했다. 그때 한 선교사의 소아마비로 인한 내번족을 수술하는 데 성공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어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양요한의 고관절 교정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자 더욱 명성이 높아졌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를 받은 후 광복이 되자 서울 견지동에서 개업을 했다. 군정이 실시되자 한국나환자협회 초대회장이 되었으며, 그 뒤 1948년 세브란스의대학장에 피임되었고, 이 해 동명학원(東明學園) 이사장이 되었다. 1950년 정계에 투신하여 2대 민의원(인천갑구, 무소속)에 출마, 당선되었고, 1955년 세브란스병원장을 거쳐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삼동소년촌 이사장(三同少年村理事長), 1965년 YMCA 이사장, 흥사단 이사장, 1968년부터 1981년까지 명휘원 이사(明暉院理事), 1971년 국제로터리 375지구 총재, 1973년 흥사단 이사장, 1974년 흥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1926년부터 남대문장로교회장을 지냈으며, 1985년 수당과학상(秀堂科學賞)을 받았다.

<참고문헌> 『韓國人名辭典』, 「뉴욕한국일보」, 1993. 9. 27.

묘는 시흥시 산현동 산 5-1, 2 남대문교회묘지에 있다.

(3) 임명재(任明宰) : 건양 1년(1896)~1973

의학자. 호는 우봉(又峰). 본관은 풍천(豊川). 서울 제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의대 전신)를 졸업한 후, 모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조교수로 봉직했다. 이어 안국동에서 '안동의원'을 개업하였으며, 일본인 의사단체인 경성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성의사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거쳐 대한의학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한편으로 대한내과학회 대한감염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특히 장경(臟經)분야에 개척자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동 김씨와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전 서울농대 이춘녕(李春寧) 교수가 그의 사위이다. 묘는 시흥시 장상동 138에 있으며, 묘비는 1983년 10월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任明宰墓碑銘」.

(4) 김용진(金溶瑨) : 광무 8년(1904)~1971



김용진(아들 김재권 제공).

치과의사. 호는 운초(雲樵),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서 출생했다.

1919년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1925년 4월 2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제1회)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 병원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치과의원을 개업했다. 광복 후 이 해 12월 16일에 열린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취임하여 일본인의 치과의원과 기계, 치대(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등의 접수와 치대의 국립대학 편입문제, 미군정 면허증 남발문제 및 일본인 치과기구 부정접수로 인한 치무국장 불신임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을 보았고, 그 후 1956년부터 2대에 걸쳐 동회 부회장을 지냈다. 이어 1947년부터 조선(대한) 치과의사회 3대·4대·7대 회장과 부회장을 거치는 동안 『조선치과계』, 『구강과회보』, 『대한치과의사회보』, 『대한치의보』 등 기관지를 발행하여 홍보노력에 진력하였고, 이어 의치일원화, 금(金)배급, 구강과로의과명개칭, 치무과

설치, 입치영업자에 대한 자격부여 반대, 제5회 아시아·태평양회의 유치, 학회지 발간과 1957년경에는 치과기재소비조합을 결성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1960년 7월에는 시흥에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 뒤 서울의대 치대 이사를 역임하고, 한편으로는 서울 종로 2가에서 김용진치과의원을 개업했다. 특히 문예에 일가를 이루어 「가을의 단상」(『치과계』, 1968. 10) 등의 수필이 있다. 3남 재권(在權, 1939~)이 서울 종로 관수동에서 김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으며, 재권의 1남 형우(炯宇, 1967~)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는 등 3대가 치과계에 봉직하고 있다.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 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金寧金氏家乘譜』, 『치계지』 1968, 『한국치과공론』 1966, 『치의신보』.

6) 法曹人

(1) 김의균(金宜均) : 고종 19년(1882)~1947

법조인. 본관은 김해(金海). 군자동 222에서 출생했다. 현광(顯光)의 3남 2녀 중 2남이나 12세에 금부도사 검업(儉業)에게 입양했다. 서울 배재학당을 거쳐 일본 메이지대(明治大) 법학부(法學部)를 졸업한 후, 27세 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한국인 최초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7년간 재임한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3·1운동 때에는 이시영(李始榮), 함태영(咸台永), 윤치호(尹致昊)와 조선부인회사건의 변론을 맡아 승소케 하였다.

한편으로는 교육계에도 심혈을 기울여 대구 희도보통학교(喜道普通學校)를 설립하였으며, 그 뒤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와 신명여고(信明女高)의 이사를 거쳐 동산병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광복 후 영남일보 사장을 거쳐 영남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이어 경상북도 초대지사로 재임(1945. 12. 23~1946. 12. 5) 중 10일 폭동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1947년에 사망했다. 광무 10년(1906) 정신여고 1회 졸업생인 이원향(李元鄕)과 결혼, 슬하에 5남 6녀를 두었다.

묘는 시흥시 군자동 산 17에 있고, 1979년 3월에 손자 성태(成泰)가 묘비를 세웠다.



김의균(손자 김성태 제공).

<참고문헌> 「金宜均墓碑銘」.

(2) 김용찬(金溶璨) : 건양 1년(1896)~1950

법조인.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너빌 출신이다. 돈령부 도정(敦寧府道正) 재우(在雨)의 손자로 영성(永聲)의 1남이며, 조흥은행 상무 용각(溶珏)의 백씨이다.

경성법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경성복심법원 판사, 경성지검 검사 등을 거쳐 광복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슬하에 4남을 두었는데, 1남 영권(英權, 1925~80)은 서울지검 서기관을 지냈고, 4남 효권(孝權, 1942~?)은 현대전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金寧金氏家乘譜』.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에 있다.



정중현(아들 정순덕 제공)

7) 行政家

(1) 정중현(鄭仲鉉) : 융희 2년(1909)~1994

<참고문헌> 『蓮城姓譜』, 「鄭仲鉉家狀」.

경찰관. 호는 남은(南隱),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시흥시 광석동 127에서 출생했다. 영의정(領議政) 인지(麟趾)의 15세손으로 재용(在容)의 아들이나 재찬(在瓚)에게 양자했다.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경찰에 투신하여 마포·남대문·동대문·중부·대구 경찰서장 등을 거쳐, 서울시경·치안국·전북경찰국·경남경찰국의 경무과장을 역임하고, 1960년에 다시 남대문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상훈으로 6·25 종군기장(1952), 공비토벌기장(1952), 은성무공훈장(1954)을 받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묘는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데, 광석동 나븐들마을 입구 노변에 1993년 광석동 주민들이 세운 공덕비가 있다.



이풍규(아들 이종오 제공)

(2) 이풍규(李豊圭) : 1911~1978

행정가. 본관은 전주(全州)로, 포동 68에서 출생했다. 문묘직원(文廟職員) 병희(炳熙)의 3남이다.

1943년 처음 공직에 몸담은 이래 1952년 부산체신청 경리과장을 거쳐

1959년 서대문우체국 과장, 1965년 광화문우체국 과장, 1968년 청주우체국장, 1972년 인천우체국장, 1976년 철도우체국장 등을 역임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묘는 시흥시 포동 새우개 학미산 아래에 있다.

<참고문헌> 『全州李氏益寧君派譜』, 「李豊圭家狀」.

(3) 이하성(李夏成) : 1911~1989

경찰관. 호는 두곡(杜谷), 본관은 전주(全州)으로, 시흥시 과림동 773에서 출생했다. 우태(宇泰)의 아들이다.



이하성(아들 이희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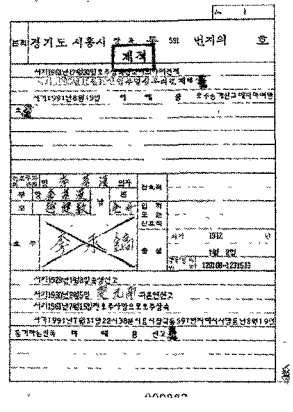
소래공립보통학교(현 소래국교)를 졸업한 후 무사독학(無師獨學)하여 경찰계에 투신하여 1945년에 여주경찰서장을 거쳐 개성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서대문경찰서장 등을 역임하였고, 이어 1957년 경기도경찰국 정보과장, 1959년 서울시경찰국 정보과장을 지낸 뒤 1967년 한국전력 운수부장을 지냈다. 그 후 1969년 다시 경찰에 몸담아, 이 해 경남도경국장에 재임하였다가 1972년 치안국 정보과장에 이르렀다. 1989년에 사망하였다.

슬하에 1남을 두었고, 묘는 시흥시 과림동에 있다.

<참고문헌> 「李夏成家狀」.

(4) 이영호(李永鎬) : 1912~1991

행정가. 본관은 전주(全州)으로, 장곡동 591에서 출생했다. 기한(基漢)의 아들이다.



이영호 호적.

1945년 2월 경기도 시행 판임문관(判任文官) 임용시험과, 1955년 7월 고등전형(高等詮衡)에 합격했다. 1930년대 과천면과 군자면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그 뒤 1940년 시흥군 고원(雇員)으로 내무과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1942년 4월 경기도 지방서기로 경성부(京城府)로 옮겼다. 광복 후인 1945년 7월 경기도 소속으로 농상부(農商部) 식량과(食糧課)에서 근무하다가 1948년 7월 인사심사원(人事審査員)이 되어 고시과 고시계장(考試係長)이 되었다. 이 해 9월 포천군 내무과장(內務課長)을 거쳐 1950년 4월 임시외자관리청 비서실 감사과, 1951년 8월 동 서울연락사무소 수석 주재관(駐在官), 1952년 10월 동 서울사무소장, 1956년 12월 외자청 경리국 심사과, 1957년 10월 동 서울사무소장, 1960년 6월 동 춘천

사무소장, 1961년 2월 동 경기사무소장, 이 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양군수(高陽郡守)를 역임했다.

1930년 민원남(閔元南)과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1991년 7월 31일 22시 38분 장곡동 591 자택에서 타계했다.

<참고문헌> 「李永鎬家狀」.

묘는 시흥시 장곡동에 있다.

8) 議會 議員

(1) 백남훈(白南薰) : 고종 22년(1885)~1967



백남훈 □

국회의원·교육자. 호는 해온(海慍), 본관은 수원(水原), 아명은 장손, 초명은 남훈(南勳)이며, 황해도 장연 출신이다. 아버지는 진모(鎭模)이다.

19세에 장연공립소학교를 마친 후, 이듬해 기독교에 입교하고, 광무 9년(1905) 9월 장연예수교회가 세운 광진학교(光進學校) 교사로 재직하며 김구(金九), 채원용(蔡元瑢)과 함께 장연군학무위원으로 선출되어 해서교육총회(海西敎育總會) 결성에 관여하였다. 24세에 상경하여 경신학교와 보성학교 1·2부 청강생을 마쳤다. 융희 3년(1909) 일본 유학의 길이 열려 14년간 동경에 머물며, 1913년 메이지학원(明治學院), 1917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경제학부를 고학으로 졸업하기 전후하여 학생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뒤 재일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에 중임되고, 1917년부터 재일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총무를 6년 동안 맡아보는 동안, 특히 1919년 2·8독립운동 때는 막후에서 실무를 거의 전담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광복 전까지 민족교육에 몰두하였는데, 진주 일신여학교, 부산 동래일신고등여학교를 거쳐 서울 오성학교 후신인 협성실업학교, 광신상업학교 등의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일제강점 말기에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지사적 교육자로 이름이 있었다. 광복과 함께 한민당(韓民黨)에 가담, 창당간부로 정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55년 민주당(民主黨) 발족 이래 최고위원으로 야당육성에 주력하다가 1960년 제5대민의원선거에 당선되어 8개월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후 1961년 신민당(新民黨) 전당대회 의장, 1963년 민정당(民政黨) 최고위원을 지냈다. 저서에 『나의 일생』이 있다.

묘는 시흥시 장하동 원뒤에 있다가 1987년 가을 모란공원묘지로 이장되었고, 묘비의 비문은 주요한(朱耀翰)이 찬(撰)했고, 글씨는 이기우(李基雨)가 썼다.

<참고문헌> 『나의 일생』, 『韓國人物五千年』, 『始興郡誌』 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白南薰墓碑銘」.

(2) 류지연(柳志淵) : 광무 10년(1906)~1976

도의원·행정가. 자는 거복(巨福), 본관은 문화(文化)로, 시흥시 목감동 324에서 출생하였다. 공조판서(工曹判書) 잠(潛)의 15대손이며, 아버지 상렬(常烈)과 어머니 김경희(金慶姬) 사이의 1남이다.

안산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휘문고보(徽文高普)를 졸업한 후, 1945년 광복이 되자, 이 해 11월 22일 제2대 수암면장에 임명된 후 1948년 4월 6일 사직하고, 이 해 5월 10일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 뒤 1952년 5월 5일 제6대 수암면장에 취임했다가 1956년 6월 25일 사직하고, 이 해 8월 13일에 시행한 초대 도의원선거(시흥군)에 출마하여 1만 3천 94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되었다.



류지연(아들 류문현 제공).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고, 1976년 4월 19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목감동 324 자택에서 사망했다.

묘는 시흥시 목감동 산 68에 있다.

<참고문헌> 「柳志淵家狀」.

(3) 김정렬(金正烈) : 융희 1년(1907)~1974

국회의원·법조인·행정가. 호는 묵헌(默軒), 본관은 경주(慶州)로, 시흥시 무지동 428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영복(永卜)인데 1923년 정렬(正烈)로 개명했다. 기독교인 동일(東一)과 김씨 사이의 5남매 중 1남이며, 14세에 결혼했다.

고향에서 천자문·중용·맹자 등 한학을 배운 후 서울로 올라가 1930년 양정중학을 졸업하고, 1933년 보성전문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서기로 임명되어 관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어 마산·부산·원주·수원 지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 광복이 되자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되어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학원통합연맹사건, 교련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고, 그 뒤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이듬해 인천시선거관리 위원장, 1951년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겸 인



김정렬(아들 김한경 제공).

천지원장에 재임 중 원만한 인격과 청렴한 기질, 성실한 직무열을 높이 산 몇몇 시의회 의원의 노력에 의해 1954년 1월 15일 제1차 인천시 의회에서 제2대 민선 인천시장에 임명되어 이 해 2월 20일 취임했고, 곧이어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인하공과대학후원회장, 인천체육회장으로 당선되었다.

1955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 위원장, 1956년 인천정락원(仁川正樂院, 한국음악협회 인천시지부 전신) 2대 위원장, 1957년 인천유도회(仁川儒道會) 초대회장에 각각 추대되었다. 1958년 직선시장에 출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강인한 업무추진력과 청렴결백한 품성이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결과였다. 시장으로 재임한 7년간 김포수원지, 배다리철문확장, 동원교, 인천교, 인천역사(仁川驛舍) 등 시 발전의 큰 획을 긋는 역사(役事)를 펼쳤다. 특히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인천뿌리찾기에 정열을 쏟았다. 이 해(1958) 국민회인천지부장 선거(보궐)에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시장에 재임 중 1954년 판자촌철거강행, 1955년 임명권자인 시의회에 대한 항의사건, 1960년 3·15 부정선거지시 항명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1960년 항명사건은 4·19 이후 시·도 행정기관에 불어닥친 서정쇄신의 바람으로 부정선거의 연류 유무를 떠나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긴급회의를 개최, 그의 결백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무죄(?)가 인정되어 1960년 심계원(현 감사원) 차장 겸 고등고시 전형위원이 되었다. 이 해 12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으나 낙선되어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1964년 4월 인천시 장자문기관인 시 행정협의회 남구지역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 해 11월에는 제1대 행정자문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어 1965년 인천시민헌장제정심의위원에 위촉되었고, 이듬해에는 서울 제2변호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1967년에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제1지구에 출마하여 공화당 류승원 후보를 893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 정계에 투신하여 소양강댐 공사비리, 이수근 사건, 향토방위법 등을 처리했고, 소속당인 신민당내 내무·법사 탄핵심판위원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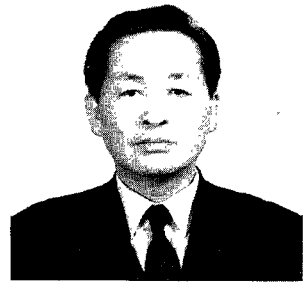
1974년 의원임기 1년여를 남겨 둔 채 칩거생활에 들어간 이후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인천시 남구 주안동 408에서 타계했다. 사회장으로 치러져 고향인 시흥시 무지동 은행동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기자가 본 국회의원』, 『인천공보』, 1955. 4. 4, 1959. 8. 1, 『주간인천』, 1955. 6. 4, 『인천일보』. 1992. 6. 5.

(4) 구경회(具慶會) : 1934~1991

도의원. 본관은 능성(綾城)으로, 시흥시 신천동 313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만서(萬書)와 어머니 류숙렬(柳淑烈) 사이의 1남이다.

소래국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농촌지도반 1기, 농협연수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통일연수원, 내무부 민방위학교 등을 수료했다.



구경회(아들 구자현 제공).

소탈한 성격에 책임감이 강한 그는 한평생을 지역주민을 위한 국민운동, 농민·농가를 위한 농촌운동과 농협운동, 내고장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과 의식개혁운동 등으로 일관했다. 특히 1961년 리동(里洞) 농협에서 출발,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영세농협을 1969년에 통합하여 소래농협 창립 초대 조합장으로서 오늘의 농협, 농촌부흥의 기초를 다지게 했으며, 1976년부터 국정홍보위원, 통일원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서 민방위교육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주민의식을 탄탄히 했고, 소래중·고 육성회장, 소래국교 개교 60주년 사업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의 꿈나무·청소년 교육에 진력했다.

한편으로는 수원지방 검찰청 선도위원·시흥지역 협의회장,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위원·시흥지역 협의회장, 시흥군사회정화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장 등으로 있으면서 청소년문제와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을 섰고, 그 밖에 한반위 자문위원, 시흥시 슈퍼마켓연합회 자문위원, 시흥시정자문위원, 시흥시 애향회장, 시흥시 발전추진협의회자문위원, 총무처 시흥시 행정상담위원, 시흥시 노인회 자문위원, 시흥시 태권도협회 고문, 시흥시 향도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모범적이고 살기좋은 지역건설을 위해 전심전력하였다.

1991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선거(시흥 제1선거구)에 출마, 당선되어 내무분과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 해 8월 31일 11시 40분 신천동 357 자택에서 향년 5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부인 심상간(沈相干, 1938~)과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고, 묘는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산 149에 있다.

<참고문헌> 「具俊會家狀」.

(5) 김용권(金容權) : 1935~1994



김용권(부인 이원자 제공).

시의원. 본관은 김해(金海)로, 시흥시 수암동 341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선돌(仙乭)과 어머니 함덕순(咸德淳) 사이의 1남이다.

그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20여 성상을 오직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일관했다. 1973년 수암면 수암리장을 거쳐 1977년 수암면 의용소방대장, 수암농협 이사, 1981년 시흥군정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1982년 안산국민학교 체육진흥회장, 1985년 안산중학교 육성회장 등을 역임하고, 1991년 3월 26일에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선거(시흥시 안산동)에 출마, 당선된 후 이 해 제6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992년 제9회 임시회 예산결단특별위원회 위원, 제12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제1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93년 제18회 임시회 공영개발구획정리특별위원회 위원, 제2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부인 이원자(李源子, 1941~)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1994년 4월 24일 20시 10분 수암동 181-5 자택에서 향년 5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金容權家狀」.

묘는 시흥시 화정동 시흥시 공동묘지에 있다.

9) 企業家

(1) 윤창식(尹昶植) : 고종 27년(1890)~1963

사업가. 호는 보당(保堂),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경기도 고양(현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3)에서 출생했다. 세종의 부마(駙馬)인 영천부원군(鈴川府院君) 사로(師路)의 18세손이고 좌찬성(左贊成) 득열(得說)의 12세손으로 태진(泰鎭)의 3남 1녀 중 1남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독선생(獨先生)으로부터 한학(漢學)을 수학하였고, 19세 때인 융희 3년(1909)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현 보성중·고)를 거쳐 1914년 보성전문(普成專門,

현 고려대학교)을 졸업한 후 항일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 후 순수한 민족자본을 육성하여 이 나라 자주경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경제인으로 변신, 근검과 절약으로 착실히 재력을 길러 나가는 한편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등과 함께 '조선산직장려계(朝鮮産織奬勵稧)'를 조직, 총무에 피임되어 국산품 애용운동을 폈는가 하면, 대한독립운동의 국내 기간 단체인 신간회(新幹會)의 임원으로서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적극 후원하였다.



윤창식(동화약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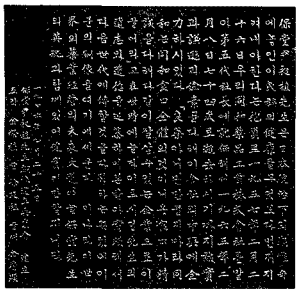
동화약품 안양공장 전경. 1994.

1937년 민족보건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 최초의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동화약방(同和藥房, 현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을 인수, 현대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당시의 동화약방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그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만주의 안동, 봉천, 신경, 북간도에까지 사세가 확장되었으며, 1942년에는 우리나라 제약업체로서는 최초로 만주에 분공장(分工場)을 설립하였다.

그는 최고학부를 다니면서 신학문을 익혀 일본어를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로 손님을 만나거나 자녀교육문제로 학교선생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통역을 내세웠을 만큼 그 혹독한 일제강점하에서도 절대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제로 실시,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도 끝까지 이에 따르지 않다가, 제약허가를 취소해 '동화'를 없애려고 하자 회사에 딸린 수백 명의 가족이 일순간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尹'자 뒤에 '村'자를 붙이는 것으로 창씨개명의 형식만을 밟은 후 땅을 치며 목놓아 통곡하였다고 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대한독립촉성회(大韓獨立促成會) 부위원장에 일시 재임한 후 서울시의원, 숙명여중, 고교의 재단이사장과 자선단체인 사단법인 '보린회(保隣會)'를 창립하는 등 조국갱생과 민생의 흥융(興隆)에 힘썼다. 1953년 휴전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의 차관으로 재기했을 때도 '민족기업으로서의 긍지는 순수 민족자본으로 일어설 때만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외국 차관의 도움을 끝까지 받지 않을 만큼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켰다.

그의 인격은 온고이지신(溫故而之新)의 깊은 교양과 하늘에 닿는 박애와 대승(大乘)의 지혜로써 일관하였으며, 집안에서는 선대에 효도와 후대의 애육(愛育)을 다해 온후한 가풍을 이루어 문중의 중시조(中始祖)라는



윤창식 동상 비문.

일컬음을 받았다.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늘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했으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칠전팔기(七顚八起)의 정신으로 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택시 한번 타지 않고 전차(電車)를 상용할 만큼 검소하였다. 회사에 자동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타고 다녀야지, 내가 타고 다녀서야 되겠느냐"며 전차 정류장에서부터 걸어서 회사에 출근하여 전 사원의 귀감이 되었다.

이렇듯 정열과 성실로 생활한 그는 "양약(良藥)이 아니면 만들지 마라. '동화'는 동화식구 모두의 것이니 온 식구가 정성을 다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기업으로 이끌어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3년 74세를 일기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135 자택에서 타계했다.

묘는 시흥시 조남동 산 46에 있고, 1976년 9월 26일 동화약품 창립 79주년을 맞아 동화약품 안양공장(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189)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이어 1982년에 세운 신도비의 비문은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가 찬(撰)하고 글씨는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이 썼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同和藥品社史』, 「尹昶植家狀」.

(2) 신현순(申鉉舜) : 고종 33년(1895)~1969



신현순 일가(중앙 : 신현순, 오른쪽 : 부인).

시흥 최초의 운수업자.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8통 6호(현 시흥시 금이동 462)에서 출생했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철균(哲均)의 2남이다.

1928년 포드 8인승 한 대를 구입하여 소사(素砂, 현 부천시)에 소신여객회사(素新旅客會社)를 창설하고 소사와 신천리(新川里, 현 시흥시 신천동)간을 운행하였다. 1931년 5월 1일에는 군포장(軍浦場, 현 안양시 호계3동)과 반월장(半月場, 현 안산시 건건동)간 노선허가를 받아 운행하였다. 이어 1932년 안양~군자간 도로가 완성되자 이듬해 12월 20일부터 시보레 12인승 두 대를 구입, 운행하였다. 소신자동차는 그 후 소신교통운수주식회사와 1979년 경원여객자동차로 분리되었다.

묘는 시흥시 금이동 도리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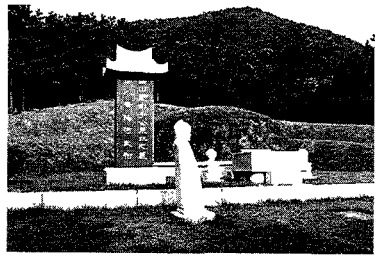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平山申氏族譜』, 『동아일보』, 1931. 6. 12, 1933. 12. 16, 1934. 9. 1.

(3) 이병각(李秉珏) : 광무 9년(1905?)~1971

기업가. 자는 백옥(伯玉), 호는 창산(昌山), 본관은 경주(慶州)로 찬우(纘雨)의 아들이며, 삼성(三星) 창업주 병철(秉喆)의 백씨이다.

하회봉(河晦峰)의 사위가 되어 그의 문하에서 수학, 회사를 경영한 데 이어 할아버지 홍석(洪錫)의 문집인 『문산집(文山集)』을 인출하였고, 이어 문산정(文山亭)을 증축하였다. 또 종중의 토지를 헌납, 자비로 동민의 계를 조직하여 길흉사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슬하에 1남(東熙) 1녀가 있다.

묘는 시흥시 수암동 옛 안산향교(安山鄕校) 위에 있고, 1974년에 세운 묘비는 이일해(李一海)가 찬(撰)하고 글씨는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이 썼다.



이병각 묘. 1994.

<참고문헌> 「李秉珏墓碑銘」.

(4) 문순모(文順模) : 1911~1983

기업가. 본관은 남평(南平)으로,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393(현 시흥시 죽율동 393)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창영(昌永), 어머니는 강달산(姜達山)이다.

소래국민학교를 거쳐 1931년 서울 중동중학교를 졸업한 후, 전매청 주안지소에 근무하다가, 1938년 복도조(福島組) 하역회사로 옮겼다. 광복 후인 1948년 한염해운주식회사(韓塩海運株式會社)를 설립하였고, 195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염전회사인 안산염전공업사를 설립하였다.

1952년 경기도해운조합 이사장에 피임된 뒤, 이듬해 10월 인천제도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1954년 인천상공회의소 초대 부회장, 1958년 대한항만운송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데 이어 1959년부터 1964년까지 5년간 경기도야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해 대한하역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후, 1968년 대한염업조합연합회 이사장, 1975년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위원장, 제물포라이온스클럽 회장, 1976년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협의회장, 1977년 인천하역협회 회장, 한국항만하역협회 부회장, 1978년 인천항 부두관리협회 이사, 1979년 인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1981년 한국항만하역협회 인천지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상훈으로 1976년 새마을훈장, 1977년 국민훈장을 받았다. 슬하에 5남 4



문순모(아들 문병하 제공).

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上, 「文順模墓碑銘」, 「文順模家狀」.

묘는 시흥시 정왕동 오동나무골에 있다가 시화지구사업으로 1990년 9월 18일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 산 132로 이장되었다.

(5) 류영렬(柳榮烈) : 1911~1986



류영렬 묘. 1994.

기업가·교육자. 호는 우석(又石)으로 본관은 문화(文化), 시흥군 동면 가리봉리(현 서울시 금천구 가리봉동)에서 출생했다. 사육신(死六臣)인 성원(誠源)의 후예이며 도승지(都承旨) 효립(孝立)의 10세손으로 아버지 인근(寅根)과 어머니 이성희(李聖姬)의 3남매 중 2남으로 태어났다.

소년기에 한학을 수학하고 유교의 진리를 체득하여 한말 암울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수난을 겪으며 교육만이 민족 번영의 첩경임을 깨닫고 육영사업에 뜻을 굳힌 후, 이에 실현을 위하여 청년기에는 실업계에 투신, 탁월한 사업능력과 근검절약으로 사학설립에 기반을 조성하여 1980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에 학교법인 운석학원(雲石學院)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安養女子商業高等學校)를 설립한 데 이어, 1984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운암학원(雲岩學院) 운암고등학교(雲岩高等學校)를 설립하였다. 이해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9년 이규희(李揆喜)와 결혼,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묘는 시흥시 장상동 동막골에 있고, 1988년 5월 27일에 세운 묘비는 성균관전례위원장(成均館典禮委員長) 강정희(姜正熙)가 찬(撰)·전(篆)·서(書)했다.

<참고문헌> 「柳榮烈墓碑銘」.

(6) 최정환(崔正煥) : 1917~1987

기업가. 본관은 경주(慶州)로, 시흥시 월곶동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 경성전기공업을 졸업한 후, 1952년 인천 시의원을 거쳐 1964년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1966년 인천시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1967년 중앙염색가공 사장, 1969년 경인직물 사장, 1970년 반공연맹 경기지부장·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삼정화학 사장·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972년 인천항부두관리협회장·신명여자고등학교 이사장, 1975년 경기도민간새마을단체협의 회장, 1976년 경기도 체육회 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1979년 실업탁구연합 회장·보이스카우트 중앙연맹이사·경기투자금융

이사 등을 역임했다.

슬하에 5남 2녀를 두었으며, 묘는 시흥시 월곶동에 있다.

<참고문헌>『始興郡誌』上.

10) 金融人

(1) 성한제(成漢濟) : 융희 3년(1909)~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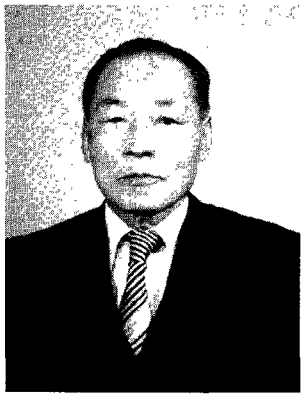
금융인. 호는 창당(倉堂),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백관(百寬)이다.

1932년 경성공립농업학교(京城公立農業學校)를 졸업하고, 이 해 3월에 조세제사에 입사했다가 9월에 부천군 농회기수에 피임되었다. 그 후 1937년 소사금융조합을 거쳐 1939년 만주국 길림성(吉林省) 흥농합작사에 일시 재직했다가 이듬해 만주국 길림성 농산물검사교역장 및 소장에 취임했다.

광복 후 1946년에 조선방직 총무과장을 역임하고, 1956년 시흥군 동면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 당선되어 의장에 피선되었다. 이듬해 안양읍 부읍장을 거쳐 1961년부터 1971년까지 10년간 시흥군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했다.

그 밖에 안양 삼성국민학교 육성회장을 비롯하여 안양 중·공업고등학교 이사와 안양상공회의소 초대의원을 지냈다.

묘는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있다.



성한제(아들 성시남 제공).

<참고문헌> 『昌寧成氏文孝公派譜』, 『始興郡誌』上, 『安養市誌』, 「成漢濟家狀」.

(2) 김용각(金溶珏) : 1912~1984

금융인. 호는 원강(源崗), 본관은 금녕(金寧)으로, 시흥시 화정동 55에서 출생했다. 진사(進士) 영성(永聲)의 4남이며 서울지검장 용찬(溶璨)의 아우이다.

1932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1940년 주식회사 동일은행에 입행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조흥은행 영업부장 대리가 된 후, 1954년 동대문지점 차장, 1956년 마포지점장, 1958년 종로지점장, 1960년 동대문지점장, 1962년 광



김용각(아들 김승권 제공).

화문지점장, 1963년 제일 관리부장, 1964년 관리역, 1965년 심사부장, 1966년 이사, 1968년 상무이사가 되었고, 1972년 3월 퇴임하였다.

<참고문헌>『鄕人記』,「金溶珏家狀」.

슬하에 4남을 두었으며, 묘는 시흥시 화정동 너빌 쑥개골에 있다.

11) 孝行者

(1) 조용순(趙容順) : 1928~



조용순.

효부. 본관은 임천(林川)으로 인천 광역시 남동에서 출생했다. 인식과 이씨의 3남매 중 막내이다.

17세 때(1945) 한봉기(韓鳳基, 1927년생)와 결혼했다. 남편 한씨는 청주 한씨 18대 장손으로 9세 때(1936) 동네 서당에 다녀오다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정신을 잃고 난 후 후천성 청각장애자가 되었다. 이후 한씨의 성격이 난폭하기 시작되었고, 대를 이을 장손이 졸지에 장애인이 되자 한씨의 아버지 한학동(韓學童, 1906~1992)도 이를 비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로 나날을 보냈다.

"얼굴도 모른 채 혼례식을 올리고서야 비로소 남편이 양쪽 귀 모두 듣지 못하고 말도 시원치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운명의 질곡에 수차례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는 곧 운명에 따르기로 했다. 그의 말대로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효행을 몸으로 보이게 된 것은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1981년이다.

"아버님이 제대로 화장실에 가시지 못하셔서 하루에도 수차례 대소변을 받아냈지만 옛 어른들도 다 하시던 일이 아닌가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시아버지의 건강유지를 위해 매일 2, 3회씩 더운물로 목욕을 시켜 주는 정성 어린 간호였다. 주위에 그의 효행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안양, 시흥에 있는 병원에 시아버지를 매번 택시로 모실 수 없어 손수레에 담요를 깔고 태워 다니면서부터이다.

"닉닉치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어른을 편히 모시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스러웠지요. 때로는 오랜 세월 기동 못 하는 시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992년 3월 24일 86세로 세상을 등지셨을

때는 좀더 잘해드리지 못한 한이 가슴을 메웠어요."

시아버지 생전에 그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매일같이 챙긴 일은 근처 산에서 주워 온 솔방울, 나뭇가지 등으로 아궁이에 군불을 때드리는 일이었다. 가정형편이 좀 나아지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연탄가스 냄새를 싫어하신 어른의 뜻대로 재래식 아궁이를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한편 재구실을 못하는 남편이 행여 소외감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 항상 웃고 상냥하게 존경하는 태도로 떠받드는 아내로 일관하면서, 남편을 도와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포도행상를 하면서 식구들을 건사해 오던 중 지난 1968년에는 막내아들 기석(起錫, 1967~)이 척추를 앓은 끝에 불구가 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절망하지 않고 가세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을 달래고 설득시켜 1974년부터 야산 7천여 평을 개간, 배나무 30여 그루와 포도나무 700여 그루를 심어 일구면서 생활의 여유를 찾아 나갔다.

그는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머니의 본을 받아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갸륵한 희생정신과 효행이 널리 알려져 제20회(1992. 5. 8) 어버이날을 맞아 정부가 포상하는 201명의 포상자 가운데 효행자 149명 중 가장 큰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 「조용순 효행공적조사」, 『중앙일보』, 1992. 5. 8, 『한국수도권일보』, 1992. 5. 8, 『서울신문』, 1992. 5. 8, 『기호일보』, 1992. 5. 9, 『한양일보』, 1992. 5. 9, 『중부일보』, 1992. 5. 10.

(2) 이사래(李四來) : 1933~



이사래.

효부. 본관은 경주(慶州)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8 출신이다. 은봉(銀奉)의 5남매 중 2녀이다.

1952년 20세에 시흥시 방산동 457에 거주하는 최창식(崔昌植, 1933~)과 혼인하였다. 어려운 가정 살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도록 91세의 시아버님 최영필(崔永弼, 1901~)과 신경쇠약증에 걸린 시어머님 이일만(李日萬, 1904~), 그리고 신체불구인 남편을 극진한 효성과 정성으로 보살펴 온 그녀의 삶은 효행 그 자체의 실천이었다.

그녀가 갓 20세에 시집왔을 때는 시집살림은 빈한했고, 시누이 셋과 시동생 둘이 있는 대가족이었다. 전쟁이 나자 남편은 군에 입대를 했고 집안살림은 새댁인 그녀가 꾸려 나가야 했다. 농삿일에 집안 대소사(大小

事) 모두가 그녀의 책임 아래 놓였다. 당시의 농촌살림이 대체로 그랬지만, 그녀의 집 역시 하루 한 끼의 끼니가 걱정이었다. 시부모와 어린 시동생들의 끼니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시어른 모르게 자신은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시어른 내외의 밥상은 어김없이 챙겨드렸다. 남편이 제대를 하자 집안은 잠시 생기를 찾는 듯했다. 소래염전을 다니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 잠깐이었다. 남편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고 손바닥만한 농토마저 병원비로 날아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맨몸으로 집안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다. 품앗이로 번 곡식으로 시부모를 봉양해야 했고, 땔감을 구하러 산자락을 헤매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이 40년 넘게 계속되었다. 비록 생활은 어렵고 고됐지만, 그녀의 시부모 봉양의 정성은 극진하기만 했다. 늙은 시부모님이 행여 무료하게 지내실까봐 바쁜 농삿일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인근 경로당에 모셔드렸다. 연로하신 시어른이 병환이 들면 2리가 넘는 논둑길을 따라 약을 지으러 다녔다. 신경쇠약에 노망기가 겹친 시어머님의 대소변을 아침저녁으로 받아내야 했고, 정신안정을 위해 매일 한 번씩 산보를 시켜드려야 했다.

며느리의 효성이 극진했던 탓인지 시어른 내외의 병도 많이 호전되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나날을 보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세 명의 시누이와 두 명의 시동생을 출가시켰고, 4남매를 건강하고도 바르게 키워 모두 열심히 제 삶을 살게 뒷바라지했다. 한 뼘의 땅도 없는 집안에 재산을 불려 논 1천 700평에 280평의 포도밭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되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남매들의 우애 있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는 지난 어려웠던 삶이 남의 생활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녀는 틈틈이 늙으신 시부모님 앞에서 성경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한다. 포도밭 단지에서 포도 한알 한알을 거둬들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만이 수확의 고마움을 안다는 것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40여 년을 불구의 남편과 병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자녀를 키운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하늘이 이나마의 풍요와 사랑을 안겨 주고 있음을 그녀는 늘 고맙게 여긴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쉽고도 명쾌한 교훈을 늦게나마 깨닫고 40여 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효성과 지성으로 남은 여생을 살

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참고문헌> 삼성미술문화재단, 『第28期('92) 事業報告書』.

(3) 김순옥(金順玉) : 1942~


김순옥.

효부. 본관은 부안(扶安).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 아버지 봉은(奉殷)과 어머니 김덕칠(金德七) 사이의 무남독녀로, 장연 용정국민학교 2학년에 재학중 1950년 한국전쟁 때 남하하여 시흥시 방산동 778에 정착했다.

어려서 부터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가사를 돕다가 24세 때인 1966년에 은행동 거주 조기복(趙基福, 1936~ , 은행동 154)과 중매로 결혼했다. 딸의 결혼으로 친정 부모가 노령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자 남편과 시부모를 설득하여 친정 부모를 옆집으로 이주시켜드리고 조석으로 식사수발을 하였다. 1989년 친정 아버지의 사망으로 홀로 된 친정 어머니가 급격한 노쇠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의 활동마저 어렵게 되자 식사수발은 물론 목욕을 시켜드리고, 아침마다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또 가정사정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약을 해 드리고 매일 한 시간 이상 어머니를 부축하여 산책하는 등 정성이 지극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없이 임대 농사로 가계를 이끌던 남편이 49세 되던 1985년 뇌경색으로 좌반신 마비 및 지능저하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3년간이나 전국의 유명한 의원 10여 곳을 찾아 다니며 침술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자력으로 대소변, 식사 등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 및 식사수발을 10여년 간이나 계속했다. 남편의 뇌경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집을 개조하여 조그마한 잡화상을 운영하여 1남 4녀를 모두 고등교육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 건전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부모가 다니는 시흥시 은행동 은행4통 노인정에 떡·음료수·과일 등을 명절 때 마다 제공하는 가 하면, 자신의 잡화상에서 소래중 정문에 이르는 100여 미터를 청소하여 소래중 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부모를 사랑과 존경으로 극진히 모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부부상을 확립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온 공로로 1995년 5월 8일 제2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4) 경인자(慶仁子) : 1944~



경인자.

효부. 본관은 청주(淸州)로, 서울 영등포구 신월동 573에서 출생했다. 영현(英顯)과 원옥임(元玉妊) 사이의 2남 2녀 중 1녀이다. 23세 때(1966) 반남(潘南) 박씨 오창공(梧窓公), 박동량(朴東亮)의 15대 며느리로 들어왔다.

경여사는 신혼부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50년 전 산후 조리가 나빠 수족퇴화로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어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효성스러운 경여사는 어머니 잘 모셔 줄 것을 결혼조건으로 청혼을 받았다. 언니를 통하여 청혼을 받은 경여사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며 농부생활을 하는 박천수(朴天洙, 1940~)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효성스러운 마음씨에 끌려 선뜻 결혼에 응하였다. 경여사는 시집온 다음날부터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이 가정을 따뜻하고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낯선 시집살이, 익숙치 못한 농가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시어머니의 경험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경여사는 김치를 담그더라도 시어머니에게 맛을 보게 하여 그 간과 맛에 따라 담았다. 식구들도 어머니 솜씨와 꼭같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경여사는 지혜를 깨달았다. '오라, 바로 이것이 시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하고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후부터는 나물 무치고 장 담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농사 파종과 밭에 나가 일하는 것까지 모두 시어머니와 의논하여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논 1천 600평, 밭 2천 400평의 농사를 지으며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남편은 일 잘하고 착한 심성으로 효도하는 경여사에게 농가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경여사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생겼다. 1970년 4년간의 투병생활을 하던 시숙께서 어린 4남매를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상심한 마음은 하늘에 닿았다. 조석을 끊고 앓아누웠다. 아무리 위로해 드려도 상심한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경여사는 큰집 네 명의 조카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제서야 겨우 식음을 들며 일어나 앉으셨다. 다음엔 또 시아버지께서 큰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고혈압이 도져 앓아눕게 되었다. 경여사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완쾌시켰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경여사가 대견했다. 가정을 따뜻하게 꾸려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경여사가 자랑스러워서 힘든 농삿일을 잘 도와 주었다. 그러다가 1973년, 개간한 밭에서 풍성하게 수확한 포도를 싣고 나가셨던 시아버지께서 또 다시 고혈압이 도져 그만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의 상심은 더 커졌다. 불편한 몸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궁금한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 경여사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들에서 자라는 곡식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가서 직접 보게 하며, 수확한 농작물은 시어머니의 무릎에 놓은 후 작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추곡한 곡식의 수매도 일일이 말씀드리며 받은 돈은 시어머니께 보게 한 후 가용에 썼다. 경여사는 가사에 일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의견을 들어서 받들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근심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굳게 믿고 있다.

경여사는 또 시어머니에게 아침저녁으로 옷을 입혀드리고 갈아입히며 언제나 가리마 반듯한 머리손질을 하여 항상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히고 정하게 생활하도록 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고부간에 큰소리 한번 없었다는 시어머니 윤씨 할머니는 언제 보아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경여사의 효성을 받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다가 1991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경여사는 하얀 고무신 깨끗이 닦아 신고 손수 걸어 나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이 큰 여한이라며 말을 잊지 못한다.

이러한 경 여사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삼성미술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2회(1986) 효행상을 수상했으며, 남편 또한 효자로 1986년 어버이날에 보사부로부터 효행상을 받았다.

<참고문헌> 삼성미술문화재단, 『孝行賞』 1986, 『始興郡誌』 上.